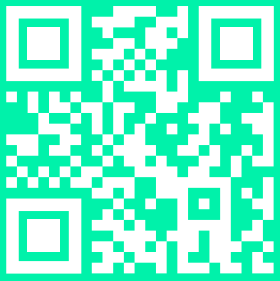
GYEONGGI-DO PUBLIC DESIGN GUIDELINE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디자인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



디자인경기에서 바로 보기

QR코드를 스캔하여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더 다양한 디자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YEONGGI-DO PUBLIC DESIGN GUIDELINE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제출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6. 5.

이오디 디자인 연구소

가이드라인 기준

POINT 1

비전과 목표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항목별 가이드라인 판단 기준의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비전

디자인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

목표

지속가능한 공공의 가치를 도민의 일상에 연결하다

의미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공간과 행정서비스 전반의 기본 기준으로 적용하여 도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함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POINT 2

3원칙

실행중심·지역맞춤·미래대응의 관점으로 가이드라인 중분류별 기본방향과 세부지침을 도출합니다.

원칙 01

실행중심

원칙 02

지역맞춤

원칙 03

미래대응

공공디자인 원칙이란

비전과 진흥계획의 전반적인 실행방안의 연결기반을 마련하는 경기도 공공디자인만의 전략 도구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은 그 방향을 **실제 설계·시공·심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전·3원칙·4전략으로 구체화합니다.

POINT 3

4전략

진흥계획의 시범사업 방향과 연결하여, 사업 기획과 공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적용 관점을 제시합니다.

전략 01
일상을 돌보는 경기도

전략 02
가치를 키우는 경기도

전략 03
경계를 잇는 경기도

전략 04
미래를 여는 경기도

POINT 4

SDGs

확장해보기 파트와 연계하여, 공공디자인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략 01 **일상을 돌보는 경기도**



전략 02 **가치를 키우는 경기도**



전략 03 **경계를 잇는 경기도**



전략 04 **미래를 여는 경기도**



가이드라인 사용법

STEP 1

네비게이터 → 10

기획, 설계부터 심의까지 필요한 내용을 항목별·목적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네비게이터 목차를 확인합니다.



가이드라인 네비게이터

분류	코드	항목	심의	자문	세부항목	❶ 가이드라인	❷ 확장해보기	❸ 체크해보기
A 공공공간								
기반공간	A01	차도	●	●	차도/교차로/속도저감시설	20	195	235
	A02	보도	●	●	보도	24		236
	A03	자전거도로	●	●	자전거도로	26		237
	A0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9		238
	A05	횡단보도	●	●	횡단보도	32		239
	A06	공개 진입공지	●	●	공개 진입공지	41		240
공원 및 휴양공간	A07	생활광장형	●	●	자전광장/도시공원/어린이공원/광지광장 등	44	196	241
	A08	주제광장	●	●	수변광장/체육광장 등	47		242
	A09	자연휴양공간	●	●	휴양림/수목원/식물원/생태원 등	50		243
	A10	광장	●	●	광장/공공건축물 부설광장/분수광장 등	53		244
	A11	수변휴양공간	●	●	저류지/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하천 수변공간 등	55		245
B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B01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	●	공공기관 청사	61	198	246
	B02	소방서	●	●	소방서	63		247
	B03	교육·연수시설	●	●	공공교육·연수시설	65		248
문화·복지시설	B04	문화시설	●	●	박물관/미술관/공연·전시장/정보 기념관 등	67	201	249
	B05	의료·복지시설	●	●	복지시설(노유자시설포함)/의료시설 등	69		250
	B06	체육시설	●	●	체육관·경기장 등	71		251
교통·환경시설	B07	터미널	●	●	터미널	73	208	252
	B08	환경·순례기 처리시설	●	●	상하수도시설/쓰레기소각장/멸시설처리시설	75		253
	B09	공중화장실	●	●	공중화장실	76		254

STEP 2

가이드라인 → 20

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 항목별 기본·확장 지침을 확인합니다.



A02 확장해보기 → 218 체크해보기 → 256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도와 분리된 도로의 부분

심의대상 확인 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의 순환 구조에 따라
가이드라인-확장해보기-체크해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항목이나 업무·사업 단계별 내용을
네비게이터 목차에서 찾아보세요.

CHECK POINT
PDF 보기 > **두 페이지 보기**를 활용하면
보고서를 더욱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STEP 3

확장해보기 →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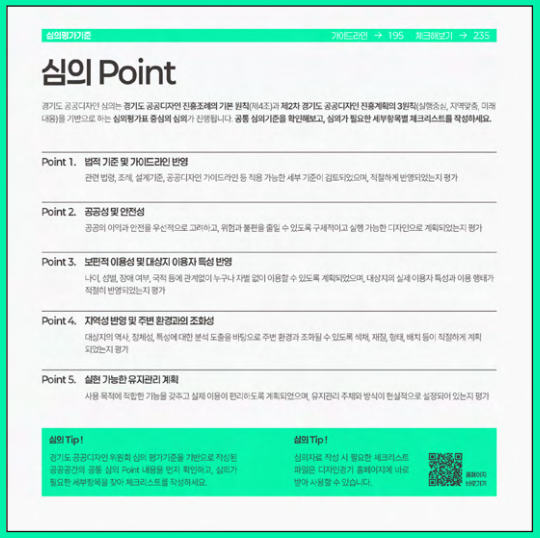
사업 기획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아이디어와
설계·시공 사례를 살펴봅니다.



STEP 4

체크해보기 → 255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 평가의 중점 포인트 및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가이드라인 네비게이터

A 공공공간						① 가이드라인	② 확장해보기	③ 체크해보기
분류	코드	항목	심의	자문	세부항목			
가로공간	A 01	차도	●	●	차도/교차로/속도저감시설	20	224	260
	A 02	보도	●	●	보도	23		261
	A 03	자전거도로	●	●	자전거도로	28		262
	A 0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32		263
	A 05	횡단보도	●	●	횡단보도	34		264
	A 06	공개·전면공지	●	●	공개·전면공지	37		265
공원 및 휴양공간	A 07	생활권공원	●	●	자연공원/도시공원/쌈지공원/어린이공원	44	226	266
	A 08	주제공원	●	●	체육공원/수변공원 등	48		267
	A 09	자연휴양공간	●	●	휴양림/수목원/식물원/생태원 등	51		268
	A 10	광장	●	●	광장/공공건축물 부설광장/분수광장 등	55		269
	A 11	수변휴양공간	●	●	저류지/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58		270
B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B 01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	●	공공기관 청사	66	228	271
	B 02	소방서	●	●	소방서	69		272
	B 03	교육·연수시설	●	●	공공교육·연수시설	72		273
문화·복지 시설	B 04	문화시설	●	●	박물관/미술관/공연·전시장/홍보·기념관 등	78	230	274
	B 05	의료·복지시설	●	●	복지시설(노유자시설포함)/의료시설 등	81		275
	B 06	체육시설	●	●	체육관·경기장 등	84		276
교통·환경 시설	B 07	터미널	●	●	터미널	90	232	277
	B 08	환경·쓰레기 처리시설	●	●	상하수도시설/쓰레기소각장/음식물처리시설	92		278
	B 09	공중화장실	●	●	공중화장실	95		279

네비게이터 Tip !

각 항목의 단계별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 확인해보세요.

C 도로기반시설물						① 가이드라인	② 확장해보기	③ 체크해보기
분류	코드	항목	심의	자문	세부항목			
도로 시설물	C01	교량		●	교량(철교 포함)	104	234	280
	C02	고가차도		●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106		281
	C03	입체교차로		●	입체교차로	108		282
	C04	지하차도		●	지하차도	110		283
	C05	지하보도		●	지하보도	112		284
	C06	터널		●	터널	114		285
	C07	생태통로		●	생태통로	116		286
도로부속 시설물	C08	보도육교		●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122	236	287
	C09	방음벽		●	방음벽	124		288
	C10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126		289
	C11	낙석방지망		●	낙석방지망	129		290
	C12	석축 및 옹벽		●	석축 및 옹벽	131		291
교통기반 시설물	C13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	지하철 출입구 / 환기구(흡·배기구) / (경)전철 관련 설치물	136	238	292
D 공공시설물								
대중교통 시설물	D01	버스승차대	●	●	버스승차대	144	240	293
	D02	자전거·PM거치대	●	●	자전거거치대	146		294
	D03	신호등	●	●	-	148		295
보행안전 시설물	D04	볼라드	●	●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154	242	296
	D05	펜스·가드레일	●	●	펜스(교량·자전거도로용 포함)/가드레일	156		297
	D06	가로등·보안등·공원등	●	●	가로등(보안등 포함)/보행유도등/공원등	159		298
	D07	트렌치	●	●	배수구덮개	161		299

D 공공시설물						① 가이드라인	② 확장해보기	③ 체크해보기
분류	코드	항목	심의	자문	세부항목			
편의 시설물	D 08	벤치	●	●	벤치	166	244	300
	D 09	그늘막·파고라	●	●	파고라(쉘터 포함)	169		301
	D 10	휴지통	●	●	휴지통	171		302
	D 11	음수대	●	●	음수대	173		303
	D 12	가로판매대	●	●	가로판매대	175		304
	D 13	무인 키오스크	●	●	무인 키오스크	177		305
	D 14	안내소	●	●	인포메이션부스/관광안내소	179		306
	D 15	안내시설물	●	●	안내표지판/현수막게시대/지정벽보판 등	181		307
공급 시설물	D 16	맨홀	●	●	맨홀	187	246	308
	D 17	배전함·제어함	●	●	배전함/가로등제어함	189		309
	D 18	방재시설·제설함	●	●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191		310
	D 19	방범용 감시카메라	●	●	방범용 감시카메라	193		311
녹지 시설물	D 20	가로수보호대	●	●	가로수보호대	199	248	312
	D 21	가로화분대	●	●	가로화분대	201		313
E 공공매체 및 용품								
공공매체	E 01	정보매체	●	●	교통관련 표지판/이정표/지하철노선도/주차장 안내/공공기관 안내/자전거도로 안내/보행관련 방향 안내/도로·건물 안내/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영상정보·환경정보표지/도로교통표지/디지털영상매체/공사장출입구/공사장안내판/임시가림벽 등	209	250	314
	E 02	공공미술	●	●	환경·상징조형물/벽화/슈퍼그래픽/미디어아트	212		315

D 공공시설물						❶ 가이드라인	❷ 확장해보기	❸ 체크해보기
분류	코드	항목	심의	자문	세부항목			
공공매체	E 03	정보매체	●	●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그림문자·지도·서체 등/ 도시 브랜드 상징 이미지(CI·BI·캐릭터·서체 등)/문양 등	214	250	316
공공용품	E 04	공공용품	●	●	안전(피난·구호)장비/공중위생(차량·피복등)장비/사무용품/장애인 및 공공영유아용품/기념품(공공 공예품 등)	220	252	317

1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항목별 기본 원칙과 적용 기준 확인

A 공공공간 16

B 공공건축물 62

C 도로기반시설물 100

D 공공시설물 140

E 공공매체 및 용품 205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닌
“판단”을 돕는 기준

A

공공공간

가로공간 18

공원 및 휴양공간 42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하는 공공영역으로
이동과 휴식, 교류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속 주요 공간

A 01-06

가로공간

보행, 차량,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이 이루어지며 주변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머무름이 함께 형성되는 도시의 생활 공공공간

A01 차도 20
차도 / 교차로 / 속도저감시설

A02 보도 23
보도

A03 자전거도로 28
자전거도로

A0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32
어린이(노인)보호구역

A05 횡단보도 34
횡단보도

A06 공개·전면공지 37
공개·전면공지

A 01-06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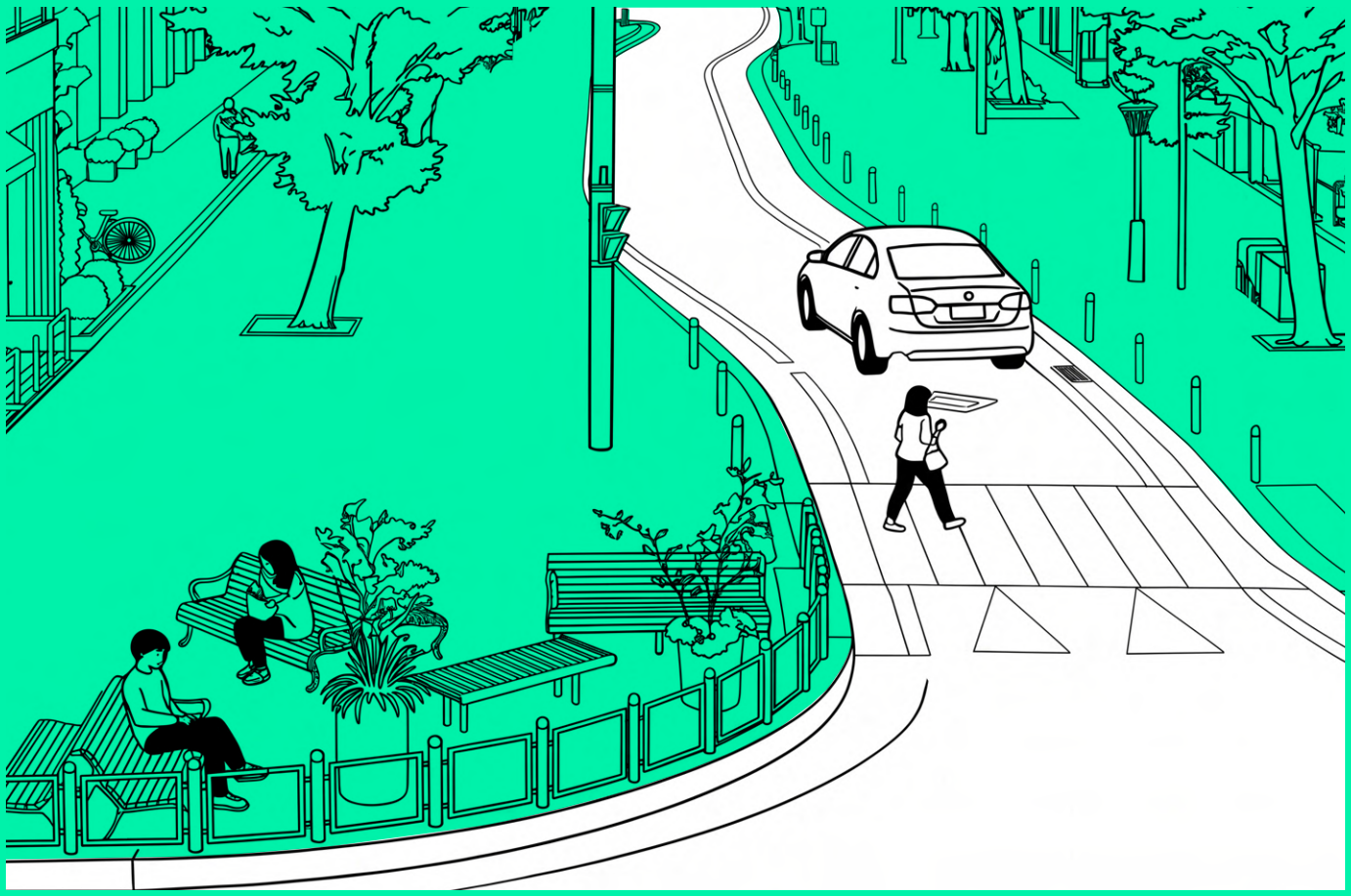
- **실행중심** 보행, 차량, 자전거의 이동이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공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 **지역맞춤** 지역별 이용 행태, 교통 여건, 주변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장소에 맞는 가로공간으로 조성한다.
- **미래대응** 기후 변화,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다

차도

자동차 등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며 보도와 구분되는 도로의 부분

심의대상 확인 **차도 / 교차로 / 속도저감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 도로교통공단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명확한 이동 질서 :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도로 설계

- 생활도로, 보호구역, 교차로 주변 등 보행자와 차량이 교행하는 구간은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도로 구조로 계획한다.
- 지그재그형 선형, 차도 폭 축소, 고원식 교차로, 포장면 패턴·표면처리 등을 활용하여 속도 저감을 유도한다.
- 속도 저감시설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 포장재, 색채, 조명 등과 함께 계획한다.



안전한 도로 : 차량과 보행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는 도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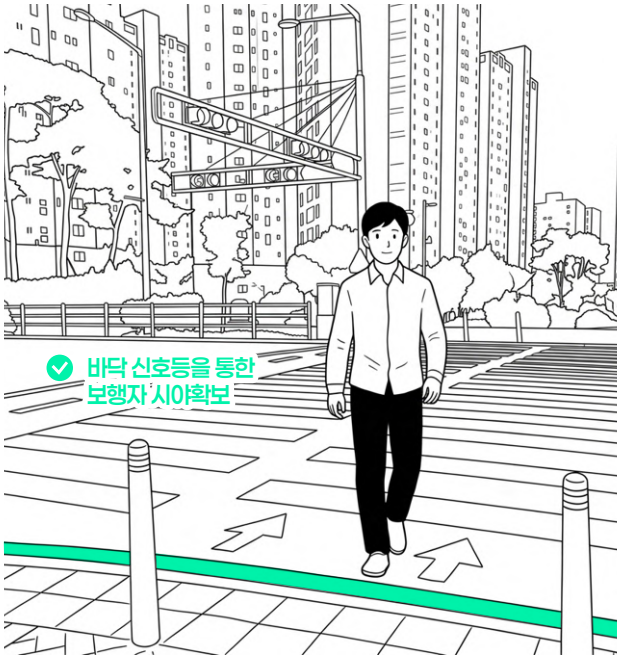
- 직진, 우회전, 좌회전, 유턴 등 교통 동선이 혼재하는 구간은 차로 구성, 노면표시, 유도선을 활용하여 구분한다.
- 차도와 보도는 경계석, 식재대, 안전펜스, 볼라드 등을 활용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거나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도와 중첩되는 차량 진출입부는 바닥 색채와 재질을 구분하여 진입 구간을 명확히 하고, 보행자가 차량 출입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안전시설을 적용한다.



지그재그 선형	시케인(chicane)이라고도 하며,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곡선이나 직선 형태로 꺾어지도록 만든 도로 형태
차도 폭 축소	초커(choker)라고도 하며, 도로 가장자리나 도로 중앙을 좁혀 차량 속도를 낮추는 기법
고원식 교차로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 자동차 감속을 유도하는 교차로
패턴·표면처리	운전자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석재블록(사고석 등)을 설치하거나 일정간격으로 표면 홈을 파내는 기법(그루빙)

교차부 안전성 강화 :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

-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야간에도 보행자가 횡단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투광등 및 가로등 설치를 검토한다.
-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가각부, 버스정류장 주변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우선으로 계획한다.
- 부피가 큰 구조물, 과도한 식재, 불법 주정차,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버스정류장과 환승지점 등 이용 밀도가 높은 구간은 교통약자의 접근, 대기, 승하차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 교통안내표지, 신호기, 조명시설 등은 가능한 단일 지주에 통합 설치하여 보행공간의 혼잡을 줄이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크기와 위치로 계획한다.
- 가로등, 투광등, 바닥 신호등 등을 적용해 안전을 확보한다.



도로공간 활용 : 차도와 도로변 여유 공간을 활용한 가로활성화

-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검토하여 과도한 차로 폭, 불필요한 회전반경, 여유 차도공간은 **도로 다이어트**로 조정한다.
- 확보된 공간은 보행공간, 대기공간,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등으로 전환하여 가로의 안전성과 이용성을 함께 높인다.
- 도로변 주차공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파크렛**, 보행쉼터, 임시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도로 다이어트 기존의 차로 수 또는 차도 폭을 줄여 보행자를 위한 보도공간, 자전거도로, 녹지, 대기공간 등을 확보하는 도로 재구성 기법

파크렛(Parklet) 도로변 주차공간이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가 머물 수 있는 소규모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공간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분

심의대상 확인 **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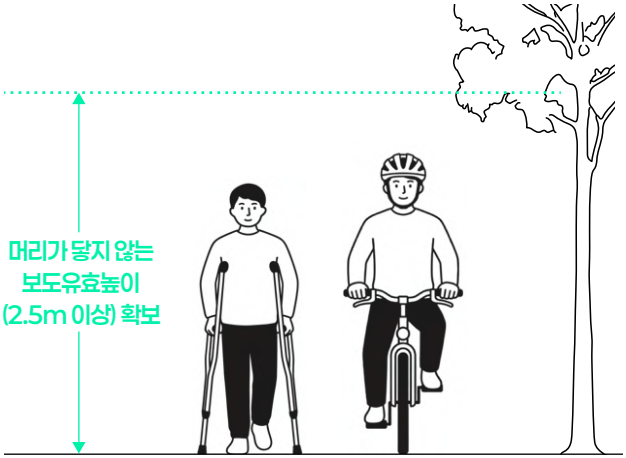
보행 유효폭 확보 :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폭

- 모든 보행자가 서로 지나가거나 나란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도로 여건상 2.0m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1.5m이상을 확보하고, 1.5m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공간을 마련한다.
-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 혼잡도를 고려하여 2.0m보다 여유 있는 폭원을 확보한다.
- 가로시설물은 보행 유효공간을 침범하지 않게 보도 외측 , 보행장애물존, 공개공지, 유휴공간 등에 통합 배치한다.



보행 장애요소 최소화 : 보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보행환경

- 간판, 수목 가지, 돌출물 등으로 인한 보행 단절 구간이 없도록 2.5m 이상의 **보도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걸림과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규칙한 시설물, 불법 광고물, 돌출 안내사인 등은 정비한다.
- 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 중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전지와 시설물 관리를 시행한다.



보도 유효폭	시설물, 가로수, 전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폭
보도 유효높이	보행자가 머리나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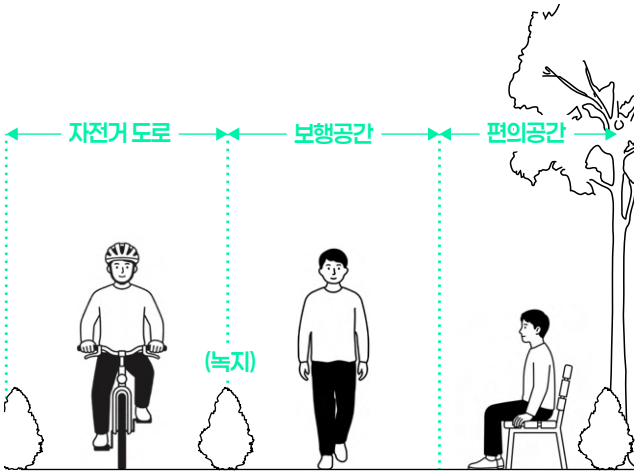
보행자 안전 확보 :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는 구간의 안전 확보

-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검토한다.
- 차량 통행폭 외 최소 2.0m 이상 보도 유효폭을 확보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행 방식과 공간 구조를 함께 조정한다.
- 바닥 색채, 재질, 포장 패턴 등을 활용하여 차량 통행공간과 보행공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 상업지역의 보차혼용도로는 입간판, 판매대, 적치물 등의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보행에 방해가 없도록 관리한다.



명확한 보행 동선 : 보행공간과 편의공간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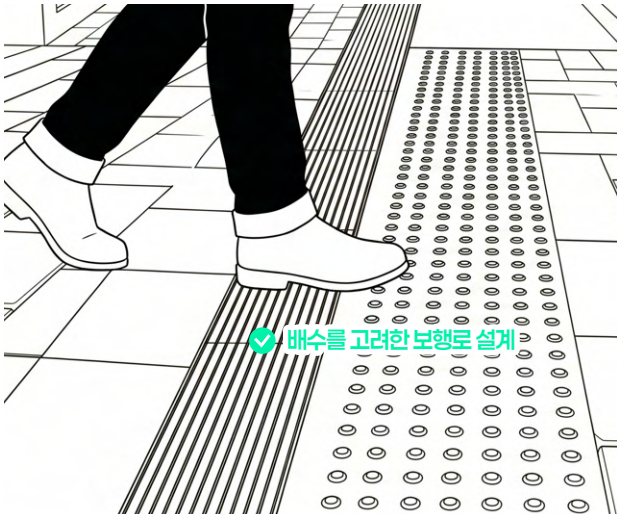
- 보도 내 편의시설물, 자전거도로 등은 보행 장애물존, 자전거도로, 보행공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배치한다.
- 보행동선은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편의시설물이나 자전거도로가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와 차량 진출입이 발생하는 구간은 바닥 재료, 색상, 안내표시 등을 활용하여 주의구간임을 나타낸다.
- 보도 내 편의공간은 보행 동선과 충돌하지 않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보차혼용도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통행하는 도로

평탄하고 안전한 포장 계획 :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보행 공간

- 보도 포장은 **미끄럼 저항**이 있는 재료를 적용하여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포장 마감은 급격한 횡경사, 단차, 파손,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계획하고, 보도블록 설치 시 줄눈과 간격을 균일하게 시공한다.
- 우천 시 물 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와 배수체계를 함께 검토한다.
- 유지보수와 부분교체가 가능한 재료와 시공방식을 적용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쾌적한 가로 체감공간 형성 : 그늘과 녹지가 있는 보행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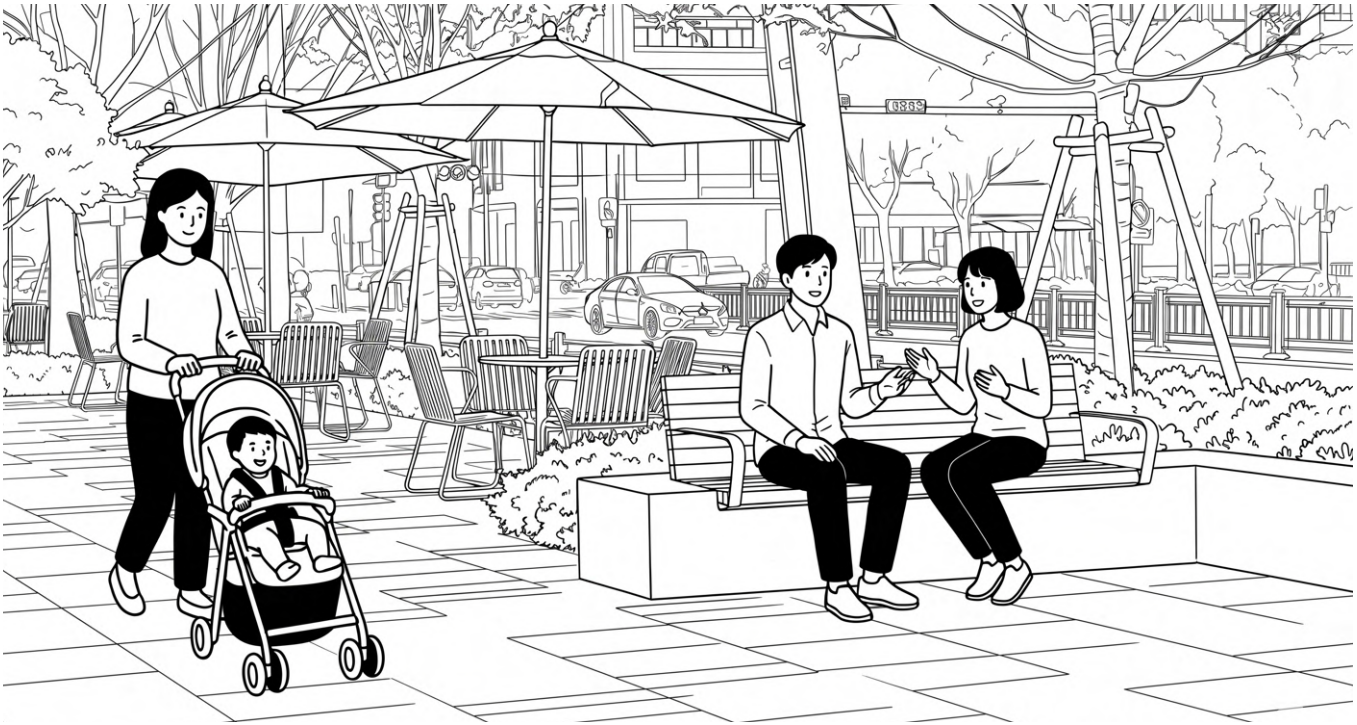
- 폭염과 직사광선에 취약한 보행구간은 가로수, 그늘막, 캐노피 등을 활용하여 그늘을 조성한다.
- 녹지와 휴식공간은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하고, 보도공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한다.
- 투수블록, **차열포장** 등은 배수성, 내구성, 유지관리성이 높은 재질 및 제품을 우선 검토한다.



미끄럼 저항	노면의 미끄럼방지 성능을 마찰력으로 수치화한 지표(BPN)로, 보도의 경우 40BPN 이상으로 권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차열포장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에 태양열(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 기능성 도료를 도포하여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포장기술

휴식과 대기공간 조성 : 이동 중 머무를 수 있는 보행 편의공간

- 연속적으로 긴 보도, 경사가 있는 구간, 보행약자 이용이 많은 구간에는 보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 휴게시설은 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보도 확폭부 등 보행 흐름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 교차로 주변, 상권, 생활권 중심부에는 보행 대기와 일시적 머무름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의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다.



투수블록	빗물이 블록 자체나 틈새를 통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설계된 친환경 보·차도용 콘크리트 포장재
차열포장	특수 도료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 표면에 코팅하여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는 포장방식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며, 보행자·차량 동선과 분리 또는 병행하여 운영되는 도로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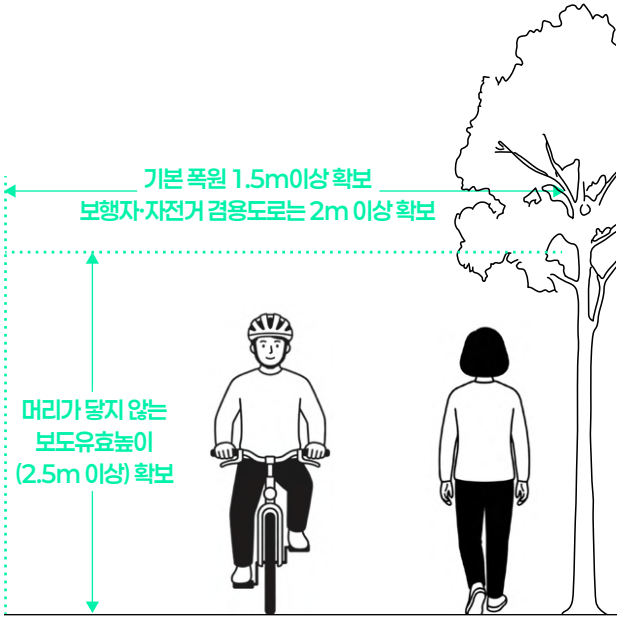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자전거도로**

관련 법령 및 지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지침」 행정안전부



연속된 이동체계 : 안전하게 이어지는 자전거 주행공간

- 자전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는 일방향 통행 기준 기본 폭원 1.5m 이상을 확보한다.
- 자전거도로는 보행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고, 보도 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보행공간을 우선 확보한 뒤 가능한 차도 측에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2.0m 이상 보행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충돌을 줄인다.
- 자전거 주행 중 시야 확보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 2.5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하고, 가로수, 분전함 등은 자전거 도로 내 설치를 지양한다.
- 교차로, 차량 진출입부, 보행량이 많은 구간 등 상충하는 지점은 노면표시, **포장 색상**, 안내사인 등을 활용해 주의가 필요한 구간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안전한 공존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하지 않는 공간

- 자전거도로 설치 시 자전거가 단독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설치를 우선 검토한다.
- 보도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동선을 구분하는 분리형을 우선 검토한다.
- 겸용도로 분리 시에는 바닥 포장과 노면표시를 구분하고, 안내사인을 일정하게 설치하여 이용자가 주행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포장 색상 상충구간 표준색 기준은 먼셀색상 5R 3/4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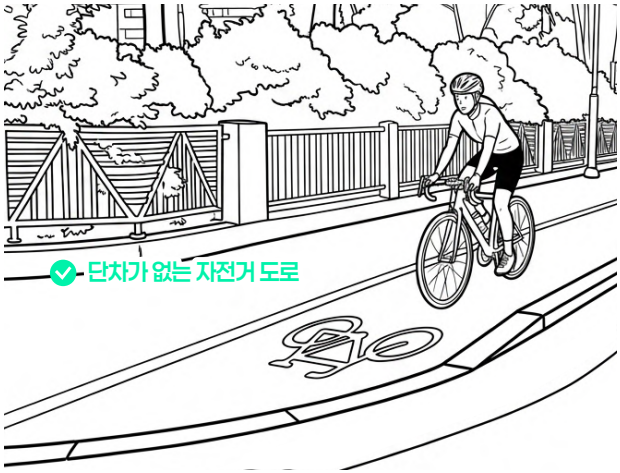
명확한 공간 분리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인지성 강화

- 노면표시, 재질 변화 등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도로 포장은 포장재 고유 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상충구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식별 가능한 색상 적용을 검토한다.
- 보행량이 많거나 차량 접근이 잦은 구간은 경계석, 볼라드, 식재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구분을 검토한다.
- 이면도로 접속부, 교차로, 시설물 진출입부 등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은 포장 색상, 노면표시, 안내표지 등을 활용하여 주의가 필요한 구간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안정적인 노면 계획 : 미끄럽지 않고 단차 없는 주행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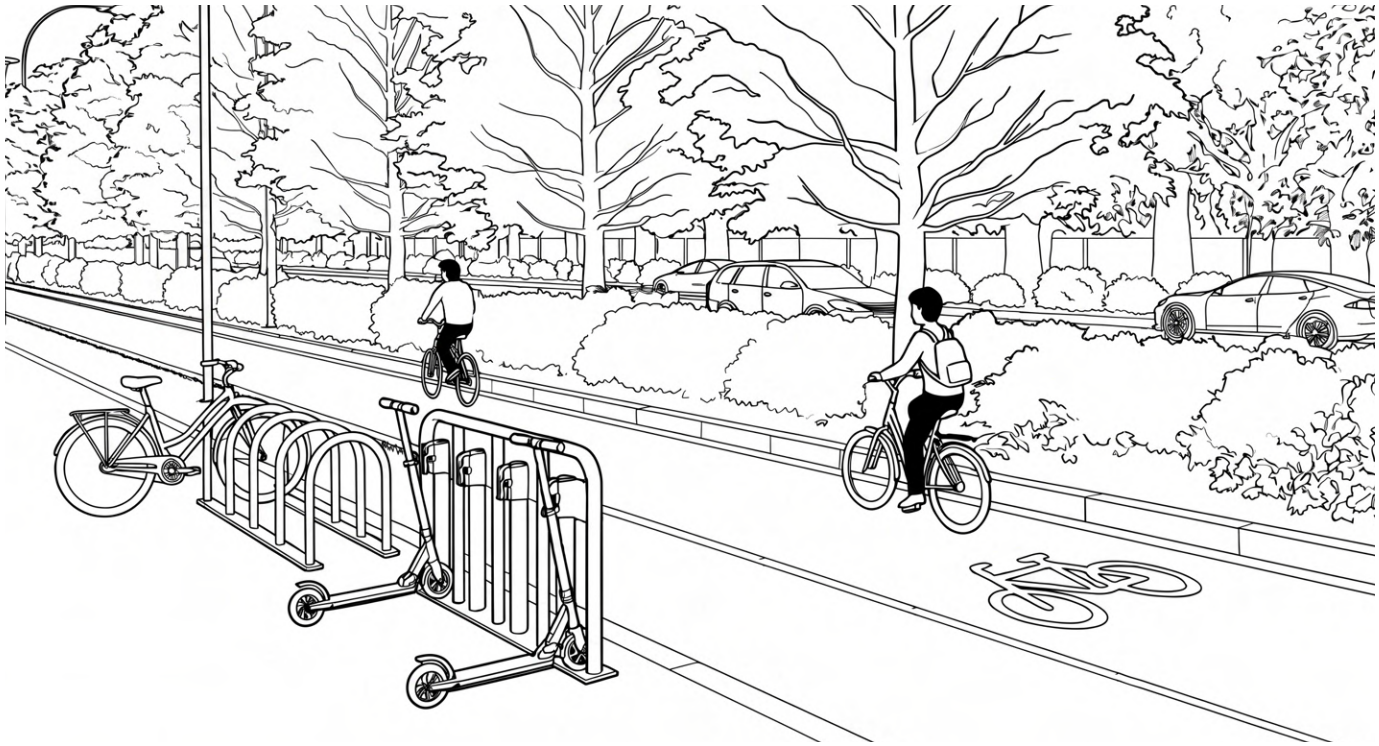
- 연속되는 구간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단차를 최소화한다.
-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끄럼 저항**이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 주행 중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닥의 단차, 패임, 배수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조성한다.
- 맨홀, 배수구, 볼트 노출 등 바퀴걸림과 충돌 위험이 있는 요소는 자전거도로 내 설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단차와 간격을 최소화한다.



미끄럼 저항 바닥이나 도로 표면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마찰력을 수치화한 지표(BPN)로, 보도의 경우 40BPN 이상으로 권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응하는 공간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많은 지역은 보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사인과 별도 주차공간 마련을 검토한다.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환승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전거·PM 거치대를 설치하여 보도공간 점유를 최소화한다.
- PM 거치대나 주차공간은 기존 자전거거치대와 함께 배치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정돈된 거리 경관을 조성한다.
- 신규 보행로 및 도로 조성 시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통행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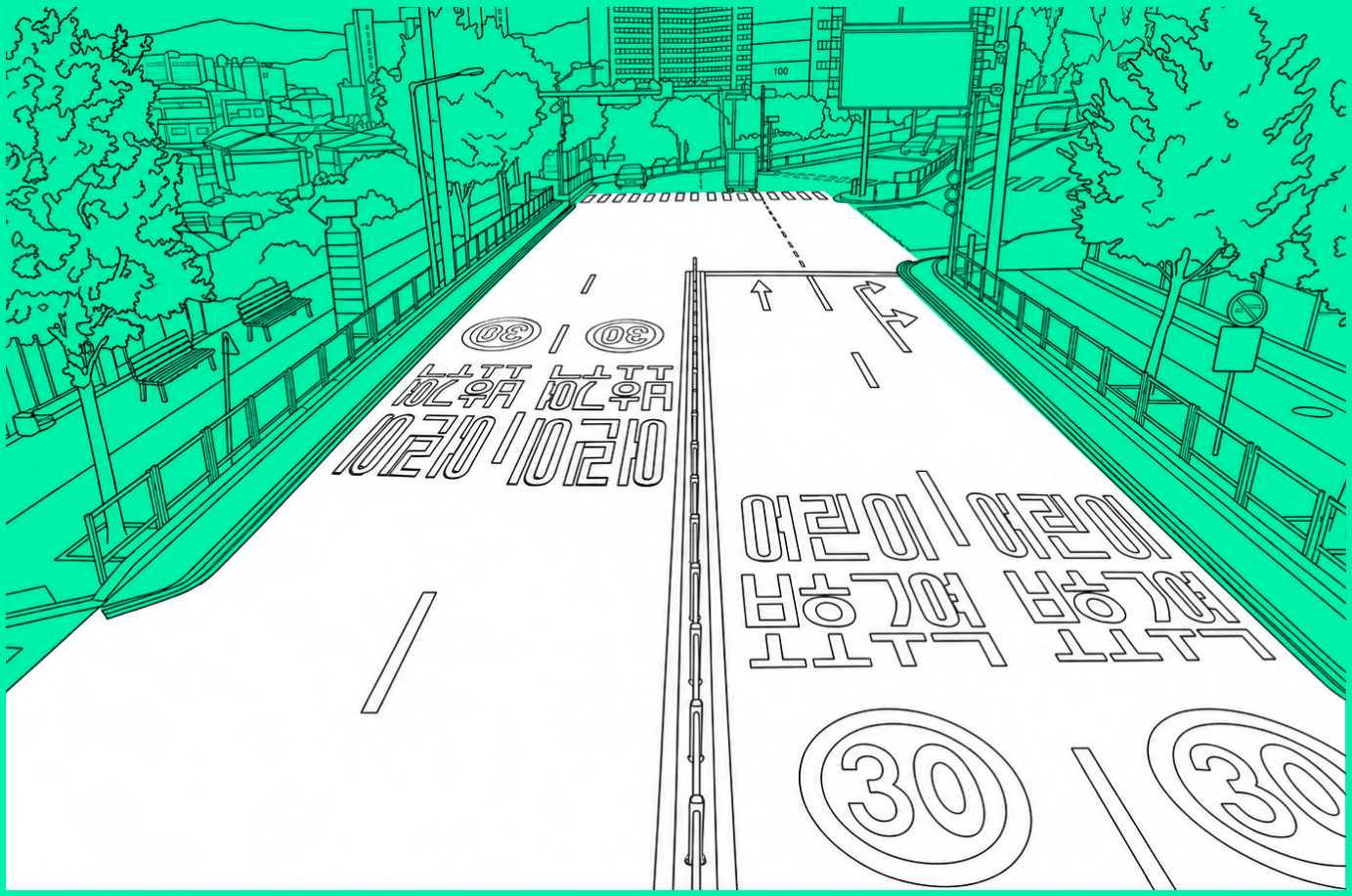
PM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이 대표적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심의대상 확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명확한 보호구역 인지 : 보호구역 진입을 알 수 있는 환경

- 보호구역의 시작과 범위는 노면표시, 포장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구역 내 주요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 설치를 지양한다.
- 차도 및 보행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 금지표시와 단속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 횡단부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 수목, 시설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보행약자 중심의 신호·대기환경 조성 : 천천히 이동해도 안전한 보호구역

-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 노인, 보행약자의 보행 속도를 고려하여 신호 및 대기환경을 검토한다.
- 보행 대기공간은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기 이용자가 함께 대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평탄성을 확보한다.
- 보호구역 내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설치한다.

안전한 이동과 횡단공간 확보 : 어린이와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환경

- 어린이,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내 단차, 파손, 미끄럼, 적치물 등 보행 장애요소를 제거한다.
- 보호구역은 차량이 자연스럽게 감속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차도 폭 축소, 포장재 변화, 노면표시 등 **속도저감방안** 적용을 검토한다.
- 펜스, 볼라드, 안내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행공간과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나 유아차, 이동보조기기 등의 차도 진입을 예방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은 충분한 폭으로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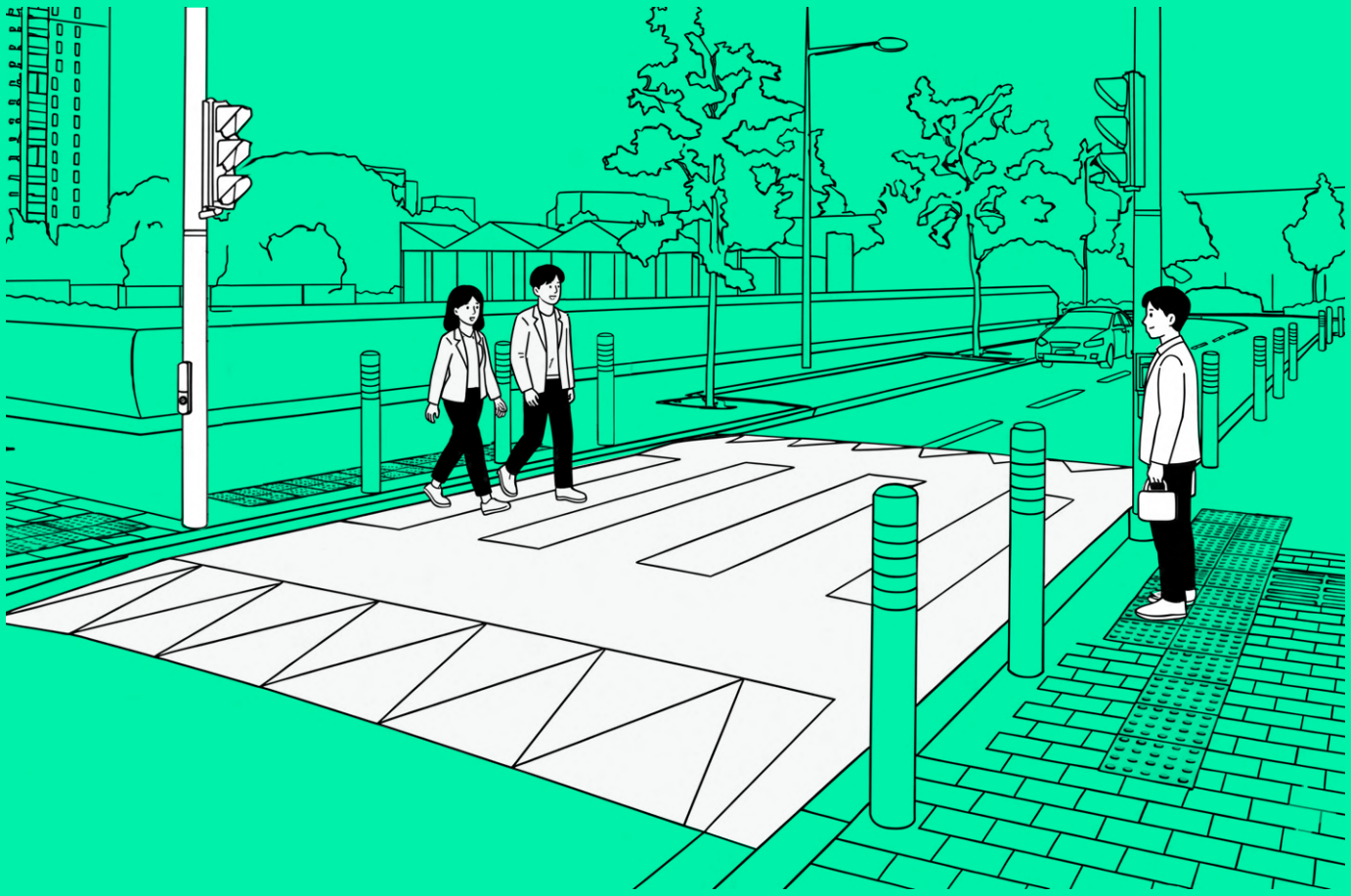
속도저감방안 차도 폭 축소, 고원식 횡단보도, 포장재 변화, 노면표시 등을 통해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도하는 방법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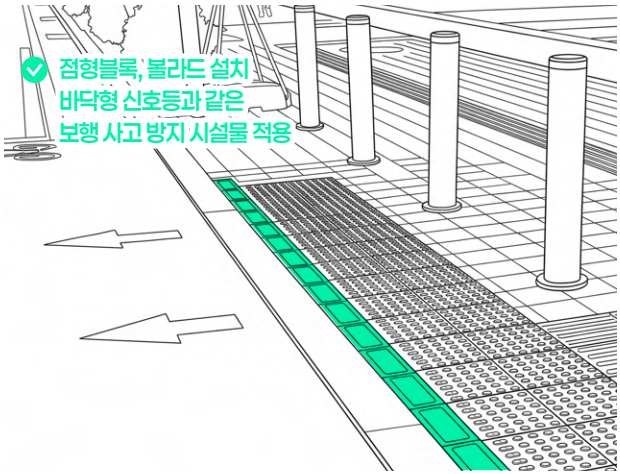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횡단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안전한 횡단공간 확보 : 보행위험 최소화하기

- 횡단보도 너비에 맞춰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점형블록은 경계석 및 볼라드 등과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 횡단 중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 경계부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유도부에는 횡단보도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원칙적으로 황색계열을 사용하되, 보도 포장 색상과 대비가 낮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확보되는 색상을 검토할 수 있다.
-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부 및 횡단보도 내에는 맨홀, 트렌치, 배수구 설치를 지양한다.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주변 포장면과 같이 평탄하게 높이를 계획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와 연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 간격을 최소화하여 자전거 바퀴, 유아차, 휠체어, 보행자의 신발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하고, 미끄럼이 적은 재질을 적용한다.
- 횡단보도 포장재는 우천 시 미끄럼이 적은 재질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필요한 구간은 반사 재질 적용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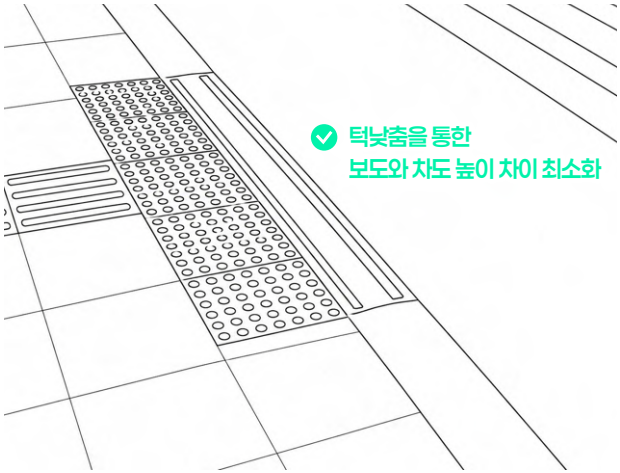


점자블록 설치 기준

0.3×0.3m 규격의 유도용 선형블록과 감지용 점형블록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고 굴절부·단차부·위험장소는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 참고

편리한 보행 연결공간 조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횡단환경 제공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횡단과 운전자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 폭은 보행량, 교통량, 신호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최소 4.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곡선부, 오르막·내리막 경사 구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를 지양한다.
- 보도와 차도 사이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턱낮춤** 시공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한다.
- 턱낮춤 시공 시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횡단보도와 보도 포장은 보행 흐름이 끊기지 않게 연결해 단차와 틈새는 최소화한다.





턱 낮춤	보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를 낮추어 보행자가 단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성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를 참고
고원식 횡단보도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고원식 횡단보도」를 참고
1/18	높이 1을 낮추거나 올릴 때, 가로로 얼마나 길게 완만하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1/ 뒤의 숫자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 (예를 들어 1/18은 높이 1cm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로로 18cm가 필요한 경사를 의미)

공개·전면공지

건축물 대지 안이나 전면부에 조성되어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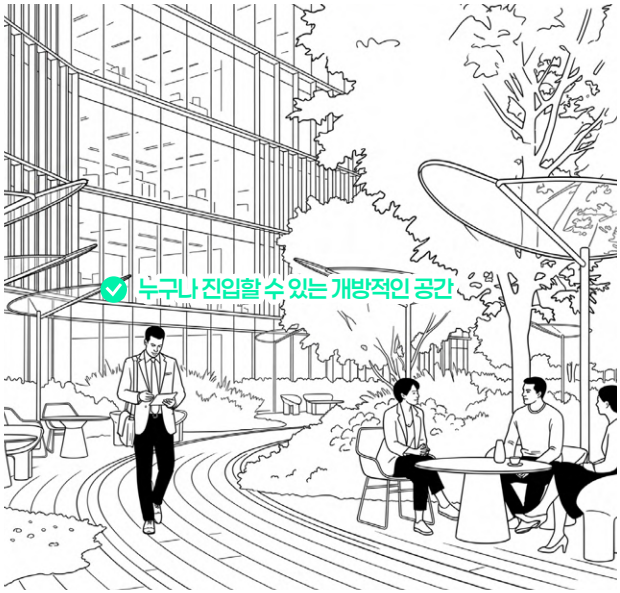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공개·전면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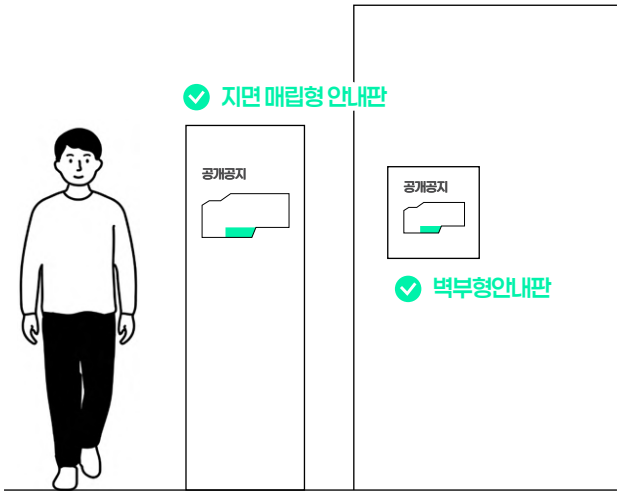
개방된 접근성 확보 :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 공개·전면공지는 보도와 **차단 요소**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보도와 주출입부 동선이 연속되도록 한다.
-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접근 구조로 설계해, 건축물의 일부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 공간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차량 진출입이 발생하는 공개·전면공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차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접부에는 안전 경계석, 포장 구분, 안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 보도가 협소한 구간은 공개·전면공지를 활용하여 보행 공간을 확장하고, 배전함 등 규모가 큰 시설물은 보행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합 배치를 검토한다.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임을 알리기

- 도민에게 개방된 공공 이용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명칭, 면적 및 범위, 이용자 준수사항, 관리주체 등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한다.
- 안내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안내판은 지면 매립형, 조경 화단부 매립형, 건축물 입면을 활용하는 벽부형 등 다양한 형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인성이 높은 형태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차단 요소 펜스, 화단 턱, 불필요한 단차 등 보행과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시설 요소

활발한 공간 이용성 확보 : 도민이 자유롭게 즐기는 공간

- 공개·전면공지는 형식적인 조성이 아니라 지역의 열린 **공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 전후 이용 방식과 운영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 주변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대기, 휴식, 짧은 체류 등 실제 이용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은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녹지와 함께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필요 시 지역 상권 축제·행사, 공공행사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공간 구조가 폐쇄적이거나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주택단지, 공원, 휴양공간 등과 연접한 공개·전면공지는 담장, 펜스,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녹지 등 완충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계를 형성한다



공공공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보도에 시설물이 많아 걷기 불편할 때는 어떻게 개선하나요?

A.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은 보행 동선밖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세요.

보도 전체 폭이 넓어도 보도 내 공공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으면 실제 보행공간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보도유효폭 확보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로 지나가거나 나란히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 2.0m 이상의 보도유효폭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주형 시설물은 보행자가 걷는 중심 동선에서 벗어난 위치에 배치하고, 가능한 경우 가로등이나 안내표지판 등 기존 시설과 통합 설치해보세요. 보도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시설물의 위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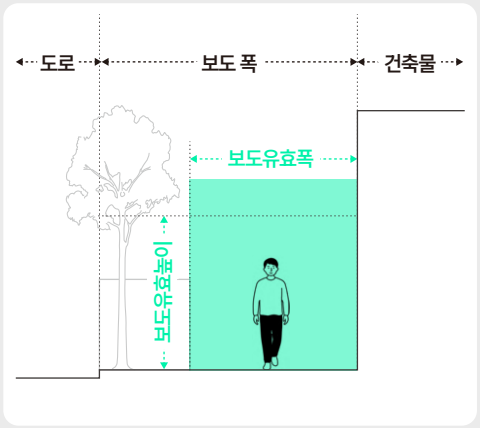


01 보행동선 방해, 충분한 보도유효폭 미확보
02 보행로 외곽에 시설물을 배치하여 보행공간 확보

Q. 보도유효폭은 보도 폭과 다른 개념인가요?

A. 네, 보도 폭은 보도 전체의 폭이고, 보도유효폭은 사람이 실제로 걸을 수 있는 폭입니다.

보도유효폭은 가로시설물과 연석을 제외한 실제 유효폭을 의미하며, '보도가 얼마나 넓은가'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를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 폭이 3m라도 가로수, 전신주, 안내판, 벤치, 입간판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으면 실제로 걸을 수 있는 폭은 훨씬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도유효폭은 보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장애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유효폭 개념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불법주정차가 많은 가로에서는 디자인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불법주정차 대응은 막는 디자인보다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속도를 낮추거나 인식을 개선시키는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반복되는 구간은 차량이 멈추기 쉬운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간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차량이 보행공간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볼라드, 식재대, 노면표시 등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다만 볼라드나 식재를 과도하게 설치하면 다시 보행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불법주정차 인식 개선을 위해 디자인 홍보물을 활용한 캠페인을 추진하거나 불법주정차가 반복되는 공간을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통학로 불법주정차 도로 개선 전·후 (과천시)
02 불법주정차 안내장 디자인 캠페인

Q. 가로공간에 색이나 패턴을 넣고 싶어요.

A. 색이나 패턴은 장식보다 꼭 필요한 구간이나 주의가 필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차혼용도로에서는 바닥 색채와 포장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보행로를 안전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로 전체에 강한 색이나 복잡한 패턴을 넓게 적용하면 보행자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 주변 경관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색이나 패턴은 횡단부, 차량 진출입부, 보호구역, 보차혼용도로처럼 보행자가 주의해야 하는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 전체를 강한 색으로 덮기보다는, 위험 지점이나 동선 전환부를 분명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해보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을 활용하거나, 자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있는 경우 사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A 07-11

공원 및 휴양공간

도시와 생활권안에서 도민의 휴식, 여가, 자연 체험,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 개방 공간

A07 생활권공원 44
자연공원 / 도시공원 / 쌈지공원 / 어린이공원

A08 주제공원 48
체육공원 / 수변공원

A09 자연휴양공간 51
휴양림 / 수목원 / 식물원 / 생태원

A10 광장 55
광장 / 건축물 부설광장 / 분수광장

A11 수변휴양공간 58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 하천·수변공간 / 저류지

A 07-11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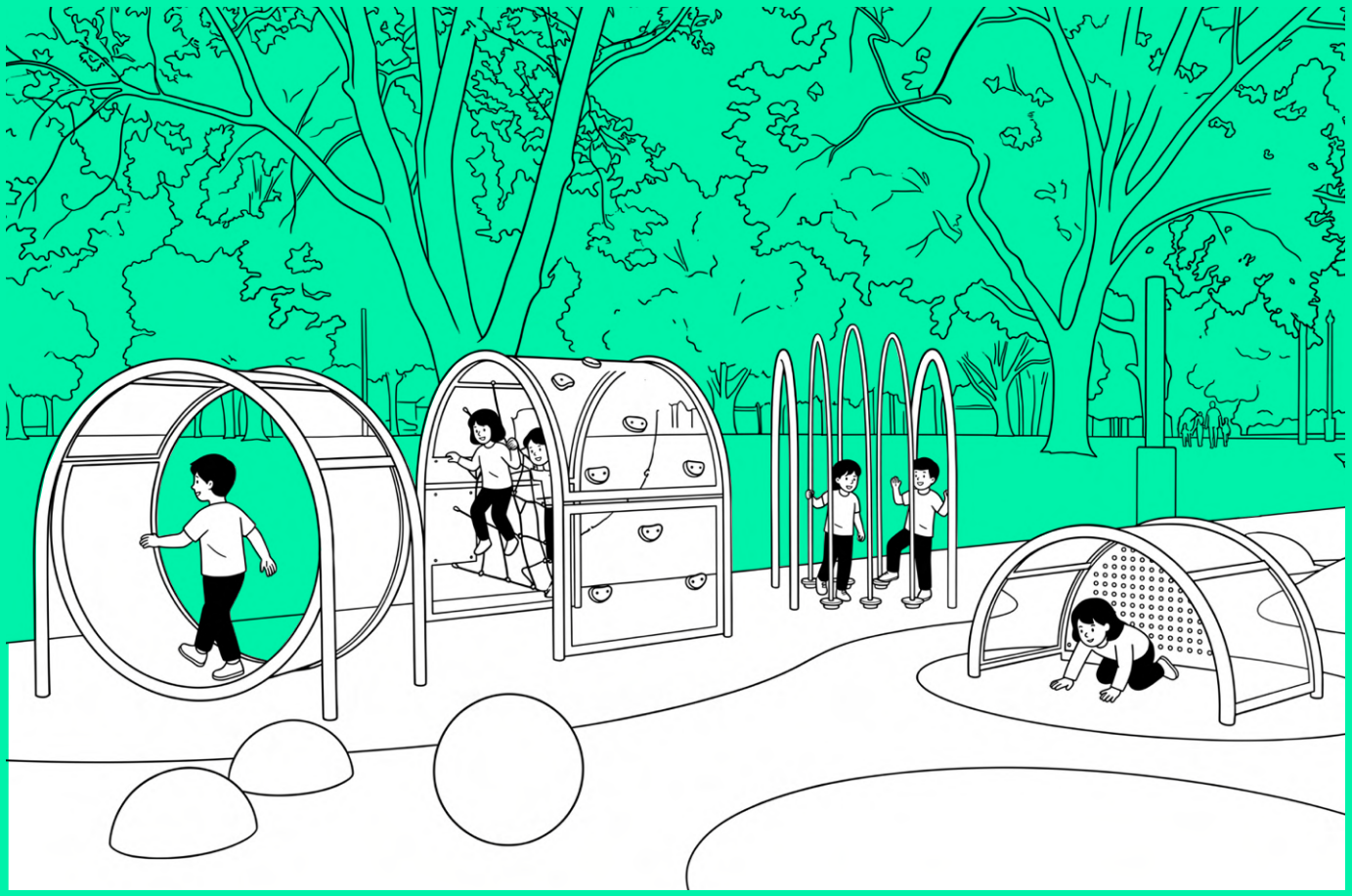
- **실행중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한다.
- **지역맞춤** 획일적인 조성을 지양하고 교통량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설계 및 환경 조성을 적용한다.
- **미래대응** 이동 수단의 다양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미래 공간을 지향한다.

생활권공원

도시 생활권 안에서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 산책, 놀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심의대상 확인 **자연공원 / 도시공원 / 쌈지공원 / 어린이공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생활권 내 접근성 확보 :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찾아가는 공원 조성

- 생활권공원은 주거지와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도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주요 진출입부와 내부 산책로는 누구나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2.0m 이상의 보행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평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한다.
- 공원 경계부는 담장, 펜스 등 물리적 차단 요소를 줄이고, 주변 보행동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와 놀이시설 주변은 어린이의 돌발 행동과 보호자의 관찰을 고려하여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배치한다.
- 주요 접근로에는 공원의 방향, 주요 시설 위치를 알리는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초행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휴식과 활동의 균형 있는 배치 :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공원 조성

- 휴식, 놀이, 가벼운 운동, 산책 등 일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한다.
- 벤치, 운동기구 등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물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계획한다.
- 시간대별 이용을 고려하여 조명, 차양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생활권공원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이용자, 고령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 휴게시설 주변에는 식재, 차양, 수목 등을 연계하여 계절별 이용 환경을 반영하며,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연령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구성을 권장한다.

수목	살아있는 나무를 뜻하며, 교목(키가 큰 나무)과 관목(키가 작은 나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식재와 자연요소의 활용 :
녹지와 쉼이 일상적으로 체감되는 공원 조성

- 생활권공원은 과도한 시설 도입보다 녹지, 그늘, 열린 공간 등 기본 요소를 우선 정돈하여 일상 이용성이 높은 공원으로 조성한다.
- 계절 변화와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적용하고,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교목, 관목 등으로 녹지를 확보한다.
- 조경 수목은 동선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 공간의 개방감과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다.
- 식재는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니라 그늘, 경관, 휴식, 생태 기반을 형성하는 요소로 계획한다.

자연공원 :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공간 조성

-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 지형과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 산책로, 전망대, 쉼터 등은 기존 지형과 자연경관에 조화로울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과도한 시설 설치는 지양한다.
- 시설물은 목재, 석재 등 자연 친화적 재료와 저채도 색채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조명, CCTV 등 안전시설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정해 설치한다.

도시공원 :
일상적 이용과 휴식 기능 중심의 공원 조성

- 도시공원은 주변 주거지, 상업지역 등 도시공간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이용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식, 여가, 운동, 교류 등 일상적 이용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주요 보행동선은 휠체어, 유모차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성과 안전성을 계획한다.
-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은 이용 연령과 시간대별 행태를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배치한다.
- 시설물 및 포장재는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도록 통일감 있는 재료와 색채를 적용한다.

자연적 감시 사람들의 시선이 외부 공간으로 향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범죄 위험 요소를 감시하는 방식

쌈지공원 :
짧은 체류와 생활 휴식을 위한 소규모 쉼 공간 조성

- 소공원은 소규모 면적 안에서 잠시 쉬고 머무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휴식 기능을 우선 반영한다.
- 과도한 시설 도입보다는 벤치, 그늘, 식재, 열린 공간 등 기본 요소를 정돈하여 일상 이용성이 높은 공원으로 조성한다.
- 주변 가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담장이나 펜스 등으로 폐쇄적인 경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은 이용자의 체류를 돕는 위치에 배치하고, 친환경적 재료와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를 우선 검토한다.

어린이공원 :
안전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고, 보호자가 어린이의 활동을 쉽게 살필 수 있는 공간 구조로 계획한다.
- 출입구, 놀이시설, 보호자 대기공간은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하고, 어린이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이동을 위해 평탄한 바닥을 조성한다.
- 화장실, 출입구 등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며, 필요 시 CCTV,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 어린이의 정서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창의적 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뿐 아니라 보호자 대기공간, 그늘,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함께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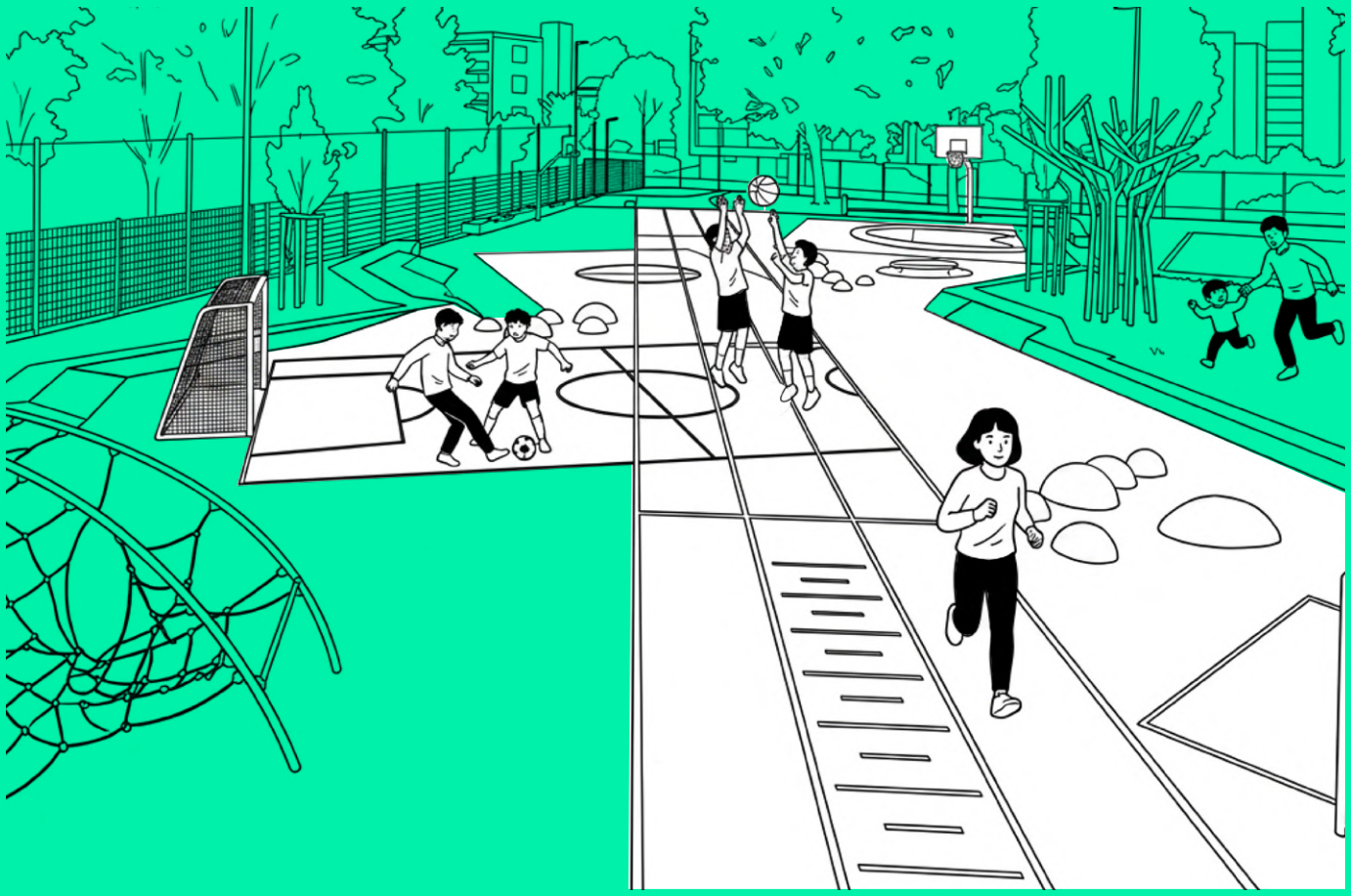
시야 확보 주변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시 범위를 확보하는 것

주제공원

체육, 수변 등 특정한 목적과 주제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원

심의대상 확인 **체육공원 / 수변공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주제 정체성의 명확화 : 공원의 성격과 이용 목적이 분명한 공간 조성

- 공원 이용자가 진입 단계부터 공간 구조, 시설물, 안내체계, 식재 등을 통해 공원의 역할과 성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원의 구조와 이용 경험을 통해 상징성을 드러나게 하고, 과도한 조형물로 공간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휴게시설은 공원의 주제와 경관에 어울리도록 배치하되,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는 위치와 형태로 구성한다.



안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 주제공원은 어린이, 고령자, 관광객, 초행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안내, 휴식공간을 명확히 계획한다.
- 보행로, 휴게공간, 활동공간 등 공원 내 단차와 **보행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평탄하게 조성한다.
-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휴게공간, 그늘, 대기 공간을 구분하여 이용 혼잡을 최소화한다.
- 안내와 해설은 동선에 맞춰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다국어 안내와 QR사인 등을 연계하여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인다.



보행 방해 요소 돌출된 경계석이나 시설물, 파손된 바닥 포장, 임시 구조물 등 보행 장애물

체육공원 :
일상의 치유와 안전한 활동이 가능한 공원

- 체육공원은 운동, 휴식, 산책 동선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운동공간은 충격 흡수율이 높고 배수가 원활한 탄성포장재 또는 천연·인조잔디 바닥재를 적용한다.
- 운동 후 신체적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쿨 다운** 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 소음, 진동, 야간 조명이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용 규모에 맞는 주차공간과 동선을 계획한다.
- 야간 이용이 많은 보행로 및 휴게공간은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되, 불필요한 조명 확산과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수변공원 :
물과 경관,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방형 공원 조성

- 수변공원은 보전이 우선되는 구역과 이용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친수 데크, 스탠드 등을 조성할 경우 침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펜스와 구조장비를 함께 설치한다.
- 인공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수생식물을 활용한 완충지대 조성을 권장한다.
- 상습 침수 구역은 고정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물에 젖어도 부식과 노후가 적은 **합성목재,** 석재 등 **내수성** 재료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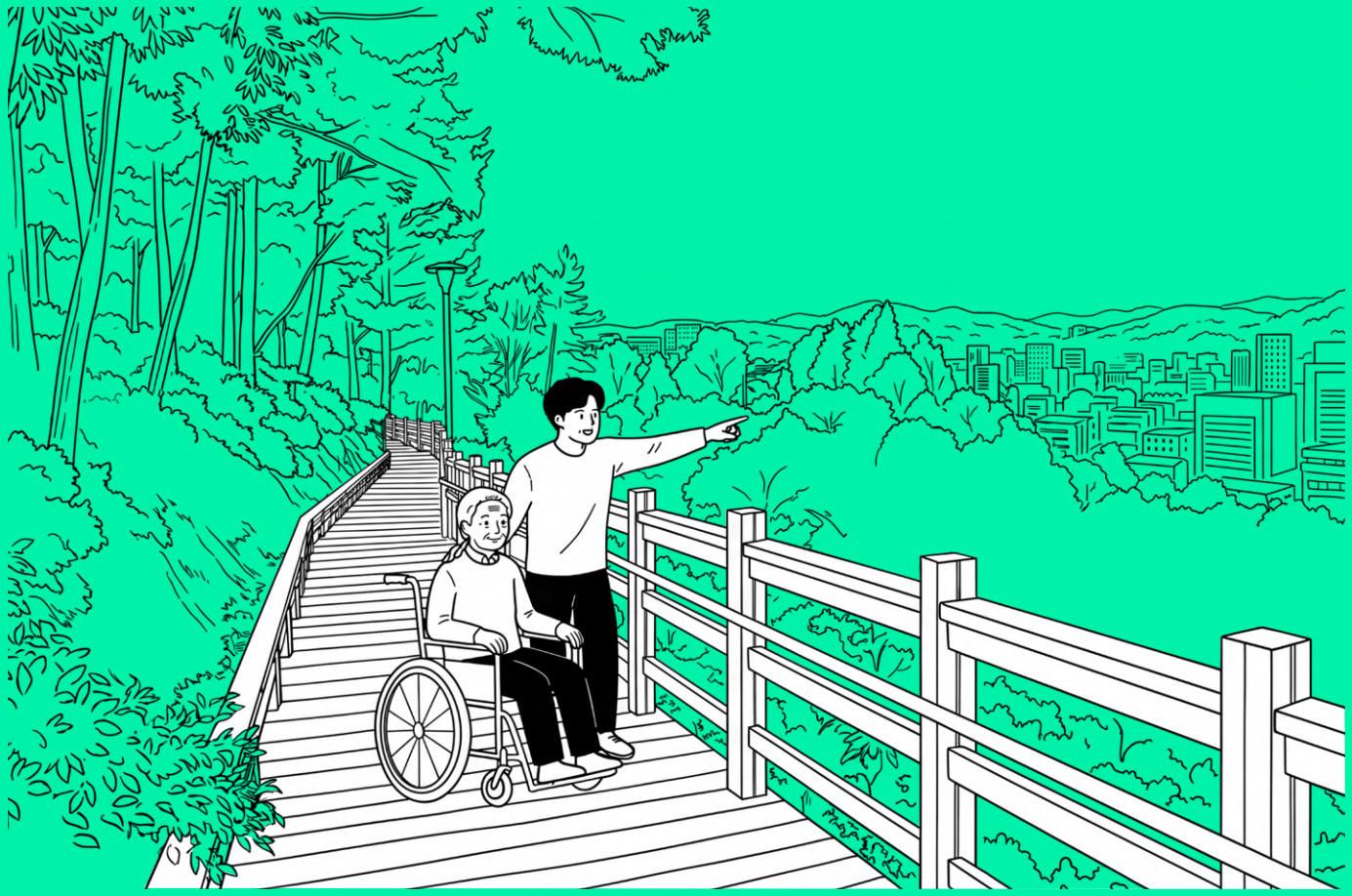
쿨 다운	근육을 이완하며, 더위나 피로로부터 몸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
합성목재	자연목재의 질감을 살리면서 내구성, 수분 저항성, 변형 방지 기능을 강화한 반영구적 소재
내수성	물이 닿아도 쉽게 젖거나 스며들지 않고, 물의 침투를 일정 수준 막아주는 성질

자연휴양공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민의 여가, 휴식, 체험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공간

심의대상 확인 **휴양림 / 수목원 / 식물원 / 생태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누구나 접근하는 동선 구성 : 자연을 따라 걷고 머물 수 있는 이동구조

- 자연휴양공간은 자연경관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행과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 지형과 경사를 고려하여 걷기와 관찰 중심의 이용 동선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는 휴게환경을 마련한다.
- 주요 접근로, 화장실, 휴게공간 등은 단차 없이 계획하고,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1/18**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설치를 검토한다.
- 급경사지형은 무리한 직선 연결보다 완만한 우회 동선, **휴식참**, 경사로를 활용하여 보행 부담을 완화한다.
- 휴양림 등 자연성이 높은 공간은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되, 펜스, 경계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안내표지 등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이해하기 쉬운 안내체계 마련 : 초행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진입부, 갈림길, 휴게지점, 주요 지점에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거리, 소요 시간, 난이도, 주의사항 등은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픽토그램, 영문 병기, 다국어 QR코드 등의 적용을 권장한다.
- 안내사인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저채도, 무광택 재질을 적용하고, 과도한 장식을 지양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동식물 정보 안내판은 설명글뿐 아니라 촉감, 향기, 소리 등 다양한 감각과 연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1/18	높이 1을 낮추거나 올릴 때, 가로로 얼마나 길게 완만하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1/ 뒤의 숫자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 예를 들어 1/18은 높이 1cm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로로 18cm가 필요한 경사를 의미
휴식참	경사로(램프)나 긴 계단에서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거나 휠체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수평 평지. 휠체어 회전 및 이동을 위해 최소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참고

자연 기반 힐링 경험 강화 :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

- 휴게공간은 전망, 그늘, 바람, 소리 등 자연 체감 요소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인공성이 강한 재료와 색채 사용은 최대한 지양한다.
- 자연공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의 전체 연출방향과 **조닝**을 계획한다.
- 휴식공간은 단순 시설 배치보다 감각적 경험과 경관 체험이 가능한 위치에 조성하고, 앉기, 눕기, 기대기 등 다양한 자세를 지원하는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공간 분위기와 연계하여 명상, 독서 등 다양한 휴식형 콘텐츠 운영을 권장한다.



감각적 경험과 경관 체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 및 계획

기후 회복형 자연공간 조성 : 폭염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공간

- 숲 기반 자연환경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배수·우회동선·통제계획을 함께 반영한다.
-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은 폭염과 장거리 이동에 취약하므로 그늘, 음수대, 휴식공간을 적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 미세먼지나 폭염 저감을 위해 기후대응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을 방해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한다.
- **포그형 시설물**, 그늘막, 차열성 포장 등 기후 대응 시설은 자연휴양공간의 경관성과 이용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조닝	공간 연출 및 용도나 기능에 따라 공간과 동선을 구획하고 배치하는 것
포그형 시설물	정수 처리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무하는 시설

수목원 : 수목 경관과 산책 경험을 살리는 공간

- 수목원은 수목 관찰과 산책이 중심이 되는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수형**과 **수관**이 잘 드러나는 동선으로 계획한다.
- 주요 수목과 주제 구간이 명확히 인지되도록 식재 구역별 성격을 구분하고, 해설 및 안내체계를 함께 계획한다.
- 관람 동선은 수목 생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하고, 휴게공간은 관찰과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수목의 정보에 대한 안내는 과도한 설명보다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제공한다.

식물원 : 식물 관찰과 학습을 위한 전시형 공간

- 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을 전시하고 학습하는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식물 유형과 전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온실, 야외정원, 교육공간, 휴게공간이 혼잡하지 않도록 기능별 이용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자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 체험, 휴식 공간이 안전하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생태원 : 생태학습형 공간

- 생태원은 생물 서식환경과 생태계 이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연 관찰과 학습이 연계되는 동선을 계획한다.
- 습지, 초지, 수변, 숲 등 생태환경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람 구간과 보호 구간을 구분하여 조성한다.
-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자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 체험, 휴식 공간이 안전하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 생태학습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관찰 데크, 안내시설, 체류 공간을 적정 위치에 배치해 생태 훼손을 최소화한다.

휴양림 : 숲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휴양공간

- 휴양림은 산림환경 속에서 휴식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 훼손을 지양한다.
- 과도한 이벤트형 공간보다는 자연경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경사지와 숲길이 많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약자와 가족 단위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동하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수형	종류나 환경에 따른 특징을 지닌 나무의 모양
수관	줄기 윗부분에 있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모여있는 부분

광장

도민의 집회, 휴식, 교류, 교통처리 등을 위해 조성되는 개방형 공간

심의대상 확인 **광장 /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 분수광장**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역광장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열린 중심공간 확보 : 누구나 이용가능한 열린 공간

- 광장은 행사, 대기, 휴식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과 단차가 적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건축물, 보도, 주변 공공공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광장 중심부는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 개방감과 활용성을 확보한다.
- 주요 보행동선과 광장 이용공간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행 흐름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한다.



체류공간 마련 : 머무름과 휴식이 자연스러운 공간

- 광장은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대기, 만남,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휴게 및 대기공간을 계획한다.
- 휴게시설은 보행 흐름과 충돌하지 않도록 외부 가장자리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 어린이, 고령자, 보행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미끄럼, 단차, 충돌 요소 등을 최소화한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 시야 확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함께 검토한다.
- 우천 시 물 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와 배수체계를 검토하여 미끄럼과 이용 불편을 줄인다.

활동콘텐츠 수용 : 행사가 가능한 유연한 공간

- 광장은 일상적 휴식, 소규모 행사, 지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공간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함께 확보한다.
- 행사와 지역 프로그램을 수용하되, 과도한 고정 시설물 및 장식적 조형물로 동선과 활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 바닥 포장과 색채는 광장의 이용 영역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패턴과 색채로 시각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구배 경사와 기울기를 지칭하는 설계 용어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바닥에 주는 기울기를 의미

광장 :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열린 공간

- 광장은 보행 흐름, 만남, 휴식,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감 있고 명확한 동선 체계로 계획한다.
- 보행 및 체류 이용이 집중되는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이동공간과 휴게·활동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공공정보매체 및 안내사인은 주요 진입부와 보행 결절점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공간 인지성과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 벤치, 휴게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등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주요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건축물 부설광장 :
건축과 도시를 연결하는 완충형 광장

- 건축물 부설광장은 건축물 출입과 가로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 출입구 전면이 혼잡하지 않도록 보행동선과 휴식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보행자가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야와 접근 동선을 확보한다.
- **선큰광장** 조성 시에는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접근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 야간 이용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출입부, 보행동선, 체류공간을 중심으로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분수광장 :
물과 머무름이 어우러지는 상징적 광장

- 분수광장은 물을 활용한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되, 보행동선과 광장 이용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바닥분수와 같이 체험형 활동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평탄하게 조성하고, 일반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보행동선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 분수 주변은 관람, 사진 촬영, 어린이 접근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미끄럼이 적은 바닥재 및 배수, 유지 관리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 분수 운영이 중지되는 계절이나 시간대에도 광장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개방적인 바닥 구조를 함께 검토한다.

선큰광장 지면보다 낮게 조성된 개방형 광장 공간

수변휴양공간

수변환경으로 도민의 여가, 휴식, 체험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공간

심의대상 확인 **저류지 /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 하천·수변**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개방적이고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

- 환경보전이 우선되는 구역과 이용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 호수·해안 인접 산책로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 통행 구조로 계획하고, 인접 보행로와 경계 없이 연결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고령자, 휠체어 등을 고려하여 **1/18**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설치를 검토한다.
- 산책로는 수풀, 하천, 바다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 이격과 안전시설을 함께 검토한다.
- 수변으로 접근이 쉬운 동선을 계획하고, 산책과 관찰이 가능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검토한다.



휴식과 머무름이 있는 수변공간 : 경관 감상과 쉼이 공존하는 공간

- 휴식공간은 침수범위와 이용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위치에 배치한다.
- 직접 물과 접촉하는 친수공간과 관찰·휴식 중심 공간은 이용 방식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조성한다.
- 보호자가 어린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친수공간 주변의 시야를 확보한다.
- 휴게시설은 앉기, 기대기 등 다양한 이용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 제방길, 산책로, 자전거도로, 수변 데크 등 선형으로 설치되는 공간은 보행 흐름 중간에 휴식공간을 배치한다.
-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친수 데크, 스탠드 등을 조성할 경우 침수 및 안전사고를 검토하여, 펜스와 구조장비를 함께 설치한다.

1/18	높이 1을 낮추거나 올릴 때, 가로로 얼마나 길게 완만하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1/ 뒤의 숫자가 클 수록 완만한 경사 예를 들어 1/18은 높이 1cm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로로 18cm가 필요한 경사 의미

사고 발생 사전 방지 : 수변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구조

- 집중호우 시기, 심야 등 이용 제한이 필요한 구간은 이용 시간과 통제 안내판에 명확히 표시한다.
- 물가 가장자리, 데크 끝단, 계단 진입부 등은 난간, **미끄럼 방지** 재료, 바닥 패턴, 경계 마감 등을 적용하여 추락과 미끄럼 등의 사고를 방지한다.
- 하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구간은 연속적인 조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계단이나 단차 구간은 빛이 닿지 않는 구간이 없도록 주변보다 높은 조도로 계획한다.
- 수변공간 내 안전시설은 경관을 과도하게 가리지 않되, 이용자가 위험 구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안전을 위한 이용 제한이 필요한 구간은 통제 안내판 설치

배수·포장·재료의 내구성 확보 : 물과 기후를 고려한 수변공간

- 수변 산책로는 미끄럼을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동절기 결빙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 하천·해안 주변 시설은 습기, 염분, 풍화, 침식에 견디는 재료를 적용하여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한다.
- 수변공간 내 데크, 난간, 조명, 벤치 등은 노후화에 대비하여 부분 보수와 교체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 상습 침수 구역은 고정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식재, 합성목재 등 내수성 재료를 적용하여 장기적인 이용을 권장한다.
- 인공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수생식물을 활용한 완충지대 조성을 권장한다.

미끄럼 방지 논슬립 코팅제 도포,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난간 설치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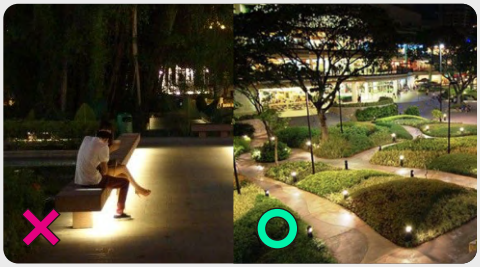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공원 화장실이나 사각지대가 불안하다는 민원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공원에서 불안감을 줄이려면 CCTV 설치 및 증설 보다 공간의 시야 확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지대나 어두운 공간이 사용자의 불안감을 발생시키므로 화장실, 출입구, 산책로 주변이 수목이나 시설물에 가려지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주요 출입구와 동선에 조명을 설치하고,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보세요. CCTV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 안내표지를 함께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1 조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조명 배치
02 동선 전반적으로 연속되는 조도 확보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공원 안내표지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나요?

A. 안내표지는 수량보다 정보의 순서와 설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공원 안내표지는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처음 온 사람이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구에는 종합 안내를 두고, 갈림길에는 방향 안내를 배치해보세요. 특히 화장실, 출입구, 주요 시설처럼 자주 찾는 정보는 먼저 보이도록 표기 순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원 동선 전체 안내표지 / 갈림길 안내표지 / 주요시설 안내표지

Q. 고채도, 원색, 고광택 재료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원은 시설물보다 자연환경과 이용자가 먼저 보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고채도 색이나 원색을 넓게 사용하면 시설물이 주변보다 먼저 눈에 띄어 공원 경관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광택 재료는 햇빛이나 조명에 반사되어 눈부심을 만들고, 산책이나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시설물은 주변 녹지, 포장,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저채도 색채와 무광 또는 반광 재료를 우선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B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64

문화·복지시설 76

교통·환경시설 88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건축 환경으로

이용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생활 플랫폼

B 01-03

공공시설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전반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공시설

B01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66

공공기관 청사

B02 소방서 69

소방서

B03 교육·연수시설 72

공공교육·연수시설

B 01-03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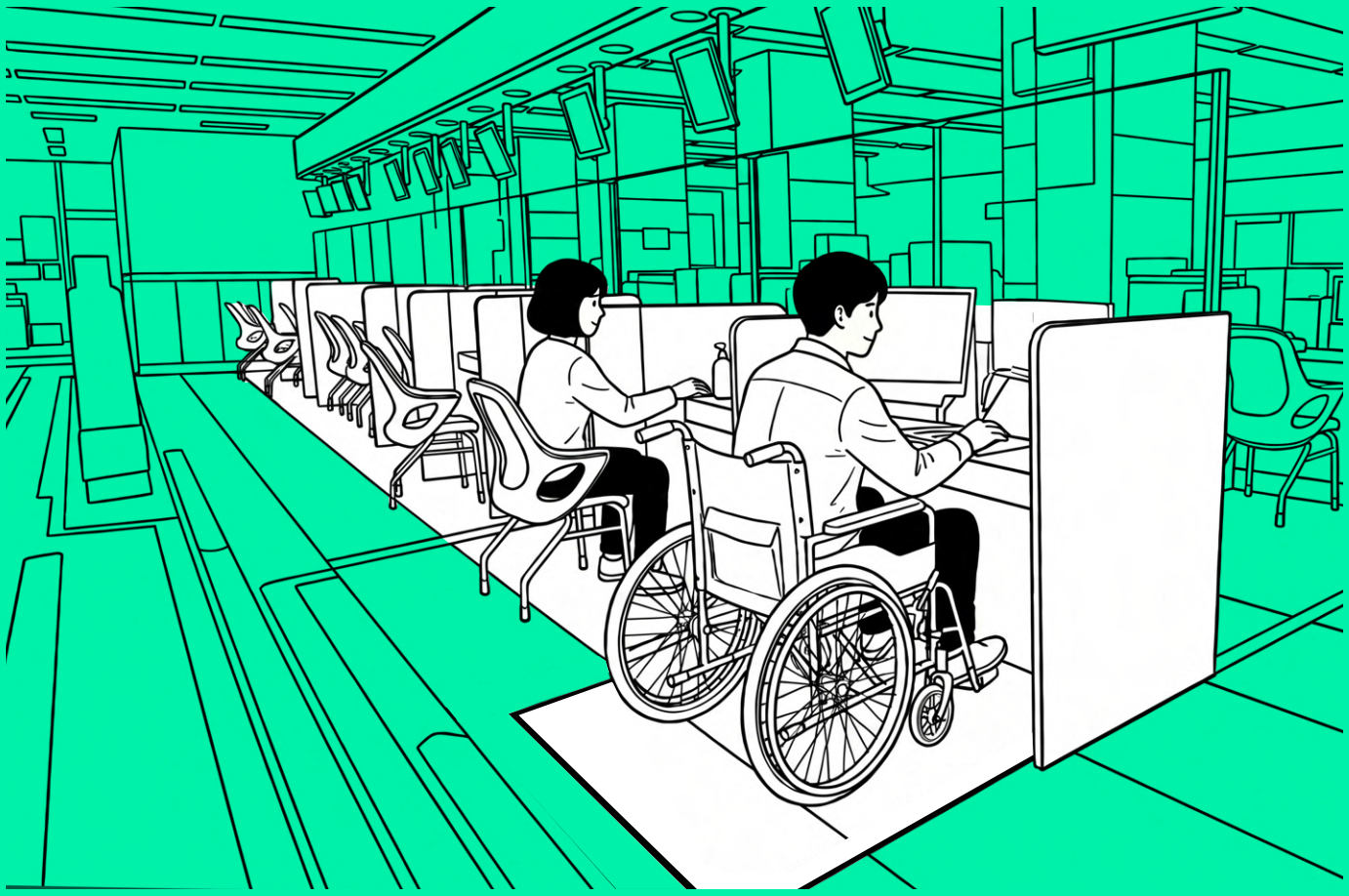
- **실행중심** 사용자 동선과 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실용적 시설을 계획한다.
- **지역맞춤**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이용자 니즈 분석을 통해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맞춤형 공간을 조성한다.
- **미래대응**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생활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심의대상 확인 공공기관 청사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직관적인 동선과 안내체계 구성 : 민원처리가 쉬운 내부공간

- 출입구에서부터 안내, 번호표 발권, 접수, 상담, 대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 영역, 직원 영역, 보안구역은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민원 동선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유아차, 고령자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최소화하고,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경사로와 핸드레일 설치를 검토한다.
- 안내사인은 층별 기능, 창구 위치, 화장실, 엘리베이터, 무인민원기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픽토그램**, 색 구분, 쉬운 용어, 다국어 표기를 함께 적용한다.
- 필요 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등 보조 안내수단을 검토한다.



민원 응대의 사생활 보호 : 심리적 안정감이 유지되는 민원공간

- 민원공간은 청결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로 조성하여 편안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민원창구는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이 주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기 및 보행과 적정 거리를 확보한다.
- 복지상담, 가족 관련 상담, 취약계층 민원 등 민감한 업무는 일반 창구와 분리된 독립형 및 반독립형 공간을 검토한다.
- 대기 좌석, 호출 정보, 안내문은 쉽게 인지되도록 배치하고, 조명·색채·가구는 안정적인 환경을 고려해 적용한다.



픽토그램 누구나 즉각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 시설, 행동 등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상징적인 그림 문자

디지털 민원 대응 강화 : 비대면과 대면 서비스를 함께 고려한 공간

- 무인민원발급기, 예약시스템, 전자안내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를 함께 계획한다.
- 고령자, 외국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이용안내 및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무인민원기기 주변은 대기와 사용이 겹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방향과 위치를 검토한다.

공공청사 : 공적 신뢰감과 행정 상징성이 드러나는 행정공간

- 공공청사는 도시의 대표 행정건축물로서 진입부와 외부공간에 공공성과 신뢰감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적용한다.
- 건물 외관과 내부 동선은 위압적이거나 폐쇄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 건축물 외벽에는 고채도 도색이나 과도한 슈퍼그래픽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이미지를 살려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청사 외부공간은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자전거와 모빌리티 주차공간은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에는 보행로, 주요 시설물,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조명을 계획한다.
- 청사 내·외부 정보매체는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고려하고, 상업적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행정복지센터 : 편안한 주민 생활거점 조성

-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복지상담,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계획한다.
- 민원실은 대규모 청사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질서 있고 따뜻한 이미지의 재료, 색채, 가구, 조명을 적용한다.
- 건축물 주변에는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야간에도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휴게시설을 배치한다.
- 복지서비스, 주민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능이 함께 운영될 경우, 민원 이용과 지역 활동이 혼재되지 않도록 공간과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픽토그램 누구나 즉각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 시설, 행동 등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상징적인 그림 문자

소방서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긴급 대응 공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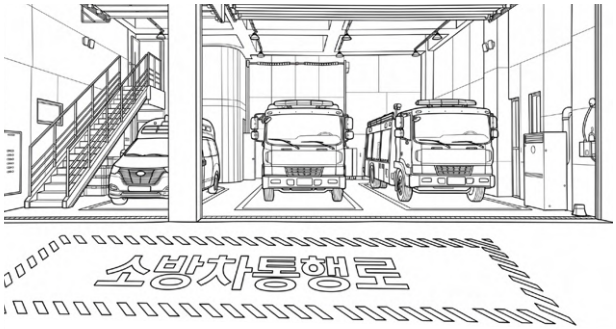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소방서

관련 법령 및 지침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경기도



명확한 출입체계 계획 : 출동과 방문이 혼선 없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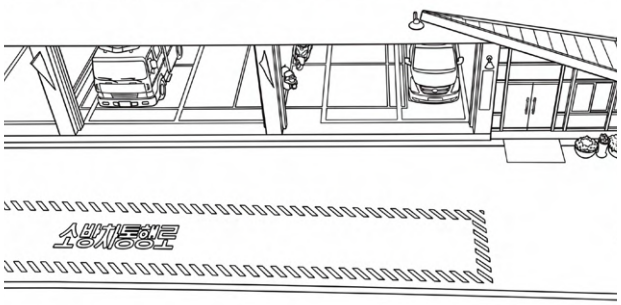
- 민원인의 방문 동선과 소방차의 출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출입체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 차량 이동구간과 보행구간은 **노면표시**, 포장재, 안내사인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인지되도록 계획한다.
- 소방서의 주요 출입부는 긴급 출동 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성 있는 색채, 조명 등을 활용하여 계획한다.



방문동선과 출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노면 표시 및 동선 계획

신속한 출동 확보 : 상황 발생 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동선

- 차량 출동구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이나 식재는 지양한다.
- 출동 동선에는 문턱, 단차, 적치물 등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계획한다.
-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이동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동 동선에는 적정 조도와 안내체계를 적용한다.



우회공간없이 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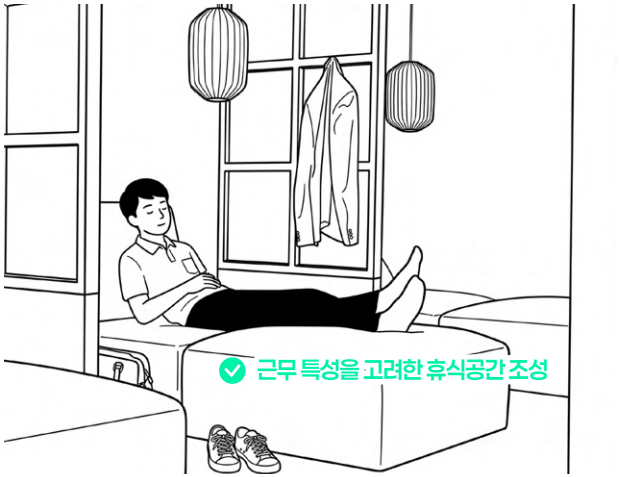
소방시설의 장비 운영환경 확보 : 차량과 장비가 원활하게 관리되는 공간

- 차고와 장비 보관공간은 충분한 폭과 회전 여유를 확보하고, 차량 출입, 장비 적재, 점검,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계 배치한다.
- 잦은 사용과 중량 장비 이동을 고려하여 바닥, 벽, 출입부에는 미끄럼이 적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 세척, 정비, 보관이 필요한 장비는 오염물 처리와 유지관리가 쉽도록 마감재, 배수, 환기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

노면표시 도로 표면에 선, 문자, 기호 등을 그려 넣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교통 규칙(제한, 금지, 지시)이나 주의사항을 전달

대원 회복환경 제공 : 긴장과 피로 누적을 완화하는 휴식환경

- 소방대원의 긴장 상태와 주야간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 휴식공간은 조도, 음향, 환기, 온도 조절을 고려하여 심신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가 가능한 분위기로 계획한다.
- 대기, 휴식, 위생공간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 출동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휴식공간은 외부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적정 수준 보호되도록 하고 자연채광, 식재, 색채계획 등을 통해 회복감을 높인다.



스마트 대응체계 확장성 확보 : 장비와 정보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 상황관리 시스템, 차량관제, 출동 정보 공유, 재난 모니터링 등 스마트 대응기술 확장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고려한다.
- 전기차, 친환경 소방장비, 디지털 훈련 등 변화하는 장비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가변성과 설비를 확보한다.
- 상황 모니터링 공간은 출동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와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디지털 훈련**이나 장비 교육 공간은 실제 출동 동선과 장비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두고,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디지털 훈련 VR(가상현실)과 XR(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건물을 3D 가상 공간에 구현하여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화기 등 장비를 조작하며 대처 능력을 기르는 실감형 훈련

교육·연수시설

공공기관 직원 교육이나 국민의 교육, 평생학습 등을 지원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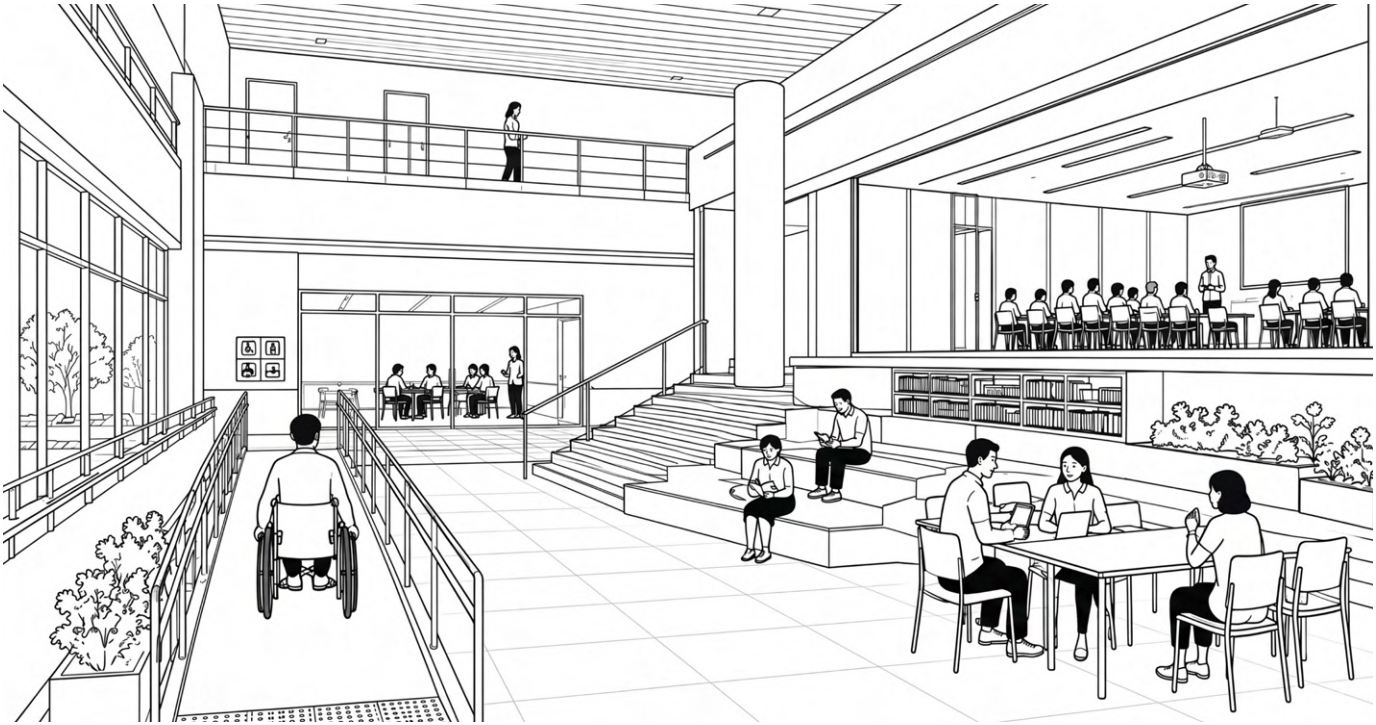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공공교육·연수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무장애 접근과 학습 참여 : 누구나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다양한 연령과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등이 연결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한다.
- 복도와 내부공간은 단차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로 적용한다.
- 강의실, 교실, 교육실 등 학습공간은 **시청각** 집중이 가능하도록 채광, 환기, 냉난방이 적절히 조절되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눈부심과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 사용을 검토한다.
- 설명회, 전시, 주민행사,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한다.



시청각 눈으로 보는 감각인 시각과 귀로 듣는 감각인 청각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명확한 출입·동선 체계 : 이용방식을 고려한 명확한 공간 구분

- 교육원 단체 입소, 평일 교육 운영, 방문객 이용 등 시설 이용 방식에 따라 출입체계와 안내사인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여러 출입구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와 보조출입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자가 목적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한다.
- 대규모 집합교육, 소규모 토의, 실무형 교육 등 이용 성격이 다른 공간은 동선이 과도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주차장 **진출입부**, 승하차공간, 보행동선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유도선이나 안내사인을 적용한다.
- 안내사인은 쉬운 용어, 픽토그램, 색상 구분, 다국어 표기를 활용하여 고령자, 외국인,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쾌적하고 유연한 학습환경 조성 : 집중과 휴식이 함께 가능한 교육공간

-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드러내되,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안정감 있고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한다.
- 이용 인원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가변적인 좌석 구성, 휴게와 대기를 겸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검토한다.
- 하루 이상 체류하며 교육과 휴식이 반복되는 시설은 강의공간, 숙소, 식음공간, 공용라운지, 외부휴게공간을 쾌적하게 연계한다.
- 학생, 교육생, 방문객 등 이용자 특성이 다른 경우에도 학습, 대기, 휴식, 이동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한다.
- 안내표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건축물 외벽에는 고채도 도색, 과도한 슈퍼그래픽, 상업 광고물을 지양한다.

안전한 외부공간과 이동환경 확보 : 보행자 중심의 진입·통학·휴게공간 조성

- 주요 통학로와 보행 접근로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없도록 차량구간과 보행구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 학교 차량, 학부모 차량, 단체버스 등 승하차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 승하차공간을 마련하고, 대기공간을 함께 검토한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차장, 주요 출입부를 중심으로 연속적인 조도를 확보한다.

진출입구 자동차나 보행자가 특정 도로, 건물, 단지, 혹은 고속도로 등에서 나아가고, 들어오는 구간이나 지점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길찾기 민원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출입구에서 원하는 민원 신청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종합안내표지, 번호표 발권기, 민원창구 위치가 한눈에 보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접근이 쉬운 1층에 종합안내표지를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구역별 지정색채를 통해 현재 위치와 찾는 공간을 쉽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 내외부 알기 쉬운 지도/방향 안내사인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외관 디자인을 어느정도까지 특화해야 할까요?

A. 공공시설의 외관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래 보아도 안정감 있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판단해보세요.

건물 전체를 강한 색이나 큰 그래픽으로 덮는 외관 특화보다, 건물 내부의 공간 및 안내사인처럼 이용자와 가까운 부분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정 그래픽이나 패턴을 개발하여 활용할 경우, 건물 내·외부 및 안내사인 등 전반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하여 일관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뢰감 있는 간결한 외관 디자인 (수원특례시)

Q. 공공시설 외벽에 고채도 색이나 슈퍼그래픽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공시설의 이미지는 강한 색보다 안정감 있는 재료와 정돈된 외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시설은 오래 사용되고 많은 사람이 반복해서 보는 건축물이며, 외벽에 고채도 색이나 큰 그래픽을 넓게 적용하면 건물이 주변보다 과하게 튀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낡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하며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출입구나 안내 영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B 04-06

문화·복지시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이도록 계획하는 공공시설

B04 문화시설 78

박물관/미술관/공연·전시장/홍보·기념관 등

B05 의료·복지시설 81

복지시설(노유자시설포함)/의료시설 등

B06 체육시설 84

체육관·경기장 등

B 04-06

3원칙

- **실행중심** 이용자의 활동 특성과 이용 흐름을 반영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높은 시설로 계획한다.
- **지역맞춤**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
- **미래대응** 변화하는 여가·복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구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고려한다.

문화시설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심의대상 확인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공연·전시장 / 홍보·기념관**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문화공간의 지역성과 장소성 반영 : 시설의 성격이 드러나는 공간

- 건축물의 성격과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특성이 공간 구성과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 과도한 장식보다 시설의 기능과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건축물 외벽에는 고채도 도색, 과도한 그래픽,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적용을 지양하고, 문화행사와 공공정보는 지정된 위치와 형식으로 정돈하여 설치한다.
- 외국인과 초행 방문자가 많은 시설은 다국어 표기와 픽토그램을 함께 적용하고, 주요 외부 사인은 야간에도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머무르기 좋은 공용공간 조성 : 관람 전후에도 편안한 공간

- 문화시설의 로비, 홀, 공용공간은 관람, 휴식, 안내, 대기 등 이용 행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계획한다.
- 공연·전시 전후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충분한 대기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계단, 경사부, 단차, 유리면, 문 주변은 충돌과 낙상 위험이 없도록 계획하고, 비상구와 안내는 쉽게 인식되게 한다.
- 안내데스크,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요 전시실, 공연장 출입구 등은 단순하고 일관된 안내체계로 연결한다.
- 시각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는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 보조 안내수단 적용을 검토한다.

박물관 : 보존과 관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시공간

- 박물관은 유물과 자료가 빛, 온습도 등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관람객이 되돌아가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전시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명확히 구성한다.
- 관람객과 전시물 사이에는 적정 관람거리와 보호장치를 확보하여 훼손 위험을 줄인다.
- 상설 전시와 연계되는 교육실, 체험실, 해설 대기공간을 함께 계획한다.
- 전시 해설과 안내정보는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를 함께 검토한다.

도서관 : 읽기와 머무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 열람실, 자료실, 학습공간은 소음과 이동이 많은 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 좌석은 장시간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도록 채광, 조도, 시야, 거리감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어린이열람, 부모 대기, 정보검색,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 이용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 자료 이용 외에도 학습, 휴식,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용공간을 함께 마련한다.
- 장시간 이용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눈부심이 적은 조명, 안정적인 환기, 편안한 가구를 적용한다.

미술관·전시장 : 시선과 여백이 살아나는 전시 환경

- 다양한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벽, 조명 레일, 전력, 영상설비 등은 전시 기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구성한다.
- 작품 사이에는 적절한 간격과 여백을 확보하여 개별 작품 감상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전시실은 작품이 공간의 중심이 되도록 벽면, 바닥, 천장 요소를 절제하여 계획한다.
- 관람 동선은 작품 감상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관람객이 특정 지점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대기와 회전 공간을 함께 검토한다.
- 전시 안내, 작품 설명, 영상·디지털 콘텐츠는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와 밝기로 계획한다.

공연장 : 무대가 잘 보이고 공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 객석 규모에 맞추어 로비, 홀, 계단, 출입문, 화장실의 수용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 객석은 무대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단차, 경사, 좌석 배열을 계획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을 설치한다.
- 관람객 동선과 무대 운영 동선은 분리하여 공연 준비와 관람 환경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공연 전후 관람객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 입장, 퇴장, 화장실 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비상상황 시 관람객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 비상구, 안내표지를 명확히 계획한다.

홍보관 : 기관과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

- 색채, 재료, 그래픽, 전시 연출은 기관 또는 사업의 성격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 장식적인 연출보다 정책, 사업, 브랜드 등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 인식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 영상, 모형, 디지털 콘텐츠, 체험장치 등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홍보 콘텐츠는 이동 흐름에 따라 이해될 수 있게 구성하고, 과도한 정보량으로 시각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정보에는 쉬운 용어, 다국어 표기, 픽토그램을 함께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기념관 : 장소의 의미가 기억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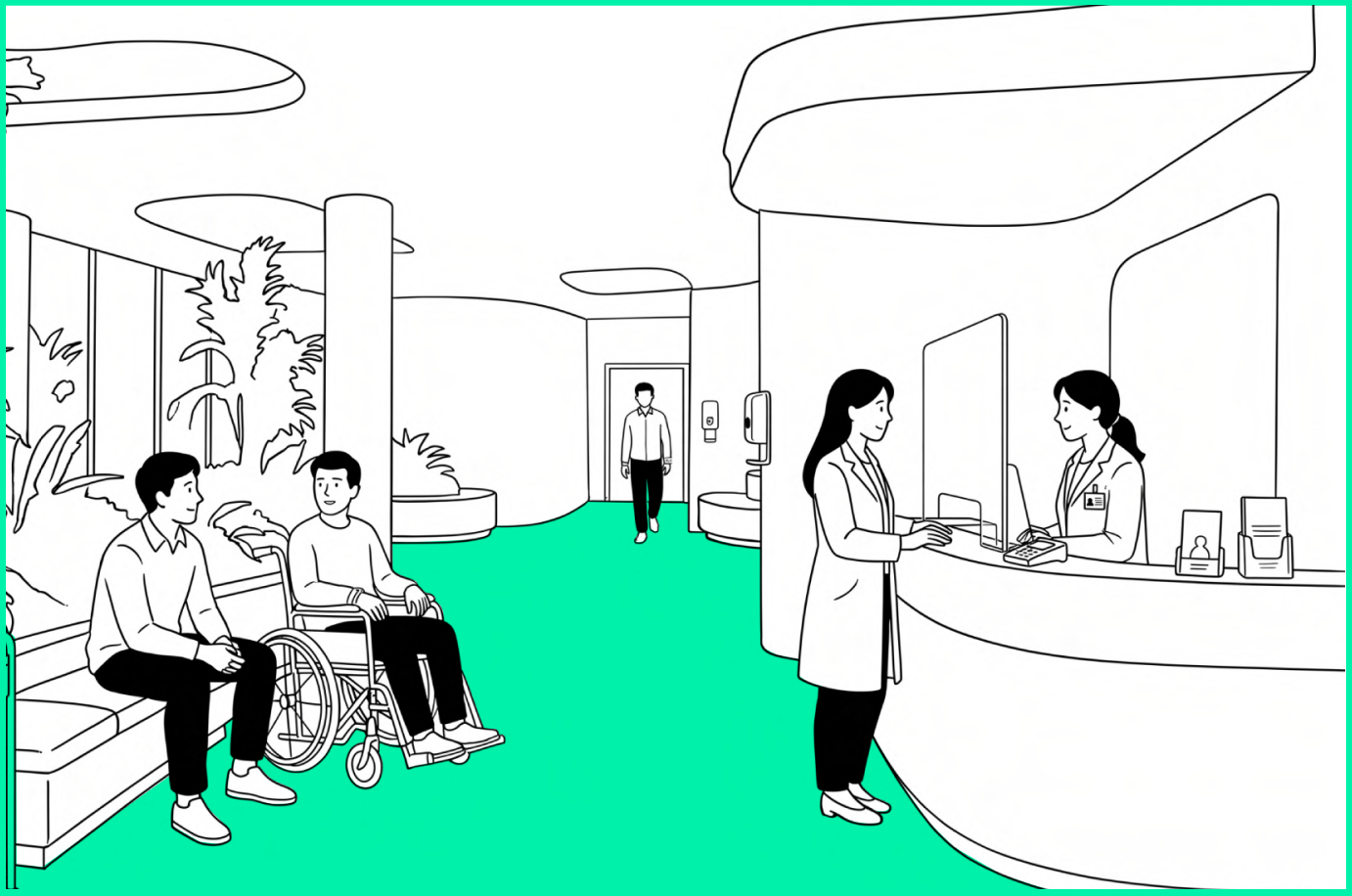
- 과도한 소음과 혼잡을 줄이고, 차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한다.
- 추모, 헌화, 묵념 등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경우 진입부부터 기념의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동선과 경관을 함께 계획한다.
- 기념의 성격을 드러내는 색채, 재료, 조명은 절제하여 적용하고, 과도한 장식 요소는 지양한다.
- 방문객이 머무르는 공간과 이동하는 공간은 충돌이 되지 않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의료·복지시설

도민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심의대상 확인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 의료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편안한 대기환경 조성 : 긴장과 피로를 줄이는 공용공간

- 대기공간은 몸이 불편하거나 긴장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단기 대기공간과 장시간 대기공간은 이용 흐름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한다.
-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및 보호자 동행 이용자를 고려하여 대기공간의 주변에는 회전 및 교행이 가능한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식재, 자연광, 자연 소재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를 적용하여 피로와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동반 대기와 이동 보조가 가능한 배치와 동선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감을 주는 공용공간 조성 및 계획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 응급상황과 사고에 대응하는 공간

- 계단, 경사부, 단차, 유리면, 문 주변은 충돌과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복도와 공용공간은 휠체어, 유아차, 이동보조기기, 보호자 동반 이용자 등 이동에 충분한 폭과 회전 여유를 확보한다.
- 비상구와 피난안내는 평상시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자블록은 주요 출입구, 안내데스크,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요 이용 지점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와 이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출입구, 접수공간, 진료·상담공간의 동선을 명확히 계획한다.

사생활 보호환경 확보 : 상담과 진료가 노출되지 않는 공간

- 접수대와 대기공간은 이용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리와 배치를 고려해 계획한다.
- 공용공간과 상담 및 진료공간은 개방성과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필요 시 독립형 또는 반독립형 상담공간을 확보하여 대화 내용과 시선 노출을 줄인다.
- 상담공간은 과도하게 폐쇄적이지 않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조명, 색채, 가구, 흡음 계획을 적용한다.

복지시설 :
돌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공간

- 복지시설은 고령자, 장애인, 아동, 보호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머무르는 시설이므로 **접근성**과 편안함을 우선하여 계획한다.
- 상담, 교육, 돌봄, 프로그램, 식사, 휴식 등 서로 다른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성격과 동선을 구분한다.
- 프로그램실, 상담실, 휴게공간,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활동 흐름에 맞춰 배치하고, 이동 중 단차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장시간 머무르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연광, 환기, 식재, 따뜻한 재료와 색채를 적용한다.
- 보호자와 관리자가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되, 상담이나 돌봄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의료시설 :
진료와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치유공간

- 의료시설은 보건소, 의료원, 공공병원, 진료소 등 진료·검사·상담·예방·회복 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접수, 대기, 진료, 검사, 수납, 귀가의 흐름이 명확하게 이어지도록 동선을 단순하게 구성한다.
- 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진료, 응급대응 등 이용 목적이 다른 공간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혼잡과 교차를 줄인다.
- 감염 우려가 있는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대기공간과 진료·검사공간의 배치를 검토한다.
- 진료실, 상담실, 검사공간은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음성 전달과 시선 차단을 함께 고려한다.
-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색상 구분,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를 함께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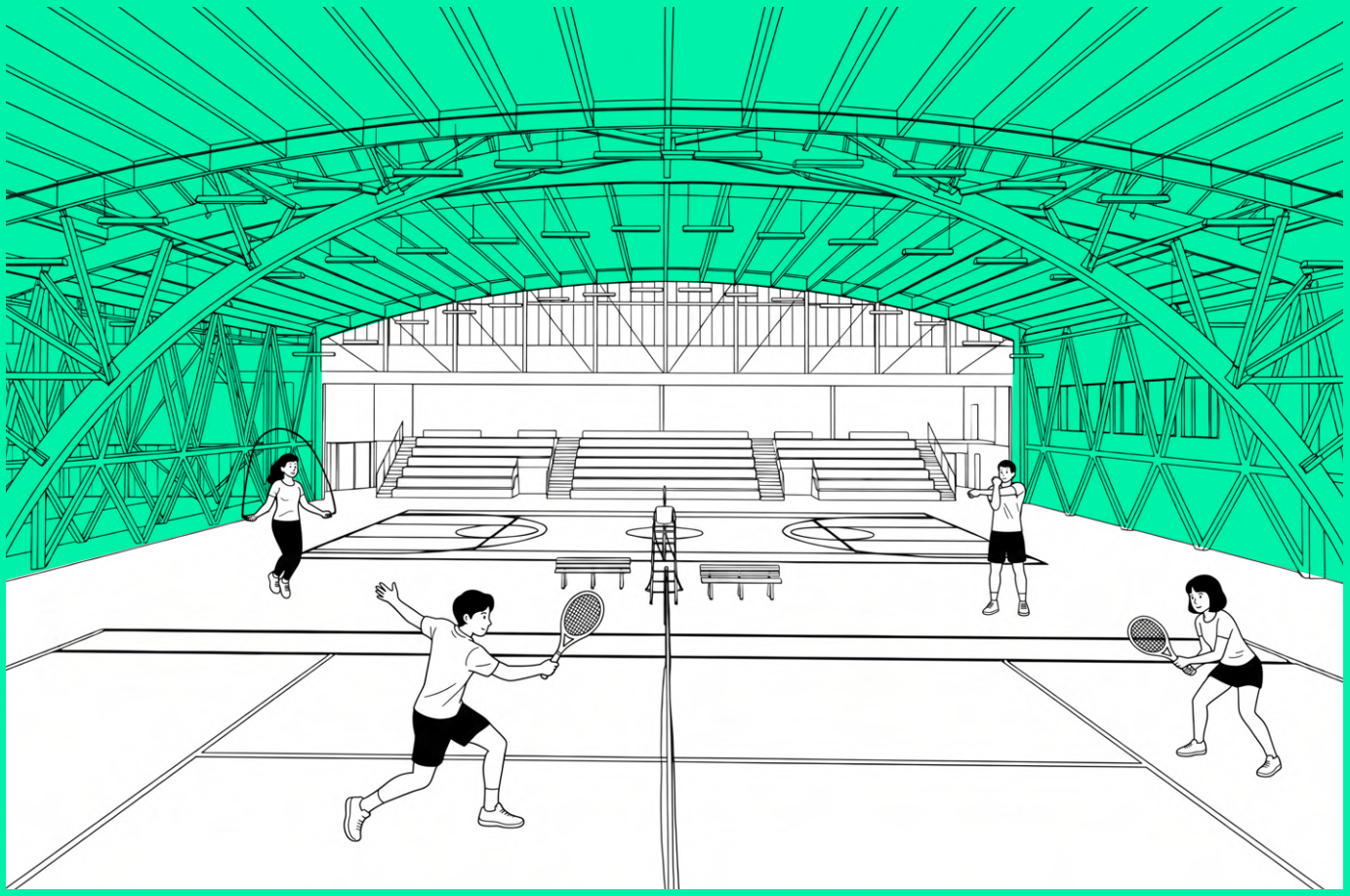
접근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심의대상 확인 **체육관·경기장**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 군중 밀도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공간

- 체육시설은 이용자와 관람객이 동시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장, 이동, 관람, 퇴장 동선을 명확히 계획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 확보하고, 피난동선과 출입부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 계단식 관람석, 보행데크, 계단 앞 통로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관람석, 통로, 출입부, 계단, 난간 주변은 미끄럼과 충돌 위험이 없도록 계획하고, 군중 밀도가 높아지는 구간은 충분한 폭과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응급 대응이 빠르게 닿는 구조 : 운동·관람 중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기반 마련

- 운동 중 부상, 관람 중 사고, 군중 밀집 상황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응급 대응공간을 계획한다.
- 여러 출입구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와 보조출입구의 역할을 구분하여 응급상황 시 혼선을 최소화한다.
- 응급차량 접근이 필요한 경우 차량 진입 동선과 보행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응급 이동 경로에는 적치물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한다.
- 안전요원, 운영자, 관람객이 비상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안내, 조명, 방송, 안내사인을 함께 검토한다.

대기와 휴게공간 확보 : 경기 전후에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 로비, 홀, 복도, 외부 전면 공간은 경기 전후의 대기와 휴게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앉을 곳, 기대어 설 곳, 음수공간, 짐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 등 대기와 휴게를 위한 기본 공간을 확보한다.
- 혼잡 시에도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은 주요 보행동선과 이격하여 조성한다.
- 운동 전후 탈의, 샤워, 휴식, 물품 보관이 편리하도록 지원공간을 함께 계획하고, 젖은 상태나 짐이 많은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동선을 검토한다.

1% 좌석 수가 1,000석일 경우 10석은 장애인 관람석으로 배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고

체육관 :
경기와 생활체육을 함께 수용하는 내부공간

- 체육관은 구기, 체조, 배드민턴,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내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 경기공간을 유연하게 계획한다.
- 운동공간, 관람공간, 대기공간, 탈의·샤워공간은 서로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배치한다.
- 바닥은 종목별 활동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격 흡수, 미끄럼 방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적용한다.
- 운동 전후 이용이 집중되는 공간은 출입 위치와 내부 구성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학생, 동호회, 지역주민 등 반복 이용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와 사용이 쉬운 구조로 구성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계획한다.

경기장 :
많은 관람객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쾌적한 공간

- 경기장은 다수의 관람객이 동시에 입장·퇴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이동 동선을 계획한다.
- 게이트, 매표·확인구간, 보안검색, 관람석 진입부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를 확보한다.
- 관람석은 경기장 전체가 잘 보이도록 단차, 경사, 좌석 배열을 계획하고, 기둥, 난간, 구조물 등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경기장은 외부 이동 비중이 큰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햇빛, 비, 바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공간과 이동공간을 마련한다.
- 주 출입부, 광장, 외벽, 사인계획은 경기장 전체 이미지와 일관되게 구성하여 대표시설로서의 **인지성**을 높인다.
- 외벽에는 고채도 도색이나 과도한 슈퍼그래픽을 지양하고, 색채 변화나 동적인 경관조명은 야간 이용 안전을 고려하여 절제한다.
- 내·외부 정보매체는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다국어 표기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지성 공간이나 시설을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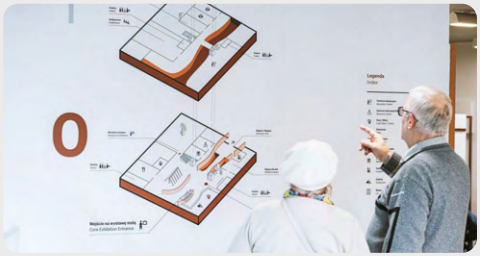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민원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문화·복지시설은 처음 오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입구에서 목적 공간까지 방향을 연속해서 인지할 수 있는 안내사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동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순서를 정리하여 안내하고, 특히 문화·복지시설은 고령자, 외국인, 시각약자 이용을 고려하여 글자 크기, 픽토그램, 점자안내, 다국어 안내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층별 위치와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사인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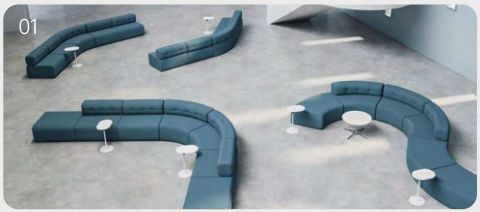
Q.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어떻게 조성하나요?

A. 문화·복지시설은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기보다, 행사와 이용자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당은 공연뿐 아니라 교육, 주민회의 등에 활용될 수 있고 로비는 단순 통과공간이 아니라 전시,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고정된 형태로만 계획하기보다, 행사 규모와 이용 방식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보세요. 이동이 쉬운 모듈형 가구, 접이식 의자, 가변형 칸막이, 임시 안내사인 등을 활용하면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용도를 고려할 시 동선이 복잡해지거나 안내가 부족하면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선 및 이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01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휴게시설물
02 공연, 대기, 휴식 등 다양한 이용방식을 수용하는 공간 구조

B 07-09

교통·환경시설

도민의 이동 편의와 도시 환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B07 터미널 90

터미널

B08 환경처리시설 92

상하수도시설 / 쓰레기소각장 / 음식물처리시설

B09 공중화장실 95

공중화장실

B 07-09

3원칙

- **실행중심** 보행과 이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지역맞춤** 보행 및 차량 이동량,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획일적인 공간 조성이 아닌 지역에 맞는 설계를 반영한다.
- **미래대응** 이동수단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터미널

버스의 출발과 도착이 이루어지며 차량의 주차와 정비, 승객의 탑승과 대기, 매표 기능 등을 위한 시설

심의대상 확인 터미널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명확한 승하차 체계 : 승하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구성

- 버스 승차장과 하차장은 멀리서도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사인 및 색채를 적용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 시내버스, 택시, 철도, 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은 환승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한다.
-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한 주차공간은 터미널 접근이 쉬운 위치에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대합실과 승하차장까지 단차 없는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 우천 시, 이용자의 승하차와 보행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터미널 출입구와 주요 승하차 지점에는 캐노피 등 비가림 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이해하기 쉬운 안내체계 구성 : 목적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 안내사인과 공간 표기는 진입부, 매표소, 분기점, 대합실, 승차장 입구에 일관된 체계로 배치한다.
- 노선, 승차 위치, 출발 시간, 환승 정보는 처음 방문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제공한다.
- 문자 정보는 읽기 쉬운 크기와 색상 대비를 확보하고, 픽토그램, 색상 구분, 다국어 표기를 함께 적용한다.
- 시각약자의 이용이 많은 구간은 점자안내, 촉지도식 안내, 음성안내 등 보조 안내수단 적용을 검토한다.
- 안내정보는 상업적 광고물과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매표·대기·승차·환승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 배치한다.

충분한 대기공간 확보 : 출발 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 대합실과 대기공간은 이용 인원, 수하물 이동, 휠체어·유아차 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조성한다.
- 좌석은 장시간 대기와 짧은 대기를 모두 고려하여 배치해 고령자와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대기공간은 혼잡 시에도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동선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 냄새, 소음, 혼잡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일 수 있도록 환기와 설비 계획을 함께 고려한다.
- 외부공간을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에는 보행로, 승하차장, 주요 시설물 주변의 조명을 연속적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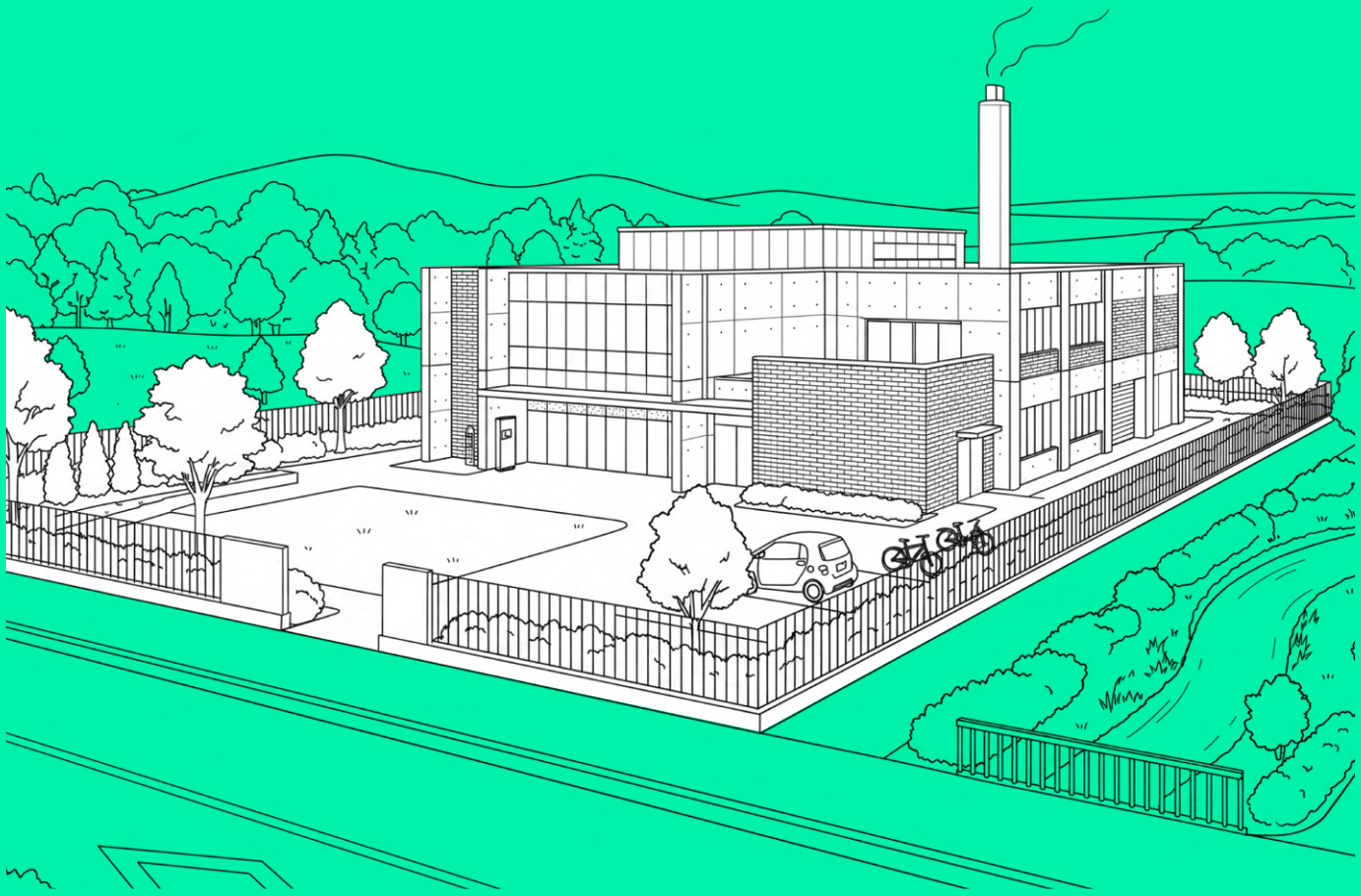
인원 수용 및 이동 폭을 고려한 대합실과 대기공간 배치 및 규모 계획

환경·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과 하수 및 오폐수 등을 수집하고 처리하여 공중위생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심의대상 확인 **상하수도시설 / 쓰레기소각장 /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악취·소음 확산 억제 : 불쾌감과 민원 발생을 줄이는 환경

- 환경·쓰레기 처리시설은 악취, 소음, 분진, 오수 등이 주변 주거지와 보행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주민 이용공간과 행정동은 주요 악취 발생 구역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풍향과 배기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처리공간과 저장공간은 밀폐성과 환기체계를 확보하고, 오염 요소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주 출입구는 반입차량, 관리차량, 방문자 동선등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계획한다.

안전한 차량 운영환경 확보 : 대형차량 이동에 대응하는 공간

- 반입차량과 작업차량의 진출입, 대기, 회전, 후진,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차량 이동구간과 보행구간은 충돌 위험이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작업자 이동구간은 장비 운영구간과 분리한다.
- 진출입부와 하역공간은 노면표시, 포장재, 안내사인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반복적인 차량 이동과 중량 장비 사용을 고려하여 바닥, 벽, 출입부에는 내구성과 세척성이 높은 재료를 적용한다.

혐오 인식 완화와 친환경 인식 개선 : 환경시설의 공공성을 전달하는 디자인 적용

- 환경처리시설은 과도한 위압감과 혐오감을 줄이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돈된 이미지로 계획한다.
- 주민 생활권과 맞닿는 경계부는 교목, 관목, 지형 **마운딩** 등을 복합 적용하여 공정시설의 직접 노출을 줄인다.
- 인접 가로는 사계절 경관을 고려한 수종 식재와 야간조명을 적용하여 산업시설보다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
- 시설의 역할, 처리 공정, 자원순환 메시지는 과도한 **슈퍼그래픽**보다 이해하기 쉬운 안내, 견학 동선, 공공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전달한다.

마운딩	미적 효과, 배수 원활, 식재 공간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작은 언덕이나 굴곡진 지형을 만드는 조경 및 토목 기술
슈퍼그래픽	아파트, 공장, 학교 등의 건물 외벽을 그래픽으로 작업해 장식하는 것

상하수도시설 :
기반시설의 안정감과 신뢰감이 드러나는 경관 구성

- 상하수도시설은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안정감과 신뢰감이 드러나도록 외관과 경계부를 정돈한다.
- 외부에서 보이는 설비와 구조물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녹지와 차폐요소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시킨다.
- 저장공간과 처리공간은 악취와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성과 환기체계를 확보한다.
- 반입차량의 대기와 하역이 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차량 동선과 안전한 작업공간을 계획한다.

쓰레기소각장 :
공공 기반시설로 인식되는 정돈된 환경

- 쓰레기소각장은 악취와 차량 이동으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밀폐성, 환기체계, 진출입 동선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바닥, 벽, 설비 주변은 오염물이 쉽게 달라붙지 않고 세척이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적용한다.
- 건축물 외관과 경계부는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되도록 정돈하고, 과도한 장식보다 기능성과 관리성을 우선한다.

음식물처리시설 :
냄새와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 환경

- 음식물처리시설은 냄새와 오염물 관리가 핵심이므로 반입, 저장, 처리, 반출 과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저장공간과 **하역공간**은 밀폐성과 환기체계를 확보하고, 세척과 배수가 쉬운 구조로 조성한다.
- 반입차량의 대기, 하역, 세척 동선은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고, 주변 생활권과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외관과 경계부는 혐오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녹지, 차폐, 저채도 색채, 정돈된 재료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필수기반시설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이 설치·운영하는 필수 시설
하역공간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공중화장실

다수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설비 등을 갖춘 공공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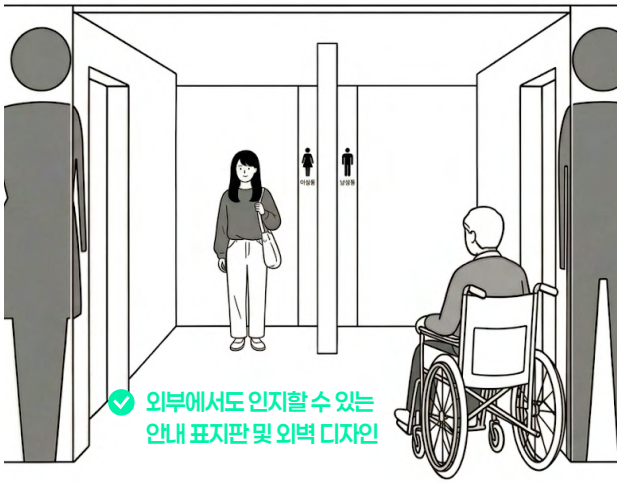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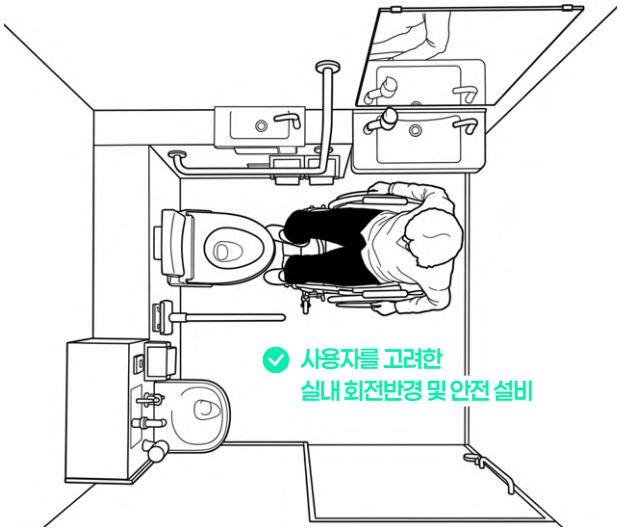
바로 찾는 화장실 :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배치

- 공중화장실은 주변 보행동선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위치에 배치한다.
- 외부에서도 화장실 기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외벽 디자인을 적용하되, 고채도 도색, 과도한 슈퍼그래픽, 상업 목적의 광고물 부착은 지양한다.
- 남자와 여자 공간은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 보행로에서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간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 주변에는 조명, CCTV, 비상벨, 불법촬영 점검시스템 등을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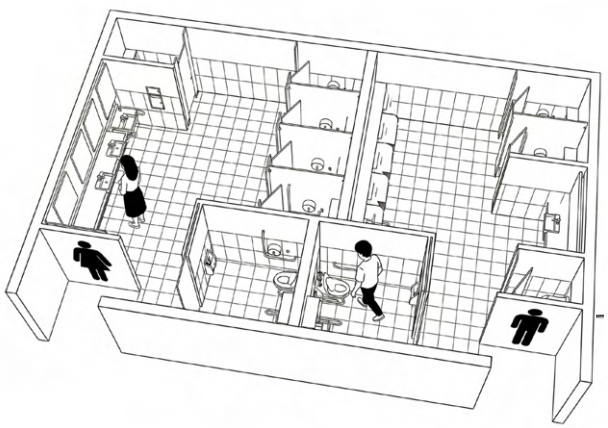
보편적 이용환경 조성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실내

- 공중화장실 내부는 휠체어, 유아차, 고령자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 단차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남녀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은 관련 설치기준을 준수해, 유아 동반자와 보호자 이용도 함께 고려한다.
- 바닥, 벽, 세면대, 위생기구 주변은 오염이 쉽게 쌓이지 않고 청소가 쉬운 재료와 구조로 계획한다.
- 물 사용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배수, 환기, 건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자연채광과 통풍을 확보한다.



기능 분산형 화장실 구성 :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화장실 편의공간 제공

- 휠체어 이용, 유아 동반, 가족 이용, **오스토메이트** 설비 등 다양한 기능이 다목적화장실 한 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유아 동반 설비, 휠체어 이용자 화장실 등은 이용 수요에 따라 배치해 필요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사인은 장루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수유실, 남녀공용 화장실, 휠체어 사용여부 등을 픽토그램과 함께 표시한다.
- 내·외부 안내사인은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계획한다.



이동식 화장실 : 임시 이용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

- 행사장, 공원, 공사장, 임시주차장 등 일시적 이용 수요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검토한다.
- 이동식 화장실은 출입구 유효폭, 출입 전면 활동공간, 문턱 제거 등을 검토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고령자, 유아 동반자 등을 고려하여 손잡이, 내부 회전공간, 출입 경사로 설치를 검토한다.
- 이동식 화장실 주변에는 야간 이용을 위한 조명과 안내사인을 설치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장기간 설치되는 경우 악취, 쓰레기 적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일시적 이동 수요를 고려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오스토메이트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배설 기능을 잃고 복부에 인공 항문이나 인공 방광(장루·요루)을 조설한 사람. 복부에 파우치(봉투)를 장착하여 모인 배설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장루형 변기 사용이 필수적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환경·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냄새와 혐오감 민원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A. 환경·쓰레기 처리시설은 도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숨기는 방식보다 냄새, 소음, 외관을 함께 관리해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밀폐성과 환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입차량의 진출입 위치는 주거지나 보행동선과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보세요. 외관과 경계부는 과도하게 닫힌 이미지보다 정돈된 공공기반시설로 보이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터미널에서 '환승 동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A. 환승 동선은 이용자가 한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는 길입니다.

터미널에서는 버스에서 내려 매표소, 대기공간, 승강장, 택시·PM·보행 출입구로 이동하는 경우를 고려한 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환승 동선은 짧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안내가 끊기지 않고 위험한 차량 동선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하차 및 대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은 출입구와 대기 위치가 보행 흐름을 막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환승 시 대기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짐이 많은 사람이나 고령자 등 편의를 위해 터미널 내 바닥 단차 최소화, 대기 위치 및 휴게공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01 명확한 탑승구 및 동선 정보 제공, 대기 동선 라인 조성
02 동선과 편의를 고려한 대기공간 조성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교통·환경시설은 주변 지역과 어떻게 어울리게 계획하나요?

A. 먼저 시설의 기능이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터미널은 승하차 공간과 보행 진입로가 주변 도로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환경·쓰레기 처리시설은 냄새, 소음, 차량 진출입이 주거지나 보행공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완충공간과 진입 동선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공중화장실은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주변 공원이나 거리 경관과 어울리는 규모와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시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식을 전환하는 디자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 전환 디자인은 외관만 특이하게 만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기능인 위생, 안전, 악취 저감, 동선 분리, 유지관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위에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더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필요하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을 활용하거나, 시군 자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있는 경우 사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01 공중화장실 인식전환 디자인 (일본, The Tokyo Toilet)
02 쓰레기소각장 구조를 활용한 전망대 (덴마크, Copenhill)

Q. 공중화장실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조성해야 하나요?

A.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유아 동반자, 장루·요루 이용자, 외국인 등 이용 조건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구와 내부 바닥은 단차 없이 계획하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보세요. 또한 휠체어 이용, 유아 동반, 가족 이용 기능이 다목적화장실 한 칸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내사인에는 남녀 구분뿐 아니라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장루용 변기 등을 픽토그램과 함께 표시해보세요.

보다 세부적인 설치 기준과 공간별 적용 방법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위생 및 편의공간' 파트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

도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102

도로부속시설물 120

교통기반시설물 134

도로기반시설물은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및

보행 이동과 교통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반 시설

C 01-07

도로시설물

도로와 주변부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다양한 지형 및 교통 여건에 대응하고
보행자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는 도로와 그 주변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C01 교량 104
교량(철교 포함)

C02 고가차도 106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C03 입체교차로 108
입체교차로

C04 지하차도 110
지하차도

C05 지하보도 112
지하보도

C06 터널 114
터널

C07 생태통로 116
생태통로

C 01-07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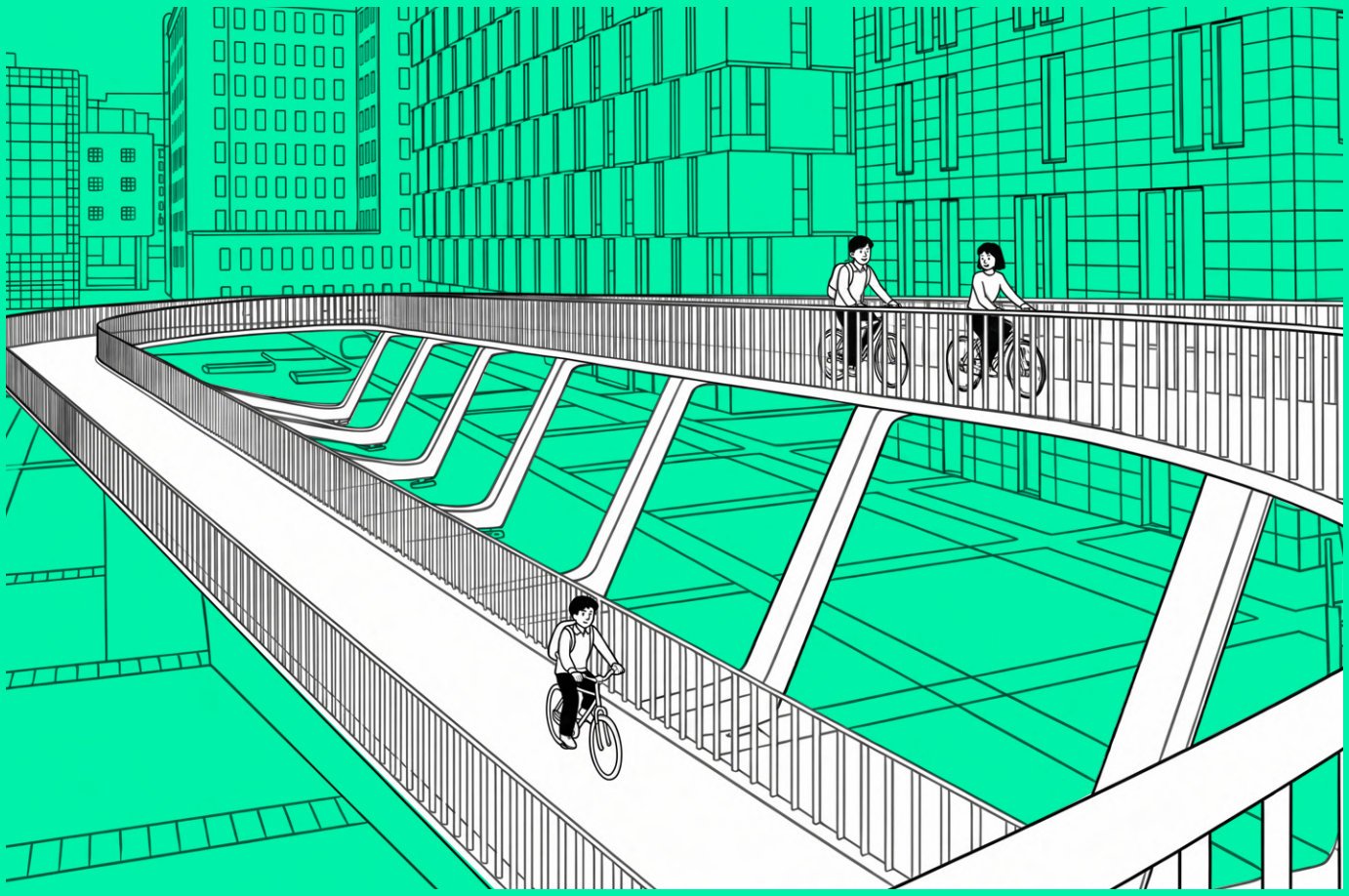
- **실행중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지역맞춤** 주변 도로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지역의 지형과 경관을 반영하여 조화로운 도시기반시설을 형성한다.
- **미래대응** 재난·사고와 시설 노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고, 점검과 유지관리가 지속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교량

하천과 계곡 또는 도로와 철도 등을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심의대상 확인 **교량(철교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일관적인 시설물 디자인 :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

- 교대, 교각, 거더, 난간 등 주요 구조부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고 광고물, 슈퍼그래픽, 장식용 조형을 지양한다.
- 난간과 펜스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 교량과 도로가 만나는 **가각부**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 과도한 연출을 지양하고, 보행 안전과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능적 조명을 우선 적용한다.



펜스를 통해 차량과 보행로 동선 구분

경관과 이어지는 시설물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교량 구조

- 교량은 정면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시점에서 상부·하부·측면을 함께 검토한다.
- 동일 노선 또는 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형태·재료·색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교량에 설치되는 가로등, 보행등, 펜스, 보도 포장 등 부속시설은 인접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교량 하부와 부속시설물은 원색·고채도 적용을 지양하고, 유지관리성이 높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보행과 연속되는 교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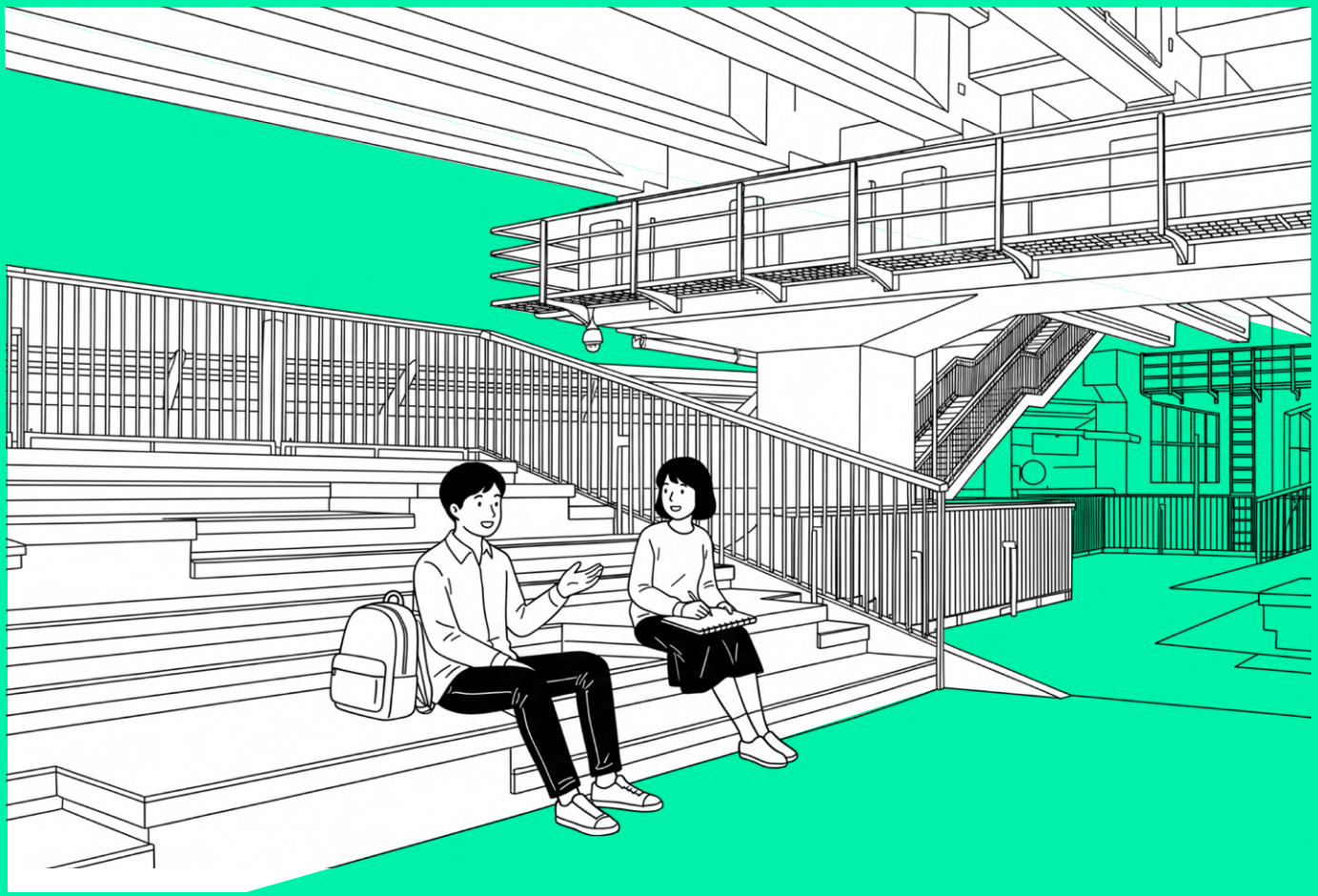
가각부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하며, 교통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 모퉁이 부분을 완만하게 깎아내는 정비 공간

고가차도

도로와 도로의 교차를 피하기 위하여 지면보다 높게 가설하고 그 위에 교량형식으로 설치한 도로

심의대상 확인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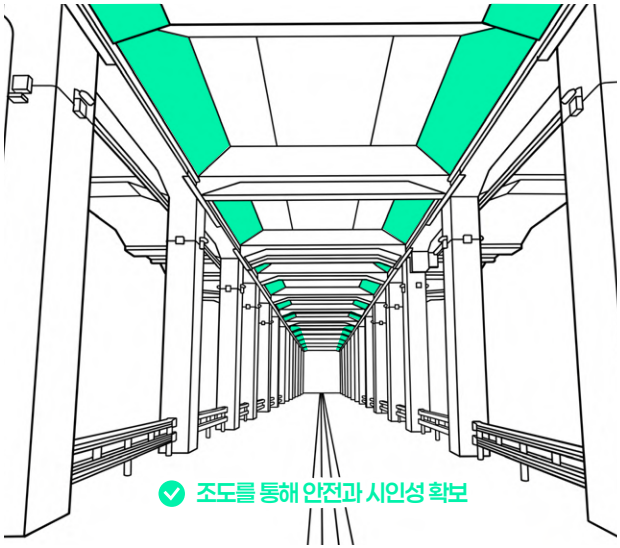
연속적인 도로 경관 형성 : 간결한 구조 및 하부 공간 활용

- 연속 구간 내 고가차도는 디자인 요소를 통일해 유지하고, 노출되는 구조부를 고려하여 정돈된 형태를 권장한다.
- 고가차도 하부는 불법 적치와 시설물 노후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계획한다.
- 보행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하부공간을 활용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활용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시설물의 공간적 요소 : 조도 확보 및 색채 계획

- 상업 및 비상업 광고물 등 과도한 **슈퍼그래픽** 사용을 최소화하며 시각적 혼잡을 지양한다.
- 거더, 교각 등 주요 구조부의 색채는 주변 공간의 색채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저광택 재료 적용을 권장한다.
- 고가차도 하부 조명은 유채색 조명이나 동적인 연출형 조명을 지양하고, 안전과 시인성 확보를 위한 기능 조명 중심으로 계획한다.
- 콘크리트 구조부는 장식적 거푸집 또는 과도한 표면 패턴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의 질감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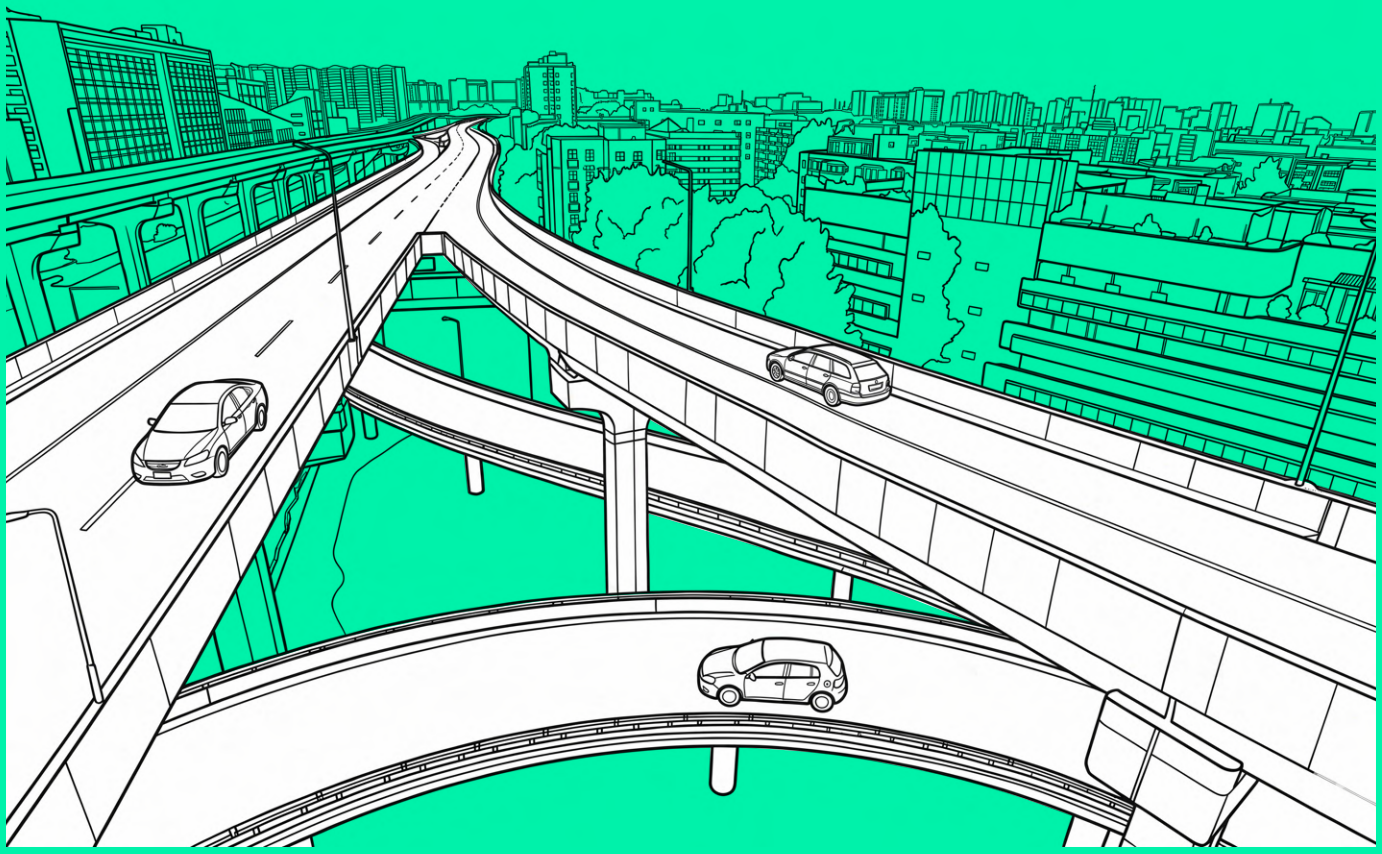
슈퍼그래픽 아파트, 공장, 학교 등의 건물 외벽을 그래픽으로 작업해 장식하는 것

입체교차로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등 상하로 다른 층에서 교차하게 하여 차량 흐름을 분리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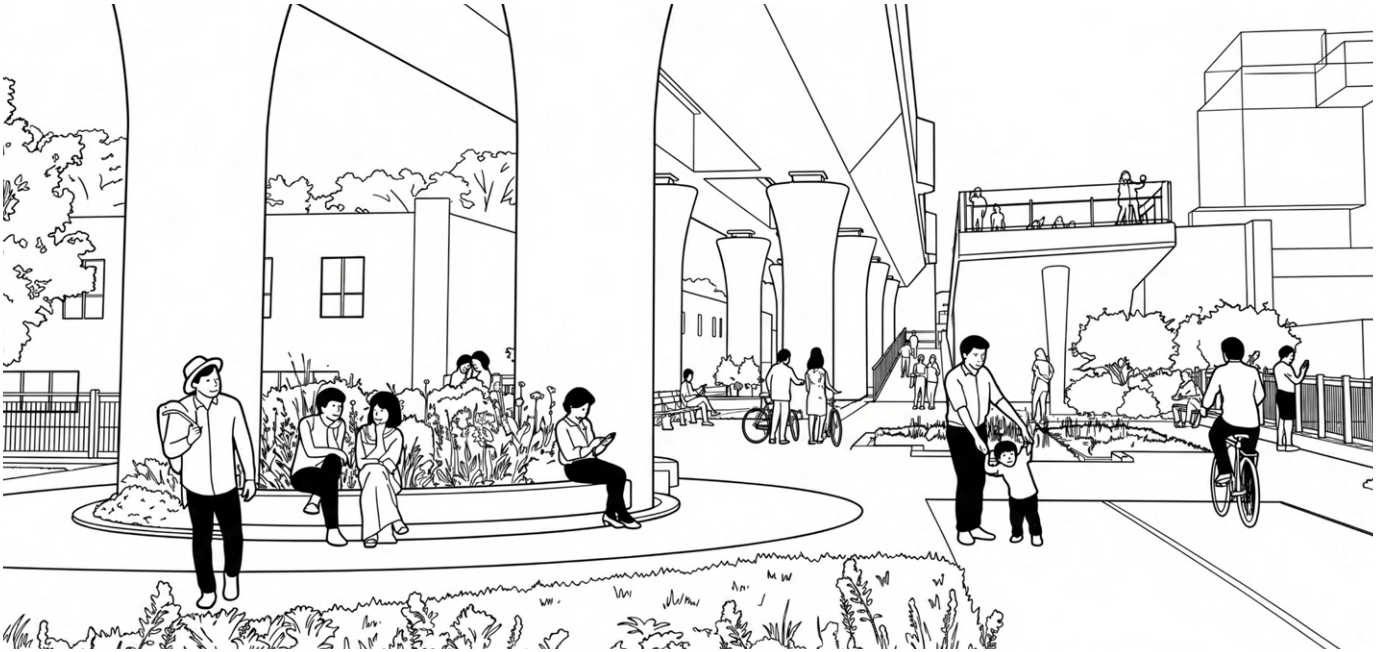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입체교차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단절되지 않는 구조 설계 : 환경 및 시설과 일관적인 디자인

- **교각**, **거더**, 램프 등 주요 구조부는 위치, 부피, 수량을 최소화하여 인공 구조물의 위압감을 줄인다.
- 녹지와 연결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입체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색채는 원색 및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으로 계획한다.
- 입체교차로의 구조 및 부속시설은 도로와 가로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적 연출 및 과도한 조명은 지양하고, 시인성 확보를 위한 범위에서 계획한다.
- 부속시설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과 통합하여 정돈된 경관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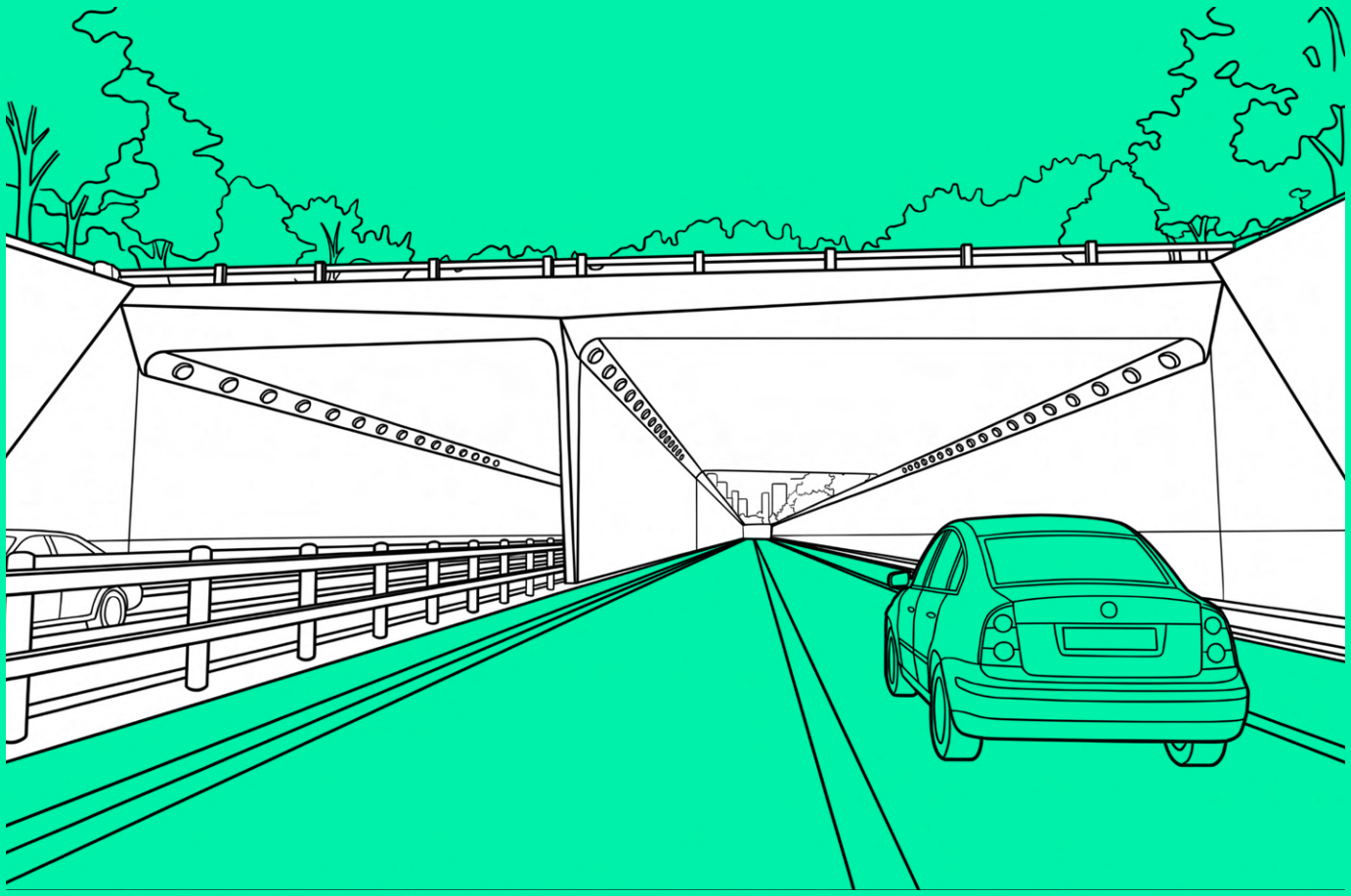
교각	구조물을 떠받치기 위해 강이나 계곡, 도로 위에 세운 '다리 기둥'
거더	교량이나 건물 등 건설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큰 보

지하차도

도로 교차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지하로 분리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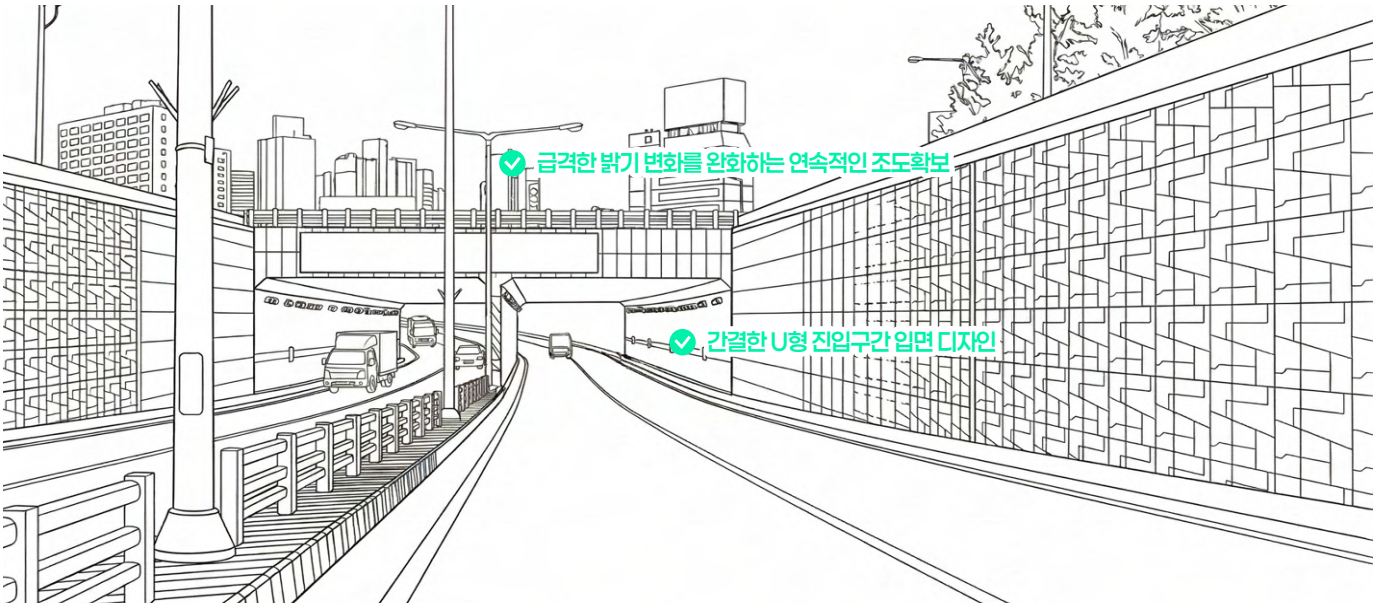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지하차도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구조 : 시야 연속성과 진입부 안전 확보

- **U형** 및 **박스형** 구간의 입면은 차량 이동 시 시각적 단절과 급격한 밝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U형 구간 입면은 시야를 방해하는 그래픽, 특정 이미지, 전통문양, 장식적 거푸집 적용을 지양하고 간결한 이미지로 계획한다.
- 지하차도 경계부에는 차량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진입부와 곡선부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은 방호벽 상부에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하중·설치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 진입부, 상부도로, 주변 보행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물로 인한 경관 단절과 보행 단절을 완화한다.
- 침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U형	상부가 개방되어 있고 양쪽 벽체와 바닥판으로 구성된 U자 모양의 구조
박스형	상부, 하부, 양쪽 벽이 모두 막혀 있는 상자 모양의 구조
방호시설	낙석, 붕괴, 이탈 등의 사고에서 사람, 장비, 구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강도 높은 시설물이나 장치

지하보도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의 지하 공간에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이동 공간

심의대상 확인 **지하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 : 접근성이 높은 위치와 보행동선 계획

- 출입구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고, 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출입구 설치 후에도 성인 2인이 **교행**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보도 폭을 확보한다.
- 지하보도 출입구는 건축물과 연결하여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고, 도시공간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내부 보도는 마감과 연속성을 고려하고, 벽면 청소와 조명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과 공간을 함께 확보한다.
- 지하보도의 계단은 우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재료와 마감을 적용한다.



출입 환경 개선 : 교통약자 이용 편의 및 안전 환경 계획

- 출입구는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이동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 출입구 후면부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보관대 및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피가 가능한 공간 구조로 계획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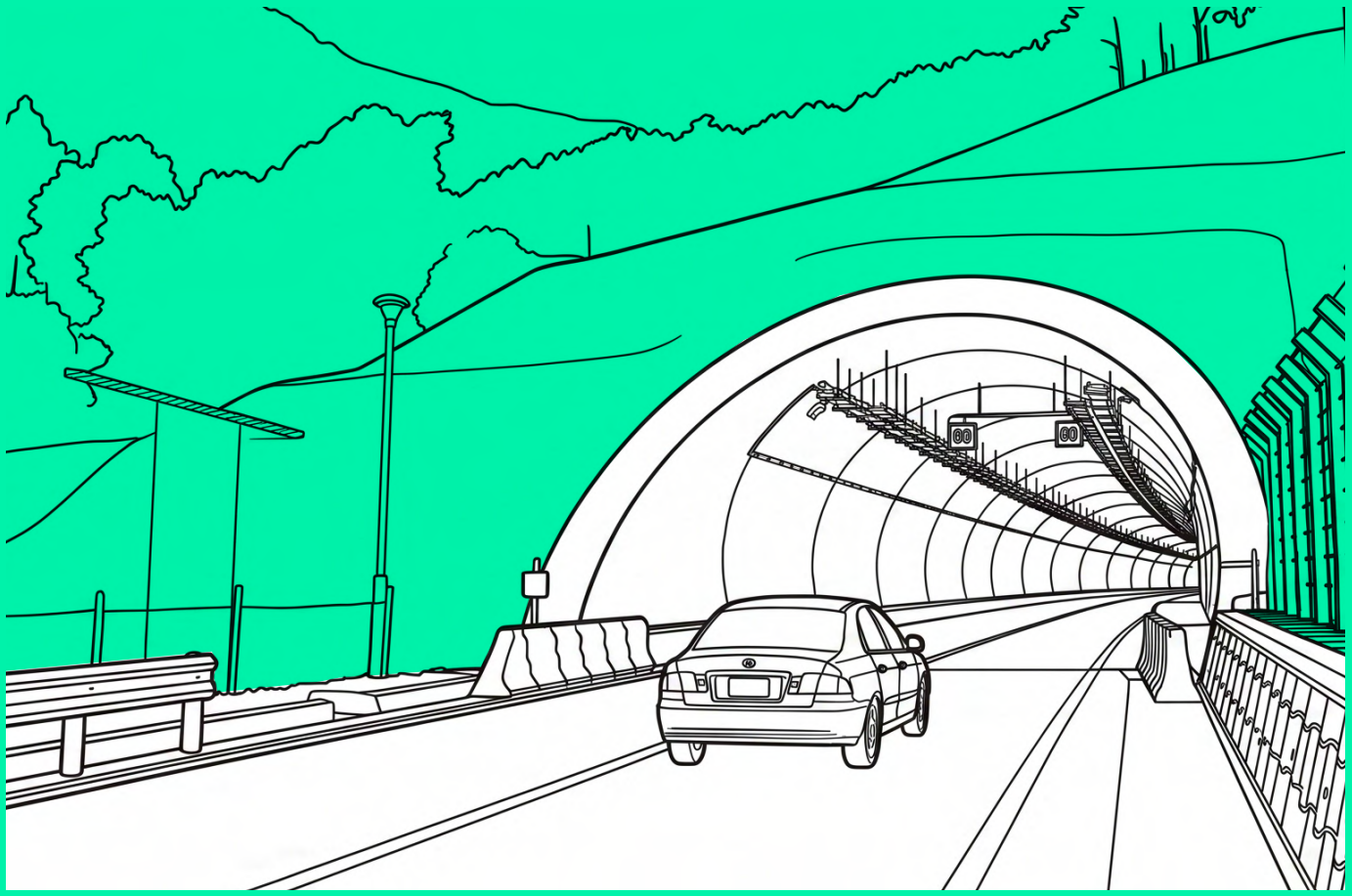
교행 좁은 보도 폭에서 보행자 두 명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최소 1.5m 이상의 보도 폭 권장

터널

산, 강, 바다 밑 등을 굴착하여 지반 내에 만든 연속적인 지하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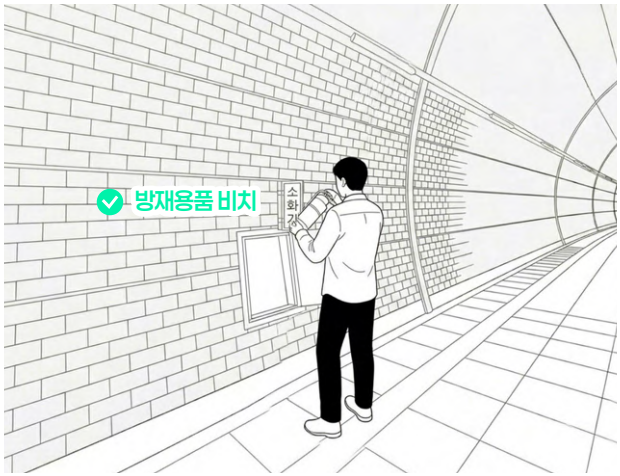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터널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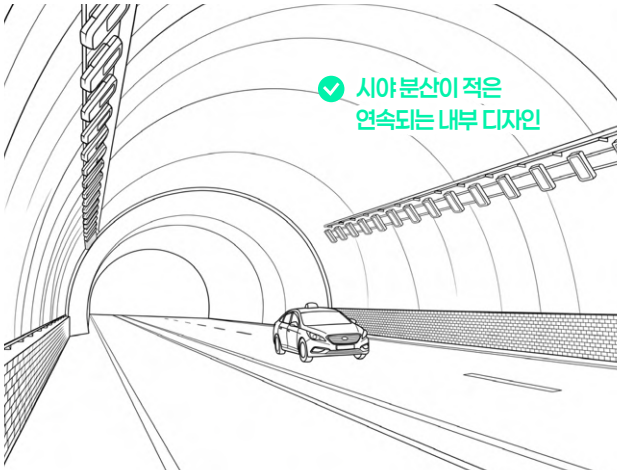
진출입부 계획 : 간결하고 명확한 구조 형성

- 내부 **입면**은 차량 이용자의 시야에서 운행 및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속적으로 설계한다.
- 터널 내부 보도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검토한다.
- 터널 진입 시 조명 밝기와 색온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외부와 내부의 밝기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화재,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피통로와 유도시설 확보를 권장한다.
- 터널 내부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투명 재질의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고, 지속적인 청소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이용자를 고려한 색채 계획 : 시야를 분산하지 않는 시각요소

- 진출입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원색과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 콘크리트 사용 시, 도색보다 재료 고유의 질감이 드러나는 마감을 권장한다.
- 터널 내부와 진출입부는 형태 변화를 최소화하고, 운전자 시야를 분산시키는 그래픽·색채·패턴 적용을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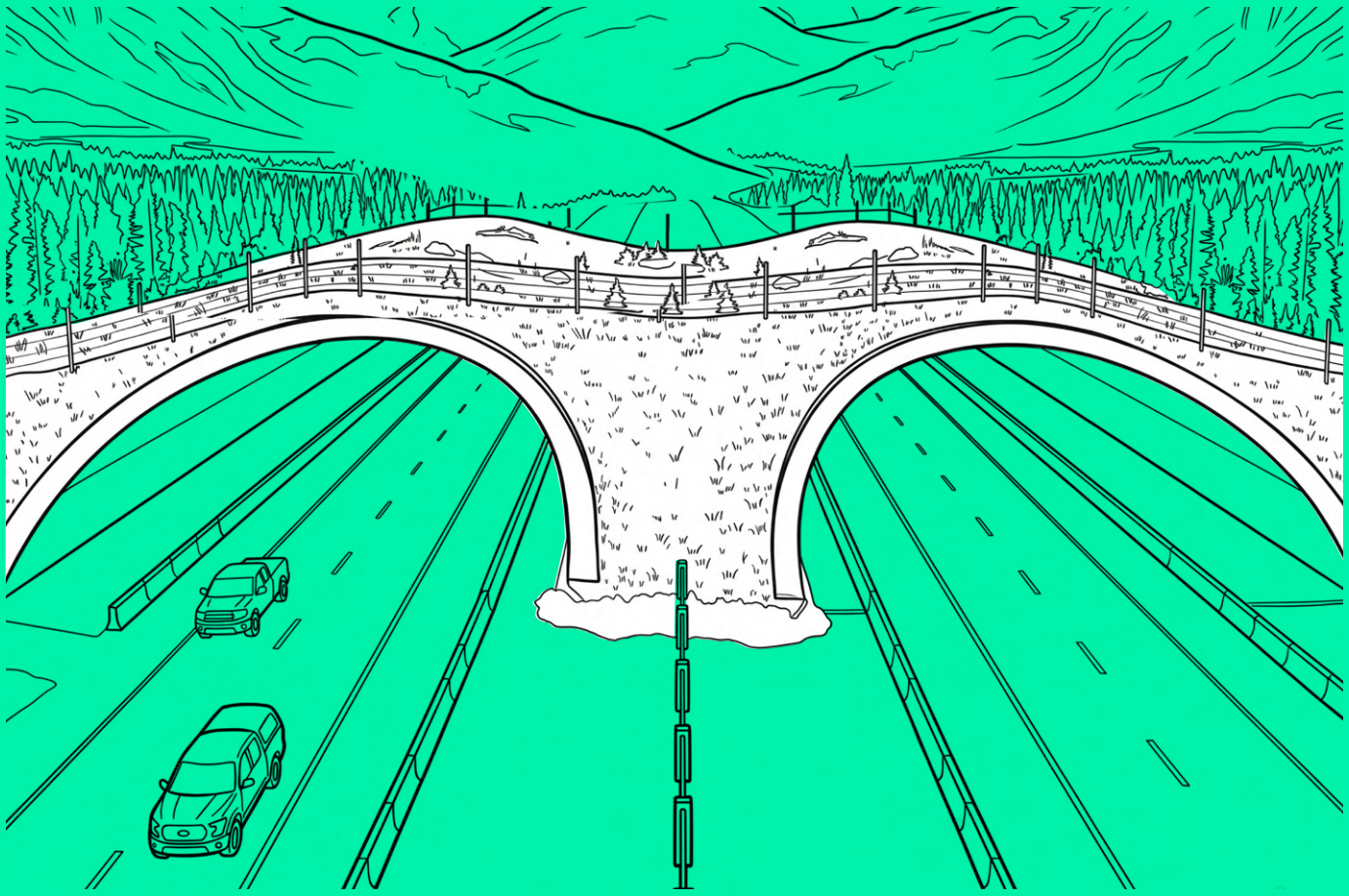
입면 구조물의 외부에서 보이는 수직면 또는 정면부

생태통로

도로, 철도, 댐 등 개발로 인해 단절되거나 훼손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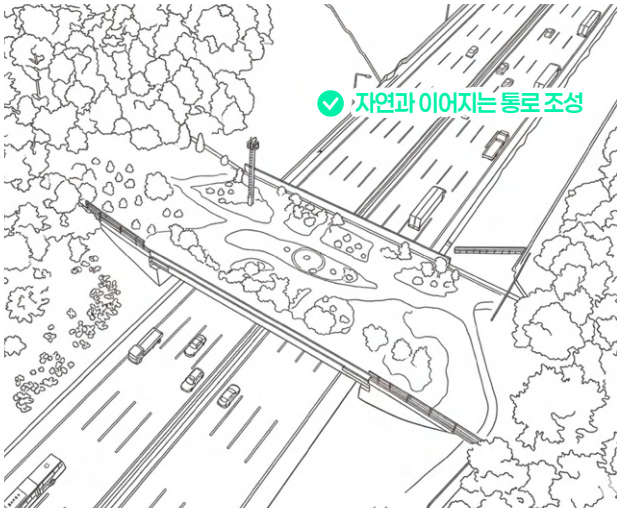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생태통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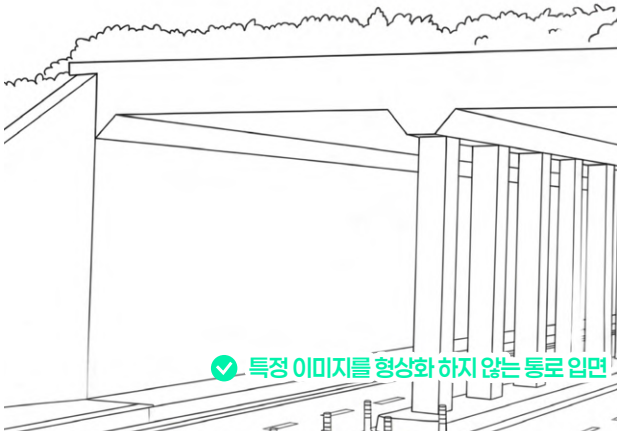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물 구조 : 인공 구조물의 이질감 최소화

- 도로 구조와 대상 동물의 서식 실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설치 위치·규모·형태를 결정한다.
- 생태통로 구조부는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인공 구조물의 부피감을 줄이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한다.
- 주변 생태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벽면녹화 등 식생을 도입해 연속적인 녹지를 형성할 것을 권장한다.
- 야생동물이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되, 침입방지책과 유도펜스는 생태통로 유도 효과가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색채 및 조명 계획 : 생태 환경을 고려한 조도 및 그래픽

- 콘크리트 구조면에는 동식물, 구름, 전통 문양 등의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식적 **거푸집** 적용을 지양한다.
-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고광택 및 원색 재료는 지양하고, 저광택·저채도·저명도 재료를 적용한다.
- 야생동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채색 조명과 색 변화가 있는 조명 연출을 지양한다.
- 접근로에는 야생동물 출현 주의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원하는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지지하는 임시 구조물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교량 및 고가차도 하부공간이 방치되거나 슬럼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A. 하부공간은 비워두는 것보다, 관리 가능한 용도를 정해 지속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량과 고가차도 하부는 그늘지고 시야가 닫히기 쉬워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범죄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방치된 빈 공간인지, 생활권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인지 구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 이용이 가능한 위치라면 주차장, 운동공간, 휴게공간, 문화활동 공간처럼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유지보수 및 관리 주체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주민 일상 문화공간으로 개선 (서울)

Q. 도로시설물에서 '시야 확보'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A. 시야 확보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미리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등 이동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시야가 막히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시설물이 진입부나 곡선부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행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량 흐름을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생태통로는 동물이 지나가는 길만 만들면 충분한가요?

A. 생태통로는 단순히 동물이 지나가는 구조물이 아니라, 끊어진 생태축을 다시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통로의 폭과 형태뿐 아니라 주변 녹지, 소음, 조명, 사람의 접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물이 통로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려면 주변 식생과 연결되고, 차량 조명이나 소음의 영향을 줄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쉽게 들어가거나 시설물이 너무 밝으면 생태통로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와 접근 제한 방식도 함께 계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과도한 그래픽, 패턴, 고채도 색상이나 조명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나요?

A. 도로시설물에서는 그래픽과 색채, 조명을 꾸미는 요소로 쓰기보다, 방향을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로시설물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공간이므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도 강하게 보이는 대형 이미지, 반복적인 고대비 패턴, 원색 중심의 색채, 색이 변하는 조명은 차량 주행 중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색채를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강하게 칠하기보다 주조색과 보조색을 나누어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을 활용하거나, 시군 자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있는 경우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





01 3개 이상의 원색 조명으로 경관 혼잡도 증가
02 기능 중심의 은은한 조명으로 경관 개선

Q. 지하차도나 터널 조명은 어떻게 밝게 디자인하나요?

A. 지하차도와 터널은 구조상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밝기만 높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보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면은 복잡한 그래픽이나 패턴보다 깔끔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출콘크리트, 무광택 마감, 저채도 색채처럼 빛을 과하게 반사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면 조명이 안정적으로 퍼지고, 시야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명은 한 부분만 강하게 밝히기보다 진입부부터 내부까지 밝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출입부는 외부 밝기와 내부 밝기 차이가 커서 눈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갑자기 어둡거나 갑자기 밝아지지 않도록 조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보세요.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방향과 각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한 외벽 마감 및 기능 중심의 은은한 조명 적용

C 08-12

도로부속시설물

도로 이용자의 안전, 편의와 도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C08 보도육교 122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C09 방음벽 124
방음벽

C10 방호울타리 126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C11 낙석방지망 129
낙석방지망

C12 석축·옹벽 131
석축 / 옹벽

C 08-12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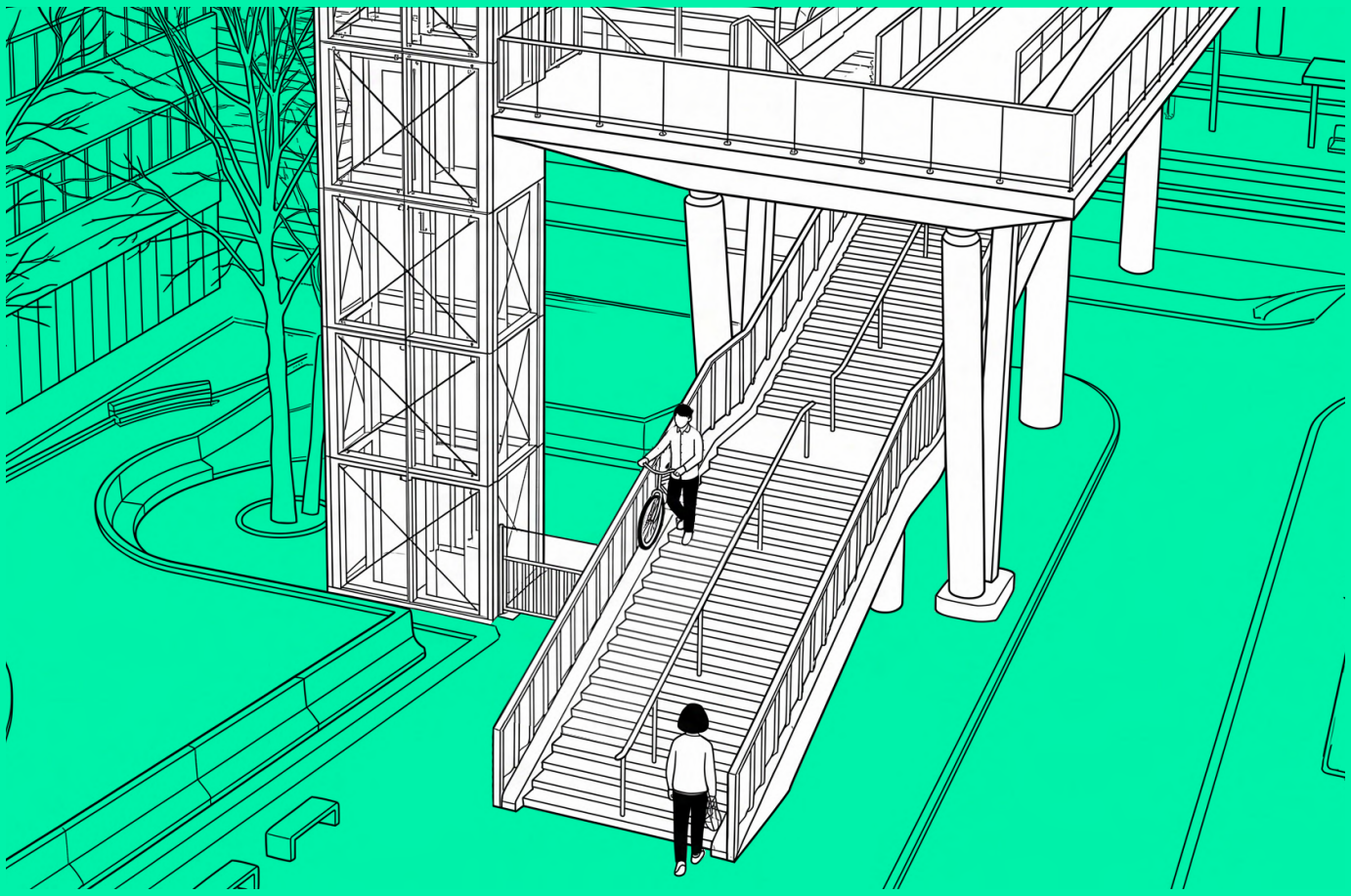
- **실행중심** 도로 이용자가 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지역맞춤** 도로 유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중복 설치 최소화로 시각적 혼잡을 줄인다.
- **미래대응** 외부 충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구조와 재료를 적용한다.

보도육교

보행자가 자동차도로, 철도 등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교량 형태의 보행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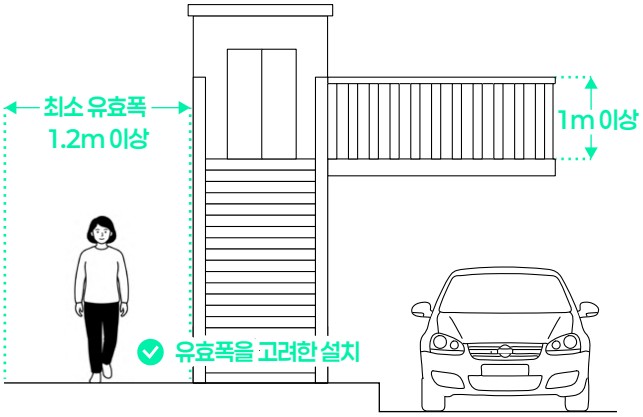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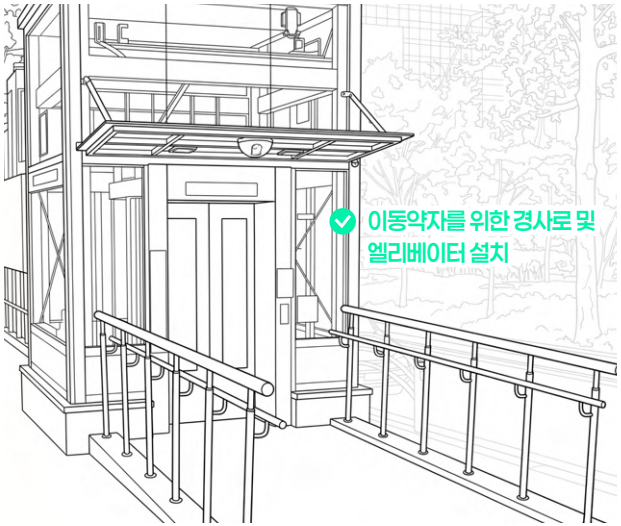
통행의 이용성 및 동선 고려 : 접근성이 높은 위치와 안전한 구조

- 육교 하부와 구조물은 보행자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최소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한다.
- 보도육교 난간은 보행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1m 이상 높이를 확보한다.
- 보도육교 입면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장식적 요소 설치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의 구조로 설계한다.
- 보도육교 설치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보행자 동선과 자전거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우회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모두의 이동환경 개선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물 계획

- 노약자, 휠체어·자전거·유아차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은 자전거 경사로 등 이동편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마감을 적용하고, **미끄럼 방지** 성능은 최소 45 BPN 이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야간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유채색 또는 빛변화가 연출되는 조명 설치는 지양한다.
- 조명 설치 시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와 각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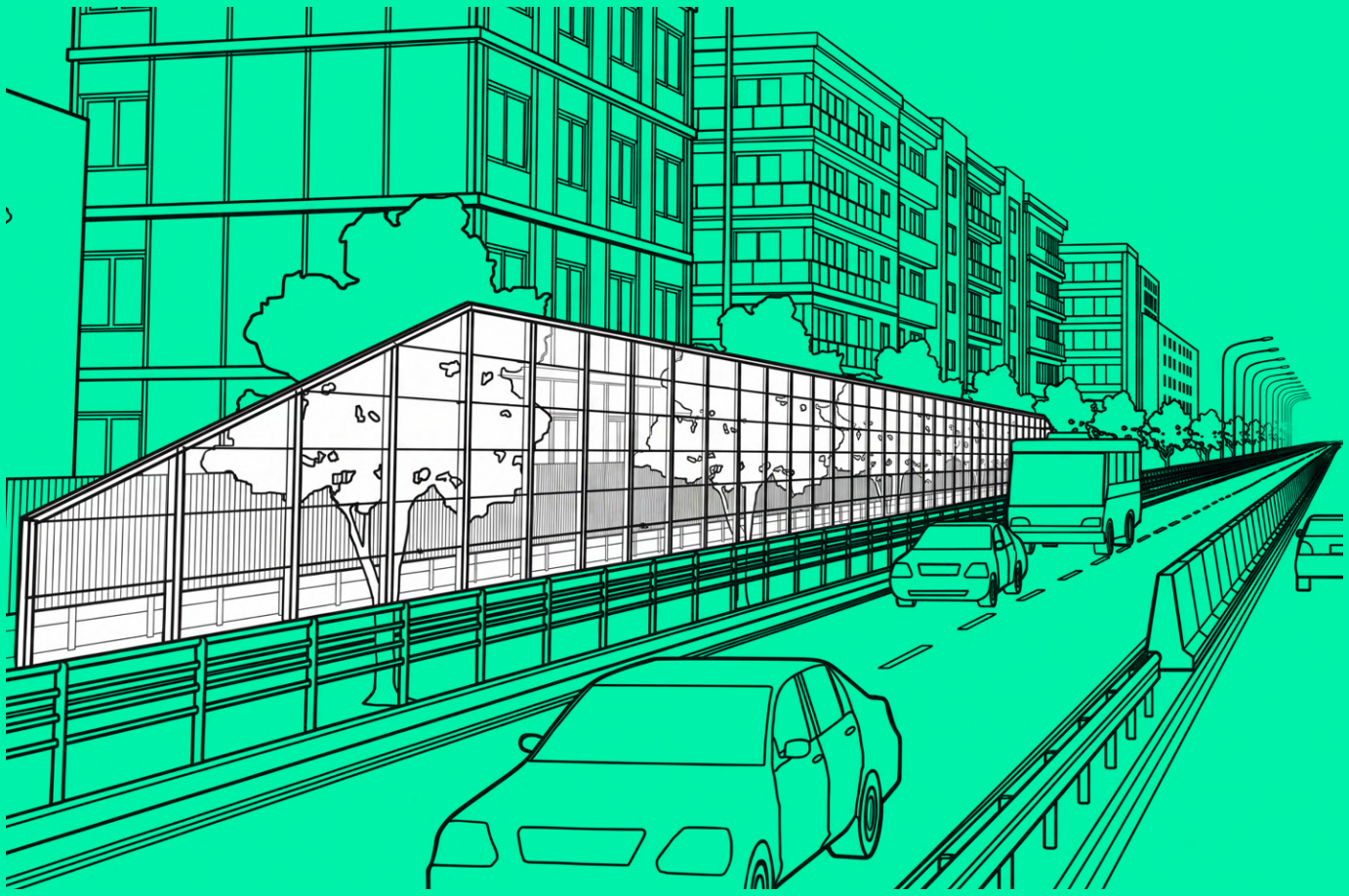
미끄럼 저항 바닥이나 도로 표면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마찰력을 수치화한 지표(BPN)로, 보도의 경우 40BPN 이상으로 권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방음벽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인접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차폐형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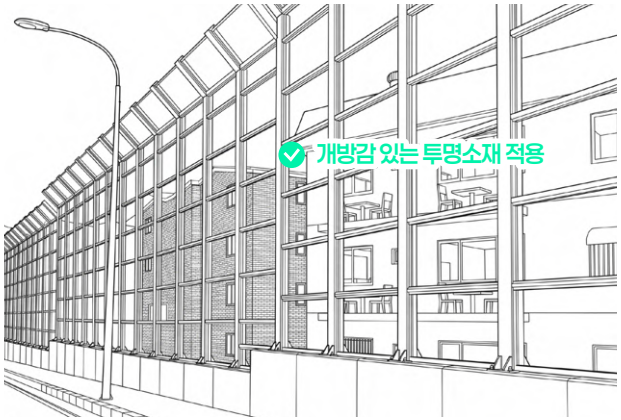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방음벽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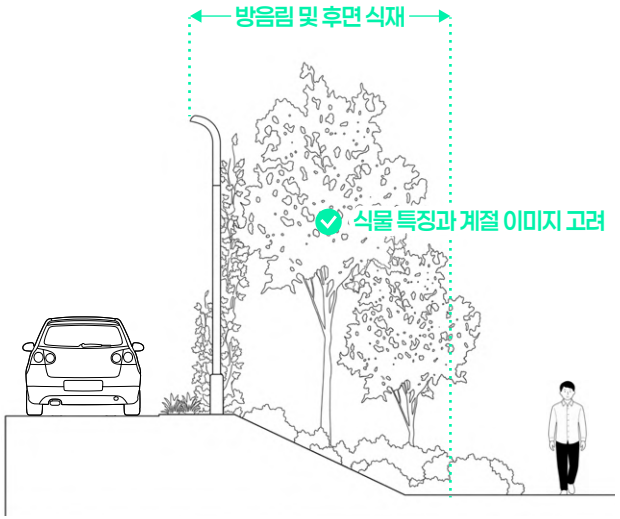
생활공간을 고려한 계획 : 소음 저감과 채광 확보

- 학교, 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인접 구간은 가능한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이격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한다.
- 폐쇄감을 줄이기 위해 내구성, 유지관리성이 높은 투명 소재 적용을 권장한다.
- 유리 등 투명 소재 적용 시 조류 충돌과 이용자 시인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쇄·코팅 등 일체형 패턴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물 : 소음차단 기능에 집중한 구조

- 유지관리에 취약한 조형 장식물 부착을 지양하며 간결하고 개방적 구조와 형태로 정돈된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 방음벽은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설치구간 간 관계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방음림**, **벽면녹화** 방음벽 적용 시 식물별 성장 특징과 계절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방음벽 높이는 소음 저감 성능을 우선 확보하고 주변 경관, 조망을 고려하여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한다.
- 모듈형 구조를 적용하여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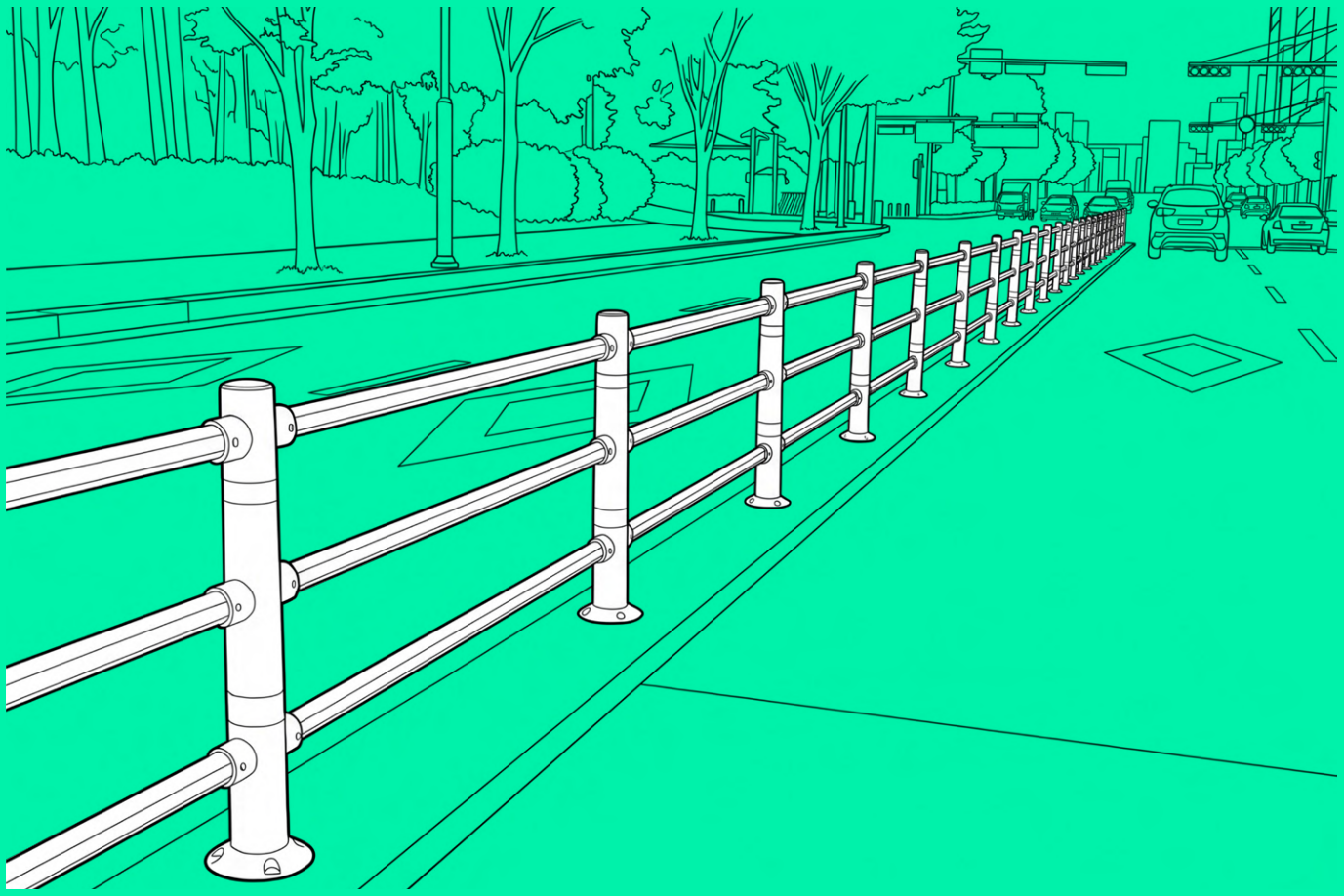
방음림	도로, 철도 등 소음원 주변에 수목을 띠 모양으로 심어 소음을 감소시키는 녹지대
벽면 녹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 담장, 옹벽 등에 식물을 심는 친환경 건축 기법

방호울타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도로 및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선형의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안전한 이용 환경 : 운전자 인지성 확보와 보행자 보호

- 운전자가 도로의 경계, 곡선부, 위험 구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위치와 연속성을 계획한다.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은 차량 진입과 충돌 위험을 줄 일 수 있도록 방호 기능과 설치 위치를 함께 검토한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과도하게 가리지 않도록 설치 높이와 구조를 계획한다.



시설물의 위치와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 내구성 확보와 손상 대응

- 장기간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충돌, 부식, 오염에 강한 **내식성** 재료를 선정한다.
- 파손 시 전체 철거 없이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형 구조와 표준화된 규격을 검토한다.
- 점검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 위치와 구조를 단순하게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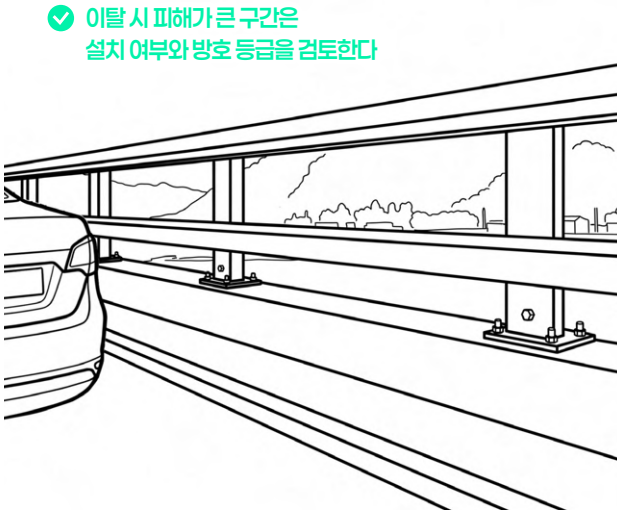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 내구성과 운전자 인지성 확보

- 가드레일 및 다양한 교통 안전 시설과 통합해 설치하고, 도로 전반의 안전 체계와 일관되도록 계획한다.
- 도심의 환경 개선과 **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형 분리대 적용을 검토한다.

내식성	주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
열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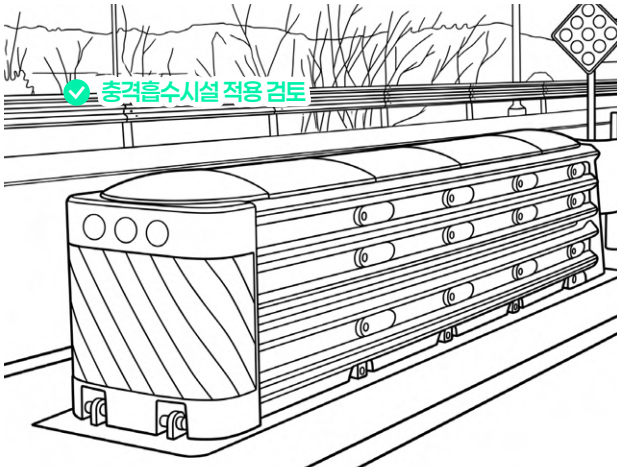
방호울타리 : 차량 이탈 방지와 충돌 피해 저감

-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반대 방향 차로 또는 보도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 탑승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차량 이탈 시 사고 피해가 큰 구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와 방호 등급을 검토한다.
- 방호울타리는 도로 조건, 교통 조건, 지형 조건, 시선 유도, 주변 도로 환경, 시공 조건, 유지 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동일 노선 또는 연속 구간에서는 단절 설치를 지양하고, 같은 형식이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 높이, 지주 간격, 전이구간 등 세부 구조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성능 기준과 설치 기준을 따른다.



중앙분리대 : 차로 이탈 방지와 정면충돌 피해 저감

- 중앙분리대는 차량이 반대 방향 차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정면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해 단부처리시설 또는 충격흡수시설 적용을 검토한다.
- 중앙분리대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와 교차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와 구조로 계획한다.
- 식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 시야, 수종 높이, 계절감, 유지관리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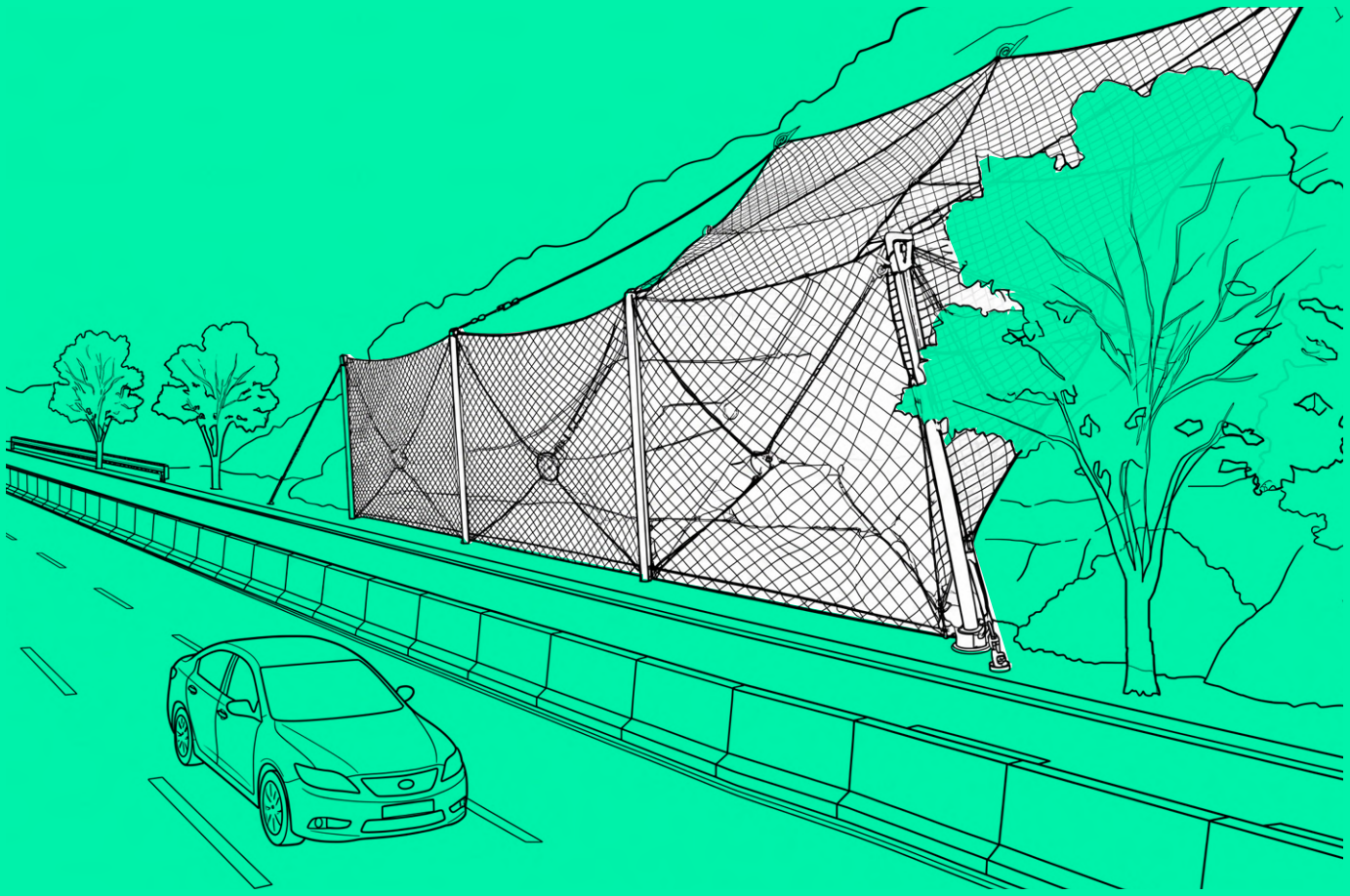
단부처리시설 차량 충돌 시 방호울타리 단부가 차량 내부로 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탑승자를 보호하는 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 사면, 옹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을 차단하여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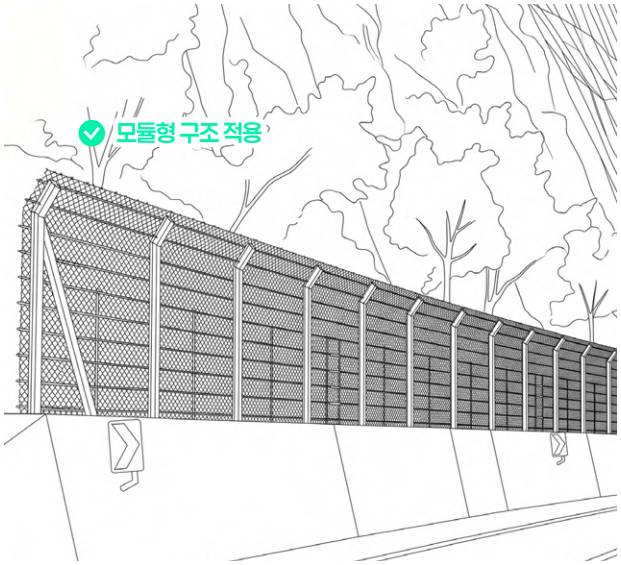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낙석방지망**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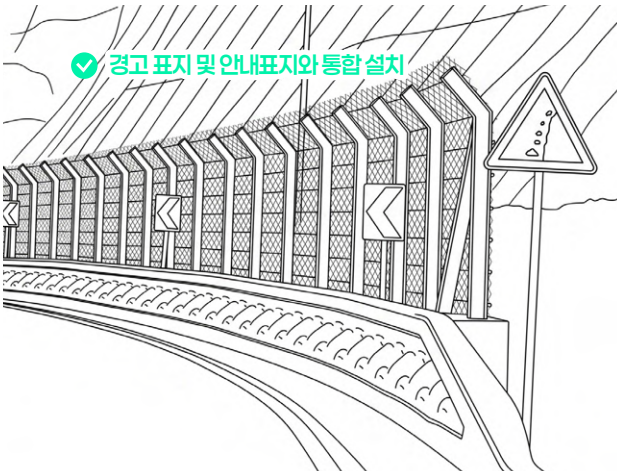
충격에 대응하는 재료 적용 : 낙석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 확보

- 낙석 충격과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는 **90kj**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적용하여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유지관리가 우수하도록 검토한다.
- 부분 파손이나 변형 발생 시 필요한 구간만 보수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구조를 고려한다.
- 기초부와 지지 구조는 낙석 충격, 토압, 배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계획한다.
- 망은 낙석을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구조로 계획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적정한 망눈 크기와 고정 방식을 적용한다.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 저채도 색상과 자연스러운 마감

- 주변 산지, 절개면, 녹지와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을 적용해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한다.
- 경고 및 안내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필요한 수량만 설치하여 시각적 혼잡을 최소화 한다.
- 덩굴식물 식재, 벽면 녹화 등을 활용하여 인공적인 경관을 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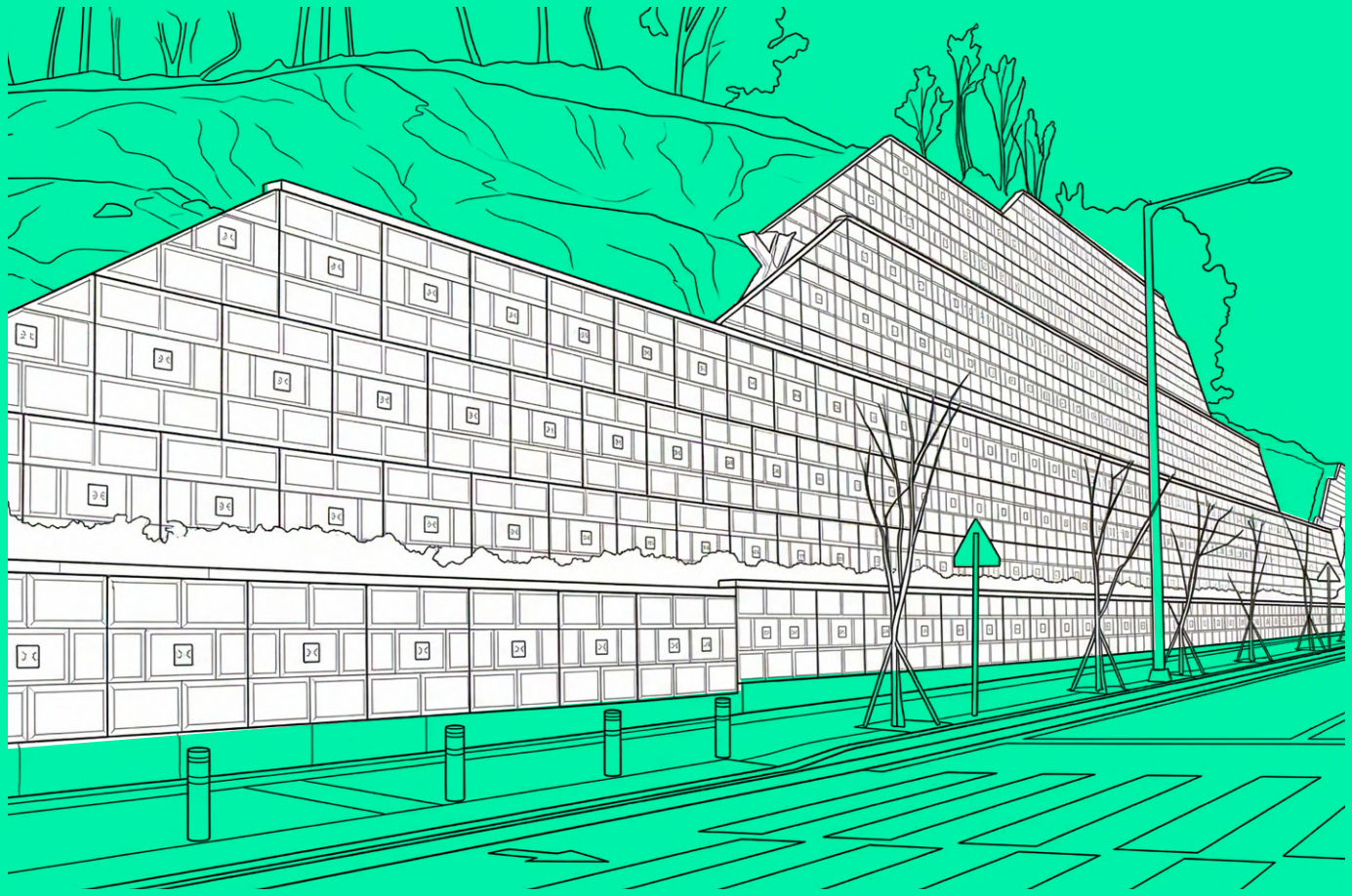
90kj 이상 낙석의 평균 에너지는 약 100kj 내외로 보며, 설계 시 이 이상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을 검토

석축·옹벽

사면 붕괴를 방지하고 지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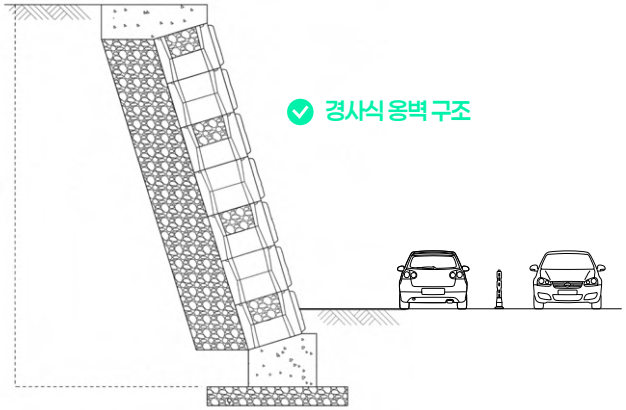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석축 및 옹벽**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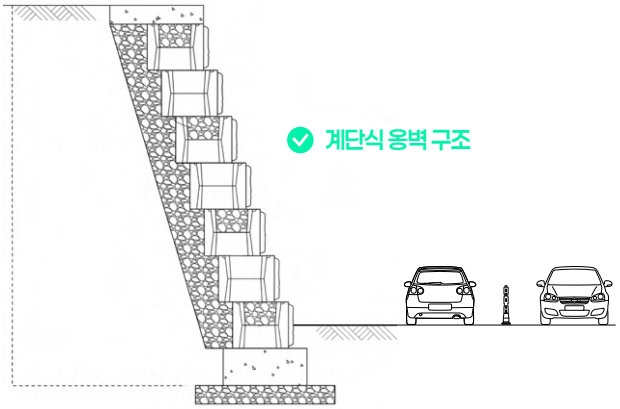
구조 안전을 우선한 설치 : 사면 조건과 배수 고려

- 불필요한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설치할 경우 구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 자연적 지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최소 규모로 계획한다.
-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이므로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와 마감 방식을 적용한다.



입면 부담을 줄이는 형태 : 높이 최소화와 분절

- 옹벽의 높이는 **사면** 안전 확보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단일 입면은 지양한다.
- 옹벽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사식 또는 계단식 구조를 적용하여 입면 부담을 완화한다.
- 보행로, 진입부, 방음벽 등 인접 시설과 만나는 구간은 높이와 마감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 석재, 자연형 블록, 벽면녹화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마감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원색, 고채도 색상, 과도한 패턴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지형과 건축물에 어울리는 저채도 색채를 적용한다.
-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구조물의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완화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사면 흙이 옹벽에 의해 지지되거나, 옹벽 전후방에 형성된 경사진 지반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보도육교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이 발생하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A. 보도육교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단만 있거나 이동 동선이 멀면 더 짧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도육교는 안전을 위해 설치되지만, 실제 이용자가 돌아가야 하거나 계단 이용이 어려우면 무단횡단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횡단 수요, 보행 동선, 주변 횡단보도 위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곳은 엘리베이터와 충분한 대기공간을 검토하고, 보도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출입부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주변 횡단보도 부재로 무단횡단 유발
02 경사로 및 엘레베이터 설치로 보도육교 이용 편의 향상

Q. 도로부속시설물에서 '중복 설치 최소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같은 위치에 여러 시설을 따로 세우지 않고, 기능이 겹치는 시설은 통합하거나 설치 위치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호울타리, 표지, 조명, 펜스 등 시설물들이 각각 따로 설치되면 도로가 복잡해 보이고 보행공간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중복 설치 최소화는 시설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설치 방식과 위치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구간에 펜스와 안내표지가 함께 필요하다면 지주 통합이나 배치 간격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도로부속시설물은 설치 후 어떤 유지관리를 함께 계획해야 하나요?

A. 파손 여부만 보지 말고, 안전성, 시야 및 보행 방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육교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난간, 조명을 함께 점검하고, 방음벽과 방호울타리는 파손과 오염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낙석방지망과 석축·옹벽은 구조 안전과 배수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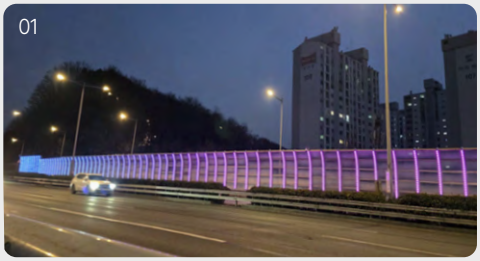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답답하고 삭막하지 않은 방음벽은 어떻게 디자인하나요?

A. 방음 기능을 유지하면서 압박감을 줄이는 재료와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개방감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주변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보세요.

방음벽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지만, 높고 긴 벽면이 반복되면 답답한 경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명 또는 반투명 재료를 활용해 시야 차단을 줄이고, 주변 녹지나 가로환경이 이어져 보이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투명 재료를 사용할 경우 오염과 반사, 조류 충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방음벽 일부에 간접조명이나 일체형 조명을 적용해 보행공간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색이 변하거나 강하게 눈에 띄는 장식조명보다, 벽면과 보행로를 은은하게 밝혀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운전자에게도 긴 벽면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줄이고, 단조로운 주행환경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1 조명형 투명 방음벽 디자인
02 조류 충돌 방지기능이 적용된 간결한 디자인의 투명 방음벽

Q. 낙석방지망이나 석축·옹벽은 어떻게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만들 수 있나요?

A. 구조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 색채·재료·녹화 방식으로 경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낙석방지망, 석축, 옹벽은 산지나 경사지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 자연경관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먼저 구조 안전과 배수, 점검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변 지형과 비슷한 저채도 색채와 내구성 있는 재료를 검토해보세요. 녹화는 경관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유지관리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을 가리기 위한 무리한 장식보다 점검이 쉬운 구조가 우선입니다.

C 13

교통기반시설물

교통기반시설물은 대중교통 이용과 도시 기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

C13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136
지하철 출입구 / 환기구(흡·배기구) / (경)전철 관련 설치물

C 13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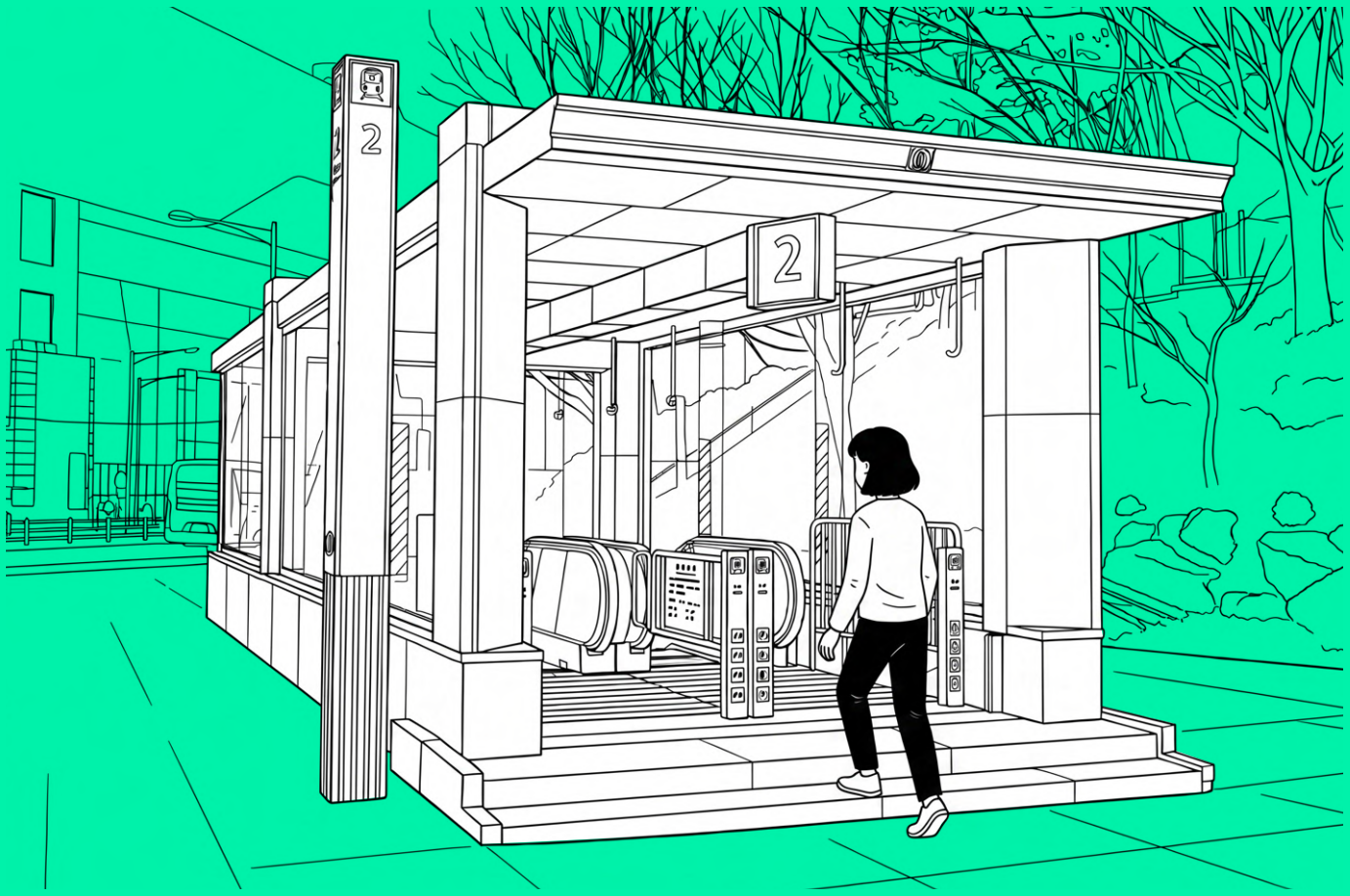
- **실행중심** 보행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역맞춤** 주변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지역과 조화되는 형태와 재료를 적용한다.
- **미래대응** 유지관리와 설비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한다.

지하철출입구·환기구

지상의 도로 등에서 지하 공공 보도시설 또는 지하철역으로 출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로와 환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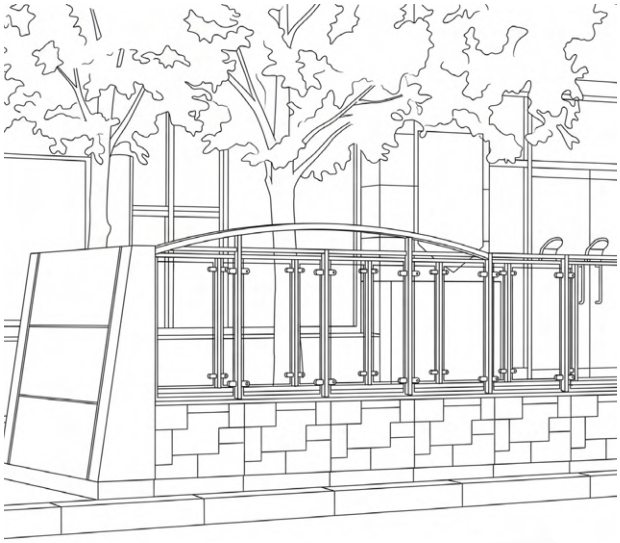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지하철 출입구 / 환기구(흡·배기구) / (경)전철 관련 설치물**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배치 : 동선 단절 최소화

-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지하공간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보도 중앙부를 점유하는 독립형 설치는 지양한다.
-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여 보행자 시야를 확보한다.
- 지하상가·보도와 연결되는 경우 명확한 안내사인 체계를 함께 계획한다.
- 자전거거치대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보행로 가장자리 또는 가로시설물 정리 구간에 배치한다.
- 지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는 환기구는 보행자가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구조와 마감을 계획한다.
- 침수에 대비하여 **차수판** 등의 시설물을 계획한다.



투시형 시설 설치를 통해 환기구 안전사고 예방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 : 간결한 형태와 안전한 마감

- 주변 가로경관과 조화되도록 간결한 형태, 저채도 색채, 내구성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 과도한 장식, 광고물, 슈퍼그래픽, 상징 이미지 적용은 지양하고, 필요한 안내정보만 명확하게 제공한다.
- 환기구 덮개와 마감부는 미끄럼, 소음,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와 구조를 적용한다.



우천 시, 상황에 따라 차수판 설치를 통해 침수 예방

차수판 빗물이 내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설치하는 수동/자동식 판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보행 동선에서 시설물 및 공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때

Q. 지하철 출입구는 보행로에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출입구는 보행자가 이동 중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되, 보행 흐름이 집중되는 구간과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입구 주변에는 대기나 이동하는 행동들이 겹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 동선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요 보행과 연결되는 위치에 안내사인과 유도표지를 배치하여 초행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협소한 출입구 및 정체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02 넓은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과 연결

Q. 지하철 출입구 주변이 복잡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를 통일하여 간결한 거리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구 캐노피, 난간, 조명, 안내사인 등 부속시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강조하기보다 형태 및 재료, 색채로 통일감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채도 색상이나 과도한 광고 요소는 지양하고, 주변 건축물과 가로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저채도 색채와 단순한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시설물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지주 통합, 사인 정리 등을 통해 시각적 혼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환기구는 보행환경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 보행 안전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모서리나 돌출부로 인해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기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가로시설물과 연계하여 시각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142

보행안전시설물 152

편의시설물 164

공급시설물 184

녹지시설물 196

보행, 휴식, 안내, 안전 등
공공 기능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

D 01-03

대중교통시설물

도민의 이동과 환승을 지원하며,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연결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교통시설

D01 버스승차대 144
버스승차대

D02 자전거·PM거치대 146
자전거거치대

D03 신호등 148
신호등

D 01-03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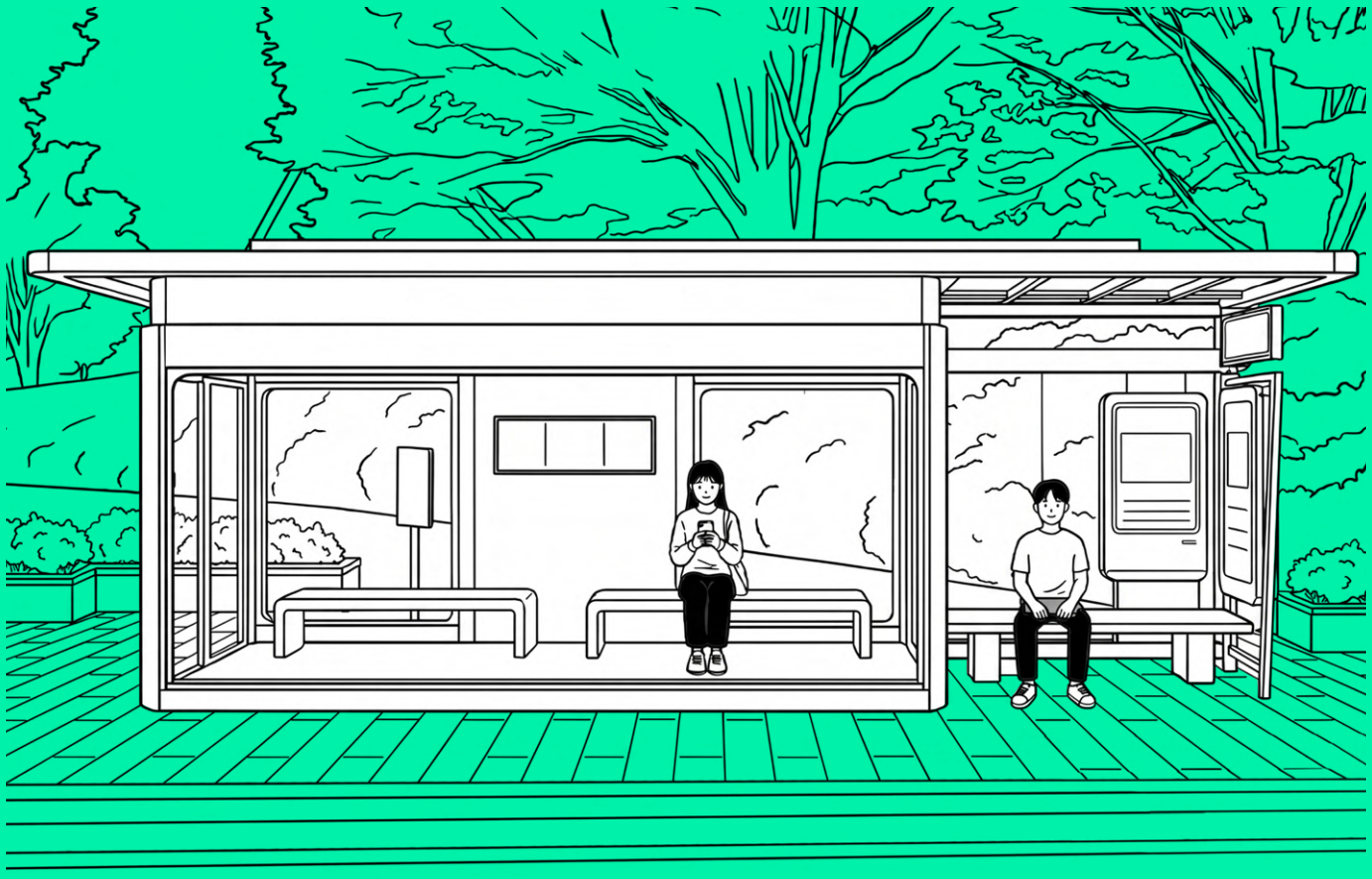
- **실행중심** 이용 흐름과 환승 동선을 고려하여 정류장, 대기공간, 안내시설 등을 기능 중심으로 계획한다.
- **지역맞춤** 주변 도시환경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규모로 계획하고 적절한 수량을 배치한다.
- **미래대응** 친환경 시설물, 교통수단 변화 및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와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해 계획한다.

버스승차대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 버스 승하차 및 대기 장소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버스승차대**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접근하기 쉬운 위치 :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위치

- 건축물, 수목, 광고물 등 승차대가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해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 모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단차는 최소화한다.
- 승차 구간 및 보행 구간이 혼잡하지 않도록 바닥의 마감과 재료나 색채 등을 활용해 구분한다.
- 노선, 도착 정보 등은 가독성이 높은 위치와 크기로 배치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보행을 고려한 배치 : 보행 폭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 일반도로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 2.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 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상형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2m 미만의 협소한 보도에서는 버스 승차대 설치 대신 **버스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 설계 시 햇빛, 비,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설계하여 조성한다.
- **차양**과 겨울철 바람막이 등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외부와 내부가 단절되지 않고 시야의 확보가 가능한 투명한 재질의 벽체로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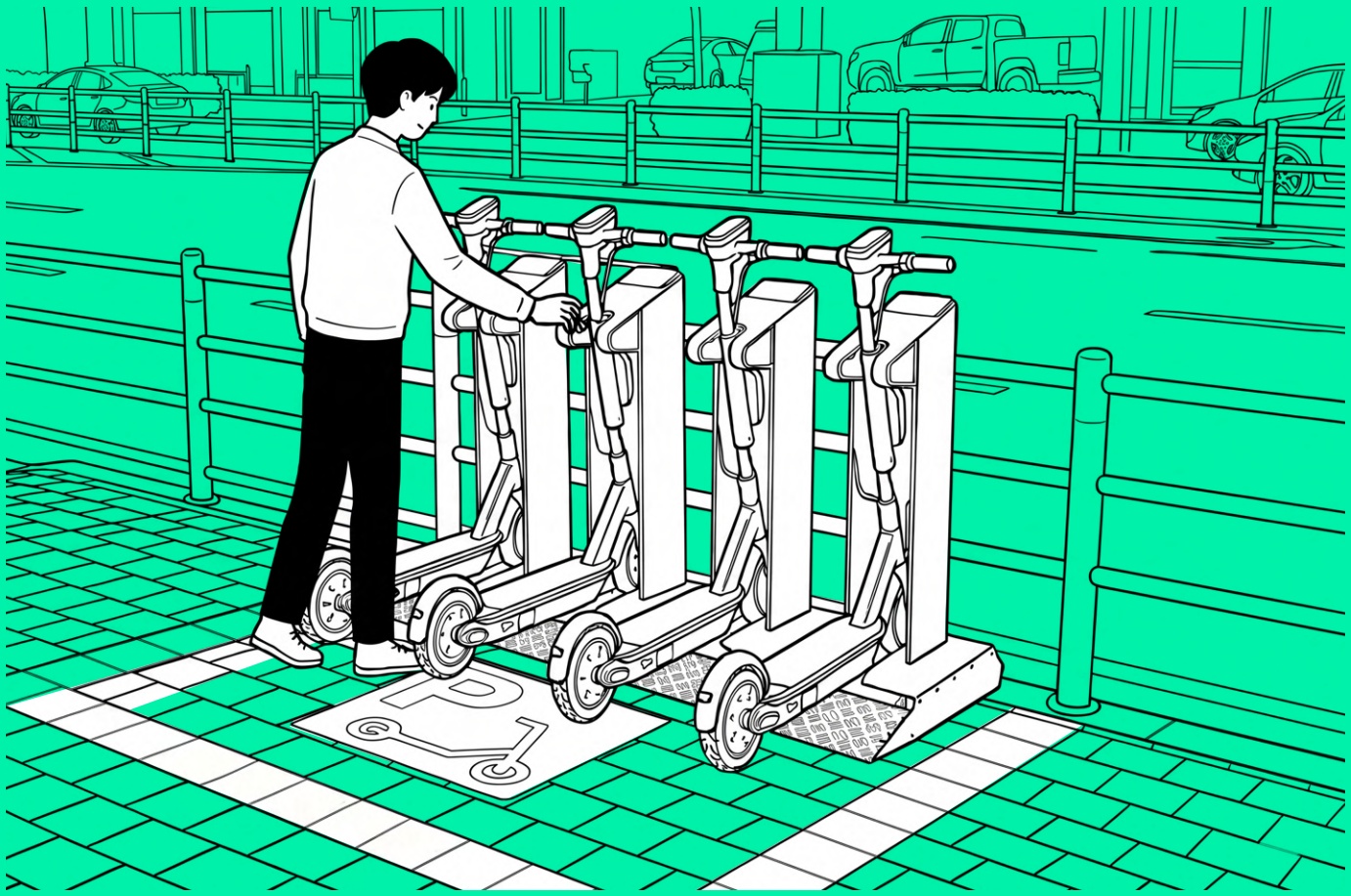
역상 버스승차대	차도를 등지고 보도 방향을 바라보도록 설치된 정류장
버스 안내 표지판	안내표지판 주변에 식재 설치를 지양하고, 안내표지판은 경계석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를 권장
차양	햇빛을 가리기 위한 구조물

자전거·PM거치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을 주차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자전거보관대

관련 법령 및 지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환승거점 중점 배치 : 이용이 높은 공간에 보행동선을 고려한 설치

- 기본적으로 **노면형**으로 계획하고 시설물의 지붕이 필요한 경우 바닥에서 높이 2.2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 이동장치 거치시설은 보행 동선과 겹치지 않는 외곽 및 **유휴 공간**에 배치하고 보행 밀도가 높은 구간과 출입구 주변은 설치를 지양한다.
- 사전 이용 수요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와 수량으로 계획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안전 및 부가 기능 : 야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

- CCTV, 조명 등 안전시설을 시설물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안내요소는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계획한다.
- 원색, 고채도 등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가로 시설물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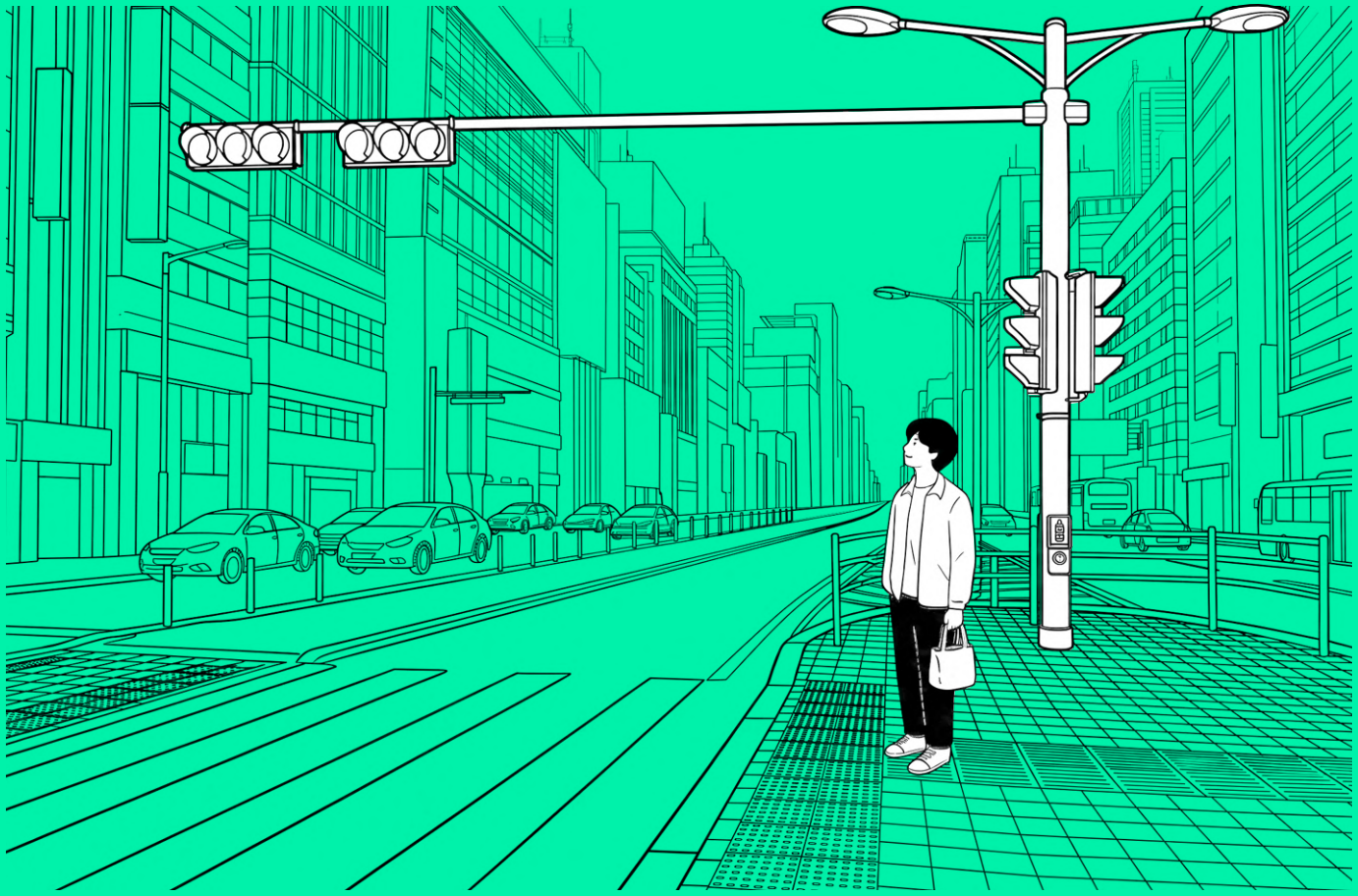
노면형	표면에 설치하여 안전과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것, 주로 선, 글자 또는 기호를 도로 위에 표시
유휴공간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

신호등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는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대중교통시설물(자문대상)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교통법」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설물 기능의 통합 : 가로시설물 간 통합으로 공간 정비

-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여러가지 표지를 하나의 **지주형** 시설물로 통합 설치하여 간결한 도로 경관을 조성한다.
- 보행자 작동신호기, 안내 표지 등 부착 시설물은 신호등 지주와 일체감 있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각각 신호를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와 각도로 설치한다.
- 보행자의 신호 인지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환경 특성에 따라 바닥형 보조신호등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보행자가 걷기 편한 신호 환경 : 단차가 없는 시설물 설계

- 점멸 패널 신호등 설치 시 턱 낮춤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연속적인 보행 환경으로 설계한다.
- 하부의 고정 장치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면 아래에 매립하여 설치한다.
- 신호등 지주는 보행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행로 외곽에 배치한다.

시설물의 재질 및 색채 : 기능 중심의 색채와 재료

- 신호등 지주, 부속 시설에는 불필요한 장식과 **지역 상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배제하여 계획한다.
- 신호등 지주에 특수 도료 및 불법 부착 방지 시트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예방한다.
- 원색 및 과도한 고채도 사용을 지양하여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지주형 시설물	기둥(지주)을 기반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지역 상징	지역의 시각적인 상징(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버스승차대, 자전거 거치대 등이 보행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도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차대 형식과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버스승차대 설치 시 보도폭이 아니라, 승차대와 대기공간을 제외한 보도유효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폭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승차대 설치를 지양하고, 차도 방향으로 승차공간을 확장하는 역상형 버스승차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상형 버스 승차대는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승차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차량 흐름과 승하차 안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역상형 버스승차대 설치로 보도공간 및 승하차공간 확보

Q. 대중교통시설에서 '환승 연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A. 환승 연계는 이용자가 한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길을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지하철에서 나와 버스·자전거·PM으로 갈아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지, 차량 동선과 충돌하지 않는지, 대기할 공간이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버스 줄서기 및 환승 유도선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PM거치대를 신규로 디자인 할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정확히 반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거치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표시, 픽토그램을 함께 적용하고 주변 가로시설물과 어울리는 간결한 형태와 색채를 권장합니다.

또한 PM거치대는 다양한 기기 크기와 운영 방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여러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 폭과 고정 방식을 검토해보세요. 파손이나 방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체가 쉬운 부품, 바닥 마감, 야간 시인성을 고려하여 반사 요소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좁거나 별도 거치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만으로도 거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면표시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재도색과 관리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간결한 디자인의 킥보드 거치대 (부천시)
02 노면표시 디자인으로 보행공간 확보

Q. 신호등 주변에는 다른 시설물을 함께 설치해도 괜찮나요?

A. 보행자의 대기 위치와 시야 방향을 기준으로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등뿐 아니라 표지판, 가로등, 볼라드, 안내표지, 버스정류장 등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설물이 한곳에 몰리면 보행 공간이 좁아지고, 신호등이 가려져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 주변에는 보행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설물이 보행 흐름을 막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도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D 04-07

보행안전시설물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및 보행공간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물

D04 볼라드 154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D05 펜스·울타리 156
펜스(교량·자전거도로용 포함)/가드레일

D06 가로등·보안등·공원등 159
가로등(보안등 포함)/보행유도등/공원등

D07 트렌치 161
배수구덮개

D 04-07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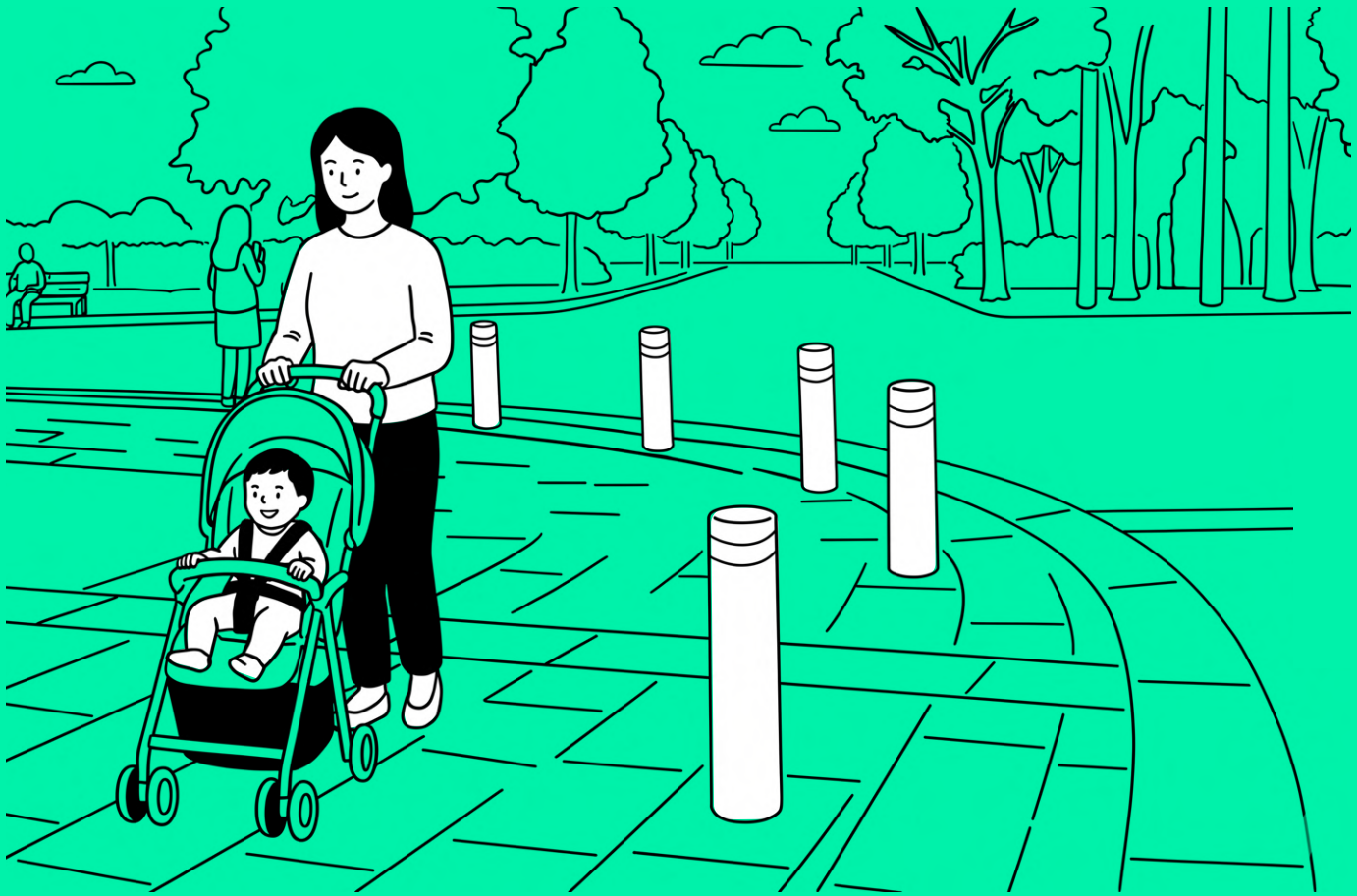
- **실행중심**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위치와 구조로 계획한다.
- **지역맞춤** 시설물이 분산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주변 보행환경과 도로 여건을 반영하여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 **미래대응** 내구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재료와 구조를 적용하고, 변화하는 보행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볼라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 및 보도의 경계에 설치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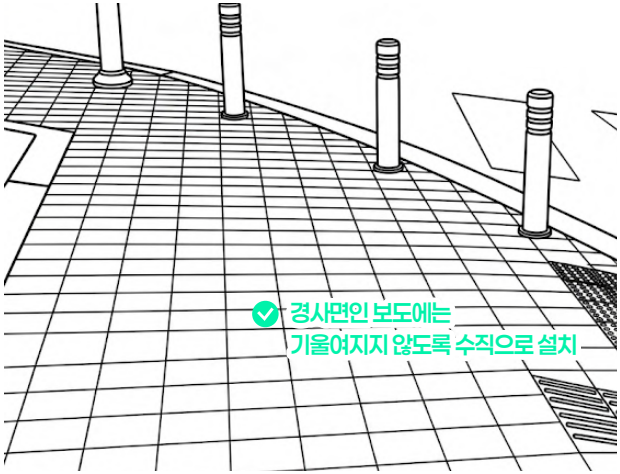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안전성과 통행의 고려 :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시설물 배치

- 보행자 통행 시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장소에 최소 수량을 설치한다.
-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이 편리하도록 볼라드 간의 간격은 최소 1.5m 확보를 권장한다.
- 보도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볼라드를 지면에서 수직으로 설치해 기울여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볼라드 전면의 약 30cm 지점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약자가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시인성과 경관 연속성 : 보행구간에서 쉽게 인지되는 시설물

-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명도 높은 흰색의 반사 시트, 반사체를 활용하여 너비 20~30mm의 선 1~2줄 배치로 처리하여 설치한다.
- 연속되는 보행구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거리 경관의 일체감을 확보한다.

마감 및 안정성 : 돌출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

-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매립 설치하여 앵커볼트 등 불필요한 돌출부분이 없도록 한다.
- 볼라드는 지면의 하부 고정을 통해 차량 충돌 시, 설치 및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탄성 재질** 또는 완충 구조 적용을 권장한다.

시인성	눈에 잘 띄고 식별이 쉬운 정도
탄성재질	충격을 받았을 때 형태가 변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재료

펜스·가드레일

차량과 보행자의 공간을 구분하고 무단횡단 및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와 보행공간 경계에 설치되는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휀스(교량용, 자전거도로용 포함) / 가드레일**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명확한 공간 구분 : 보행 및 차량 동선의 구분과 연속적인 배치

- 보행공간, 차도, 자전거도로 등 이용 성격이 다른 구간은 사고 위험과 이용 동선을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 **단절** 및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동일 구간에서는 시설물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 보도 유효폭이 좁은 경우에는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명, 표지판 등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검토한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과도하게 가리지 않도록 설치 위치와 높이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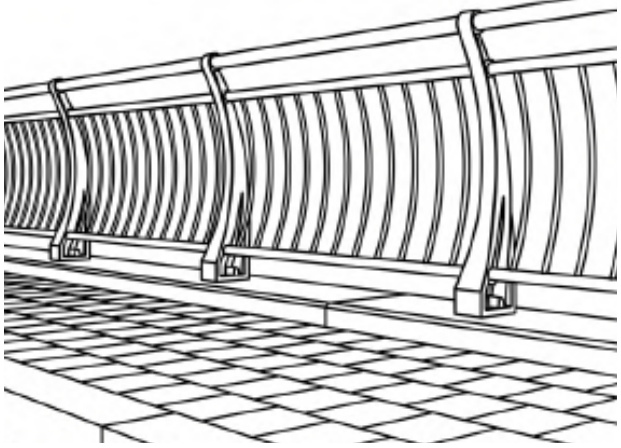


동일 구간에서는 연속성을 가지도록 설치

형태와 재료 및 유지관리 : 간결한 형태와 관리가 쉬운 구조

- 시·군 상징물, 캐릭터, 특정 이미지등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 광고물, 장식 패턴, 슈퍼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시각 요소를 시설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장기간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충돌, 부식, 오염에 강한 재료를 선정하고, 빛 반사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고광택 재료는 주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체결부, 돌출부, 날카로운 마감이 보행자 이동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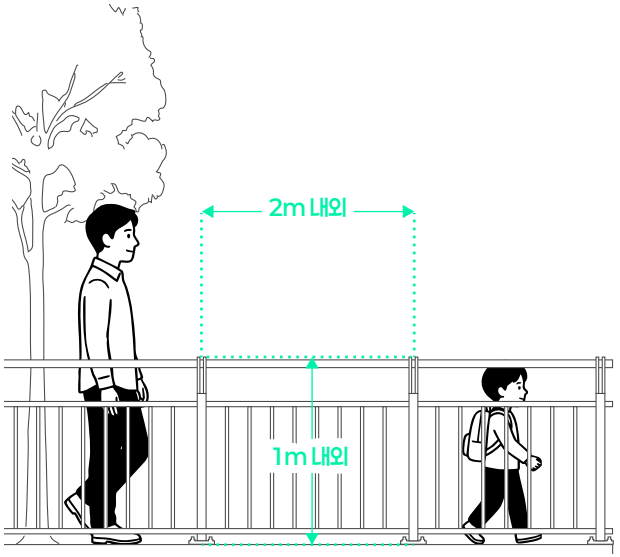
체결 볼트, 돌출부 등 마감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



단절 광장, 공원, 보행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폐쇄적인 설계등으로 인해 주변과 이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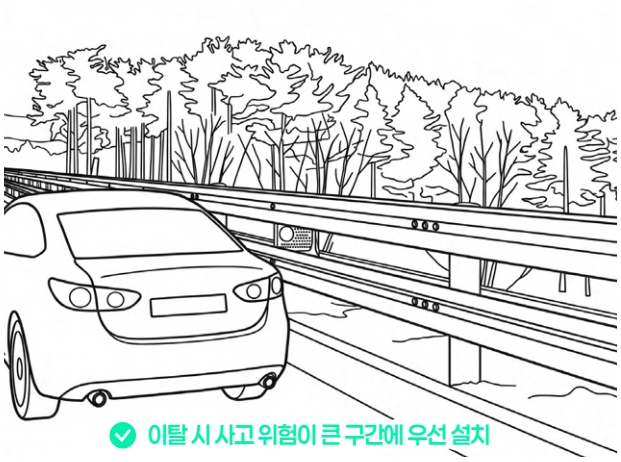
펜스 : 보행자 특성을 반영한 안전 설계

-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위험구간 진입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되, 보행 동선을 침범하지 않고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등 시설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1m 내외의 높이와 약 2m 내외의 **경간** 길이를 권장하고, 부피감을 최소화한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 곡선부, 교차부 등 야간 인지성이 필요한 구간은 반사판, 반사시트의 부분 적용을 검토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 등 대상지 특성에 따라 안전 유도를 위한 기능적 색상은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드레일 : 도로 가장자리 보호

- 가드레일은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 수로, 낙차 구간 등 차량 이탈 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우선 설치한다.
- 성능, 높이, 설치 위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보행공간과 가까운 구간은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파손 위험이 있는 마감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펜스와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형태, 색채, 재료의 조화를 검토하되, 방호 성능을 저해하는 구조는 지양한다.


이탈 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우선 설치

경간 펜스의 기둥과 다음 기둥 사이의 간격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도로 및 보행로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위해 설치되며, 도시의 야간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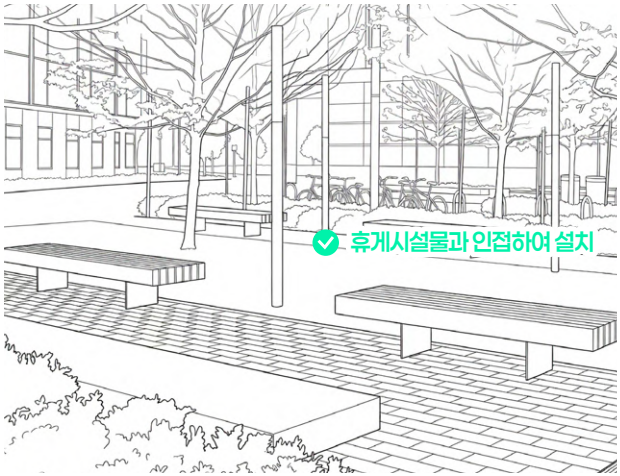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가로등(보안등 포함) / 공원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



일관된 조도 형성 : 조도 확보 및 연속적인 환경 조성

- 보행자와 차량이 주·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환경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균일한 조명 환경을 조성한다.
- 가로등은 개별 시설물의 형태보다 가로 환경 전체의 통일과 경관 흐름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공간의 안전한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 편의 고려 : 보행을 고려한 디자인과 배치

- 가로등 주는 불필요한 2단, 3단 등의 구분이나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지주 하부구조는 고정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로등 디자인과 통일성있는 하부 마감재를 별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접이식 배너걸이, 깃봉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시 머리가 부딪히지 않는 높이를 고려한다.

공간과 조화되는 시설물 : 경관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디자인

- 무광의 **저채도** 색채를 적용하여 가로경관에 조화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조형 장식물, 직접적인 지역 상징물 등 기능 외의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내구성 높은 재료와 구조를 적용하여 유지관리성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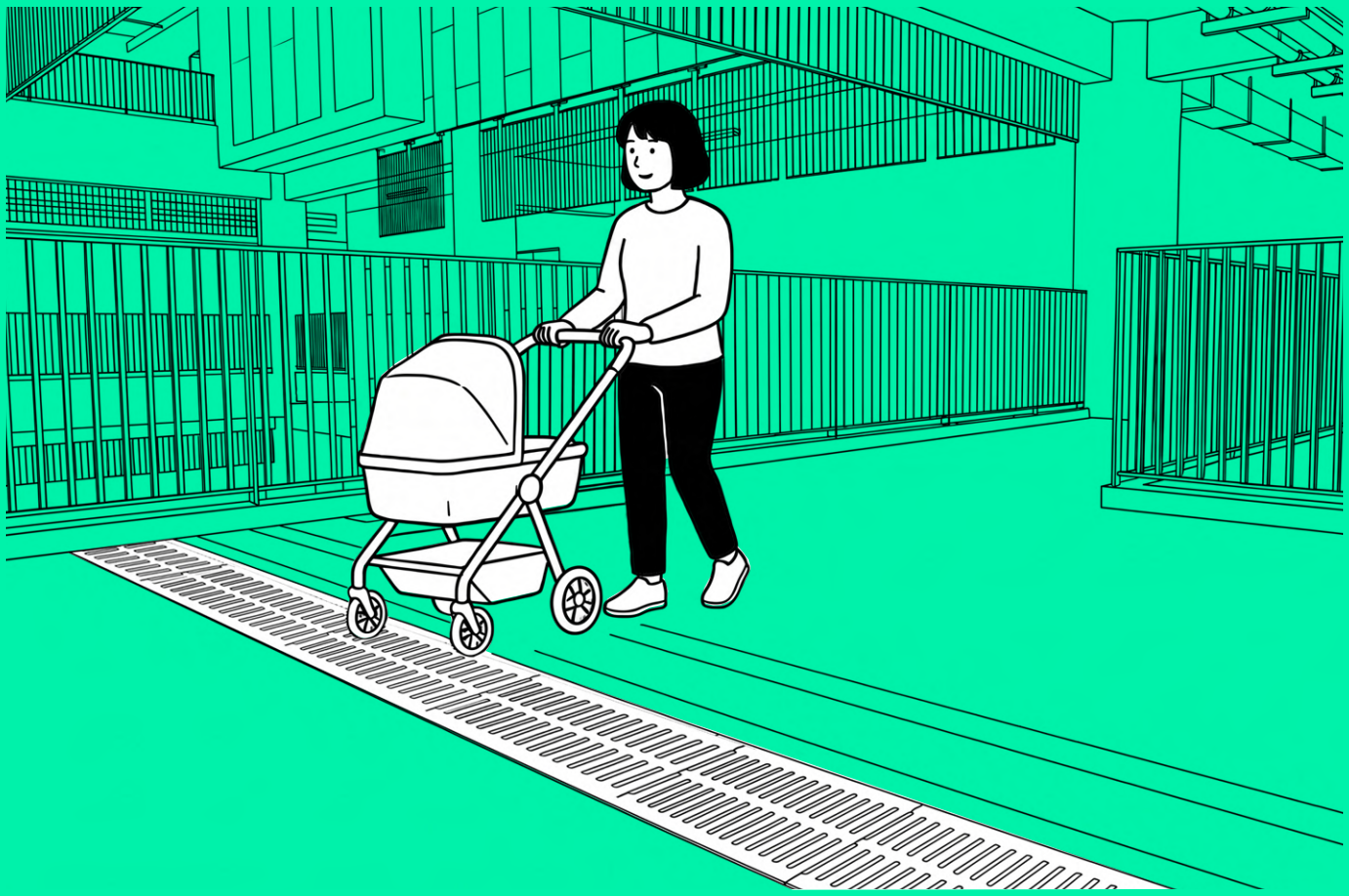
조도	바닥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밝기 정도)를 의미, 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의 수평면 조도를 측정
저채도	색의 순수한 정도(맑음/선명함)가 낮아 흐릿하거나 탁한 상태

트렌치

도로 또는 보도에 설치되어 배수 및 설비 점검·유지관리를 위해 개구부를 형성하고 덮개를 설치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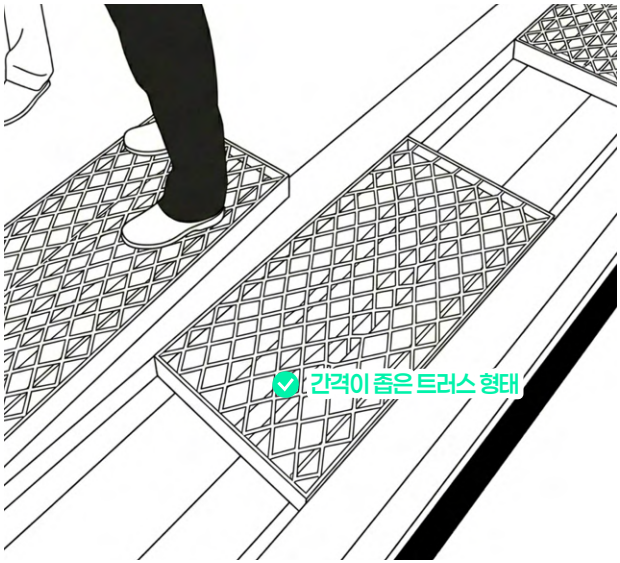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배수구덮개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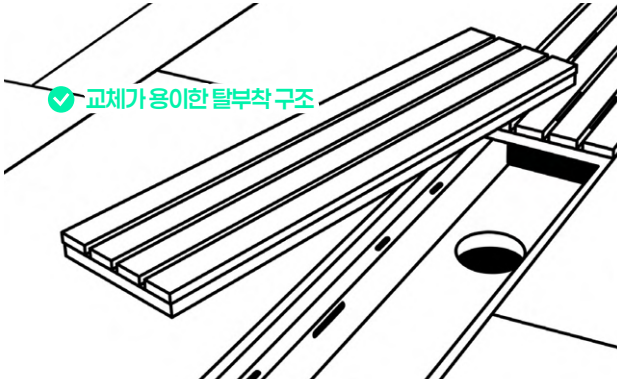
안전한 시설물 이용 : 기능 중심의 단순한 구조

- 트렌치 옆이나 하부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포장은 100mm 이하 두께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의 신발굽, 유모차 및 휠체어 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간격이 좁은 **트러스** 형태로 설계하여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하고,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상부 구조를 권장한다.
- **보차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 경계부에 설치하고, 보차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다.



시설물의 기능을 반영한 재질 : 내식성 및 유지관리 고려

- 주철, 철근 콘크리트 등 내구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한다.
- 오염 및 침전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권장한다.
- 별도의 도색이나 분체도장 적용이 아닌, 시설물 자체의 재질 및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트러스	삼각형 구조로, 무게 대비 강도가 매우 높아 경량화 및 하중 지지에 유리한 구조
보차구분	보행자 공간과 차량 공간이 분리된 상태
내식성	금속 등 대기, 수분, 염분과 같은 외부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부식(녹)에 견디는 성질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볼라드는 많이 설치할수록 안전한가요?

A. 많이 설치한다고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볼라드는 차량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게 설치하면 보행자가 피해서 걸어야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유모차, 시각장애인에게는 볼라드 자체가 충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라드는 장식적 형태보다 기능성과 식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간결한 형태를 적용하고,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반사 요소를 검토해보세요.





01 보행 방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형태 및 수량 설치
02 간결한 디자인 및 필요한 최소의 수량 설치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조명기구 설치는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A. 어두운 구간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은 공간을 밝히는 시설이지만, 설치 위치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길과 머무는 지점을 확인하고, 어두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 간격과 방향을 조정해보세요. 과도한 장식형 기둥이나 강한 색의 조명은 가로경관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변 가로시설물과 어울리는 간결한 형태를 권장합니다.



연속되도록 설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D 08-15

편의시설물

공공장소 이용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D08 벤치 166
벤치

D09 그늘막·파고라 169
파고라(쉘터 포함)

D10 휴지통 171
휴지통

D11 음수대 173
음수대

D12 가로판매대 175
가로판매대

D13 무인 키오스크 177
무인 키오스크

D14 안내소 179
인포메이션부스/관광안내소

D15 안내시설물 181
안내표지판/현수막게시대/지정벽보판 등

D 08-15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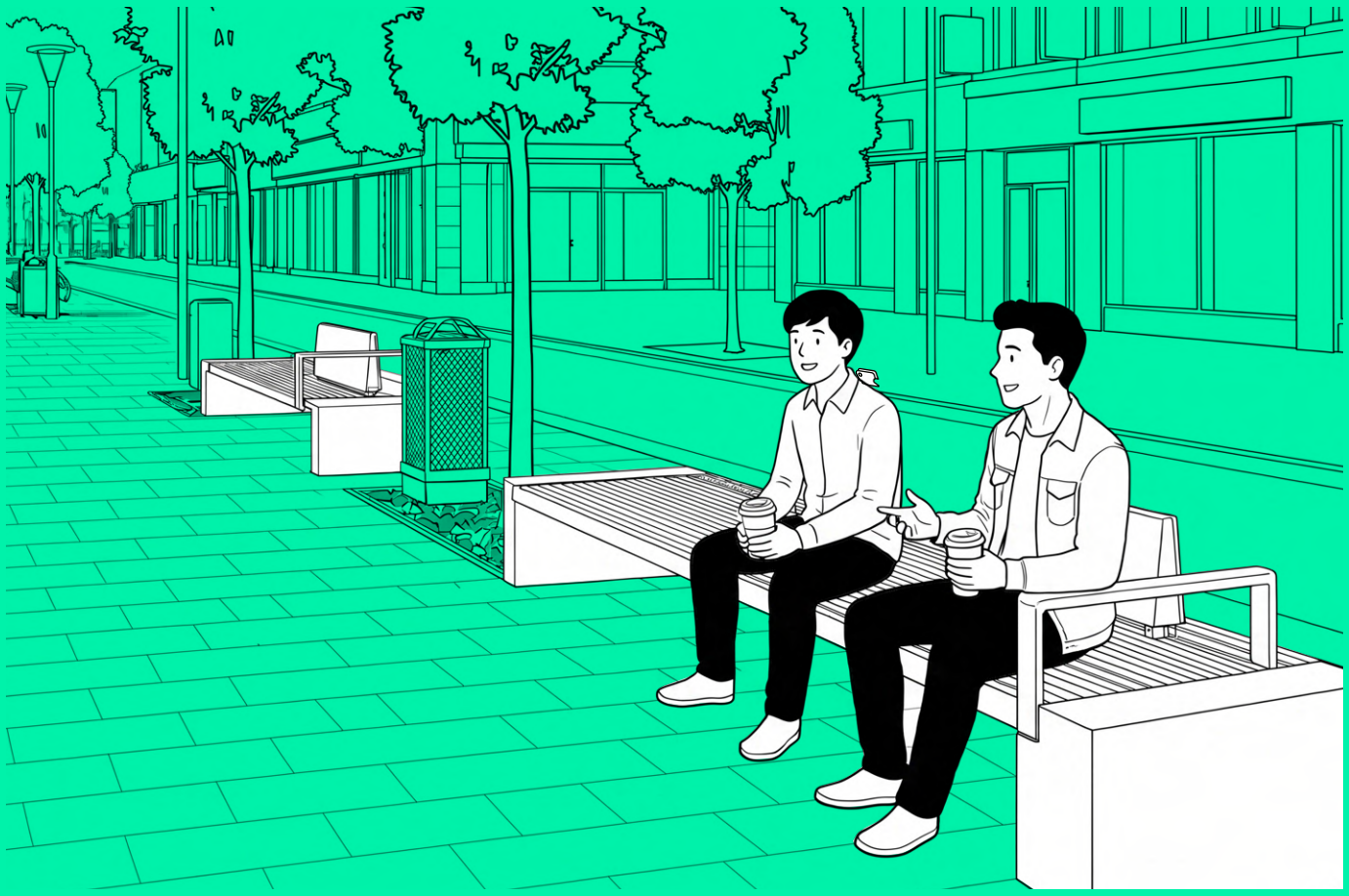
- **실행중심** 이용 목적과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접근이 쉽고,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와 구조로 계획한다.
- **지역맞춤** 설치 위치의 이용 목적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계획한다.
- **미래대응** 무장애 이용 환경을 확보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한다.

벤치

벤치는 휴식과 체류를 위해 설치하며, 다양한 이용자 사용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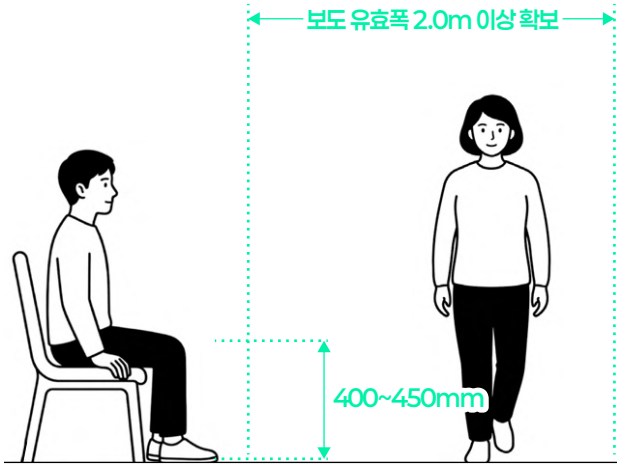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벤치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충분한 편의 공간 확보 :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와 높이

- 좌면 높이는 약 400~450mm를 기준으로 계획하여 앉고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한다.
- 보행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보도 바깥쪽 또는 여유 공간에 배치하고, 보도 유효폭 2.0m 이상을 확보한다.
- 가로등, 보행등 등 기존 조명시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신체 접촉 시 부상을 줄이고, 고정장치 등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간결한 시각 요소와 마감 : 기능 중심의 벤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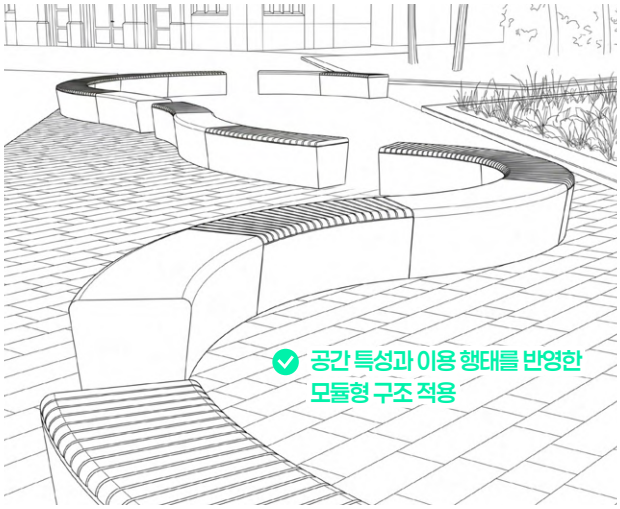
- 과도한 장식이나 상징물이 강조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와 구조로 계획한다.
- 색채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하고, 눈에 띄는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적용은 지양한다.
-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금속재료는 반사를 줄이는 무광 계열 마감, 목재는 재료 고유의 질감과 색상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우천 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와 건조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배수 보도 표면에 빗물이나 지표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측구(옆도랑)으로 내보내는 시설

시설물의 다양한 배치 : 이용 행태에 맞춘 모듈 구조 적용

- 벤치는 단일 형태로 반복 설치하기보다 공간 특성과 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모듈형 구조로 계획할 수 있다.
- 일렬배치로 고정하지 않고 사용인원, 사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거리와 체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다양한 모듈 구조를 활용하여 보행로, 광장, 공원 등 공간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 공간 및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등받이, 테이블 등을 연계하여 설치 할 수 있다.



환경에 대응하는 시설물 : 기후를 고려한 재질과 연계 배치

- 벤치는 단독 설치보다 수목, **파고라** 등과 연계하여 그늘과 휴식 기능이 함께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직사광선에 따른 표면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계절에 따라 이용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름철 그늘, 겨울철 관리, 우천 후 건조 상태를 함께 고려한다.
-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녹지 또는 수경시설과 연계하여 쾌적한 휴식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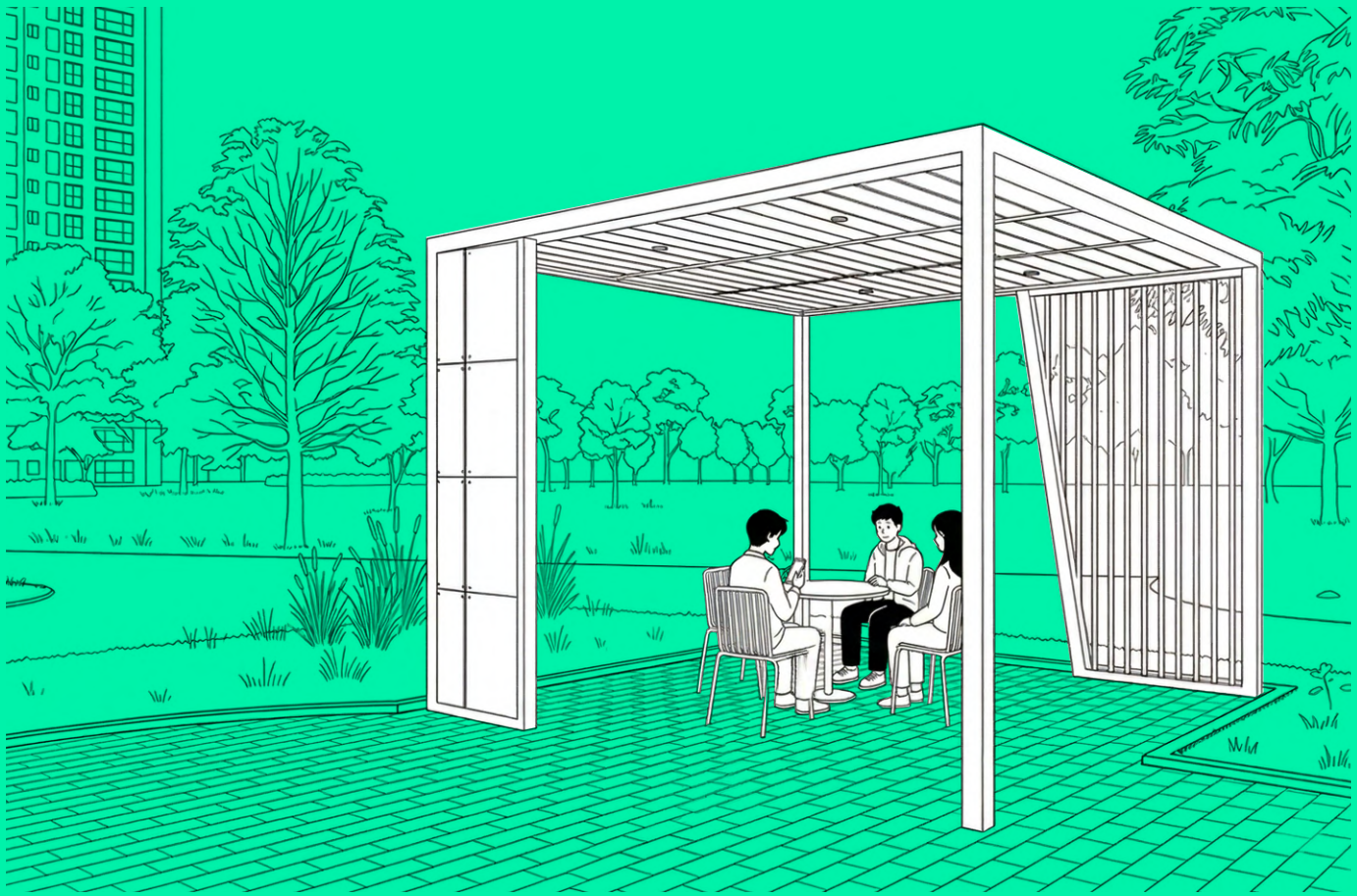
파고라	정원, 옥상, 테라스 등에 설치하는 지붕이 있는 개방형 쉼터 구조물
열섬 현상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태양열을 흡수해 도심 기온이 교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그늘막·파고라

옥외 공간에서 햇빛을 가리거나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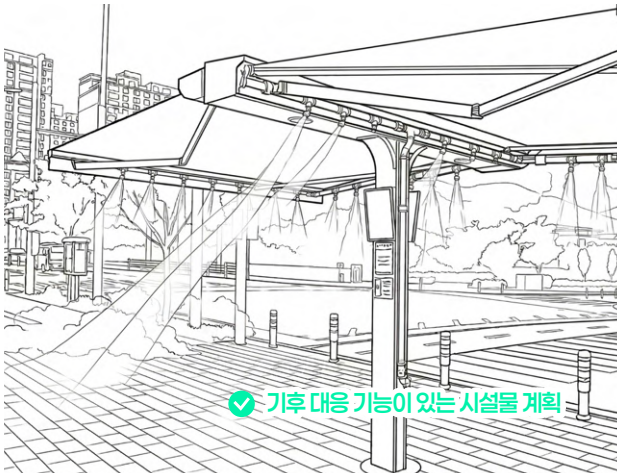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파고라(쉘터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휴게공간 연계 배치 : 그늘과 휴식 기능을 함께 제공

- 단독 설치보다 벤치 등 체류할 수 있는 휴게시설물과 연계해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신호 대기, 보행 중 휴식, 공원 내 체류 등 그늘이 필요한 위치를 우선 검토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 보행등 등 기존 조명시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순하고 기능 중심의 구조로 계획하며, 보행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개방형 설계를 권장한다.



간결한 시각 요소와 마감 :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구조와 색채 적용

-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 기둥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부피감이 적은 두께로 설계한다.
- 지주 등에 금속 재질을 사용할 경우 반사가 적은 무광 계열 마감을 권장한다.
- 장식적 형태보다 **차양**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시설물에 통합된 구조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후에 대응하는 시설물 :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차양 계획

- 일조 방향과 그늘 형성 범위를 검토하여 공간 규모에 맞는 위치와 크기로 계획한다.
- 파고라 상부 차양은 낙엽이나 먼지가 쉽게 쌓이지 않도록 개방형 구조를 권장한다.
- 시설물의 파손이나 노후가 발생했을 때 부분 교체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계절별 이용성과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여름철 차양 효과와 우천 후 관리성을 함께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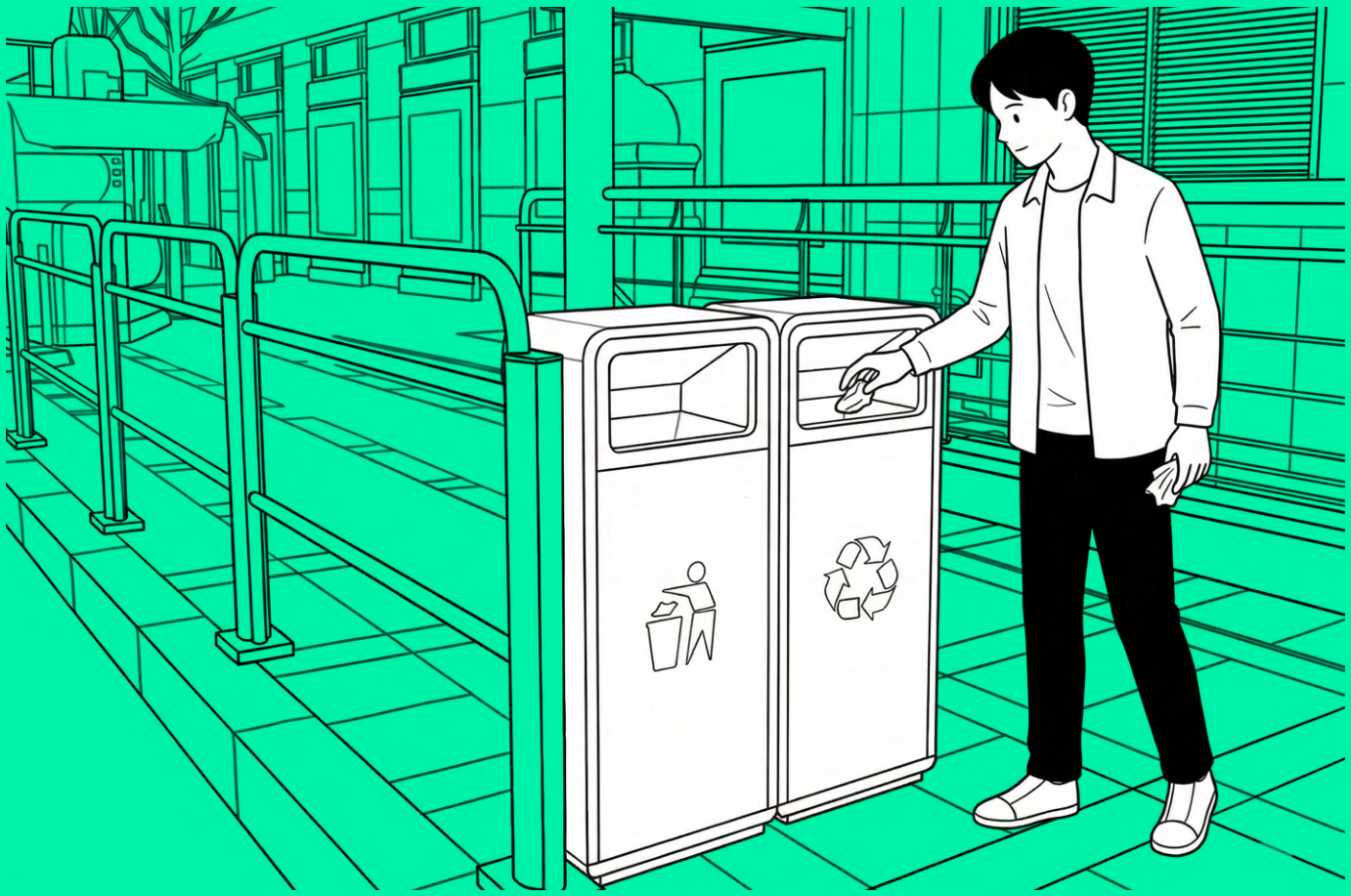
차양 햇빛을 가리기 위한 구조물

휴지통

도시의 청결과 미관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쓰레기 수거 용기

심의대상 확인 휴지통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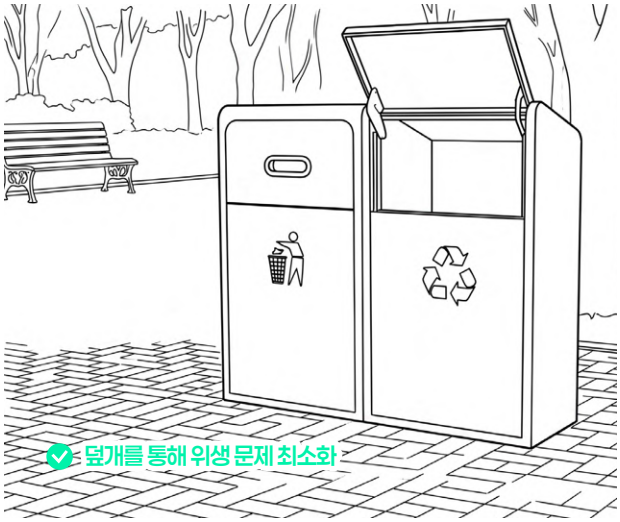
접근성 확보 : 쉽게 찾고 편하게 이용하는 위치 선정

- 휴지통은 시설물, 수목, 구조물 등에 가려지지 않는 개방된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우선 검토한다.
- 벤치 등 휴게시설과 **이격** 설치하여 냄새와 위생 문제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 누구나 시설물의 용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한다.



위생 및 유지관리 : 내용물 노출과 적치를 줄이는 구조 적용

- 투입구가 상부를 향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와 위생 문제를 줄인다.
- 상부에는 물건을 올려두기 어렵도록 경사 구조를 적용하여 쓰레기통 외부 투기를 방지한다.
- 볼트, 고정장치 등 외부 돌출 요소는 최소화하고, 모서리는 곡면으로 마감한다.
- 오염과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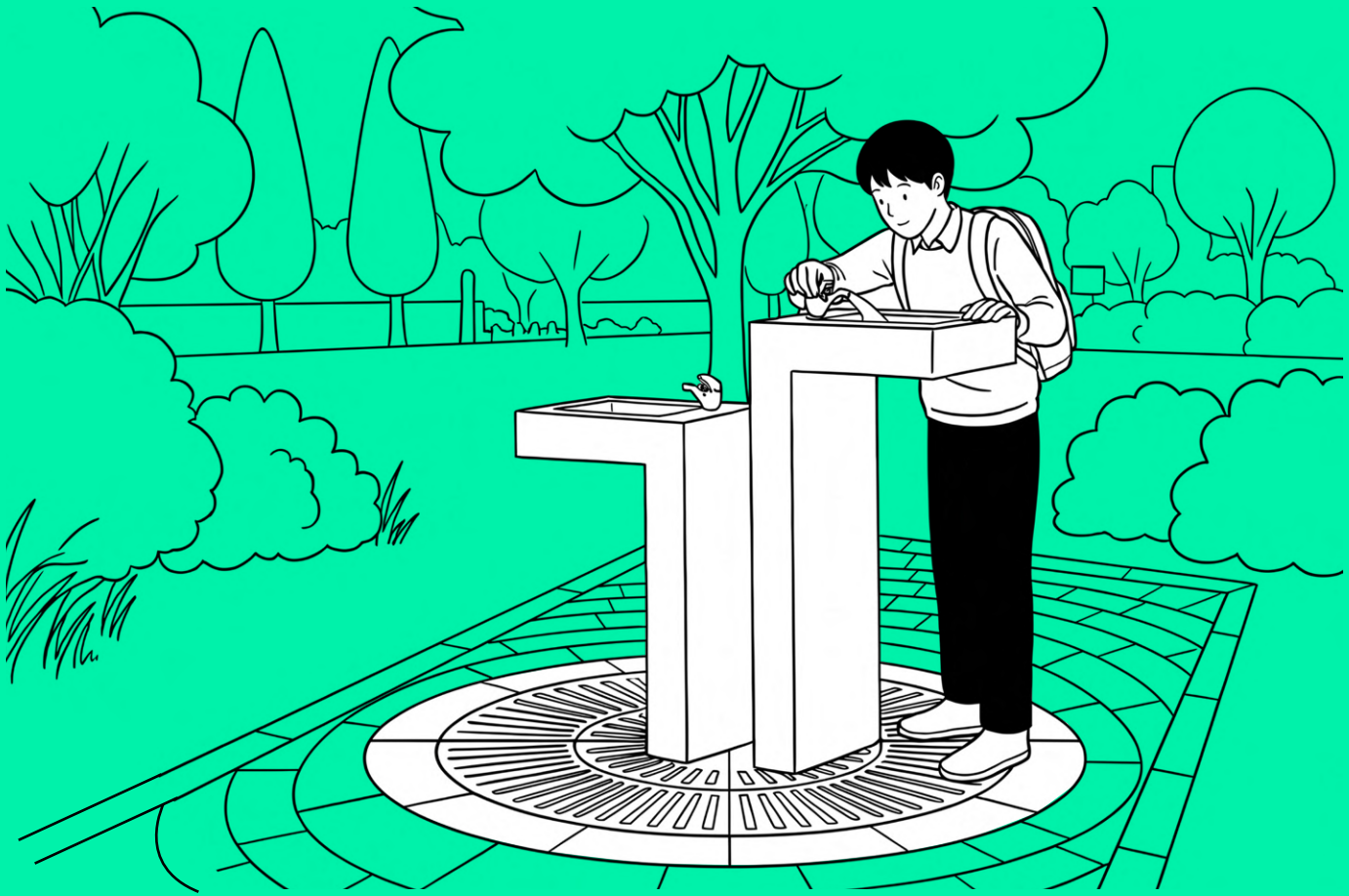
이격 사이가 벌어지거나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 배치하는 것

음수대

식수(마시는 물)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분수 형태의 급수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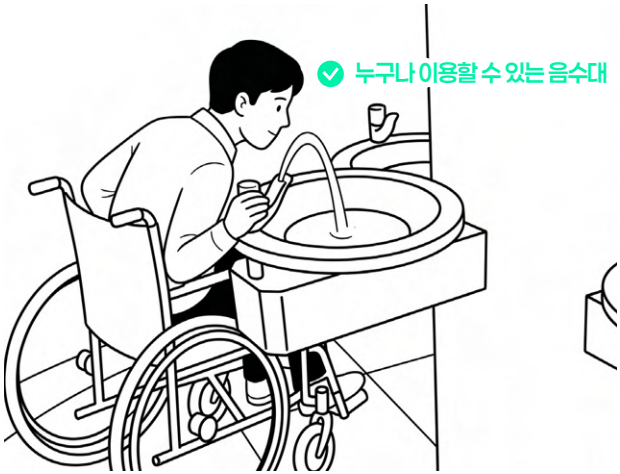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음수대

관련 법령 및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접근 구조

-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 사용자별 접근하고 사용하기 쉬운 높이를 구분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바닥에 배수장치 설치 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부피감과 설치 면적을 최소화한 간결한 구조로 설계한다.
- 사용 방법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구조를 적용한다.
- 지나치게 큰 규모나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는 지양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 물 고임과 오염을 줄이는 마감 적용

- 불필요한 물 낭비를 줄이고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수 방식과 사용 중 접촉 부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물받이와 물이 직접 닿는 부분은 세균 번식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또는 석재 사용을 권장한다.
- 모서리는 곡면 형태로 마감하여 신체 접촉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 음수대 주변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경사를 확보하고, 미끄럼을 줄이는 마감재를 적용한다.
- **배수면**은 주변 바닥 포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휠체어 이용자와 유아차가 접근할 때 걸림이 없도록 계획한다.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 적용

배수면 물이 빠져나가는 표면 또는 물을 빼내기 위해 기울기를 준 면

가로판매대

보행로 및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소규모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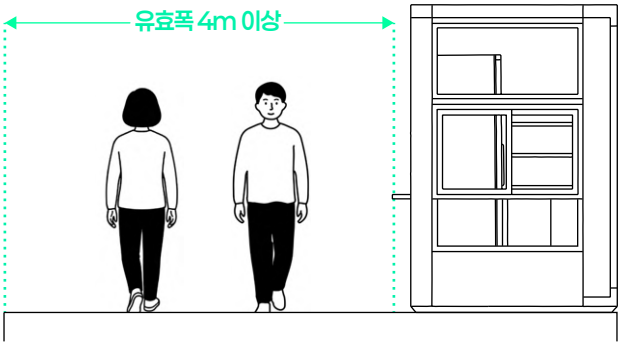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가로판매대**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보행 공간과 조화로운 시설물 : 기능 중심 디자인과 배치

-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도 유효폭 4m 이상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시설물 이용으로 인해 **병목** 구간이 발생하거나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행 방향과 대기 공간을 함께 검토한다.
- 설치 위치는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을 줄이고, 보행 흐름이 유지되는 외측 공간을 우선 활용한다.



보행 편의 확보 : 외부 적치 최소화 구조 적용

- 시설 외부로 물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판매 행위가 보행 공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필요 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실외기, 배전함 등 외부 돌출이 불가피한 부속 설비는 본체 내부에 매립하거나 일체형으로 디자인하여 시각적 돌출을 줄인다.
- 판매 물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보행 공간과 조화로운 시설물 : 과도한 시각요소 배제 및 재질

-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 시설물 외벽에는 과도한 광고물이나 그래픽, 장식적 적용은 지양한다.
- 필요 시 공공 안내지도나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하되, 공공 정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외부 환경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가 장기간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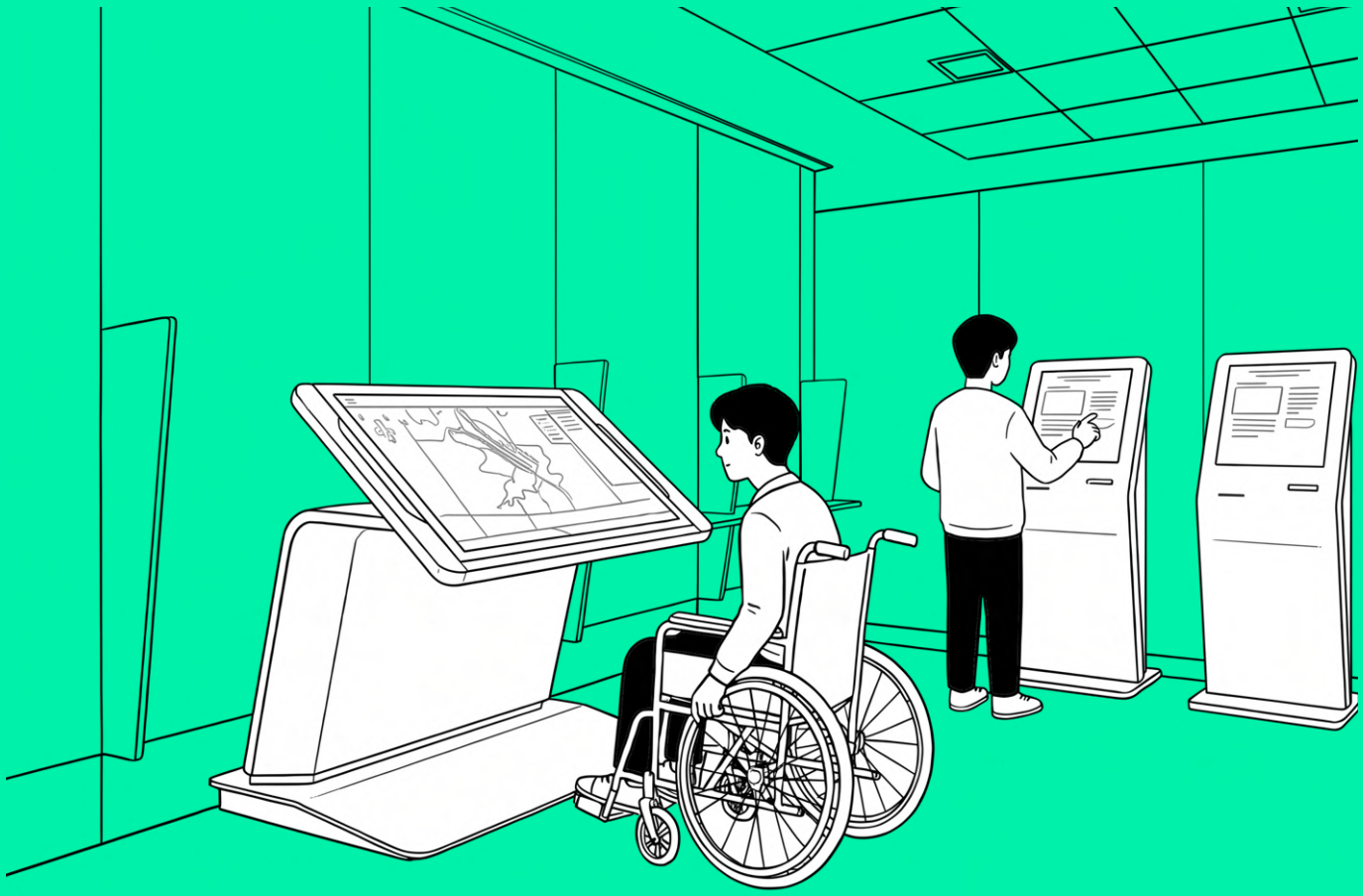
병목	장애물이 있는 특정 지점을 지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정체되는 현상
디지털 사이니지	상업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디스플레이(LCD, LED 등)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디지털 시설물

무인 키오스크

정보를 확인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

심의대상 확인 **무인 키오스크**

관련 법령 및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구조 : 접근 가능한 높이와 배치

-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조작부 높이와 전면 접근 공간을 확보한다.
- 보행이 집중되는 동선 구간은 피하고, 공간의 외측이나 여유 공간에 배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대기 공간과 사용 공간이 보행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동일 건물 및 구간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통일된 형태와 외관으로 계획한다.



직관적 정보 전달 : 사용자 이용 편의 개선

-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큰 글씨를 적용한 **인터페이스**, 다국어 안내 및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 화면 구성은 단순하고 명확한 단계로 정리하여 주요 기능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화면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각도와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반복 접촉이 많은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과 조작부는 위생관리와 점검이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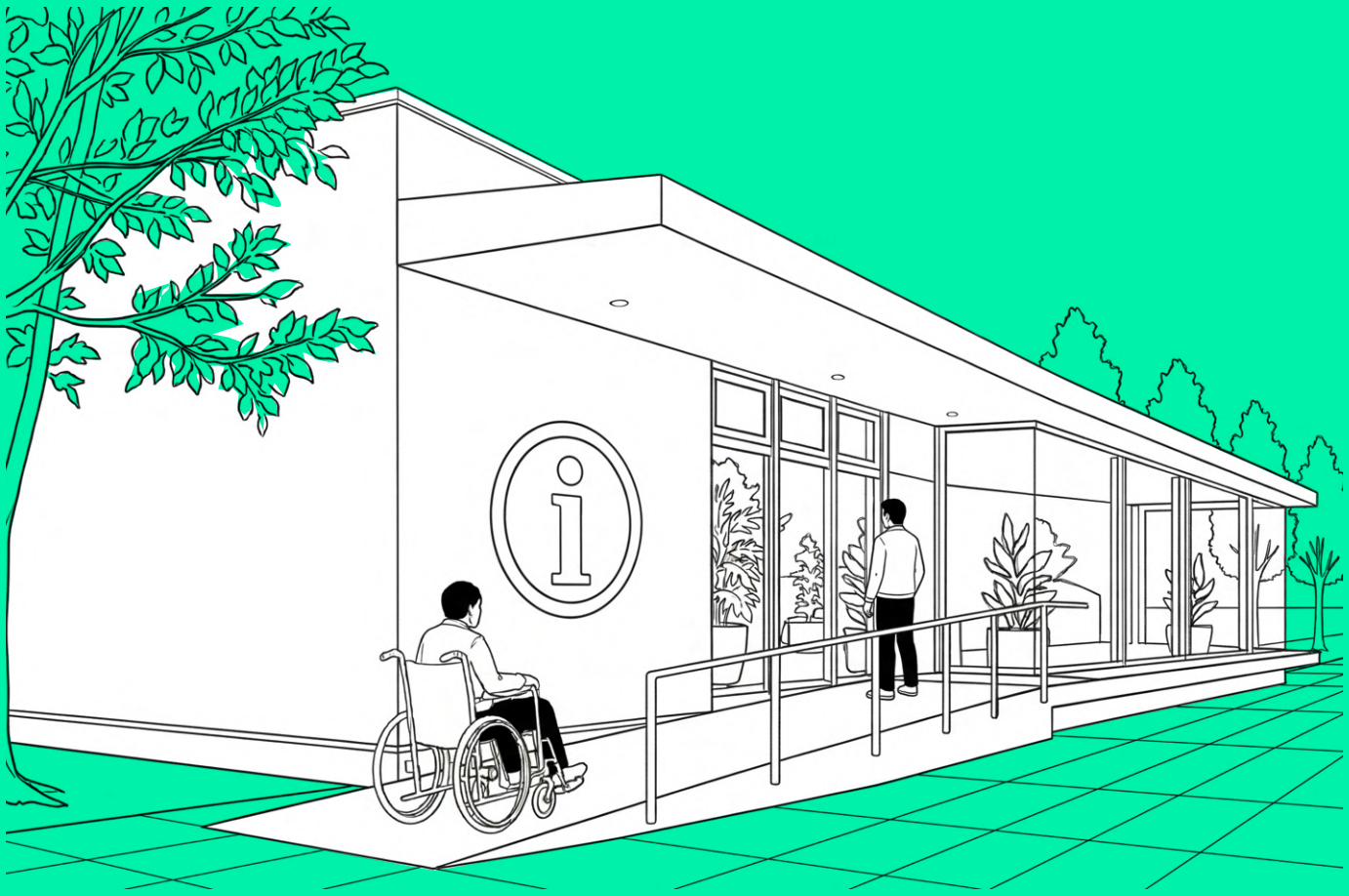
인터페이스	사람과 시스템(컴퓨터, 기기) 간의 의사소통 방식 (GUI, 터치스크린 등)
픽토그램	인종,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 시설, 행동 등을 상징화한 그림 문자

안내소

관광객 및 이용자에게 지역 정보, 교통, 시설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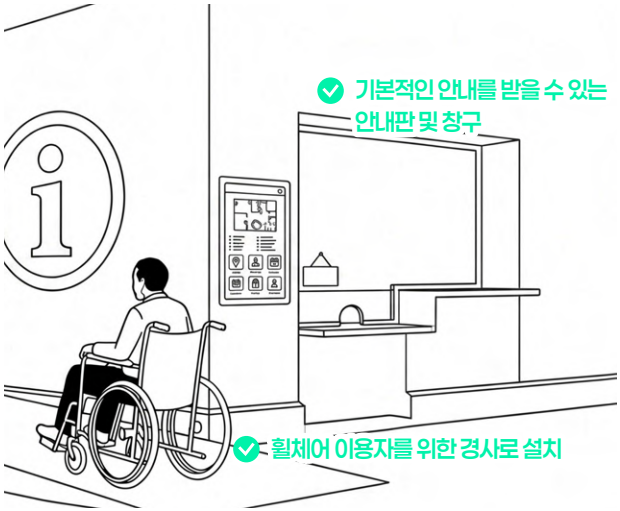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인포메이션부스 / 관광안내소**

관련 법령 및 지침 「관광안내소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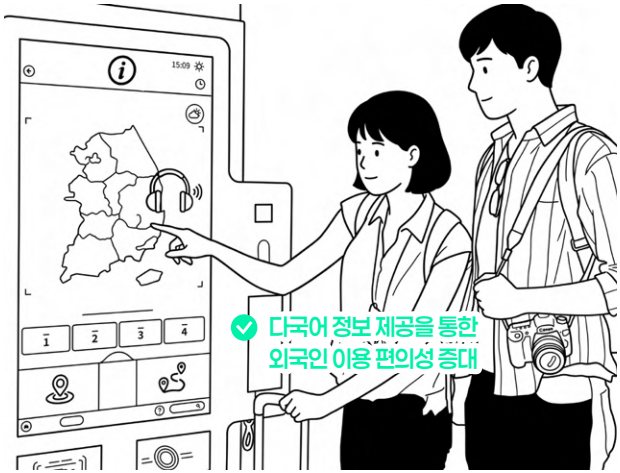
정보 접근성 강화 :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안내 체계

- 휠체어 이용자와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바닥 단차를 없애고,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 사용자가 내부로 직접 진입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안내판 등을 함께 계획한다.
- 주요 보행 동선, 관광 동선, 대중교통 접근 지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방된 위치에 배치한다.
- 안내 정보는 주요 진입부와 보행 동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시각 정보 체계 개선 :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되는 안내

- 외관의 불필요한 그래픽과 장식 요소는 최소화하여 정돈된 가로 경관을 조성한다.
- 안내소 외관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및 주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외국인 이용을 고려하여 문자 정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픽토그램**을 함께 적용하여 직관적인 전달을 돕는다.
- 키오스크 설치 시 다국어 정보 및 음성 서비스를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픽토그램 인종,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 시설, 행동 등을 상징화한 그림 문자

안내시설물

공공공간에서 위치, 방향, 시설 이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각 정보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안내표지판 / 현수막게시대 / 지정벽보판**

관련 법령 및 지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통합 설치와 높이 기준 : 시설물 난립을 줄이는 배치 적용

- 안내시설물은 가능한 경우 가로등 등 기존 지주형 시설과 통합 설치하여 시설물 난립을 줄인다.
- 보도 외측에 배치하고,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의 높이로 가로등과 통합 설치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 현수막게시대는 가로시설물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지면과의 충분한 이격을 확보하여 보행 안전과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동일한 기능의 안내시설물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시설물의 위치와 정보 내용을 함께 검토한다.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안내 시설물 설치

시야 간섭 최소화 및 경관 조화 : 보행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선정

- 안내시설물은 보행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행유효폭을 확보한 위치에 설치하고, 불필요한 돌출 요소는 최소화한다.
-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 방향과 정보면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간결한 시각 요소와 마감 : 내구성 및 정돈된 보행 환경 유지

- 스틸 등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하고, 무광 표면 처리로 부식 방지와 시각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여 가로경관의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원색과 **고채도**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 상징적인 그래픽, 장식 적용은 지양하고, 안내 기능과 내용에 집중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기초와 결합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시설물 파손이나 노후 시 부분 보수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 적용을 권장한다.

고채도 고채도 색상은 색이 진하고 뚜렷하여 저채도에 비해 선명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곳에 사용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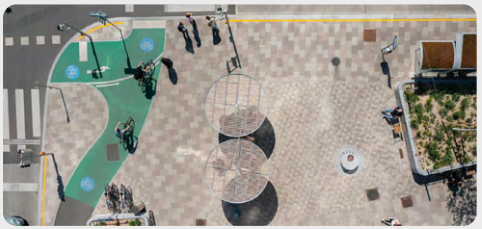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벤치, 그늘막·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람이 실제로 머무는 위치와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함께 보고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행량, 머무는 시간, 주변 시설 이용 수요를 확인해보세요. 버스정류장 주변, 공원 입구, 광장 가장자리, 공개공지처럼 사람이 잠시 기다리거나 쉬는 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보행 흐름이 많은 구간에는 벤치를 보도 안쪽에 무리하게 두기보다, 보도 외측이나 체류공간과 연결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이용이 예상되는 곳은 조명과 가까운 위치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벤치, 그늘막, 휴지통을 모두 가까이 붙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휴지는 버리기 쉬워도 냄새와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과 적정 거리를 두세요.





보도유효폭 확보 후 여유있는 공간 내 파고라, 벤치 통합 배치

Q. 벤치는 보행로 안에 설치해도 되나요?

A. 보행 흐름을 막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도유효폭이 부족한 구간에는 설치를 지양하고, 보도 외측이나 체류공간과 연결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치는 보행자가 쉬기 위한 시설이지만, 보행로 안에 잘못 설치되면 휠체어, 유모차, 고령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 벤치가 차지하는 폭뿐 아니라, 앉은 사람의 다리 공간과 보행자가 지나가는 공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가까운 공원, 광장, 건축물 전면공간과 연계한 휴게공간 확보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설치 기준과 공간별 적용 방법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원시설물' 파트를 참고하세요.





01 보행 유효폭을 고려한 벤치 배치
02 보행로 내 조명과 연계한 휴게공간 (가평군)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특화벤치는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나요?

A. 특화벤치는 단순히 형태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지유형과 주변 시설,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뒤 장소에 맞는 휴식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화벤치를 계획할 때는 먼저 설치 장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공원, 광장, 학교 주변처럼 토지유형에 따라 이용 시간과 머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정류장, 학교, 병원, 공공청사, 상가, 공원 입구처럼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쉬는 수요가 생기는 시설이 있다면, 벤치의 위치와 형태를 환경에 맞춰 검토해보세요.





01 혼자 앉아서 휴식하거나 잠깐 머물 수 있는 디자인
02 여러명이서 대화하거나 취식할 수 있는 테이블형 디자인

Q. 이용자 특성에 따라 벤치 형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벤치 형태는 주요 이용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머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치를 계획할 때는 실제 이용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고령자, 학생, 직장인, 보호자, 관광객처럼 주요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벤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짧게 머무는 곳은 간결한 대기형 벤치를 적용하고, 휴식 수요가 높은 곳은 등받이나 팔걸이가 있는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광장이나 공원에서는 이용 인원과 배치 여건에 따라 모듈형 벤치나 테이블 결합형 벤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특성이나 환경에 맞춰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도 벤치의 높이는 400~450mm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원시설물 관련 내용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01 앉기, 기대기 등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
02 눕기, 서기 등 공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디자인

D 16-19

공급시설물

전기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D16 맨홀 186

맨홀

D17 배전함·제어함 188

배전함/가로등제어함

D18 방재시설·제설함 190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D19 방범용감시카메라 192

방범용 감시카메라

D 16-19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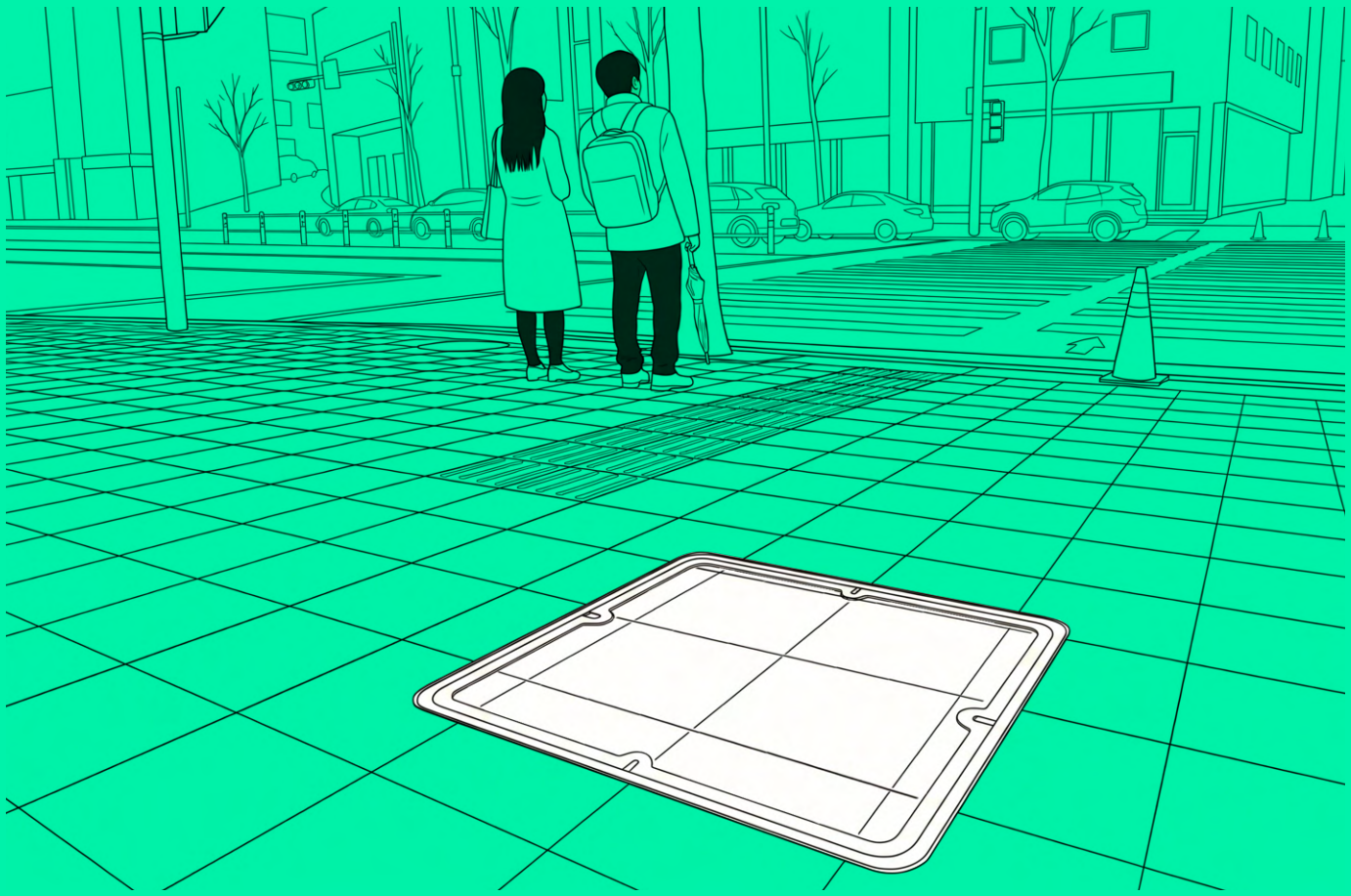
- **실행중심** 시설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근·점검·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와 배치로 계획한다.
- **지역맞춤** 가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배치한다.
- **미래대응** 내구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재료와 구조를 적용하고, 기능 확장과 설비 교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맨홀

상하수도, 통신, 전력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면에 설치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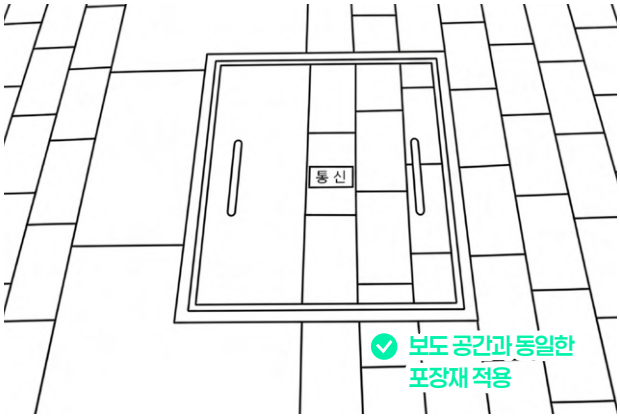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맨홀

관련 법령 및 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포장 연속성 유지 : 보도포장과 자연스럽게 연결

- 보도용 맨홀은 설치되는 보도 공간과 동일한 포장재를 적용하거나 주변 포장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계획하여 가로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우천 시 미끄럼을 줄이기 위해 맨홀 뚜껑 상부에는 요철이 있는 패턴 적용을 권장한다.
- 뚜껑 개폐 손잡이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고,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단차 없는 설치 : 보행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맨홀과 보도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차도에 설치하는 맨홀도 도로면과 높이를 맞추어 차량 통행 시 충격과 소음을 줄인다.
-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고 침하나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구조와 주변 포장 마감을 함께 검토한다.

관리정보 표기 : 명확한 용도와 관리주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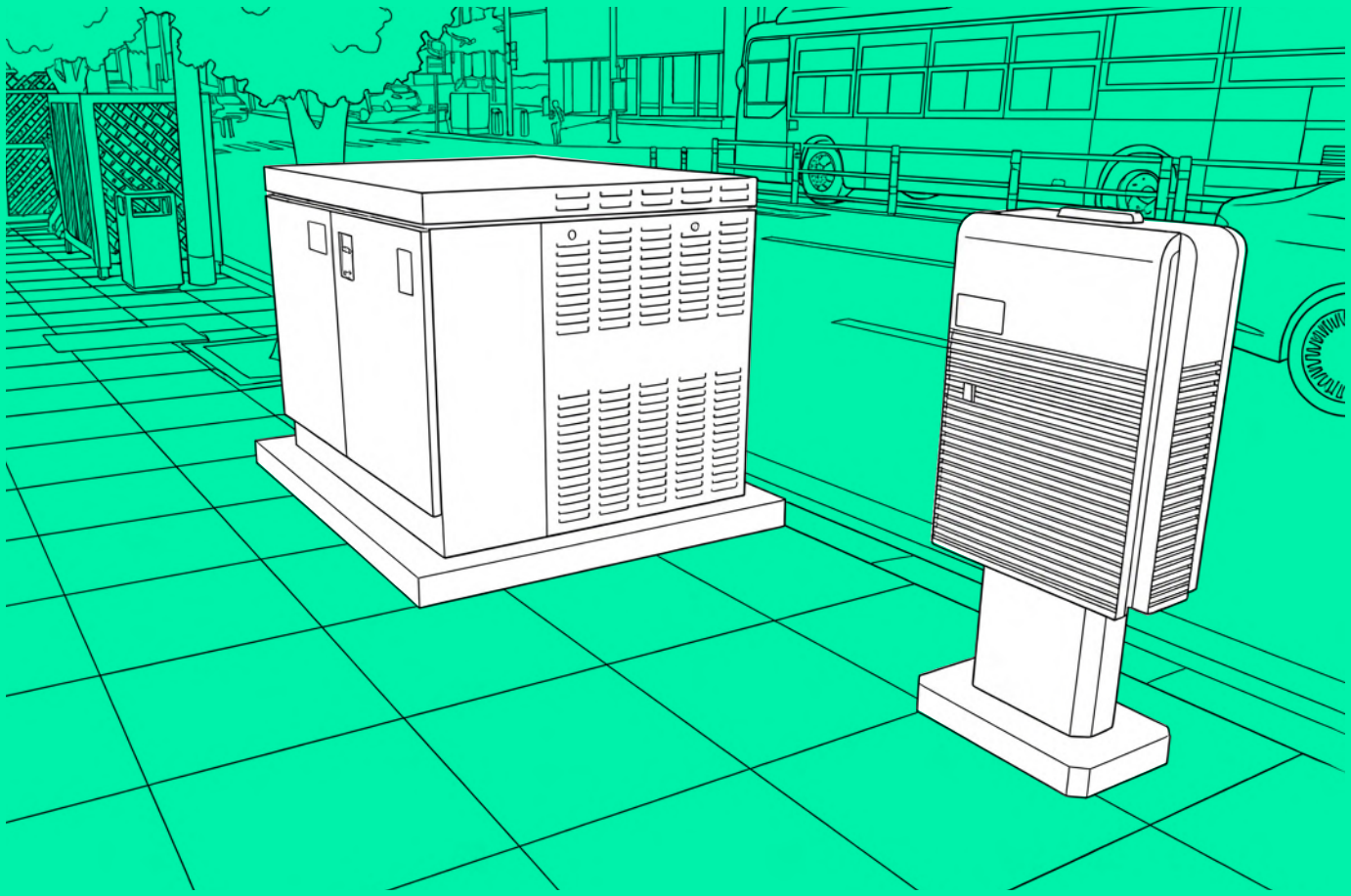
- 맨홀의 용도와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위해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정확히 표기한다.
- 우수, 오수, 통신 등 기능 구분에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표시하되, 불필요한 문구와 장식은 줄인다.
-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동일 기능의 맨홀은 표기 방식과 마감 기준을 통일하여 관리 효율을 높인다.
- 지자체 명칭이나 슬로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디자인은 지양한다.

배전함·제어함

가로 경관에 설치하며 전력 분배 및 신호등, 가로등 등의 시설물을 제어하는 함체형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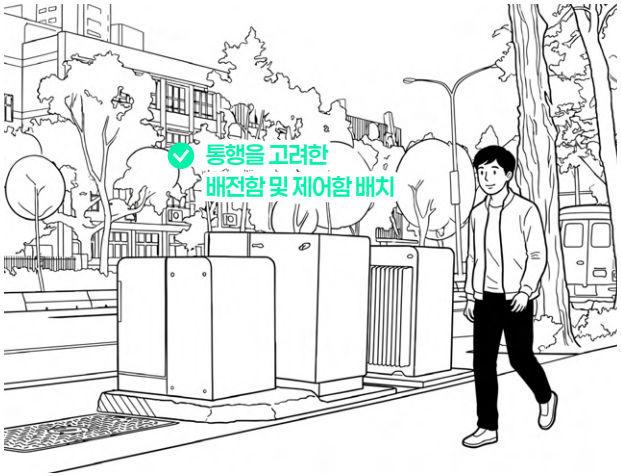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배전함 / 가로등제어함**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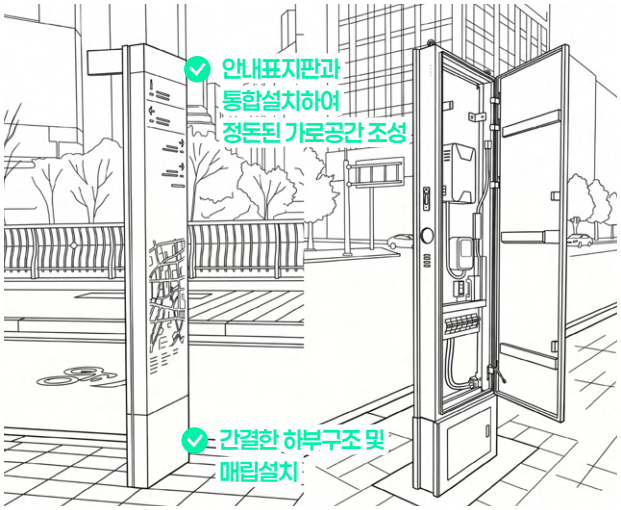
형태 및 구조 계획 : 간결한 외형 및 방해되지 않는 배치

-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보도유효폭** 2.0m 이상이 확보된 공간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통행 흐름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제어함은 보행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다른 지주형 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연속하여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가로공간에 조화로운 시설물 : 간결한 마감 및 내구성이 높은 재료

- 매립설치 시 볼트나 콘크리트 받침대 등 고정 시설물의 외부 노출을 지양한다.
- 받침대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배전함과 받침대의 너비를 일치시켜 시각적 돌출을 줄인다.
- 하부 결합부는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과도한 그래픽, 광고물, 장식적 패턴은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외관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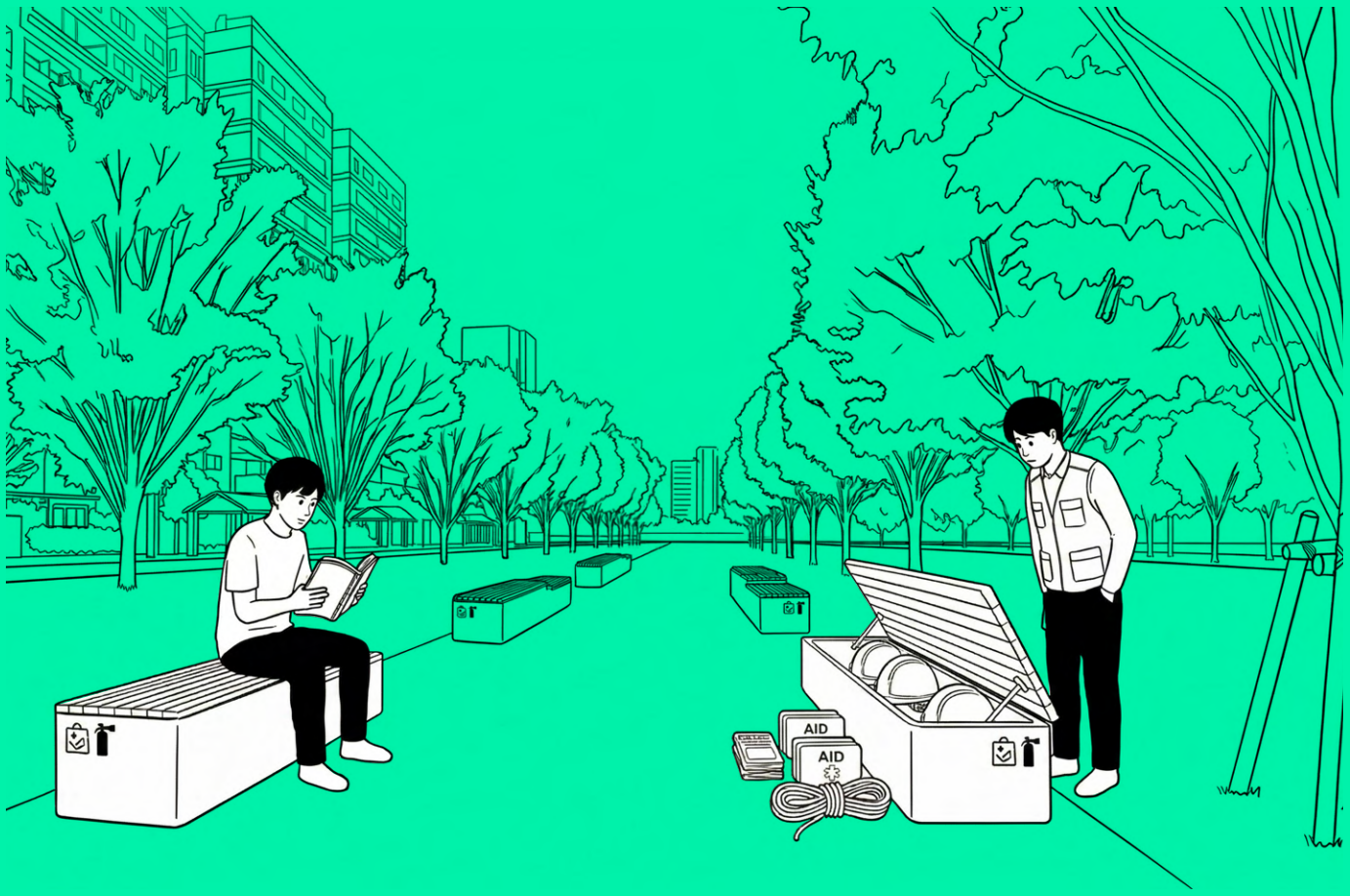
보도유효폭 시설물, 가로수, 전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폭

방재시설·제설함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소방기구와 대피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재난관리자원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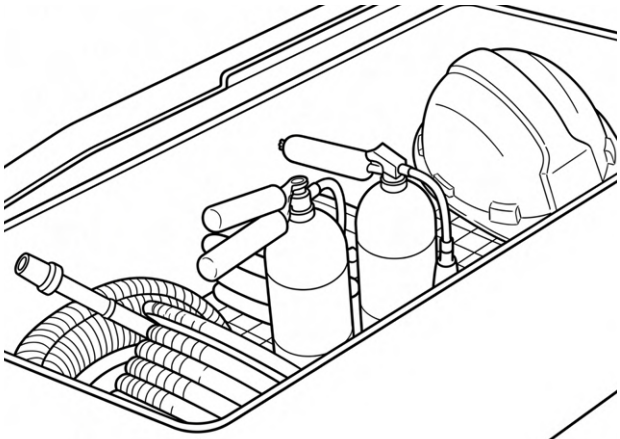


긴급한 이용 시 접근이 빠른 위치 : 긴급상황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배치

- 방재시설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으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를 우선 검토한다.
- 제설함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 수량과 위치를 결정한다.
- 야간과 악천후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반사 요소를 적용한다.
- 시설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변 식재, 구조물, 광고물과의 간섭을 검토한다.
-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부피와 설치 면적을 최소화한다.

시설물의 기능 확장 : 누구나 사용 가능한 구성

- 벤치, 파고라 등 기존 휴게시설과 결합하여 **방재 기능**을 통합한 복합형 시설을 권장한다.
- 소화기, 구급 키트, 제설 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함께 수납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
- 비상 시 누구나 쉽게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폐 구조를 단순하게 계획한다.
-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활용해 용도와 내용물을 명확히 구분하며 서체, 크기, 색채는 통일하고 과도한 장식보다 기능 정보가 먼저 보이도록 정리한다.
-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배수를 고려해 설계한다.



방재기능이 포함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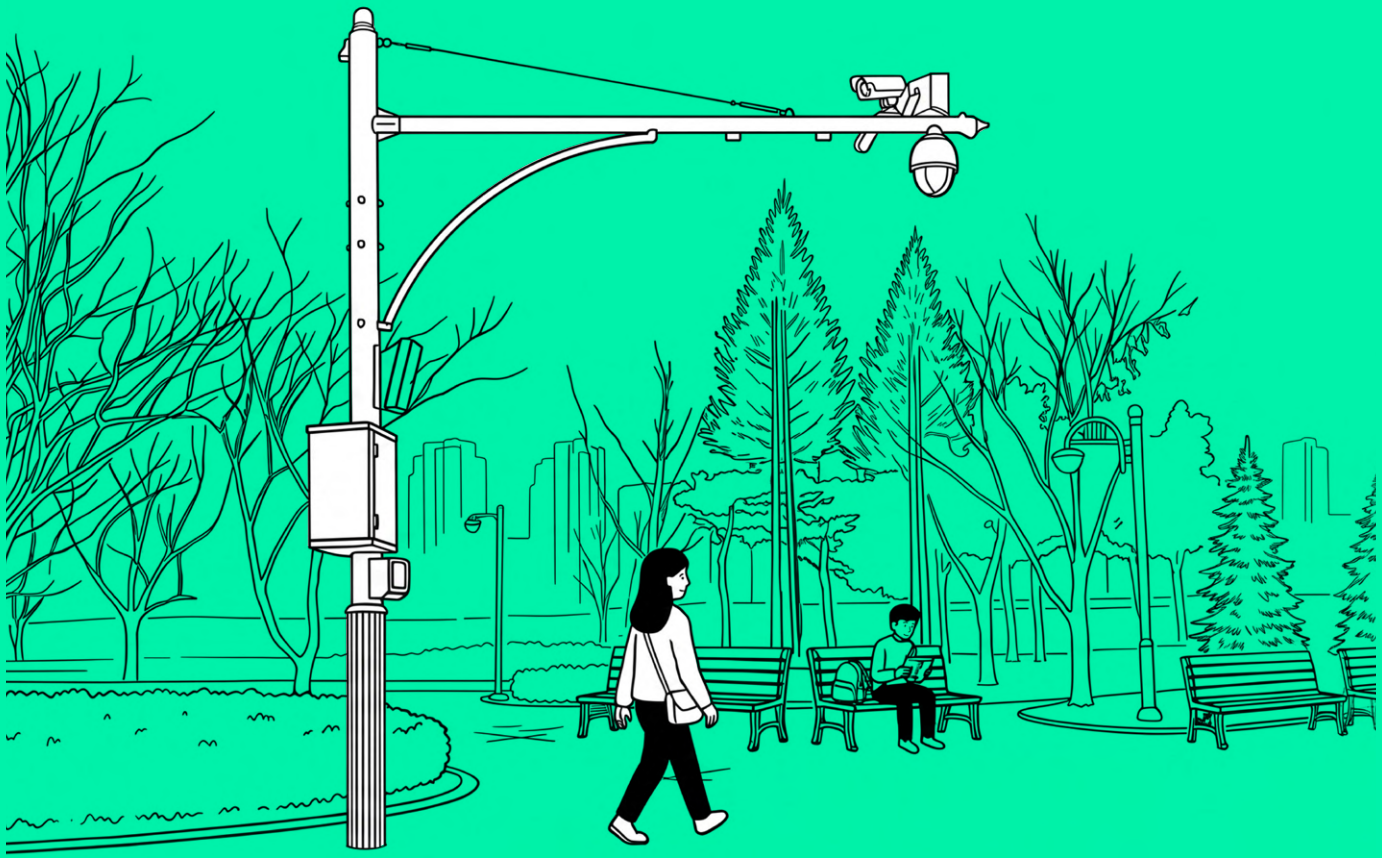
방재 기능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치한 기능(댐, 제방, 방화설비 등)

방범용 감시카메라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심의대상 확인 **방범용 감시카메라**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기능중심 배치 : 효과적인 형태 및 위치 선정

- 야간과 저조도 환경에서도 감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명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수목, 간판, 구조물 등에 의해 촬영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함께 검토한다.
-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가능한 경우 가로등, 보행등 등 기존 지주형 시설과 통합 설치를 우선 검토한다.
- 별도 지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며, 지면에 매립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기존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

야간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 : 기능 중심의 색채 및 재질

- 고광택 금속재질 사용은 지양하고, 눈부심 및 반사를 줄이는 무광택 마감을 적용한다.
- 장식과 불필요한 그래픽은 제한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외관으로 계획한다.
- CCTV 종류를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안내, 설치목적, 관리주체 등 정보는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재한다.
-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계획하고, 오염과 훼손에 강한 재료를 적용한다.



CCTV 종류를 명확하게 표기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공급시설물이 보행동선을 막거나 시야를 가릴 때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A. 보행유효폭과 시야 확보를 먼저 확인하고, 시설물은 보도 가장자리나 유휴공간으로 정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시설물은 기능 중심으로 설치되기 쉬워 보행자의 동선과 시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실제로 걷는 공간이 확보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시설물이 보행 흐름을 끊는 경우에는 보도 중앙 배치를 피하고, 보도 가장자리, 건축물 전면부, 녹지대, 공개공지와 같은 유휴공간으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렬배치로 정돈된 가로경관 및 보행동선 확보

Q.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로 사생활 침해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촬영 범위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조정하고, 설치 목적과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촬영 방향이 사적 영역을 향하면 사생활 침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저층부, 단독주택 창문, 상가 내부가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는 촬영이 필요한 공공영역을 먼저 정하고, 카메라 각도와 화각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나 사적 공간이 불필요하게 포함될 경우에는 차폐 기능, 마스킹 처리, 각도 조정 등을 검토해보세요. 또한 CCTV가 설치된 공간에는 촬영 목적, 범위, 관리 주체, 문의처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방재시설·제설함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A. 방재시설·제설함은 눈에 잘 띄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재시설과 제설함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빠르게 찾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필요한 경우 안내 픽토그램과 짧은 문구를 적용하고, 관리부서와 점검일자를 함께 표시해 실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Q. 배전함·제어함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나요?

A. 점검이 쉬우면서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연속 설치될 경우에는 배치선과 외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할 때는 먼저 점검문을 열 수 있는 공간과 보행자가 지나가는 공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보행로를 막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 건축물 전면부, 녹지대 등 보행동선과 충돌이 적은 위치를 우선 검토해보세요. 2개 이상 연속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설을 제각각 놓기보다 일렬 배치하거나 통합 커버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결합하거나 벤치 구조를 결합하여 편의 시설물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01 직접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체험형 커버디자인
02 벤치, 테이블 기능과 결합한 편의형 커버디자인

Q. 배전함·제어함이 제각각 설치되어 경관을 해칠 때는 어떻게 정비하나요?

A. 먼저 시설물 총량과 위치를 확인하고, 통합디자인을 통해 가로경관을 정돈합니다.

배전함, 제어함, 통신함이 기관별로 개별 설치되면 기능상 필요한 시설이라도 제각각 보이면 관리되지 않은 거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비할 때는 먼저 동일 구간에 설치된 공급시설물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보도 가장자리나 유휴공간으로 재배치하고, 같은 기능의 시설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통합 커버나 일렬 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와 간결한 입면으로 정리합니다. 장식적인 그래픽을 덧씌우기보다 시설물의 크기, 배치선을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D 20-21

녹지시설물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가로수와 식재를 보호하고
녹지공간의 유지와 보행환경 개선을 돕는 시설물

D20 가로수보호대 198

가로수보호대

D21 가로화분대 200

가로화분대

D 20-21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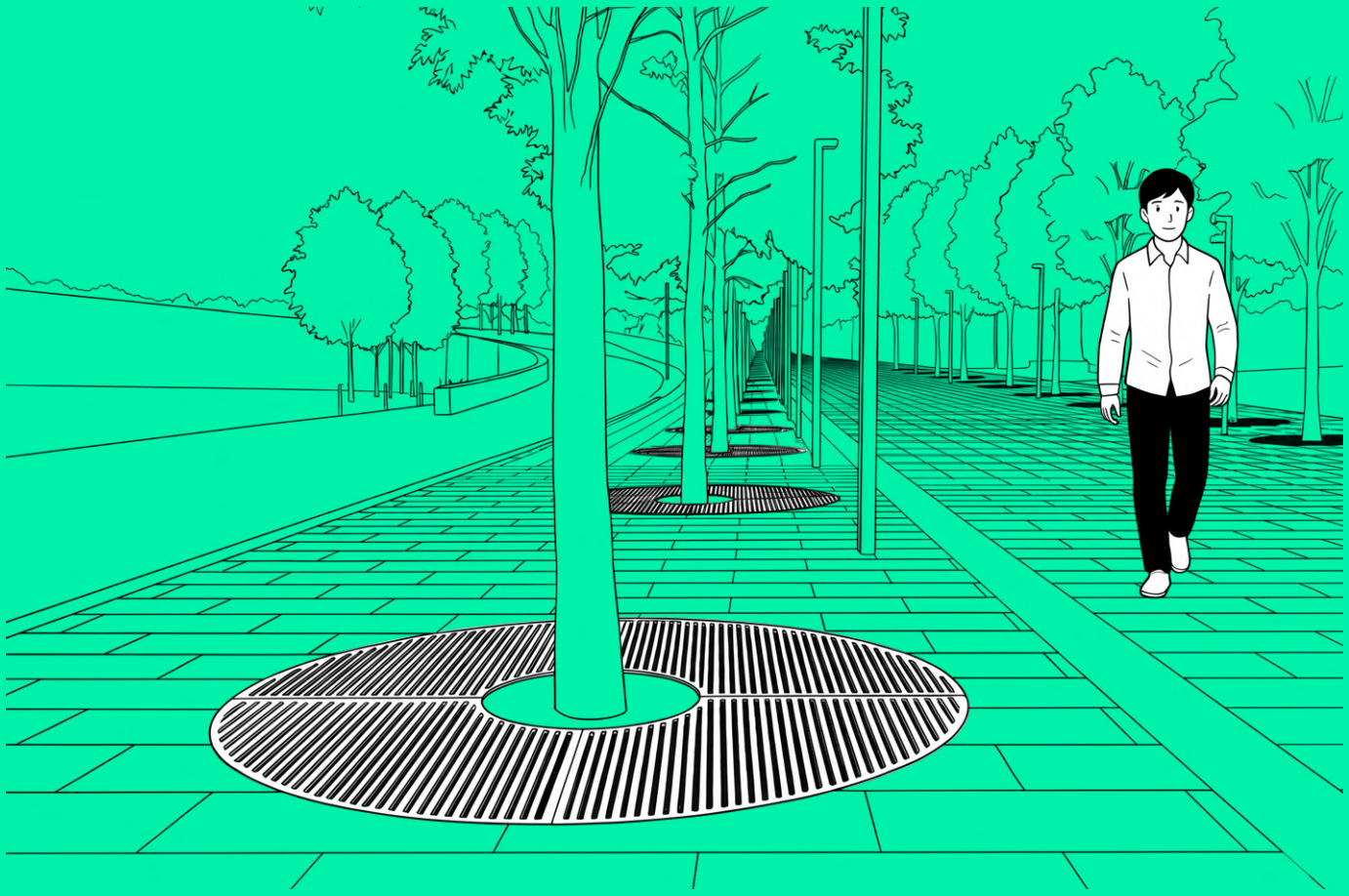
- **실행중심** 식재 보호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배치 계획을 적용한다.
- **지역맞춤** 보행공간 내 시설물이나 보행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와 규모로 계획하고 도시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조성한다.
- **미래대응** 식재에 적합하고, 계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녹지 환경을 유지한다.

가로수보호대

가로수를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정돈하기 위해 나무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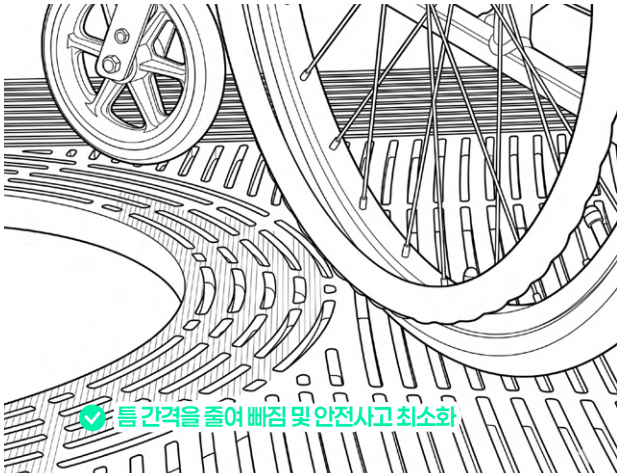
심의대상 확인 가로수보호대

관련 법령 및 지침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 산림청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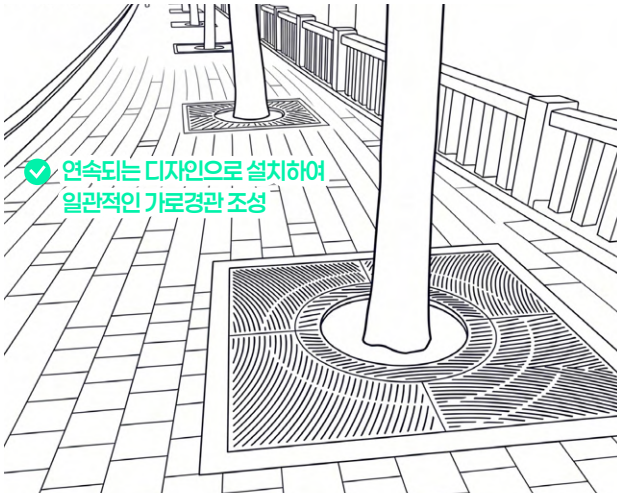
보행과 조화로운 환경 : 단차 없는 설치 및 안전한 배치

- 가로수보호대는 보행자 신발이나 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간격으로 설계한다.
- 모서리와 결합부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걸림이 없도록 둥글고 매끄럽게 마감한다.
- 파손되거나 들뜬 보호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교체와 보수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 가로수의 생육을 고려하여 빗물과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한다.



수목을 고려한 재질 및 구조 : 내구성과 교체가 용이한 디자인

- 설치 후 뿌리와 줄기의 성장에 따라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며 장기적 유지보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한다.
-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을 권장한다.
-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모듈형** 구조 적용을 권장한다.
- 금속 재료를 사용할 경우 눈부심과 부식을 줄일 수 있는 마감을 적용한다.
-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보호대는 형태와 재료를 통일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모듈형 전체 구조물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부품으로 나누어, 조립 및 설치하는 방식

가로화분대

도로변과 보행공간에 식물을 심어 쾌적한 가로환경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가로화분대

관련 법령 및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보행을 고려한 식재 계획 :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 보도 유효폭 2.0m 이상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 모서리는 곡면으로 마감하여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충분한 보도유효폭이 확보된 경우 벤치나 테이블 기능과 결합한 통합형 가로화분대를 계획할 수 있다.
- 벤치, 가로수 등과 연계할 경우 휴식과 체류 공간이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설치 위치와 보행량을 고려하여 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하지 않는 규모로 계획한다.



가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 식재와 조화로운 시설물

- 가로화분대는 금속, 석재, 목재 등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높은 재료를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저채도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및 과도한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 건조한 환경과 외부 오염에 강한 식재를 우선 선정한다.
- 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관 연출이 가능하도록 **식재 구성**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식재 구성 조경이나 정원 설계에서 식물(수목, 초화류 등)을 미적, 기능적, 생태적 목적에 맞춰 배치하고 조합하는 과정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설치 할 가로수 보호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A. 가로수 보호대는 수목 보호와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가로수 보호대가 들뜨거나 깨지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에도 방해가 됩니다. 보호대는 보도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목 뿌리 생장으로 보호대가 들리는 경우에는 보호대만 다시 설치하기보다 뿌리 생육공간과 포장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호대 설치를 최소화하거나, 보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재 기반형 마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세요.





01 파손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 및 설계 구조
02 수목 뿌리 성장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설계 및 시공

Q. 녹지시설물이 유지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A. 녹지시설물은 설치보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관리 주체와 점검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대, 식재대는 계절 변화와 보행 압력, 쓰레기, 배수 문제에 계속 노출됩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금방 방치된 시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누가 관리할지, 얼마나 자주 점검할지, 파손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교체할지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 청소가 쉬운 마감, 교체 가능한 부품을 적용하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녹지시설물이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제각각 설치된 경우 어떻게 정비하나요?

A. 녹지시설물은 개별 시설물로 보지 말고, 가로 전체의 색채와 형태를 맞추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식재대의 형태와 색이 모두 다르면 가로경관이 복잡해 보입니다. 특히 같은 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이 반복 설치되면 관리되지 않은 공간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정비할 때는 보호대와 화분대의 색채, 높이, 재료, 배치 간격을 통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변 보도 포장, 가로시설물, 건축물 저층부와 어울리는 저채도 색채와 간결한 형태를 우선 검토해보세요.

Q. 가로화분대나 식재대를 휴게시설로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식재 생육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휴식 기능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화분대나 식재대는 단순히 식물을 담는 시설로만 두기보다, 벤치나 간단한 테이블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형 시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보도 폭이 충분한 구간이나 공개공지, 광장, 상업가로처럼 잠시 머무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녹지와 휴식 기능을 함께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로화분대를 휴게시설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좁은 보도에서는 앉는 공간이 동선을 막을 수 있고, 식재 주변에 쓰레기나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는 보도유효폭, 머무는 수요, 청소와 물주기 동선, 식재 훼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디자인은 과도하게 장식하기보다 가로시설물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는 면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식재부와 착석부는 물과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2



01 식재와 결합한 휴게공간 조성
02 벤치와 결합한 휴게형 가로화분대 조성

E

공공매체 및 용품

공공매체 207

공공용품 218

공공매체 및 용품은 공공공간에서
정보 전달과 이용 편의, 안전 및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 요소

E 01-03

공공매체

공공공간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시각과 시설 요소

E01 정보매체 209

교통관련 표지판 / 이정표 / 지하철노선도 / 주차장 안내 / 공공기관안내 / 자전거도로 안내 / 보행관련 방향안내 / 도로 및 건물안내 / 공원·관광·국가유산안내 /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 도로교통표지 / 디지털영상매체 / 공사장출입구 / 공사장 안내판 / 임시가림벽 등

E02 공공미술 212

조형물 / 그래픽 / 미디어아트

E03 시각이미지 214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E 01-03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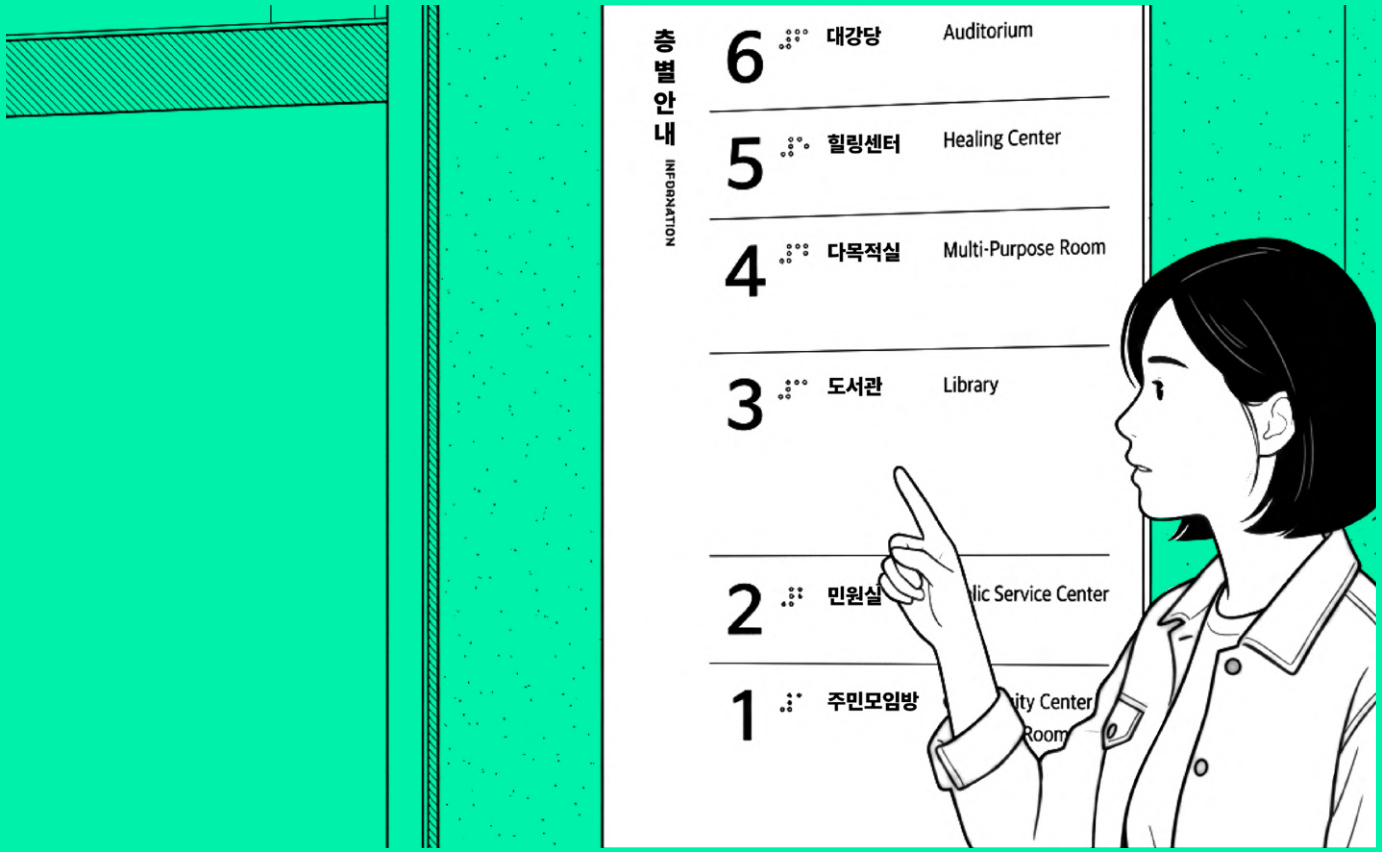
- **실행중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목적, 정보 위계, 표기 방식을 명확히 계획한다.
- **지역맞춤**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반영하되,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형태·색채·재료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미래대응** 정보 변경, 매체 교체, 유지보수가 쉽도록 확장성과 관리 효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정보매체

공공공간에서 위치, 방향, 시설 이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동과 활동을 지원하는 시각적 정보 전달 시설물

심의대상 확인 **교통관련 표지판 / 이정표 / 지하철노선도 / 주차장 안내 / 공공기관안내 / 자전거도로 안내 / 보행관련 방향안내 / 도로 및 건물안내 / 공원·관광·국가유산안내 /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 도로교통표지 / 디지털영상매체 / 공사장출입구 / 공사장 안내판 / 임시가림벽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이동 관련 정보 안내 :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

- 현재 위치, 목적지, 이동 방향, 환승 정보는 정보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며, 인지성이 높은 심볼과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 버스노선도 등 주요 이동 안내도는 노약자와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1.5m 내외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통 환경 변화와 스마트 교통체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갱신과 연계가 쉬운 안내체계를 계획한다.
- 주차 관련 안내매체는 과도한 고채도 색상과 복잡한 패턴을 지양하고, 주차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교량, 육교, 터널, 고가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물에는 과도한 광고물과 장식적 정보매체 설치를 지양한다.

영상 관련 정보 안내 : 주변 환경과 이용자 시야를 고려한 디지털 정보매체

- 주거지역, 녹지지역, 문화재 주변 등 경관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영상매체의 크기, 밝기, 표출 시간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시각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스마트시티 기반 정보 제공, 재난 안내, 실시간 공공정보 전달 등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공공 목적의 정보 전달을 우선하고, 상업적 광고성 콘텐츠 표출은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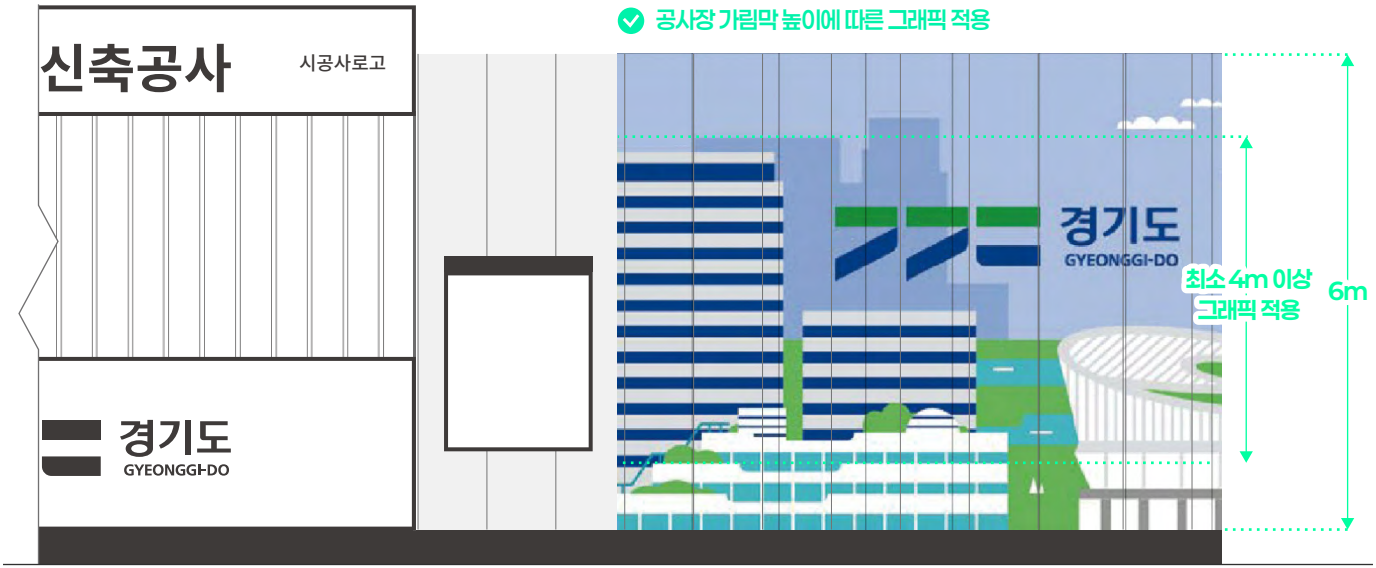
시설 관련 정보 안내 : 공공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쉽게 알리는 매체

- 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 주요 시설 안내는 문자, 화살표, 픽토그램, 거리 정보를 함께 표기한다.
- 방향 안내사인은 보행공간 점유를 최소화하도록 벽면 또는 천장 부착을 우선 검토하고, 시인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한다.
-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와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병행 적용한다.
-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 안내판, **촉지도**, 음성 안내장치 설치를 검토하며, 안내표지 전면 30cm 지점에 재질 및 색상 차이를 적용한다.

촉지도 시각장애인이 건물 내부 공간, 도로 구조, 시설물의 위치 등을 손으로 만져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편의시설

안전 관련 정보 안내 : 공사장·이동편의시설 안내매체

- **공사장 가림막**의 그래픽은 최소 4m 이상을 유지하여 설치하며, 전체 적용이 어려울 시 가림막의 중앙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장 안내판은 주 출입구와 주요 이동동선에 설치하여 공사 정보와 우회 동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 구간의 시작점과 종료점에는 공사 정보, 보행 유도표지, 우회 안내를 함께 계획한다.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위험 요소의 시작점과 끝 지점에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안내판은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야간 보행 안전성과 사인의 시인성을 확보한다.
- 문자, **픽토그램**, 점자, 음성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사장 가림막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경기도 공사장 가림막 및 임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참고
픽토그램	누구나 즉각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 시설, 행동 등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상징적인 그림 문자

공공미술

공공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가치의 공공매체

심의대상 확인 **환경조형물 / 상징조형물 / 벽화 / 슈퍼그래픽 / 미디어아트**

관련 법령 및 지침 「미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조형물 :
보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간결한 설치

-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간결하게 계획하고, 시야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개방된 공공공간 내 설치할 것을 우선 검토한다.
- 중심광장, 결절부, 주요 조망점 등 시각적 효과가 큰 위치에 설치할 것을 검토한다.

그래픽 :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가치를 반영한 콘텐츠

-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안내형 콘텐츠 적용을 권장한다.
- 가로변 옹벽에 적용하는 경우 생태 벽화, 패턴 그래픽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 구조물이나 기능시설의 단순 장식화를 지양하고, 공간 기능과 연계된 그래픽 적용을 권장한다.
- 시각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저채도 색상과 간결한 패턴 적용을 권장한다.

미디어아트 :
시야와 경관에 조화로운 미디어 연출

-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미디어아트의 영상 표현 범위는 설치 위치의 가로·세로 크기와 표출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 주변 환경과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와 밝기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영상과 패턴 연출은 조명 효과, 표출 시간, 주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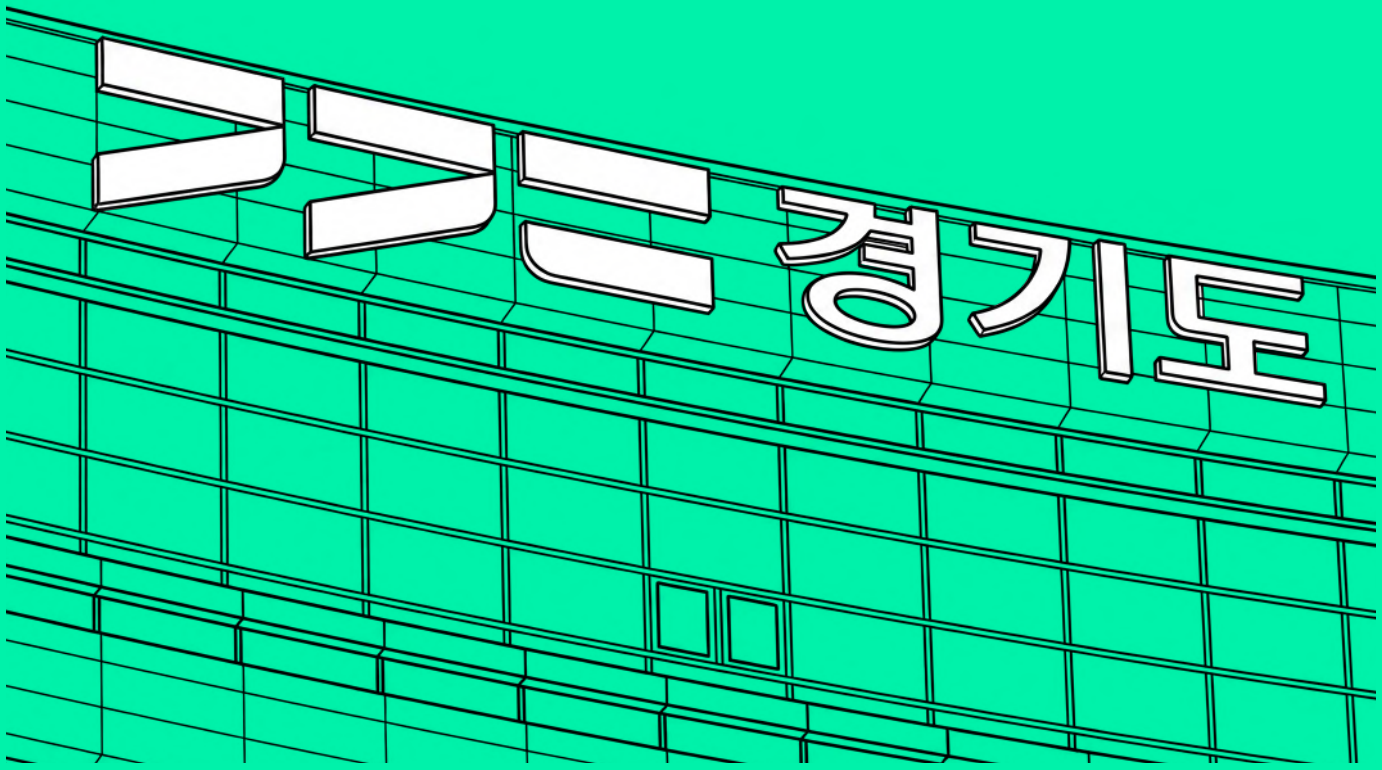
보도 유효폭 시설물, 가로수, 전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폭

시각이미지

도시의 정체성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공영역 전반에 적용되는 이미지

심의대상 확인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관련 법령 및 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적인 지역 이미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디자인 계획

-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부의 계획 방향을 먼저 정리한 후 디자인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디자인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성**과 이해도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 시각이미지 개발 시 단순한 시각 요소만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함께 반영한다.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와 색채 : 정보 전달과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

- 과도하게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문양은 지양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를 권장한다.
- 전체 크기와 서체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시각이미지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지나친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한다.
- 단순한 형태로 정보의 명확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색채와 서체를 적용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 국제표준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적용하여 정보 접근성과 범용성을 높인다.

공공성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도민 전체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누리는 가치
픽토그램	인종,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 시설, 행동 등을 상징화한 그림 문자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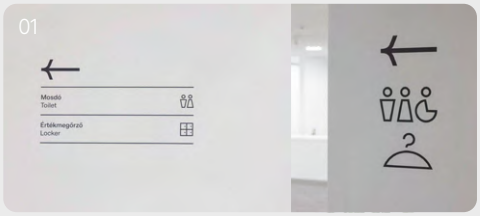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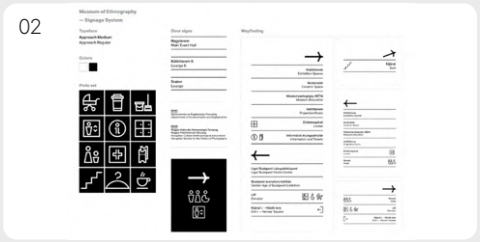
Q. 안내사인, 지도, 전광판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필요한 정보의 순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내매체는 수량보다 정보 위계와 설치 위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사인, 지도, 전광판이 개별적으로 추가되면 같은 정보가 반복되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다른 안내물이 한 공간에 섞이면 서체, 색상, 픽토그램, 설치 높이가 달라져 더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어떤 순서로 정보를 확인하는지 정리해보세요. 출입구에서는 전체 위치를 알려주고, 갈림길에서는 방향을 알려주며, 목적지 앞에서는 최종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정보는 줄이고, 표기 방식과 설치 위치를 통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1, 02 동일공간 내 통일성 있는 안내사인 디자인 및 체계

Q. 공공매체가 외국인, 노약자 등 모두에게 쉽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A. 평균적인 이용자만 기준으로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글씨, 쉬운 언어,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 점자·촉지도, 음성안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매체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한다고 보고 만들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작은 글씨나 낮은 명도대비를 읽기 어렵고, 외국인은 한국어 중심 안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장애인은 시각정보만으로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짧고 쉬운 문장으로 정리하고, 국제표준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함께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시력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명도대비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점자, 촉지도, 음성안내, 관리자 호출 기능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보다 세부적인 설치 기준과 공간별 적용 방법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안내사인' 파트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나중에 벽화, 슈퍼그래픽 등 시각이미지가 훼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설치 전부터 유지관리 기준과 보수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훼손된 이미지는 방치하지 말고 보수, 철거, 리뉴얼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화와 슈퍼그래픽은 처음에는 경관 개선 효과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탈색, 오염, 박리로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면적의 그래픽은 훼손이 눈에 잘 띄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면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설치 단계에서 유지관리 주기, 재도색 기준, 보수 책임 주체를 먼저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부 환경에 강한 재료와 코팅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콘텐츠 교체나 리디자인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01 노후된 그래픽 도색 지속 방치
02 주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기반마련

Q. 공공미술이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공공미술은 설치 작품이 아니라 계속 관리되는 공공공간 요소로 봐야 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장소성, 주민 수용성, 유지관리 주체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미술은 사전 기획 없이 설치되거나 지역의 장소성과 단절되면 주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 파손, 안전 문제까지 생기면 경관 개선 요소가 아니라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는 왜 이 장소에 필요한지, 누가 이용하고 바라보는지, 유지관리 주체는 누구인지를 검토해보세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작품 설명과 이용 안내를 함께 제공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정기 점검과 보수 기준을 운영하고, 훼손이 심하거나 장소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리뉴얼, 철거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 04

공공용품

공공공간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용품

E04 공공용품 220
안전장비 / 공중위생 / 장애인 및 영유아 용품 / 사무용품 / 기념품

E 04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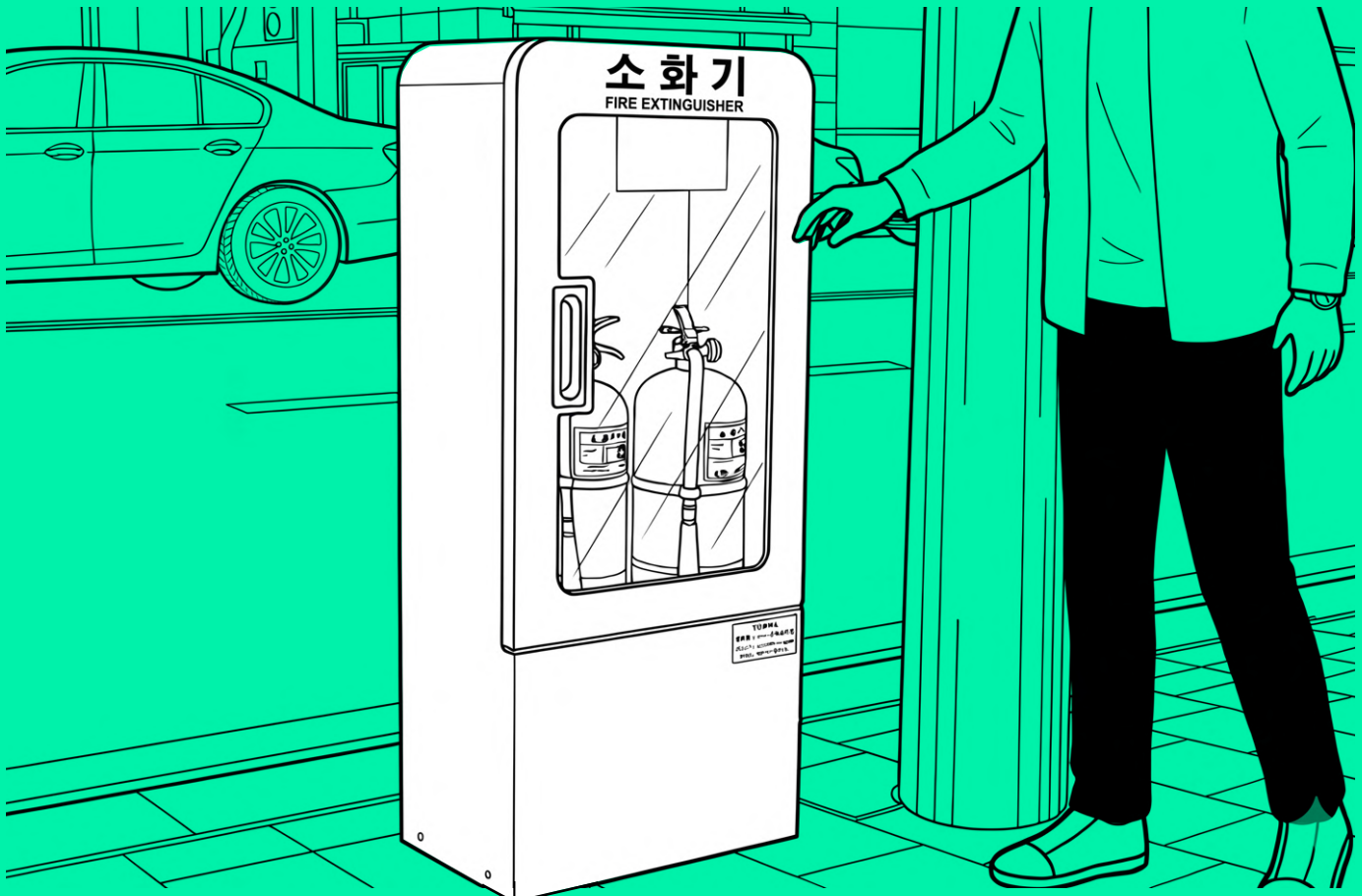
- **실행중심** 필요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하고, 별도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역맞춤** 공간의 이용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용품의 종류, 수량, 배치 방식과 운영 형태를 조정한다.
- **미래대응** 위생성,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용 수요와 유지관리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공용품

안전과 편의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공공 용품

심의대상 확인 **안전장비 / 공중위생장비 / 사무용품 /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 기념품**

관련 법령 및 지침 「어린이·노인·임산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안전·피난·구호 용품 : 비상시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 배치

- 사용자가 별도의 설명이나 교육없이 안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안전 손잡이, 비상벨 등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조건과 접근성을 고려한다.
- 피난·구호 용품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피난유도 조명은 바닥 **매립형** 등으로 설치해 비상상황 시 주변 30m 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문자, 색채, 조명,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장애인·영유아 용품 : 불편 없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식은 최소화하여 간결하게 디자인하며 시설물 충돌 상황을 고려하여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다.
- 바닥 단차는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용품의 **설치 높이**와 배치는 일정하게 계획한다.
- 장애인, 영유아,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손이 닿는 위치, 조작 방식, 접근 동선을 검토한다.
- 바닥은 탄성이 있는 소재를 적용하여 넘어짐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매립형	벽, 바닥, 천장 등의 구조물 내부에 기기나 배관을 넣거나 채워 넣어 표면을 평평하게 마무리하는 방식
설치 높이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바닥으로 부터 800mm~1200mm 이내에 설치를 권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참고

궁금해요!

공공디자인·타부서 실무자가 살펴보면 좋은 추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Tip. 예상되는 민원이나 실무형 지침이 궁금할 때

Q. 공공용품이 설치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필요한 사람이 바로 찾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용품은 설치되어 있어도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쓰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장비, 공중위생장비, 장애인·영유아 용품은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아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눈에 잘 띄는 위치와 직관적인 사용 방식이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먼저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픽토그램과 짧은 안내문으로 용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설치 높이와 조작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고령자도 손이 닿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용을 꺼리게 되므로 정기 점검과 보충, 청소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0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
02 픽토그램을 활용한 물품 위치 인지성 강화

Tip. 디자인 기준·방법이 궁금할 때

Q. 공공용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제각각일 때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A. 공공용품을 부서별로 개별 구매하면 디자인, 규격, 품질이 달라져 공공공간의 통일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형태와 색이 다른 용품이 섞이면 시민은 어떤 것이 공공용품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관리자는 교체나 보수 기준을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품목별로 디자인, 색상, 규격, 성능 기준을 정해보세요. 안전장비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공중위생장비와 장애인·영유아 용품은 위생성과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경기도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용품은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고려해 배치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구조·형태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가격만 보지 말고,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설치와 교체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장해보기

다양한 공공디자인 기획 아이디어와 설계·시공 사례 참고

A 공공공간 224

B 공공건축물 228

C 도로기반시설물 234

D 공공시설물 240

E 공공매체 및 용품 250

3 건강 일상환경 공공디자인

가로공간의 고정관념 벗어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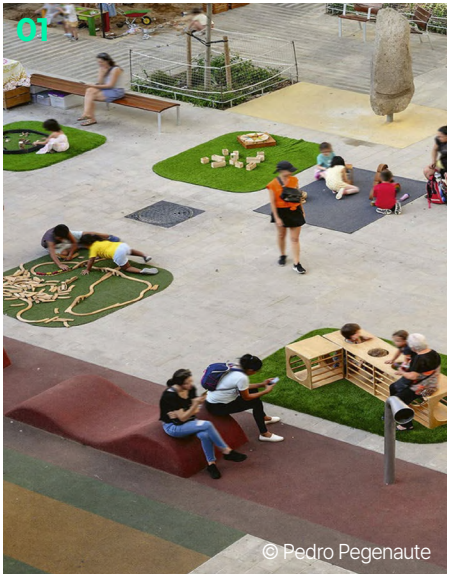






덴마크_슈퍼킬른(Superkilen) 프로젝트 수행 : Bjarke Ingels Group, TOPOTEK 1, SUPERFLEX

슈퍼킬른은 코펜하겐 노르브로의 다문화 지역에 보행·자전거 이동을 고려하여 조성된 공공공간
광장, 놀이, 운동, 휴식, 커뮤니티 기능을 **복합적으로 계획해 가로 공간을 단순 이동 공간에서 머무르고 교류하는 도시 플랫폼으로 전환**











01 바르셀로나_슈퍼블록 보행자 중심 공공공간으로 재편한 도시 재생 모델
02 브라질_리니어 파크 수변이나 기반시설을 통해 도시 생태를 개선한 공간
03 이탈리아_밀라노 공원 다양한 식재 패턴과 열린 광장을 결합한 현대적 도시공간
04 캐나다_아고라 막시무스 도심 교통·광장 기능을 통합해 다목적 공공공간으로 구성
05 캐나다_플랫파크 보도공간을 활용한 공공의 쉼터 공간으로 재구성

3 건강 일상환경 공공디자인

휴양공간의 공공 활용성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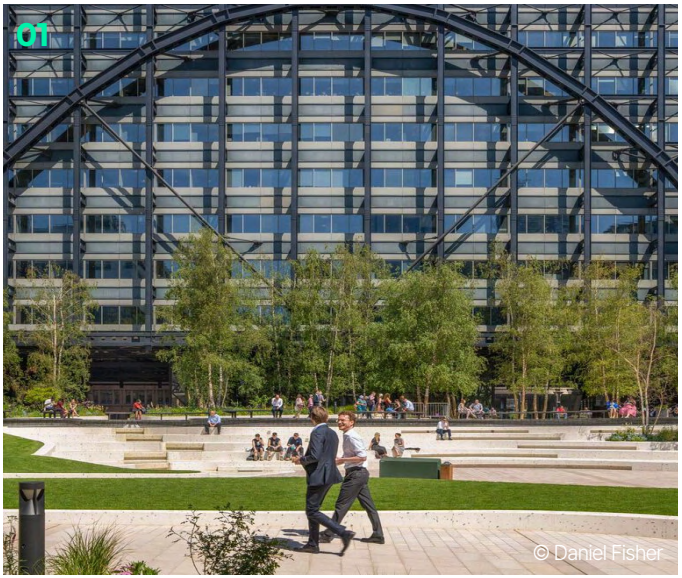






덴마크_하버 배스 (Harbor Bath) 수행 : Bjarke Ingels 그룹

폐기된 해안 부둣가를 하버파크로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재생하여 우드데크와 인공해변**을 조성
물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항구 수영장과 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며, 코펜하겐의 대표적인 수변 명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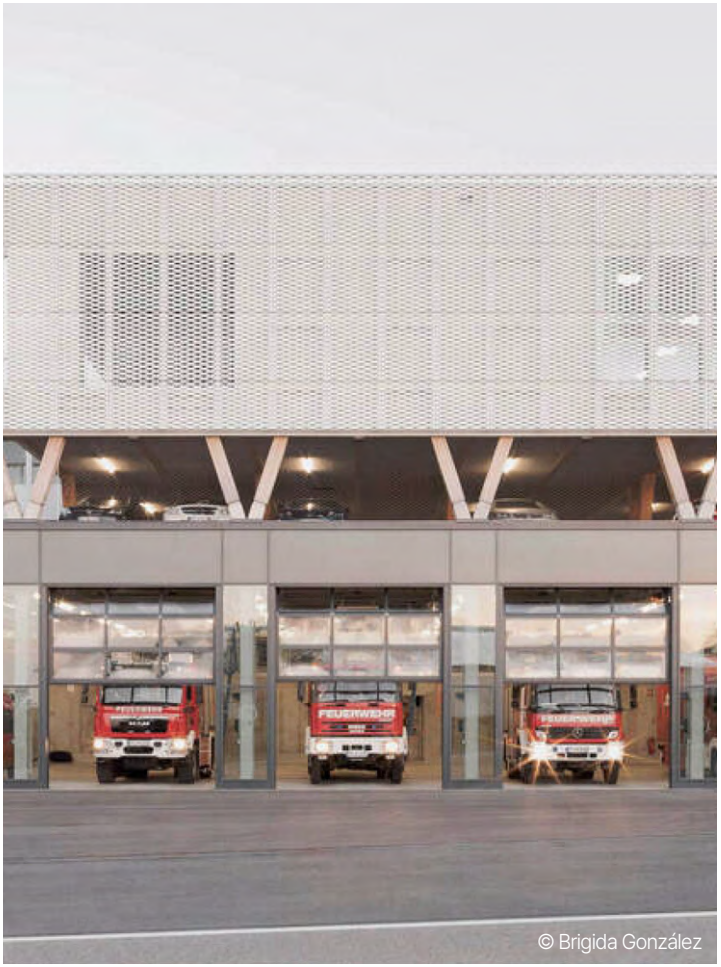




01 **영국_익스체인지 스퀘어 파크** 고가형 도시 공원으로 자연·휴식·활동이 가능한 공공공간
02 **캐나다_파크파크** 주차된 공간 안에 활동적인 공간을 조성해 재생
03 **동두천시_캠프님블 수변공원** 군사 시설이었던 공간을 시민을 위한 휴식으로 전환
04 **중국_오케스트라 파크** 음악과 경관을 결합해 통합적으로 설계한 문화공간

10 격차 완화·포용 공공디자인

공공시설의 포용성 더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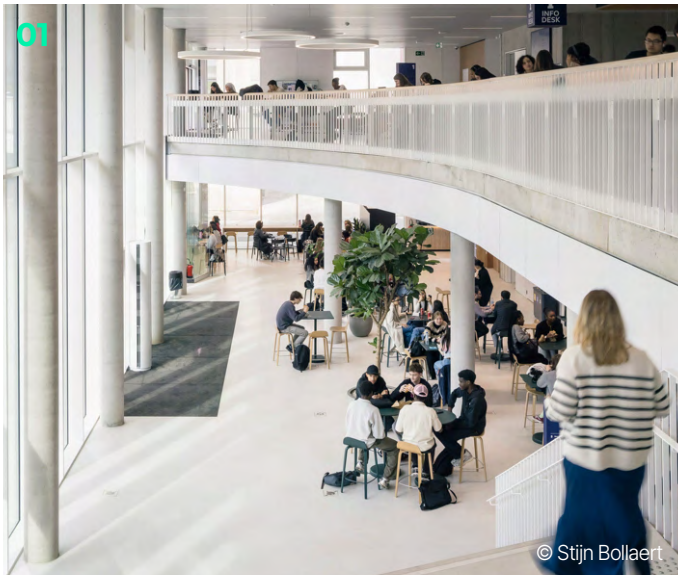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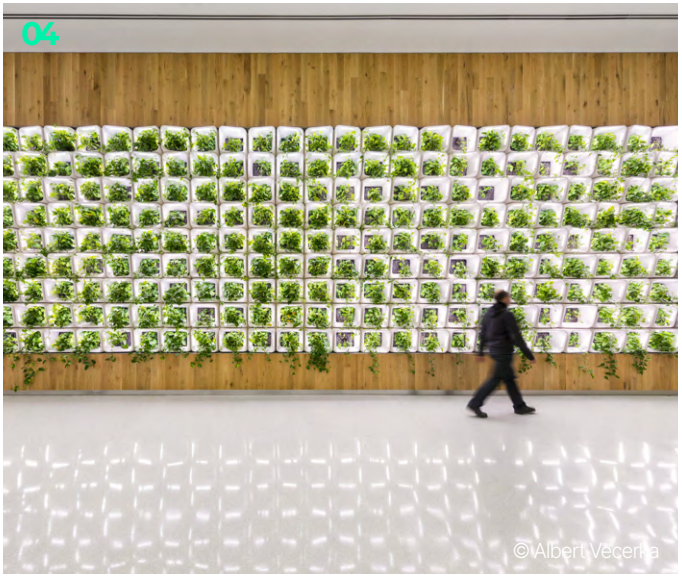
독일_지속가능한 소방서 수행 : Wulf Architekten

독일 슈트라우벤하르트에 위치한 **소방서는 6개의 독립적인 소방 부대를 하나로 통합한 지속 가능한 건물 재활용 가능 소재를 사용해 지어진 독일 최초의 소방서** 중 하나로, 경사지를 활용한 분리 구조 구성









01 벨기에_교육센터(LIC) 에너지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적 설계를 적용한 공간 조성
02 스웨덴_공공청사 친환경 설계를 통해 운영비용 저감 및 열린 소셜 공간 전환
03 광주시_남한산성 행정복지센터 남한산성의 정체성 및 국산 목재 활용을 통한 문화 확산
04 뉴욕_응급 통합 시설(PSAC) 경찰, 소방, 응급의료 서비스가 통합된 지속가능한 공간

14 수변·해양 공공디자인

심리적·사회적 가치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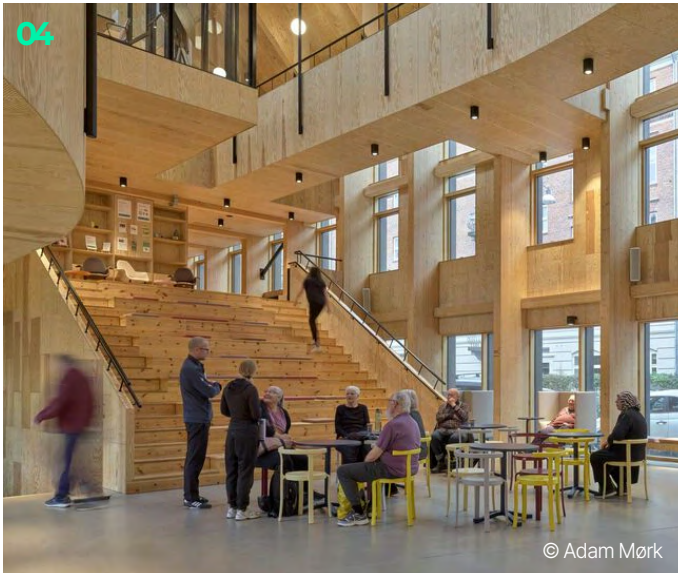
대만_타이난 스프링 (Tainan Spring) 수행 : MVRDV

1980년대에 건설되어 방치되던 차이나타운 몰 쇼핑센터를 철거하고, 도심 속 녹지 공원과 물놀이 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순환 경제를 반영한 대표적인 공공공간











01 멕시코_커뮤니티 센터(CDC)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공공생활 활성화
02 벨기에_에데헴(Edegem) 도서관, 다목적 홀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 복합 문화 센터
03 터키_FNN 지속가능성 센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및 전시의 문화공간
04 코펜하겐_헬스센터 심장 질환 환자를 위한 친환경적 의료 복지 센터
05 멕시코_산베르나베 센터 체육관 및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제공

7 에너지 효율 운영 공공디자인

체감형 공간으로 인식 전환하기







덴마크_코펜힐 (CopenHill) 수행 : BIG (Bjarke Ingels Group)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전기와 지역난방을 생산하는 시설에 연중 이용 가능한 인공 스키 슬로프, 하이킹 코스, 클라이밍 월, 환경교육 제공 복합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의 혐오시설로 숨기지 않고, 오히려 시민이 찾아가 체험하는 공공공간 조성**









01 **브라질_라파 터미널** 식생 및 시설물을 함께 설계해 주변과 조화로운 터미널 조성
02 **베트남_환경시설** 제로 웨이스트를 통한 폐기물 저하 유리병 물 생산 시설
03 **덴마크_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도시의 등대처럼 보이도록 연출하여 환경시설 이미지 변화
04 **중국_난투 공중화장실** 채광과 자연 중점으로 혐오 시설이 아닌 장소성 재정의

3 건강 일상환경 공공디자인

생태, 사람, 교통과 연결하기







네덜란드_자전거 교량 (Zaan Bridge)

수행 : LAAB Collective , Signature Design Communication

공공-민간-지역 협력을 통해 네덜라드 자연 네크워크 조성을 위한 자전거 도로 및 야생동물 통로 조성 프로젝트

교량 정비를 통해 지역 내 학교 및 접근성 향상과 습지 연결을 통해 자연 환경을 살리는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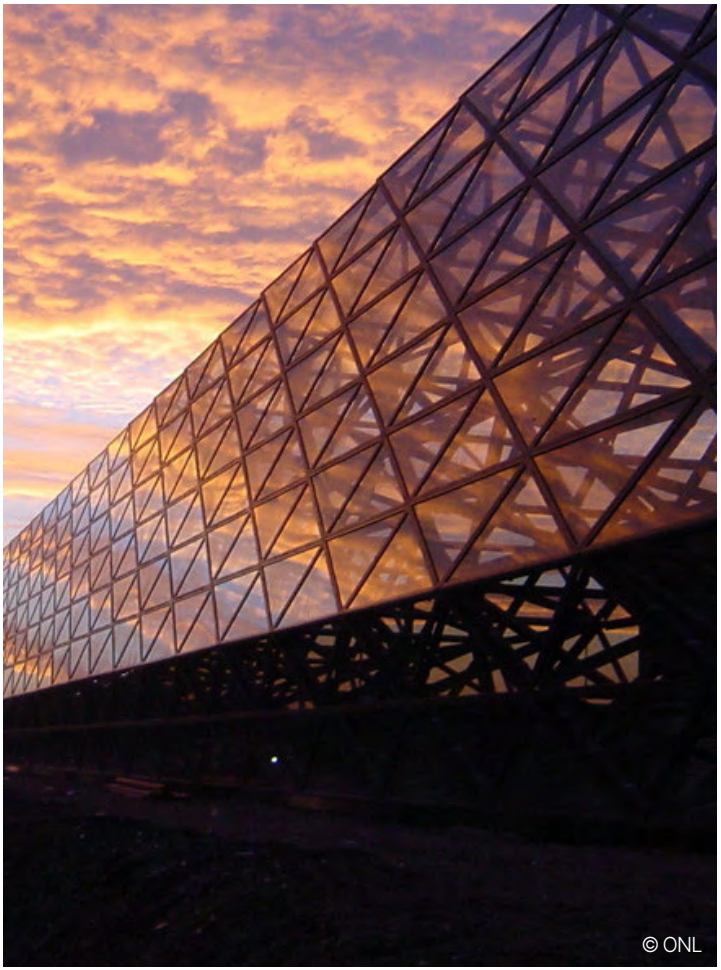




01 스위스_생태 터널 도시화로 인해 단절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연결한 공간
02 네덜란드_지하보도 자전거와 보행자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조성
03 네덜란드_자전거 교량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다리 및 광장 공간 조성
04 중국_러닝 교량 교량과 공공공간을 연결하여 산책로 및 경관 조성
05 일본_고가차도 아래 유치원 하부 공간을 오히려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기능 제시

11 지속가능 생활권 공공디자인

시설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네덜란드_방음벽 (Acoustic Barrier)

수행 : ONL(Oosterhuis_Lénárd)

Acoustic Barrier 프로젝트는 교통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투명성과 패턴을 활용해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한 방음벽 디자인

기능 중심 시설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더해,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 인프라









01 중국_오렌지 펜스 일반적 펜스를 공간 구조로 재구성하여 안전 공간 확장
02 네덜란드_펀칭 펜스 펀칭 펜스를 통해 시설의 경계를 차단 요소가 아닌 연결로 가능
03 일본_레이메이 코바시 육교 도쿄 수변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 체류와 조망 환경 제공
04 영국_헬로 램프 포스트 고유코드번호를 통해 시설물과 대화하는 경험 제공

9 인프라 품질·혁신 공공디자인

기능을 넘어 도시 아이콘으로







중국_지하철 환기구 파빌리온 (Shenzhen Metro Ventilation Pavilion) 수행 : Mur Mur Lab

기반시설 중심의 **환기구를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도시 구조물로 재해석한 사례**
패턴화된 입면과 조형적 외관을 적용하여 시각적 거부감을 줄였으며, **주변 도시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 인프라 조성**









01 중국_환기구 타워 지하철 환기구를 조형적 공공인프라로 재해석
02 스페인_지하철 출입구 유리소재로 지상과 지하의 연결을 시각적으로 강조
03 영국_루프 가든 지하철 출입구와 역사 상부를 연결해 도시공원으로 조성
04 파리_지하철 출입구 도시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공디자인 요소로 확장

7 에너지 효율 운영 공공디자인

일상적인 공간의 즐거움 더해보기







싱가포르_주롱 스마트 버스 정류장 (Project Bus Stop) 수행 : 도시재개발청(URA), DP Architects

무료 Wi-Fi, 충전, 실시간 정보, 녹화, 자전거 거치, 그린루프를 결합해 대기공간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기술, 친환경, 즐거움을 통합한 혁신적인 미래형 버스 정류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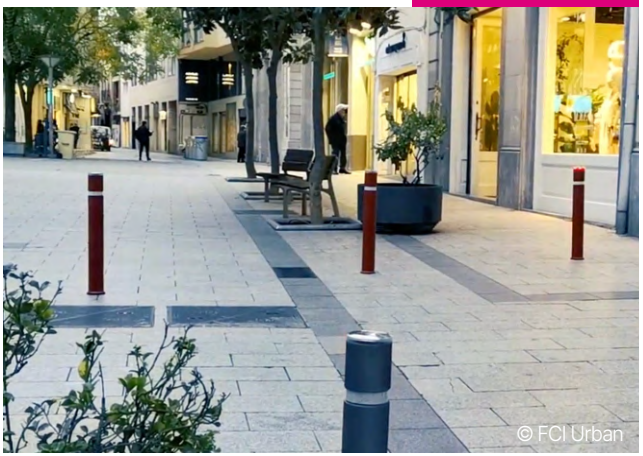


01 네덜란드_친환경 정류장 태양광 패널 및 ETFE 소재를 통해 자체적 전력의 정류장
02 네덜란드_꿀벌 버스 정류장 빗물 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쾌적한 도시 조성
03 이탈리아_비시티(Bicity)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전력 공급 및 대형 자전거 주차장
04 네덜란드_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을 통해 철도역과 도심 연결 및 이동 제공

10 격차 완화·포용 공공디자인

시설물로 시각적인 보행 안전 유도하기







스페인_스마트 볼라드 시스템 수행 : FCI Urban

교통량 및 기상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와 자율신호 기술 연계

차량과 보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시설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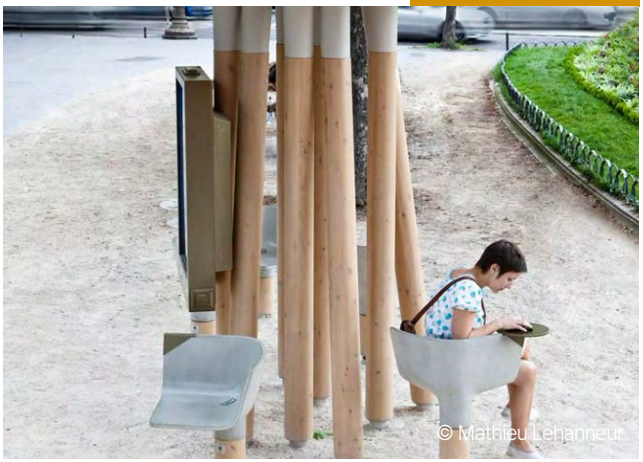


01 호주_더 굿즈 라인 폐철도 재생으로 철도의 직선적인 형태를 반영한 선형 조명
02 대만_보행 가로등 직선적인 가로등의 연속 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보행 유도
03 뉴욕_하이라인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보행로 조명 조성
04 영국_킹스 크로스 스퀘어 방치되었던 역사 앞을 조명을 통해 범죄예방 및 공간 활성화

12 순환·유지관리 공공디자인

휴게시설물로 새로운 경험 제공하기







파리_친환경 디지털 휴게시설 (Escale Numérique) 수행 : 마티외 르아뇌르, 제이시데코

파리의 스마트 가구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로, 마티외 르아뇌르(Mathieu Lehanneur)가 JCDecaux와 협력 제작
샹젤리제 원형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술(디지털)과 자연(녹지)을 결합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 사례**









01 중국_파고라 쉘터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의 휴게공간
02 프랑스_에펠 판매대 내구성 높은 재료와 구조의 모듈식 가로판매대
03 홍콩_하버 판매대 로봇 팔이 설치된 기동식 키오스크
04 중국_기후 벤치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그늘막

13 기후·재난안심 공공디자인

시설물로 지역 안전 대응하기









일본_방재가구 수행 : GOMOGY

재난 방지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기반을 구축하는 제품으로 경관에 잘 어우디는 디자인이면서도, 비상시에는 다양한 방재 기능으로 역할 수행

재해 시에는 벤치가 가마솥이 되고, 방재용 물품보관함, 화장실이 되는 가변형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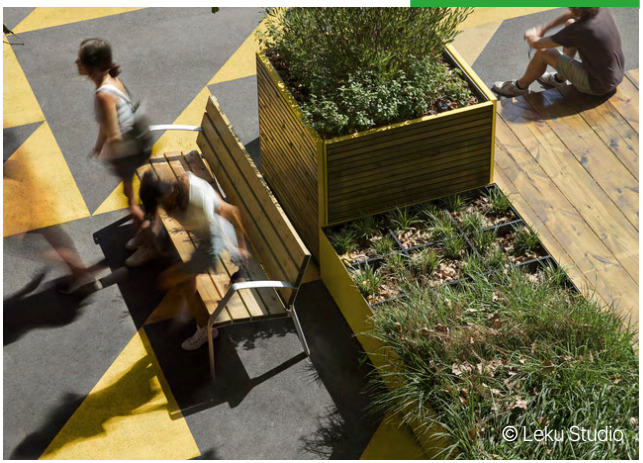


01 네덜란드_타이드 파크 항구 항만의 썰물과 밀물을 이용하여 수변 방재 예방
02 덴마크_산트 켈즈 광장 호우 시 빗물을 저장 및 지연시켜 홍수 예방 및 휴게공간 제공
03 일본_미야타 방재공원 재난 시 간이 화로로 활용 가능한 방재벤치
04 네덜란드_워터스퀘어 일상 공공공간으로 활용되지만, 폭우 시 저류조 역할의 공간

15 생태·경관 보전 공공디자인

녹지 시설물과 공공공간을 이어보기







바르셀로나_산 안토니(Sant Antoni) 슈퍼블록 수행 : Leku Studio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보행자 친화적이고 **녹지가 풍부한 도심 공원 및 광장으로 재구성한 혁신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
가로화분대와 연계한 모듈식 휴게공간과 컬러풀한 그래픽을 활용해 도시 생활을 회복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델 제시









01 호주_가로수보호대 친환경 투수성 포장으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도시 열섬 저하
02 일본_그랜드 몰 파크 녹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공공간의 휴게시설 조성
03 홍콩_스타 스트리트 오래된 가로수 포장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개방적인 공간 조성
04 중국_고선 공원 지형의 높이을 활용하여 계단식 테라스 및 가로수 환경 조성

11 지속가능 생활권 공공디자인

정보전달에서 새로운 매체로 설계하기







미국_워킹뉴욕 (WalkNYC) 수행 : 뉴욕시 교통국(NYCDOT), 펜타그램(Pentagram)

도심에서 보행자가 자신의 위치와 주변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안내 체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보행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길 찾기를 넘어 뉴욕의 도시 브랜딩을 시각적 표현









01 호주_자전거 안내 표지 자전거 우선 도로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 표지판 개발
02 뉴욕_하이라인 안내표지 산업 구조물과 공원 환경에 비슷한 표지판 디자인으로 안내
03 수원시_미디어파사드 문화재 건축물 외벽을 활용한 공공미술 환경 조성
04 연천군_재인폭포 지역 문화의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10 격차 완화·포용 공공디자인

모두를 위한 공공용품 고려하기







일본_마마로(mamaro) 이동식 수유실 수행 : Trim

1인용 독립 공간 형태로 계획되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일본 스타트업 Trim(트림)사가 개발한 **공공 수유시설**
2017년 첫 설치 이후 2024년 기준 일본 전역의 기차역, 쇼핑몰, 공공기관 등에 운영

01



© 경기도

02



© mypltachikawa

03



© 뒤셀도르프 시립 도서관

04



© 성남시

01 **경기도_재난 안전 키트** 재난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키트 제작
02 **일본_공공 유아차** 유아차가 없을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유아차 제공
03 **독일_사물 도서관** 물건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대여가능한 지속가능 협력 도서관
04 **성남시_복지용구 공유센터**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지원할 때 필요한 용구를 지원

3

체크해보기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단계 심의 중점 항목 참고

심의 255

체크리스트 260

심의 Point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기본 원칙**(제4조)과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3원칙**(실행중심, 지역맞춤, 미래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심의평가표 중심의 심의**가 진행됩니다. **공통 심의기준을 확인해보고, 심의가 필요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세요.**

Point 1.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관련 법령, 조례, 설계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이 검토되었으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

Point 2. 공공성 및 안전성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위험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Point 3. 차별없는 보편적 이용성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대상지의 실제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Point 4. 지역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대상지의 역사, 정체성, 특성에 대한 분석 도출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색채, 재질, 형태, 배치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Point 5. 실현 가능한 유지관리 계획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실제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유지관리 주체와 방식이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평가

심의 Tip !

경기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된 공공공간의 공통 심의 Point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심의가 필요한 세부항목을 찾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세요.

→

심의자료 작성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파일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바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의도서 작성하기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 심의도서를 작성하고, **심의도서 예시(안)을 참고해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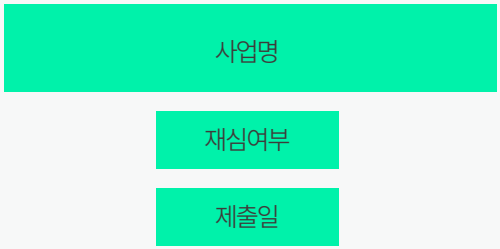
심의 작성 기준

- 심의도서는 무선제본하여 pdf 파일, 조치계획 한글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 재심의 시 설계 변경 전 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를 첨부한다.
- 기타 추가 도서는 업체에서 판단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심의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한다.

심의 도서 공통 예시(안)

slide1

표지



- 심의를 받은 해당 사업명 및 제출일을 작성합니다.

slid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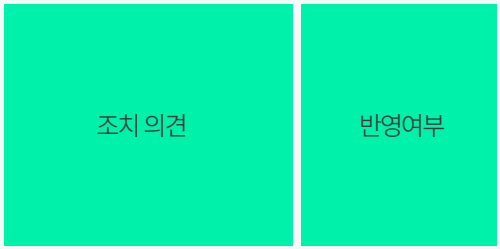
목차



- 심의도서의 전체 구성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slide3

조치계획



- 조치 의견 및 대응 방향과 반영 여부를 제시합니다.

slide4

조치계획 반영안



- 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 내용과 개선 결과를 비교 및 정리합니다.

심의 도서 공통 예시(안)

slide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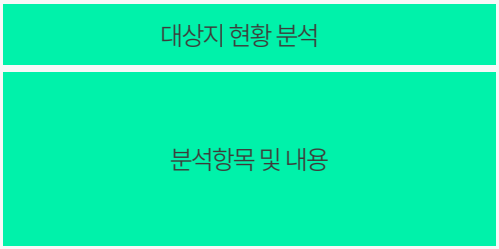
사업 개요



-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등 사업의 종합적인 개요를 작성합니다.

slide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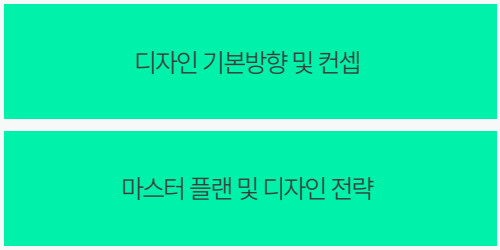
현황 조사 및 분석



- 250p의 심의 유형별 권장 항목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slide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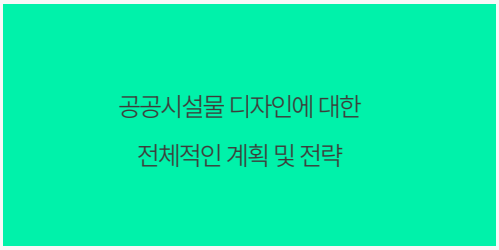
디자인 방향 및 컨셉



- 디자인의 적용 방향성과 컨셉 및 전략을 제시합니다.

slid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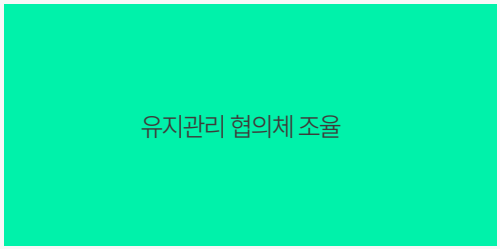
디자인 기본계획



-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slid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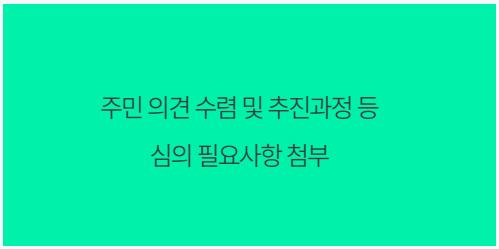
유지관리 방안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협의체 등의 조율 사항을 제시합니다.

slide10

추가 사항



-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보완 자료를 제시합니다.

심의 유형별 권장 작성 항목

심의 유형별 검토사항을 확인하여 안건에 적합한 공통 및 권장 내용을 보완합니다. 또한 관련 공공데이터와 참고자료를 활용해 심의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유형별 권장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지 특성에 맞는 항목은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간	• **보행량 분석**	대상지 규모에 따른 접근성 및 보행량 확인
	• **차량 통행량 분석**	대상지의 보행 안전 저해 요인 및 위험 구간 도출
	• **교통과 보행 충돌 위험 분석**	사고 집중 구간 및 유형별 위험 요소 파악
	•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 현황 분석**	주정차 및 기타 적치물로 인한 보행 저해 요소 확인
	• **주변 상권 및 업종 분포 분석**	주요 이용층의 활동 및 공간의 연계되는 환경 분석
	• **공간의 기능 분석**	공원·광장·수변공간이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지 파악
	• **녹지 및 생태 분석**	공간의 생태·식재·환경의 정도 및 특성을 파악
	• **그늘 및 일조 시간 분석**	휴식 및 시간대별 이용 가능 환경 도출
	• **휴게시설 현황 분석**	휴게시설의 현황 및 이용 편의 확인
	• **계절별 이용패턴 분석**	계절 변화에 따른 이용 특성 확인
공공건축물	• **건축물 입지 적정성**	해당 건축물이 지역 내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분석
	• **진출입 이용자 동선 분석**	건물의 공간별 이용 밀도 및 혼잡도 도출
	• **체류시간 및 이용 패턴 분석**	이용자, 긴급차량 등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는지 분석
	• **이용편의 분석**	민원, 관람, 대기, 안내 등의 이용이 편리한지 분석
	• **안전 및 방재 분석**	소방 접근, 범죄예방, 야간 안전 등 안전성을 분석

※ 사업 대상지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권장 분석 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분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수행중인 사업의 대상지에 필요한 조사 분석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 **설치 필요성 분석**	해당 대상지의 시설물이 실제로 필요한지 분석
	• **재질 및 내구성 분석**	파손·오염·부식에 견디는 재료인지 검토
	• **구조물 안전성 및 노후도 분석**	시설물의 안전 및 노후 상태 확인
	•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분석**	주변 공간 및 경관과의 조화 여부 확인
	• **기후 및 환경 대응성 분석**	기후 및 환경에 대응이 되는 시설물인 지 확인
	• **민원 및 사용량 분석**	시설물 관련 민원 및 사용량 확인
공공매체	• **가독성 및 인지성 분석**	글자 크기, 서체, 대비 및 즉시 이해할 수 있는지 분석
	• **위치 및 배치 분석**	동선 상 표지판, 디지털매체 등의 위치 및 배치의 분석
	• **시각혼잡 및 안전성 분석**	사인, 그래픽 등이 과도하여 경관 및 미관 저해 분석
	• **빛공해 분석**	주변 주거지 및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분석
	• **유지관리 분석**	패널 교체, 화면 관리 등 갱신 및 유지관리 분석

※ 사업 대상지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권장 분석 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 경기 데이터드림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 / 생활안전지도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한강홍수통제소] 국가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유동인구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차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생활도로, 보호구역, 교차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교행하는 구간은 대상지 여건에 따라 속도저감 계획을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차량 동선이 혼재하는 구간은 차로 구성, 노면표시, 유도선 등을 통해 이동 질서를 명확히 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가각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부피가 큰 시설물, 과도한 식재, 불법 주정차 요소를 최소화한다.

야간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횡단 위치와 교차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차도와 보도는 경계석, 식재대, 안전펜스, 볼라드 등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재질, 노면표시, 안전시설 등의 적용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교통안내표지, 신호기, 조명시설 등은 보행공간의 혼잡과 시야 방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합 설치를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교통량, 도로 기능, 안전성을 검토한 후 여유 차도공간이 확인되는 경우 보행공간, 대기공간, 녹지공간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보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보도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도로 여건상 어려운 경우 최소 유효폭과 교행공간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간판, 수목 가지, 돌출물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가 없도록 2.5m 이상의 보도유효높이를 확보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도 포장은 미끄럼 저항이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급격한 횡경사, 단차, 파손,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계획한다.
우천 시 물 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와 배수체계를 검토한다.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차량 통행공간과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가로시설물은 보행 유효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도 외측, 보행장애물존, 공개공지, 유휴공간 등에 배치한다.
자전거도로, 차량 진출입부, 편의시설물이 보행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 구분과 안내표시 적용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포장 재료, 색채, 경계부 마감은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패턴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긴 보도, 경사 구간, 보행약자 이용이 많은 구간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투수블록, 차열포장 등은 대상지 여건에 따라 배수성, 내구성, 유지관리성을 함께 검토한다.

자전거도로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자전거도로는 관련 기준에 따라 기본 폭원을 확보하고, 보행공간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보도 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행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자전거도로는 보행 동선과의 충돌을 줄이도록 계획하고, 대상지 여건에 따라 전용차로, 전용도로, 우선도로 등 적정한 설치 방식을 검토한다.
교차로, 차량 진출입부, 보행량이 많은 구간 등 상충 지점은 노면표시, 색채, 안내사인 등으로 주의 구간을 명확히 표시한다.
맨홀, 배수구, 볼트 노출 등 바퀴걸림과 충돌 위험이 있는 요소는 자전거도로 내 설치를 지양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자전거 주행 중 시야 확보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 2.5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구간은 바닥 포장, 노면표시, 안내사인 등을 통해 이용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미끄럼 저항이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단차·패임·배수불량이 없도록 계획한다.
자전거·PM 거치대는 보행공간 점유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설치를 검토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보호구역의 시작과 범위는 노면표시, 포장, 색채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호구역 내 주요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횡단부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 수목, 시설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고원식 횡단보도, 차도 폭 축소, 포장재 변화, 노면표시 등 차량 속도저감 방안은 대상지 여건에 따라 검토한다.
펜스, 볼라드, 안내시설 등은 보행공간과 차도를 구분하고,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나 이동보조기기의 차도 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호구역 내 보도는 단차, 파손, 미끄럼, 적치물 등 보행 장애요소가 없도록 계획한다.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보행약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은 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기 이용자가 함께 대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평탄성을 확보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보호구역 내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불법 주정차, 적치물, 수목 시야 방해 등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횡단보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보행량·교통량·신호시간 등을 고려하여 폭을 설정한다.

횡단보도 폭은 보행량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4.0m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도로 곡선부, 오르막·내리막 경사 구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를 지양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도와 차도 사이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턱낮춤 시공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한다.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부 및 횡단보도 내에는 맨홀, 트렌치, 배수구 설치를 지양한다.

부득이하게 트렌치 등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바퀴, 유아차, 휠체어, 보행자의 신발이 끼이지 않도록 간격과 단차를 최소화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턱낮춤 시공 시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횡단보도 너비에 맞춰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점형블록은 경계석 및 볼라드 등과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점자블록은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 포장과 대비가 낮은 경우 시인성이 확보되는 색상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횡단보도 포장재는 우천 시 미끄럼이 적은 재질을 적용하고, 야간 시인성이 필요한 구간은 반사성 재질 적용을 검토한다.

공개·전면공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법정 공개공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면적, 위치, 개방성 기준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공개·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주출입부 동선이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턱 높임, 계단, 볼라드, 화단 등으로 공공 이용이 제한되거나 사유지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보차 동선을 구분하고, 연접부에는 포장 구분, 안내표시 등 안전시설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공개·전면공지는 주변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대기, 휴식, 짧은 체류 등 실제 이용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도가 협소한 구간은 공개·전면공지를 활용하여 보행공간 확장을 검토하고, 배전함 등 대형 시설물은 통합 배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은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녹지와 함께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택단지, 공원, 휴양공간 등과 연접한 경우 과도한 담장, 펜스,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낮은 경계 요소와 녹지 활용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공개공지 안내판은 명칭, 면적 및 범위, 이용자 준수사항, 관리주체 등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고,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조성 전후 이용 방식과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일상적 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조를 검토한다.

생활권공원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주요 진출입부와 주동선은 누구나 이동하기 쉽도록 2.0m 이상의 보행폭 확보를 검토한다.

주요 접근로에는 공원의 방향, 거리, 주요 시설 위치를 알 수 있는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출입구와 놀이시설 주변은 어린이의 돌발 행동과 보호자의 관찰을 고려하여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산책로와 보행로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조성하고, 발걸림이나 미끄럼 위험이 없도록 계획한다.

놀이시설, 벤치, 운동기구 등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물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 놀이, 운동, 산책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보행약자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그늘, 보호자 대기공간 등 편의공간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계절 변화와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적용한다.

조경 수목은 동선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과도한 시설 도입보다 녹지와 열린 공간을 우선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휴게시설은 식재, 차양, 수목 등과 연계하여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이용성을 검토한다.

주제공원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공원의 주제와 이용 목적이 진입부, 안내체계, 시설물, 식재 등을 통해 쉽게 인지되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로, 휴게공간, 활동공간은 단차와 보행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평탄하게 조성한다.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용 특성에 따라 휴게공간, 그늘, 대기공간을 검토하여 혼잡과 충돌을 줄인다.

체육공원은 운동, 휴식, 산책 동선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수변공원에 친수 데크,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경우 침수 가능성과 이용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펜스와 구조장비를 설치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어린이, 고령자, 관광객, 초행 이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선에 맞춘 안내체계를 제공한다.

안내와 해설은 과도한 정보 제공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다국어 안내와 QR사인 등을 연계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공원의 상징성은 과도한 조형물이나 장식보다 공간 구조와 이용 경험을 통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역사공원은 유적이나 지형의 원형 보존을 우선하고, 시설물은 역사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색채와 재료를 적용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상습 침수 구역은 고정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물에 젖어도 부식과 노후가 적은 재료 적용을 검토한다.

자연휴양공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주요 접근로, 화장실, 휴게공간 등은 단차 없이 계획하고, 계단이 필요한 구간은 1/18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병행 설치를 검토한다.

급경사지형은 무리한 직선 연결보다 완만한 우회 동선, 휴식참, 경사로를 활용하여 보행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자연성이 높은 공간은 기존 환경을 보전하되, 휴게공간 조성 시 펜스, 경계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검토한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 구간은 사전 점검하고, 필요 시 배수·우회동선·통제계획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진입부, 갈림길, 휴게지점에는 거리, 소요 시간, 난이도,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

폭염과 장거리 이동에 취약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그늘, 음수대, 휴식공간 배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안내사인과 휴게시설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저채도, 무광택 재질을 적용한다.

휴게공간은 전망, 그늘, 바람, 소리 등 자연 체감 요소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은 관람 구간과 보호 구간을 구분하여 생태환경 훼손을 줄인다.

광장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광장은 행사, 대기, 휴식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건축물, 보도, 주변 공공공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광장 중심부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하고, 보행동선과 이용공간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어린이, 고령자,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미끄럼, 단차, 충돌 요소를 줄인다.
야간 개방이 예상되는 경우 조도, 시야 확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검토하고, 주요 보행면은 20lx 이상 확보를 검토한다.
분수광장은 미끄럼이 적은 바닥재를 적용하고, 물 고임과 결빙에 대비한 배수·유지관리 방식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휴게시설은 보행 흐름과 충돌하지 않도록 외부 가장자리나 조망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선큰광장 조성 시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바닥 포장과 색채는 이용 영역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수준으로 적용하고, 과도한 패턴과 색채는 지양한다.
주변 건축물, 경관 요소, 주요 보행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행사와 일상 이용이 모두 필요한 광장은 고정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가변적 활용과 운영 기반을 검토한다.

수변휴양공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수변휴양공간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보전구역과 이용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 보호와 친수 이용이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1/18 이하 경사로 설치를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수변 산책로는 위험 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와 안전시설을 검토한다.
물가 가장자리, 데크 끝단, 계단 진입부 등은 난간, 미끄럼 방지 재료, 경계 마감 등을 적용한다.
집중호우 시기, 심야 등 이용 제한이 필요한 구간은 이용 시간과 통제 정보를 안내판에 표시한다.
하천 추락사고 우려 구간은 연속 조도를 확보하고, 계단이나 단차 구간은 식별이 쉽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인접 보행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필요 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연계를 검토한다.
친수공간과 관찰·휴식 공간은 이용 방식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조성한다.
보호자가 어린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친수공간 주변의 시야를 확보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수변 산책로는 미끄럼을 줄이는 재료를 적용하고, 결빙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지관리가 쉽도록 계획한다.
데크, 난간, 조명, 벤치 등은 노후화에 대비하여 부분 보수와 교체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로비, 민원공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요 이용공간은 단차 없는 동선으로 연결한다.
안내사인은 픽토그램, 색 구분, 쉬운 용어, 다국어 표기를 활용하여 쉽게 인지되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민원 동선은 되돌아감이나 교차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한다.
민원창구는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기공간 및 보행공간과 적정 거리를 확보한다.
비상구, 피난동선, 주요 출입부는 평상시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고령자,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무인민원기기 이용방법과 직원 지원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복지상담, 가족 관련 상담 등 민감한 업무는 독립형 또는 반독립형 상담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건물 외관과 진입부는 위압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도록 개방감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복지, 커뮤니티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과 동선을 구분한다.

소방서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소방차 출동 동선과 민원인 방문 동선은 겹치지 않도록 출입체계를 구분한다.
차량 이동구간과 보행구간은 노면표시, 포장재, 안내사인 등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차량 출동구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과 식재를 최소화한다.
대기공간, 사무공간, 장비공간, 차고는 출동 흐름이 짧고 단순하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출동 동선에는 단차, 적치물 등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방문객 출입구는 소방차 출동구와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 안내사인을 적용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소방서의 인지성은 과도한 외관 장식보다 명확한 진입부, 식별성 있는 사인, 주변과 조화되는 재료로 확보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차고와 장비보관공간은 차량 출입, 장비 적재, 점검,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계 배치한다.
반복 사용과 중량 장비 이동을 고려하여 바닥, 벽, 출입부에는 미끄럼이 적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필요 시 스마트 대응기술과 장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기반과 공간 확장성을 검토한다.

교육·연수시설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주출입구, 복도, 강의실, 휴게공간, 화장실은 무장애 동선으로 연결한다.
복도와 내부공간은 단차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출입체계와 안내사인은 교육 운영, 단체 이용, 방문객 이용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한다.
차량 동선, 보행 동선, 승하차공간은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야간 이용이 예상되는 주요 접근로, 주차장, 주요 출입부는 연속적인 조도를 확보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책상, 의자, 휴게시설 등은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로 계획한다.
안내사인은 쉬운 용어, 픽토그램, 색상 구분, 다국어 표기를 활용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건축물 외부공간은 대상지 여건에 따라 개방형 펜스나 조경 경계를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강의, 토의, 행사, 주민 이용 등 다양한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 구성을 검토한다.

문화시설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주요 관람공간, 안내데스크,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연장 출입구는 일관된 안내체계로 연결한다.
비상구와 피난안내는 평상시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로비, 홀, 공용공간은 관람, 휴식, 안내, 대기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계단, 경사부, 단차, 유리면, 문 주변은 충돌과 낙상 위험이 없도록 계획한다.
공연장은 관람객 동선과 무대 운영 동선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객석은 무대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보호자를 위한 좌석을 설치한다.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 이용이 많은 시설은 쉬운 용어,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성격과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특성이 공간 구성과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과도한 장식보다 시설의 기능과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전시시설은 가벽, 조명, 전력, 영상설비 등이 전시 기획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도록 검토한다.

의료·복지시설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내부공간은 무장애 기준을 적용하고, 주요 출입구와 공용공간은 단차를 최소화한다.
시각약자 이용을 고려하여 주요 출입구, 안내데스크,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요 지점의 유도체계를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계단, 경사부, 단차, 유리면, 문 주변은 충돌과 낙상 위험을 줄이도록 계획한다.
비상구와 피난안내는 평상시에도 쉽게 인식되도록 계획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와 이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출입구, 대기공간, 진료·상담공간의 동선을 명확히 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대기공간은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보호자 동행 이용자를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상담, 진료, 복지지원 등 민감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실내공간은 이용자의 긴장과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광, 식재, 안정감 있는 색채와 재료를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복지시설은 돌봄, 상담, 교육, 휴식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의 성격과 동선을 구분한다.
의료시설은 접수, 대기, 진료, 검사, 수납, 귀가의 흐름이 명확하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체육시설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 확보하고, 출입부와 피난동선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계단식 관람석, 보행데크, 계단 앞 통로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입장, 이동, 관람, 퇴장 동선은 군중 밀집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히 계획한다.
응급대응공간과 구급약품은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와 보조출입구의 역할을 구분하여 응급상황 시 혼선을 줄인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로비, 홀, 복도, 외부 전면공간은 대기와 휴게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휴게공간은 주요 보행동선과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출입부, 광장, 외벽, 사인계획은 체육시설 전체 이미지와 일관되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체육관은 이용 규모와 프로그램에 따라 탈의실, 샤워실, 물품보관실, 대기공간 등 기본 지원공간을 검토한다.
운동공간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 흡수, 미끄럼 방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적용한다.

터미널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버스 승차장과 하차장은 멀리서도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승차 위치, 노선 정보, 출발 시간은 일관된 체계로 제공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버스 승하차 구역은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시내버스, 택시, 철도, 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외부공간을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 보행로, 승하차장, 주요 시설물 주변 조명계획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대합실과 대기공간은 이용 인원, 수하물 이동, 휠체어·유아차 이용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성한다.
고령자와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우선 좌석 배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안내정보는 광고물이나 상업적 정보와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대기공간은 혼잡 시에도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환기와 설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냄새, 소음, 혼잡에 따른 이용 불편을 줄인다.

환경·쓰레기 처리시설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처리공간과 저장공간은 악취, 분진, 오수 등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주 출입구는 반입차량, 관리차량, 방문자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작업차량의 회전, 후진, 대기,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계획한다.

차량 이동구간과 보행구간은 충돌 위험이 없도록 구분한다.

작업자 이동구간은 장비 운영구간과 분리하여 사고 위험을 줄인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방문자 또는 견학 동선이 있는 경우 처리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계획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민 생활권과 맞닿는 경계부는 공정시설의 직접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폐와 완충 계획을 검토한다.

외관과 경계부는 과도한 위압감과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정돈된 이미지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바닥, 벽, 설비 주변은 오염물이 쉽게 달라붙지 않고 세척이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적용한다.

장기간 운영되는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 교체와 일부 증설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공중화장실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남자와 여자 공간은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 보행로에서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장애인 화장실, 오스토메이트 설비, 유아 동반 설비 등은 관련 기준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공중화장실은 주변 보행동선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위치에 배치한다.
야간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 주변 조명, CCTV, 비상벨, 불법촬영 점검시스템 등을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바닥 단차를 최소화하고, 미끄럼과 충돌 위험이 없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휠체어, 유아차, 고령자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안내사인은 남녀 구분, 기저귀교환대, 수유실,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픽토그램과 함께 표시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외부에서도 화장실 기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외벽 디자인을 적용하되, 과도한 그래픽과 상업광고는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바닥, 벽, 세면대, 위생기구 주변은 오염이 쌓이지 않고 청소가 쉬운 재료와 구조로 계획한다.
화장실은 악취, 오수, 누수, 쓰레기 적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교량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교량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시점에서 상부·하부·측면을 함께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난간과 펜스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교량과 도로가 만나는 가각부에는 보행 안전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과도한 연출보다 보행 안전과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하는 기능 조명을 우선 적용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교량에 설치되는 가로등, 보행등, 펜스, 보도 포장 등은 인접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동일 노선 또는 연속 구간은 형태, 재료, 색채가 일관되도록 계획한다.

교량 하부와 부속시설물은 원색·고채도 적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 적용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교대, 교각, 거더, 난간 등 주요 구조부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고, 광고물·슈퍼그래픽·장식용 조형물 적용은 지양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 / 철제 교량 난간

고가차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고가차도는 연속 구간의 구조와 디자인 요소가 일관되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고가차도 하부 조명은 유채색 조명이나 동적 연출을 지양하고, 안전과 시인성 중심으로 계획한다.

고가차도 하부는 불법 적치와 시설물 노후화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점검 방식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하부공간을 보행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보행 안전과 이용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거더, 교각 등 주요 구조부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저광택 재료 적용을 검토한다.

상업·비상업 광고물과 과도한 슈퍼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콘크리트 구조부는 장식적 거푸집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질감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가드레일 / 철제 가드레일

입체교차로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입체교차로의 구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 가로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고려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적 연출과 과도한 조명은 지양하고, 시인성 확보 범위에서 계획한다.
부속시설은 개별 설치보다 구조물과 통합하여 정돈된 경관을 형성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공간과 인접한 구간은 구조물로 인한 시야 차단과 보행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교각, 거더, 램프 등 주요 구조부는 구조 안전을 전제로 위치, 부피, 수량을 검토하여 위압감을 줄인다.
입체교차로와 부속시설의 색채는 원색·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구조물 주변 유휴공간은 대상지 여건에 따라 녹지 연계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가드레일 / 철제 가드레일

지하차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U형 및 박스형 구간의 입면은 차량 이동 시 시각적 단절과 급격한 밝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지하차도 경계부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진입부와 곡선부 사고를 예방한다.
침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설비를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은 방호벽 상부에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치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U형 구간 입면은 시야를 방해하는 그래픽, 특정 이미지, 전통문양, 장식적 거푸집 적용을 지양한다.
진입부, 상부도로, 주변 보행공간을 고려하여 구조물로 인한 경관 단절과 보행 단절을 완화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지하차도 구조물은 재난·침수·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과 유지관리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유도등 / 비상벨 / 도로 조명기구 / 도로 표지

지하보도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출입구는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이동수단을 검토한다.
출입구 설치 후에도 성인 2인이 교행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보도 폭을 확보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공간 구조로 계획한다.
지하보도 계단은 우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재료와 마감을 적용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출입구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접근이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지하보도 출입구는 가능한 경우 건축물 또는 주변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도시공간 연속성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출입구와 내부공간은 폐쇄감을 줄일 수 있도록 밝고 정돈된 마감과 조명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내부 보도는 벽면 청소와 조명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과 공간을 함께 확보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유도등 / 비상벨 / 도로 조명기구 / 도로 표지 / 점자블록

터널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터널 내부와 진출입부는 형태 변화를 최소화하여 운전자 시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터널 진입 시 조명 밝기와 색온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외부와 내부의 밝기 차이를 완화한다.

화재,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피통로와 유도시설 확보를 검토한다.

터널 내부 보도는 조명과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터널 내부 보행로와 차도가 인접한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림막 설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진출입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원색과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터널 내부와 진출입부는 운전자 시야를 분산시키는 그래픽, 색채, 패턴 적용을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터널 내부 보행 안전시설은 지속적인 청소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유도등 / 비상벨 / 도로 조명기구 / 도로 표지

생태통로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도로 구조와 대상 동물의 서식 실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설치 위치·규모·형태를 결정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야생동물이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대상지 여건에 따라 침입방지책과 유도펜스 설치를 검토한다.
접근로에는 야생동물 출현 주의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운전자가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출현 안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야생동물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고광택, 원색 재료는 지양하고 저광택·저채도 재료를 적용한다.
유채색 조명과 색 변화가 있는 조명 연출은 지양한다.
주변 생태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식생 도입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생태통로 구조부는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인공 구조물의 부피감을 줄이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옹벽 블록 / 방호울타리 / 펜스 / 방음벽

보도육교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보도육교는 실제 보행동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와 접근 방식을 검토한다.
계단 표면은 미끄럼 방지 마감을 적용하고, 미끄럼 방지 성능은 45 BPN 이상을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도육교 난간은 보행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1m 이상 높이를 확보한다.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고, 유채색 또는 빛 변화 조명은 지양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노약자,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를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한다.
계단에는 자전거 경사로 등 이동편의 시설물 설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보도육교 입면은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구조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육교 하부 구조물은 보행자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위치와 유효공간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디자인형 울타리 / 핸드레일 / 논슬립

방음벽

공통사항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방음벽은 소음 저감 성능을 우선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 조망을 함께 고려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학교, 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인접 구간은 가능한 경우 소음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이격 설치를 검토한다.

투명 소재 적용 시 조류 충돌과 시인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패턴 처리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자와 인접한 구간은 안전성과 소음 저감 성능을 전제로 개방감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방음벽은 연속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설치구간 간 관계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유지관리에 취약한 조형 장식물 부착은 지양하고 간결한 구조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모듈형 구조를 적용하여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방음벽 / 목재 방음벽 및 방음판 / 반사형 방음벽 및 방음판 / 흡음형 방음벽 및 방음판

방호울타리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차량 충돌과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시설물의 높이와 구조는 관련 기준을 참고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시작부와 끝단부는 차량 충돌 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은 차량 진입과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방호 기능과 설치 높이와 위치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 동선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가로등·신호등·표지판과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변 도로 경관과 조화되도록 형태, 색채, 재료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식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 시야, 수종 높이, 계절감, 유지관리성을 고려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형 구조와 표준화된 규격을 검토한다.

장시간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충돌과 부식에 강한 내식성 재료를 선정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디자인형 울타리 / 차선분리대 / 중앙분리대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낙석방지망

공통사항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낙석 충격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90kJ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 확보를 검토한다.
기초부와 지지 구조는 낙석 충격, 토압, 배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망은 낙석 규모와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망눈 크기와 고정 방식을 적용한다.
경고표지와 안내표지는 안전 인지가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되,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변 산지, 절개면, 녹지 경관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을 적용한다.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안전 인지가 필요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부분 파손이나 변형 발생 시 필요한 구간만 보수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구조를 검토한다.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우선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낙석방지책

석축 및 옹벽

공통사항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옹벽 설치는 사면 안정과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설치 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기존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규모와 높이를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옹벽 높이는 사면 안전 확보 범위 안에서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옹벽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식 또는 계단식 구조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석재, 자연형 블록, 벽면녹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재료와 마감을 검토한다.

원색, 고채도 색상, 과도한 패턴 사용은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이므로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와 마감 방식을 적용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옹벽 /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는 보행 흐름, 환승 동선,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출입구와 환기구는 주요 보행동선, 점자블록, 횡단보도 접근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보행 혼잡이 큰 구간은 외곽 배치나 광장형 공간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출입구 주변은 휠체어, 유아차,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 유효공간을 확보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출입구와 환기구는 시야와 개방감을 해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와 마감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환기구와 부속시설은 점검과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디자인형 울타리 / 핸드레일 / 논슬립 / 점자블록

버스승차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버스승차대는 승하차 위치, 대기공간, 보행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버스 승하차 구역은 보행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승차대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와 규모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고령자, 어린이, 보행약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좌석과 여유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노선 정보와 승차 위치는 쉽게 인지되도록 안내체계를 적용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승차대는 주변 가로시설물과 형태, 색채, 재료가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비, 눈, 햇빛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양, 배수, 청소 등 유지관리 조건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버스 승강장

자전거·PM거치대

공통사항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자전거·PM거치대는 보행 유효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거치대는 보행동선, 점자블록, 횡단보도 접근부와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PM 이용이 많은 구간은 안내사인과 별도 주차공간 마련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환승지점에는 자전거·PM 거치공간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기존 자전거거치대와 함께 배치하는 경우 형태와 색채의 일관성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무단 방치를 줄일 수 있도록 거치 가능 구역과 이용 방법을 명확히 표시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디자인형 울타리 / 자전거보관대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신호등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신호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등은 가능한 통합 설치하여 보행공간의 혼잡을 줄인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은 신호 인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과 식재 위치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약자 이용이 많은 구간은 음향신호, 잔여시간 표시 등 보조 안내수단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신호등 지주는 주변 시설물과 색채·형태가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계획하고, 지주 주변 불법 부착물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신호등 / 신호등주 / 교통신호등 / 바닥형보행신호등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볼라드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볼라드는 차량 진입 위험이 있는 구간에 필요한 위치와 수량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을 고려하여 볼라드 간격은 최소 1.5m 확보를 권장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앵커볼트 등 불필요한 돌출부가 없도록 매립 설치한다.

차량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탄성 재질 또는 완충 구조 적용을 검토한다.

보도가 경사면인 경우 볼라드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설치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시각약자가 볼라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 약 30cm 지점에 점자블록 설치를 검토한다.

보행자가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연속되는 보행구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거리 경관의 일체감을 확보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반사시트 또는 반사체를 적용하되,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볼라드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펜스·가드레일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관련 설치 기준, 성능 기준 및 안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구조로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와 구조로 계획한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 곡선부, 교차부 등은 반사판 또는 반사시트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체결부, 돌출부, 날카로운 마감 등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보행공간 및 이용 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동일 구간 및 연속 구간 내 형태, 색채, 재료가 과도하게 이질적이지 않도록 통일한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도한 장식, 광고적 요소, 불필요한 시각 요소를 지양한다.

시·군 상징물, 캐릭터, 특정 이미지를 직접 형상화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고광택 스테인리스 등 강한 반사가 발생하는 재료는 주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디자인형 울타리 / 차선분리대 / 중앙분리대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공통사항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특성과 이용시간에 맞는 조도를 확보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조도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야간 이용이 예상되는 휴게공간은 조명시설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조명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와 각도로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접이식 배너걸이, 깃봉 등 부속시설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머리가 부딪히지 않는 높이를 고려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무광의 저채도 색채를 적용하여 주변 가로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조형 장식물, 직접적인 지역 상징물 등 기능 외 요소는 최소화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높은 재료와 구조를 적용한다.
지주 하부 고정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통일성 있는 하부 마감재를 적용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가로등 / 보안등 / 경관조명기구 / 투광등기구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트렌치

공통사항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보차 구분이 있는 경우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고, 보차 구분이 없는 경우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자의 신발굽, 유아차, 휠체어 바퀴 등이 빠지지 않는 간격으로 설계한다.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하고 유지한다.

트렌치는 끼임과 변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약자와 유아차 이용이 많은 구간은 단차, 미끄럼, 바퀴 끼임을 최소화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별도 도색이나 분체도장보다 시설물 자체의 재질과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내구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오염 및 침전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트렌치 / 그레이팅 덮개 / 스틸 그레이팅

벤치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좌면 높이는 약 400~450mm를 기본 기준으로 검토하여 앉고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벤치는 보행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보도 외측 또는 여유공간에 배치하고, 보도 유효폭 2.0m 이상 확보를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고, 고정장치 등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가로등, 보행등 등 조명시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공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등받이, 팔걸이, 테이블 등 부가 기능을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과도한 장식이나 상징물이 강조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와 구조로 계획한다.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적용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우천 후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와 건조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벤치 / 옥외용 벤치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그늘막·파고라

공통사항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그늘막·파고라는 일조 방향, 그늘 형성 범위, 이용 수요를 검토하여 위치와 크기를 계획한다.

신호 대기, 보행 중 휴식, 공원 내 체류 등 그늘이 필요한 위치를 우선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자 시야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야간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조명시설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벤치 등 체류 가능한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장식적 형태보다 차양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상부 차양은 낙엽, 먼지, 우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

파손이나 노후 발생 시 부분 교체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차양 / 파라솔 / 퍼걸러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휴지통

공통사항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휴지통은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시설물의 용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시설물, 수목, 구조물 등에 가려지지 않는 개방된 위치에 설치한다.

볼트, 고정장치 등 외부 돌출 요소는 최소화하고, 모서리는 곡면으로 마감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휴지통은 냄새와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게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투입구가 상부를 향하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와 위생 문제를 줄인다.

오염과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상부 적치를 줄일 수 있도록 경사 구조 등 적정한 형태를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쓰레기통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음수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높이와 구조를 검토한다.

바닥에 배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음수대 주변 바닥은 물 고임이 없도록 배수 경사를 검토하고, 미끄럼을 줄이는 마감재를 적용한다.

모서리는 곡면 형태로 마감하여 신체 접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배수면은 주변 바닥 포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휠체어와 유아차 접근 시 걸림이 없도록 계획한다.

사용 방법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구조를 적용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부피감과 설치 면적을 최소화한 간결한 구조로 설계한다.

지나치게 큰 규모나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는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급수 방식과 사용 중 접촉 부위를 고려하여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확보한다.

물받이와 물이 직접 닿는 부분은 위생성과 내부식성이 높은 재료를 적용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음수기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가로판매대

공통사항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자원 절감,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신규 가로판매대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도 유효폭 4m 이상 확보가 가능한 위치를 우선 검토한다.

시설물 이용으로 병목 구간이 발생하거나 보행 및 자전거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판매 행위가 보행공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외부 진열과 적치를 최소화한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행 방향과 대기공간을 함께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설치 위치는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을 줄이고, 보행 흐름이 유지되는 외측 공간을 우선 활용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시설물 외벽에는 과도한 광고물, 그래픽, 장식 적용을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외부 환경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와 색채가 장기간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판매 물품의 외부 노출과 적치를 줄일 수 있도록 내부 수납공간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이동식 초소

무인 키오스크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노약자를 고려하여 조작부 높이와 전면 접근공간을 확보한다.

음성 안내, 큰 글씨, 다국어 안내, 픽토그램 등 필요한 안내수단을 검토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은 지양하고, 공간 외측이나 여유공간에 배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대기공간과 사용공간은 보행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화면 구성은 단순하고 명확한 단계로 정리하여 주요 기능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화면 각도와 설치 방향을 검토하여 화면 가시성을 확보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동일 건물 및 구간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통일된 형태와 외관으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화면과 조작부는 위생관리와 점검이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무인안내시스템 /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안내소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주요 보행동선, 관광동선, 대중교통 접근 지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휠체어 이용자와 교통약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바닥 단차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 설치를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내부 진입이 어려운 이용자도 기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창구와 안내판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외국인 이용을 고려하여 문자 정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픽토그램을 함께 적용한다.

키오스크 설치 시 다국어 정보와 음성 서비스 연계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외관의 불필요한 그래픽과 장식 요소는 최소화하여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지역 상징성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직접적인 상징물이나 이미지는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안내소 외관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되, 시설 인지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이동식 초소

안내시설물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안내시설물은 보행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보행유효폭을 확보한 위치에 설치하고, 불필요한 돌출 요소는 최소화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현수막게시대는 가로시설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 안전과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 방향과 정보면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고, 원색과 고채도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상징적인 그래픽과 장식 적용은 지양하고, 안내 기능과 내용에 집중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안내시설물은 가능한 경우 가로등 등 기존 지주형 시설과 통합 설치를 검토한다.

동일 기능의 안내시설물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시설물 위치와 정보 내용을 함께 검토한다.

파손이나 노후 시 부분 보수가 가능한 구조를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안내판 / 표지판

맨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맨홀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동일 기능의 맨홀은 가능한 범위에서 표기 방식과 마감 기준을 통일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차도에 설치하는 맨홀은 도로면과 높이를 맞추어 차량 통행 시 충격과 소음을 줄이도록 계획한다.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고, 침하나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우천 시 미끄럼을 줄이기 위해 맨홀 뚜껑 상부에는 요철 패턴 적용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도용 맨홀은 보도 포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 연속성을 확보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보도용 맨홀은 동일한 포장재를 적용하거나 주변 포장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계획한다.
지자체 명칭이나 슬로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장식적 디자인은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맨홀의 용도와 관리주체는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정확히 표기한다.
뚜껑 개폐 손잡이는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주철 맨홀 뚜껑 / 철제 맨홀

배전함·제어함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배전함·제어함은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도유효폭 2.0m 이상 확보를 우선 검토한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통행 흐름을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하부 결합부는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점검 및 개폐가 용이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가로등제어함은 보행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과도한 그래픽, 광고물, 장식적 패턴은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외관으로 계획한다.

연속하여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동일한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설치 시 볼트나 콘크리트 받침대 등 고정 시설물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받침대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배전함과 받침대의 너비를 일치시켜 시각적 돌출을 줄인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교통관제시스템 / 폐쇄형 배전반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방재시설·제설함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방재시설은 긴급상황 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제설함은 교통량, 결빙 우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고려하여 설치 수량과 위치를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으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를 우선 검토한다.
야간과 악천후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반사 요소를 적용한다.
비상 시 누구나 쉽게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폐 구조를 단순하게 계획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활용하여 용도와 내용물을 명확히 구분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부피와 설치 면적을 최소화한다.
주변 식재, 구조물, 광고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간섭 여부를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와 배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방재시설과 제설함은 용도별 장비가 혼재되지 않도록 수납 구조와 관리 방식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제설함 / 수동식 소화기

방범용 감시카메라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가능한 경우 가로등, 보행등 등 기존 지주형 시설과 통합 설치를 우선 검토한다.
CCTV 종류, 개인정보 안내, 설치목적, 관리주체 등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재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수목, 간판, 구조물 등에 의해 촬영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검토한다.
야간과 저조도 환경에서는 감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명시설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필요 시 안내표지, 비상벨, 조명 등과 연계하여 안전 기능을 보완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별도 지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고광택 금속재질 사용은 지양하고, 눈부심과 반사를 줄이는 무광택 마감을 검토한다.
장식과 불필요한 그래픽은 제한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외관으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계획하고, 오염과 훼손에 강한 재료를 적용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보안용 카메라 / 영상 감시 장치

가로수보호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가로수보호대는 보행공간 내 간섭을 최소화하여 정돈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보도와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보조기구, 구두굽, 어린이 발, 휠체어 바퀴가 틈에 끼지 않도록 설계한다.
상부 마감재는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보강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반복 설치 시 가로경관과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고려한다.
보도블록과 조화되는 재질 또는 저채도 색상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가로수 지지대와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내구성이 약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고광택 재질은 지양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가로수보호대 / 가로수 보호판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가로화분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가로화분대는 보도 유효폭 3m 이상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보행동선 외측 배치를 권장한다.

화분대 간격은 보행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1.5m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및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보행 동선을 향한 모서리는 부드럽게 처리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흐름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시설물 표면에 지자체 로고, 캐릭터 등 과도한 시각적 그래픽은 지양한다.

석재, 목재 등 재료 본연의 색감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이동이 용이하고 급수 및 배수가 원활한 구조로 계획한다.

내부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적용을 검토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화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 바로가기
다양한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확인해보세요.

정보매체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정보매체는 전달 목적, 정보 위계, 표기 방식을 명확히 계획한다.
서체, 색상, 픽토그램, 설치 높이와 위치는 일관된 기준으로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안내사인, 지도, 전광판 등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정보는 줄이고, 필요한 정보가 쉽게 인지되도록 정리한다.
디지털 정보매체는 야간 눈부심과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기와 표출 방식을 검토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큰 글씨, 고대비 색상, 쉬운 언어,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점자·촉지도, 음성안내 등 보조 안내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검토하고, 시각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정보 표기부는 오염, 탈색, 훼손에 대응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정보 변경과 갱신이 필요한 경우 교체와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조달청 검색 키워드 • 안내판 / 표지판 / 전광판

공공미술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공공미술은 관련 법령, 설치 목적, 공공공간의 성격을 함께 검토하여 계획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조형물은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개방된 공공공간 내 설치를 우선 검토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이용자 밀집 구간에서는 돌출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구조를 지양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공공미술은 이용자의 감상 방식과 공간 이용 흐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접촉 가능한 부위는 날카롭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 규모는 대상지와 주변 공간 위계에 맞게 계획한다.

지역의 장소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되, 주변 공간과 충돌하는 과도한 시각적 연출은 지양한다.

미디어아트는 주변 환경과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와 밝기로 계획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적용한다.

유지관리 주기, 보수 책임 주체, 콘텐츠 교체 여부를 사전에 정한다.

시각이미지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시각이미지는 정보 전달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후 계획한다.

적용 목적에 따라 색채, 서체, 픽토그램 체계를 정리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전체 크기와 서체 비율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한다.

공공공간의 기존 기능과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검토한다.

복잡한 문양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를 적용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특성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반영한다.

지나친 원색이나 고채도 색상 사용은 지양한다.

지자체 내부의 계획 방향을 정리한 후 일관된 이미지 체계 적용을 검토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벽화, 슈퍼그래픽 등은 탈색, 오염, 박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와 시공 방식을 검토한다.

유지관리 주기, 재도색 기준, 보수 책임 주체를 사전에 정한다.

공공용품

공통사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을 검토한다.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공공용품은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공간의 이용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용품의 종류, 수량, 배치 방식을 검토한다.
공공성 및 안전성
안전장비와 위생용품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안내표기를 적용한다.
날카로운 모서리, 미끄러운 표면, 파손 우려가 있는 재료 사용은 지양한다.
보편적 이용성 및 대상지 이용자 특성 반영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동일 기능의 용품은 일관된 위치와 방식으로 배치한다.
지역성 반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안전 및 위생 용품은 기능 구분이 가능하도록 색채와 표시를 검토한다.
과도한 원색 사용이나 시각적 혼란을 유발하는 색채는 지양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유지·관리 주체방식
사용 빈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적용한다.
직접 접촉하는 용품은 위생관리와 소독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오염, 마모, 파손에 강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발 행 처 **경기도**

발행부서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강길순 건축정책과장

장금숙 공공디자인팀장

박지애 주무관

발행일자 2026. 5.

수행기관 **이오디 디자인 연구소**

엄지연

임수연

김아현

김지은

이상미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